

古文으로 보는

海印寺의 足跡

法雲 柳基松 編

傳統寺刹研究會



김윤겸(金允謙)¹⁾의 해인사(海印寺)

1) 김윤겸(金允謙) 1711(숙종37) ~ 1775(영조51)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극양(克讓), 호는 진재(眞宰)·산초(山樵)·묵초(默樵)이며, 관직은 진주 동쪽 소촌역(召村驛)의 찰방을 지냈다. 서얼(庶孽)로서 찰방에 등용된 것은 조선 후기의 서얼소통(庶孽疏通)과 명문 집안 출신이라는 후광을 입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금강산·한양 근교·단양·영남 지방 등 명승을 여행하면서 진경산수 제작에 몰두하였다. 정선이나 겸재파 화가들의 경향에서 벗어나 자신의 화풍을 갖추었다. 주로 바다·바위와 물이 흐르는 계곡을 소재로 선택하고 있다. 실경을 대담하게 생략한 근대적 화면 구성이 특징적이다. 또한 수묵과 담채의 가벼운 표현과 바위의 붓질을 중복하여 입체감을 가미시킨 표현은 서구적인 수채화를 연상하게 한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당대의 대가인 정선이나 강세황(姜世晃)의 화격(畫格)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대표작으로는 동산계정도(東山溪亭圖, 간송미술관 소장), 금강산화첩(金剛山畵帖,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진경산수화첩(眞景山水畵帖,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총수산도(慈秀山圖,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영남명승기행사경첩(嶺南名勝紀行寫景帖,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 등이 전해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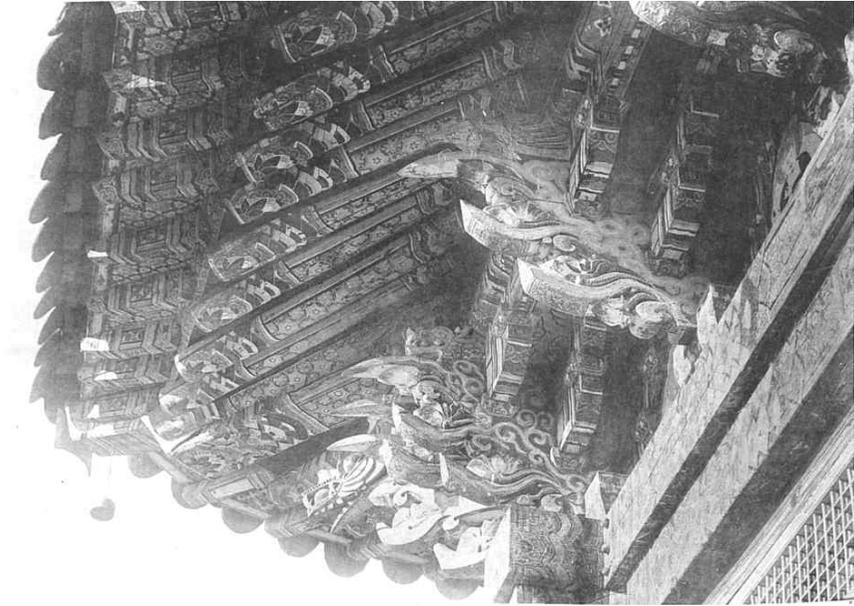
지승(地乘) 지도 [1780년경]의 합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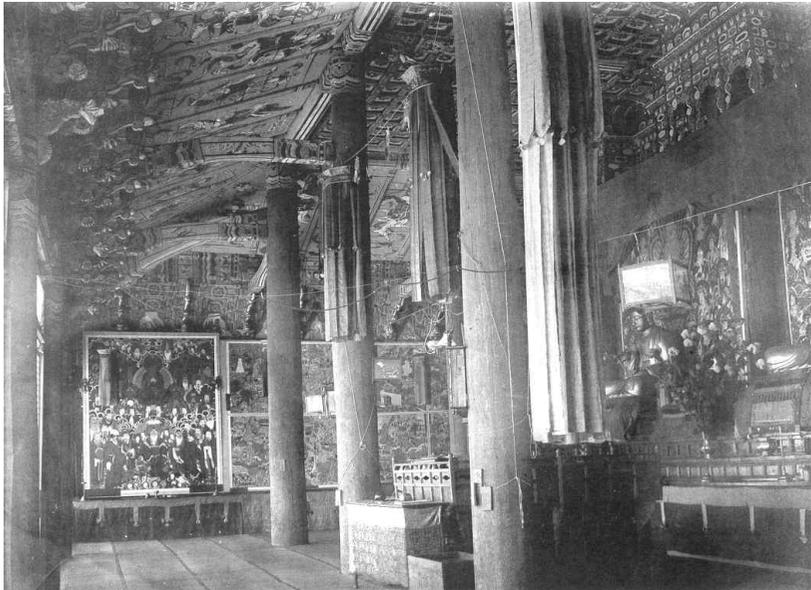
해인사 전경
[조선고적도보 13, 193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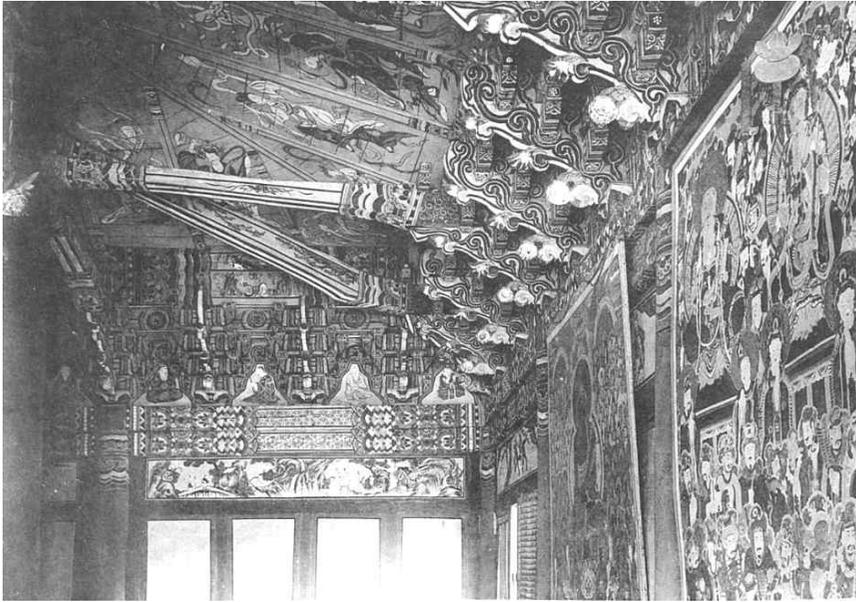
해인사 대적광전
[조선고적도보 13, 1934년]



해인사 대적광전 추녀
[조선고적도보 13, 1934년]



해인사 대적광전 내부
[조선고적도보 13, 1934년]



해인사 대적광전 천정
[조선고적도보 13, 1934년]



해인사 구광루
[조선고적도보 13, 1934년]



해인사 명부전, 조사전, 해행당
[조선고적도보 13, 1934년]



해인사 대장경각
[조선고적도보 7, 19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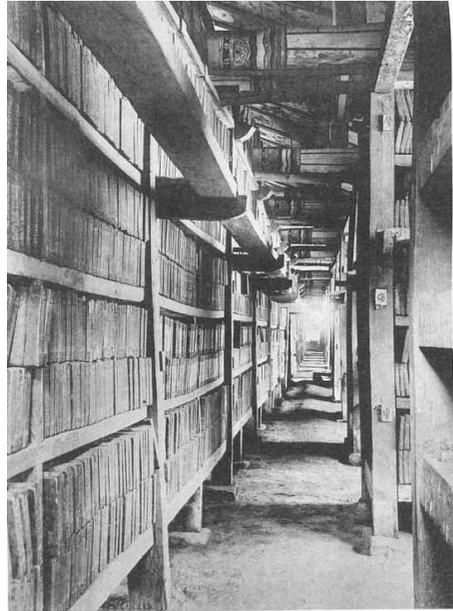
해인사 대장경각 원경
[조선고적도보 13, 1934년]



해인사 대장경각 추녀
[조선고적도보 13, 1934년]



대장경각 앞동 내부 앞면
[조선고적도보 7, 1920년]



대장경각 앞동 내부 후면
[조선고적도보 7, 1920년]



대장경판 후면
[조선고적도보 7, 1920년]



大倭若波羅多經卷第一
 大唐三藏聖教序 太宗文皇帝製
 蓋聞二儀有像願覆載以含生四時
 無形潛寒暑以化物是以觀天鑑地
 履歷皆識其端明陰陽習悟冥冥窮
 其款然而天地苞乎陰陽而身識者
 以其有像也陰陽處乎天地而難窮
 者以其無形也故知像顯可徵難悉
 不惑形潛莫觀在智猶迷况手佛道
 崇虛未幽控寂引濟萬品共仰十方
 則跡於宇宙細之則攝於毫釐非誠
 無生歷千劫而不古若隱若顯運百
 權而長今妙道凝玄運之莫知其陰
 法茫茫寂抱之莫測其源故知蠢蠢
 凡愚區區庸鄙投其首起能無疑
 者其然則大教之興基乎西土騰漢
 庭而故夢照東域而遠蒼生者分形
 分跡之時言天地而成化當常現常
 之世民仰德而知道及乎晦影歸真
 邊俄越世空容掩色不鏡三千之光
 麗承開圖空跡四八之稱於定微言

대장경판[상] 및 인쇄물[하]
 [조선고적도보 7, 1920년]



해인사 흥하문
 [조선고적도보 13, 1934년]



해인사 흥하문 천정
[조선고적도보 13, 1934년]



해인사 송운대사 부도
[조선고적도보 13, 1934년]



그림 20 해인사 홍제암 부도군
[조선고적도보 13, 1934년]



적광전 앞 3층석탑
[조선고적도보 4, 1916년]



적홍전문 측 3층석탑
[조선고적도보 4, 1916년]



해인사 석등
[조선고적도보 4, 1916년]



해인사 금강저(金剛杵)
[조선고적도보 7, 1920년]

머리말

해인사(海印寺)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2교구 본사(本寺)로서 신라 애장왕3(802)년에 왕과 왕후의 도움으로 순응(順應)과 이정(利貞) 두 스님이 창건하였다. 그 후 신라 말에 희랑(希朗) 대사가 왕건(王建)을 도운 공으로 전(田) 500결(結)을 시주받고 사우(寺宇)를 중건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사우(寺宇)의 중수기록은 전하지 않으며, 조선시대에는 태조2(1393)년에 해인사를 여러 차례 중수하였고, 이 때 고려대장경판(高麗大藏經板)이 해인사에 봉안되어 법보사찰로 유명하게 되었다.

또한 세조3(1458)년에 경상감사에게 명하여 판전(板殿) 40칸을 다시 짓게 하였고 그 후 성종19(1488)년 왕실의 후임능로 학조(學祖)대사가 판전 30칸을 짓고 보안당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해인사는 임진왜란 때 전화(戰禍)를 면하였고, 그 후 일곱 번의 큰 화재가 있었으나 판전(版殿)은 피해가 없었다. 해인사에서 비교적 오랜 건물은 대적광전, 응진전, 퇴설당, 구광루, 해탈문 등이며, 2009년 12월 21일 사적 제504호로 지정되었다.

이와 같이 해인사는 신라 때 창건된 고찰(古刹)로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선현(先賢)들께서 해인사에 관한 시(詩), 산문(散文) 등을 많이 남겼다.

따라서 본고는 해인사의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2015년에 편집한 삼보수찰고문헌집(三寶首刹古文獻集, 通度寺·海印寺·松廣寺)에 수록된 “해인사 고문헌집”을 보완하고자 조선고적도보에서 해인사의 옛 사진과 불교전서에서 해인사와 연관되는 문헌을 발췌하여 “고문으로 보는 해인사의 족적”이란 표제로 재편집을 한 것이다.

2017. 11.

編者 謹書

목 차

1. 개요(概要) 1
 - 1.1 연혁(沿革) 1
 - 1.2 연보(年譜) 2
2. 사서(史書) 7
 - 2.1 삼국사기(三國史記) 7
 - 2.2 삼국유사(三國遺事) 7
 - 2.3 고려사(高麗史) 8
 - 2.4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10
 - 2.5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1
 - 2.6 여지도서(輿地圖書) 13
 - 2.7 범우고(梵宇攷) 14
 - 2.8 합천군여지(陝川郡輿誌) 15
 - 2.9 합천군지(陝川郡誌) 15
 - 2.10 조선사찰삼십일본산사진첩(朝鮮寺刹三十一本山寫眞帖) 15
 - 2.11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16
3. 시(詩) 29
 - 3.1 해인사(海印寺) 29
 - 1) 송추옥섬쇄사해인사(送秋玉蟾曬史海印寺) 29
 - 2) 차운제해인사(次韻題海印寺) 31
 - 3) 송추옥섬쇄사해인사(送秋玉蟾曬史海印寺) 31
 - 4) 송최덕성사관쇄사해인사(送崔德成史官曬史海印寺) 31
 - 5) 송라옹제자인대장해인사(送懶翁弟子印大藏海印寺) 32
 - 6) 추일유해인사증전사관(秋日遊海印寺贈全史官) 32
 - 7) 수암문장로인장경우해인사희정(睡菴文長老印藏經于海印寺戲呈) 33
 - 8) 송이사관백유쇄사해인사(送李史官伯由晒史海印寺) 34
 - 9) 해인사(海印寺) 34

- 10) 억고운(憶孤雲) 35
- 11) 송호당현상인환해인사(送浩堂軒上人還海印寺) 35
- 12) 차해인사상실판운(次海印寺上室板韻) 36
- 13) 해인사주지학의(海印寺住持學誼) 36
- 14) 해인사(海印寺) 36
- 15) 해인사(海印寺) 37
- 16) 제해인사(題海印寺) 37
- 17) 해인사회고(海印寺懷古) 37
- 18) 차해인사벽상운(次海印寺壁上韻) 37
- 19) 해인사(海印寺) 38
- 20) 해인사(海印寺) 38
- 21) 방해인사(訪海印寺) 38
- 22) 해인사독서(海印寺讀書) 38
- 23) 유도희사증우어해인사(有道熙師曾遇於海印寺) 39
- 24) 해인사(海印寺) 39
- 25) 유해인사(遊海印寺) 39
- 26) 해인사경광각(海印寺鏡光閣) 40
- 27) 해인사증김한이군(海印寺贈金韓二君) 40
- 28) 제해인사사문주(題海印寺沙門柱) 40
- 29) 합천해인사무릉교(陝川海印寺武陵橋) 40
- 30) 차해인사운(次海印寺韻) 41
- 31) 가야산해인사운(伽倻山海印寺韻) 41
- 32) 해인사차림운(海印寺次林韻) 41
- 33) 제해인사장불경각(題海印寺藏佛經閣) 41
- 34) 구일등해인사학사대(九日登海印寺學士臺) 41
- 35) 유해인사(遊海印寺) 41
- 36) 야유해인사(夜遊海印寺) 42
- 37) 해인사(海印寺) 42

- 38) 서해인사승축(書海印寺僧軸) 42
- 39) 과해인사(過海印寺) 42
- 40) 해인사우설(海印寺遇雪) 43
- 41) 해인사(海印寺) 43
- 42) 해인사귀로(海印寺歸路) 43
- 43) 해인사(海印寺) 43
- 44) 송성능상인귀가야산해인사(送性能上人歸伽倻山海印寺) 43
- 45) 해인사별효선상인(海印寺別曉善上人) 43
- 46) 해인사(海印寺) 44
- 47) 해인사차최고운운(海印寺次崔孤雲韻) 44
- 48) 해인사(海印寺) 44
- 49) 모춘유해인사(暮春游海印寺) 44
- 50) 해인사(海印寺) 44
- 51) 방향해인사(方向海印寺) 45
- 52) 해인사(海印寺) 45
- 53) 숙해인사(宿海印寺) 45
- 54) 야숙해인사(夜宿海印寺) 45
- 55) 동익경방해인사(同翼卿訪海印寺) 45
- 56) 해인사(海印寺) 45
- 57) 해인사(海印寺) 56
- 58) 해인사(海印寺) 56
- 59) 해인사(海印寺) 56
- 60) 해인사(海印寺) 56
- 61) 해인사(海印寺) 57
- 62) 입해인사(入海印寺) 57
- 63) 추기해인사장경각(追記海印寺藏經閣) 57
- 64) 조발령아장향해인사도중유음(早發靈衡將向海印寺道中有吟) 57
- 65) 입해인사(入海印寺) 57

- 66) 속해인사발민(宿海印寺撥悶) 57
- 67) 해인사월야(海印寺月夜) 58
- 68) 송리자명유해인사(送李子明遊海印寺) 58
- 69) 해인사(海印寺) 58
- 70) 해인사증경담화상(海印寺贈鏡潭和尚) 58
- 71) 해인사(海印寺) 59
- 72) 해인사(海印寺) 59
- 73) 봉송오형국일사남공지주소해인사 59
(奉送吾兄國一師南公之住所海印寺)
- 74) 송가형남공귀주소해인사(送家兄南公歸住所海印寺) 59
- 75) 자가조향해인사(自加祚向海印寺) 60
- 76) 유해인사(遊海印寺) 60
- 77) 해인사(海印寺) 60
- 78) 해인사(海印寺) 60
- 79) 송득아방해인사(送得兒訪海印寺) 60
- 80) 해인사(海印寺) 60
- 81) 해인사조우(海印寺阻雨) 61
- 82) 해정아사성원선명유해인사(偕鄭亞使聲遠善鳴遊海印寺) 61
- 83) 해인사(海印寺) 61
- 84) 해인사(海印寺) 61
- 85) 해인사(海印寺) 61
- 86) 해인사(海印寺) 62
- 87) 해인사(海印寺) 62
- 88) 해인사(海印寺) 63
- 89) 해인사(海印寺) 63
- 90) 해인사동대(海印寺東臺) 63
- 91) 해인사념운정순상이공태영(海印寺拈韻呈巡相李公泰永) 63
- 92) 해인화판상운(海印和板上韻) 63
- 93) 대장경급소재도장음찬시(大藏經及消災道場音讚詩) 65

- 94) 선정전행대장경도장음찬시(宣政殿行大藏經道場音讚詩) 74
- 95) 제팔만대장경각(題八萬大藏經閣) 74
- 96) 대장경(大藏經) 74
- 97) 해인사술견(海印寺述見) 74
- 98) 해인사조발(海印寺早發) 74
- 99) 속해인사(宿海印寺) 75
- 100) 해인사(海印寺) 75
- 101) 해인사차권양촌시수미이구운(海印寺次權陽村詩首尾二句韻) 75
- 102) 해인사견념불승희제(海印寺見念佛僧戲題) 75
- 103) 해인사(海印寺) 75
- 104) 해리자명병헌숙해인사(偕李子明炳憲宿海印寺) 75
- 105) 유해인사(遊海印寺) 76
- 106) 해인사(海印寺) 76
- 107) 해인사차림석천운(海印寺次林石川韻) 76
- 108) 유가야숙해인사(遊伽倻宿海印寺) 76
- 109) 차족질찬언진태제해인사락화담운 76
(次族姪贊彦鎮兒題海印寺落花潭韻)
- 110) 속해인사(宿海印寺) 76
- 111) 해인사(海印寺) 77
- 112) 차해인사시사운(次海印寺詩社韻) 77
- 113) 과해인사홍류동(過海印寺紅流洞) 77
- 114) 해인사(海印寺) 77
- 115) 해인사제영(海印寺諸詠) 77
- 116) 심해인사(尋海印寺) 78
- 117) 해인사(海印寺) 78
- 118) 해인사동금후급천민망풍림(海印寺同金侯及天民望楓林) 78
- 119) 박사상근원도해인사이미태주급 79
(朴使相謹元到海印寺以米太周急)
- 120) 속해인사(宿海印寺) 79

- 121) 해인사(海印寺) 79
- 122) 해인사(海印寺) 79
- 123) 초십일저해인사(初十日抵海印寺) 79
- 124) 유해인사(遊海印寺) 79
- 125) 해인사우제(海印寺偶題) 80
- 126) 유해인사(遊海印寺) 80
- 127) 차해인사운(次海印寺韻) 80
- 128) 금상사독서우해인사(金上舍讀書于海印寺) 80
- 129) 화리과재해인사시(和李果齋海印寺詩) 80
- 130) 해인사(海印寺) 80
- 131) 해인사(海印寺) 81
- 132) 해인사(海印寺) 81
- 133) 입해인사(入海印寺) 81
- 134) 해인사(海印寺) 81
- 135) 해인사체우(海印寺滯雨) 81
- 136) 입해인사(入海印寺) 81
- 137) 차해인사주지지인시축운(次海印寺住持智仁詩軸韻) 82
- 138) 유해인사(遊海印寺) 82
- 139) 해인사(海印寺) 82
- 140) 취과홍류동장향해인사(醉過紅流洞將向海印寺) 82
- 141) 가야산해인사(伽倻山海印寺) 82
- 142) 해인사(海印寺) 83
- 143) 해인사(海印寺) 83
- 144) 입해인사(入海印寺) 83
- 145) 송류경직여재유해인사(送柳敬直汝梓遊海印寺) 83
- 146) 유해인사(遊海印寺) 83
- 147) 문금사군입해인사용최문창운서기 83
(聞金使君入海印寺用崔文昌韻書寄)
- 148) 해인사증승응해(海印寺贈僧應海) 84

- 149) 해인사(海印寺) 84
- 150) 해인사추감임인고사용릉산정운 84
(海印寺追感壬寅故事用籠山亭韻)
- 151) 유해인사(遊海印寺) 84
- 152) 방해인사(訪海印寺) 84
- 153) 해인사제최문창후화상(海印寺題崔文昌侯畫像) 84
- 154) 해인사차장백영운(海印寺次張伯永韻) 85
- 155) 해인사(海印寺) 85
- 156) 해인사증해봉상인(海印寺贈海鵬上人) 85
- 157) 해인사(海印寺) 85
- 158) 숙해인사(宿海印寺) 86
- 159) 해인사동구(海印寺洞口) 86
- 160) 귀숙해인사치중양(歸宿海印寺值重陽) 86
- 161) 해인사여리동벽창화(海印寺與李東壁唱和) 86
- 162) 입해인사(入海印寺) 86
- 163) 해인사(海印寺) 87
- 164) 송류경직여재유해인사(送柳敬直汝梓遊海印寺) 87
- 165) 입해인사(入海印寺) 87
- 166) 유해인사(留海印寺) 87
- 168) 유가야산해인사(遊伽倻山海印寺) 87
- 169) 해인사(海印寺) 87
- 170) 해인사수세(海印寺守歲) 88
- 171) 해인사(海印寺) 88
- 172) 해인사(海印寺) 88
- 173) 여문가야해인지승구의(余聞伽倻海印之勝久矣) 88
- 174) 해인사구광루(海印寺九光樓) 95
- 175) 자범어사향해인사도중구호(自梵魚寺向海印寺道中口號) 95
- 176) 차해인사벽상(次海印寺壁上) 95
- 177) 海印寺退居有作(海印寺退居有作) 95

- 178) 차해인사송경허(次海印寺宋鏡虛) 95
- 179) 해인사(海印寺) 95
- 180) 재입해인사(再入海印寺) 96
- 181) 해인사근차농암상공시(海印寺謹次農岩相公詩) 96
- 182) 금가야산해인사십삼경(唵伽耶山海印寺十三景) 97
- 183) 견해인사판전지화생(見海印寺板殿地花生) 97
- 184) 우유해인사(優遊海印寺) 97
- 185) 유해인사(遊海印寺) 97
- 186) 해인사유련(海印寺留連) 97
- 187) 복유해인사(復遊海印寺) 97
- 188) 제해인사구광루(題海印寺九光樓) 98
- 189) 종서시종병두유해인사(從徐侍從丙斗遊海印寺) 98
- 190) 증해인사상인공궁중풍동(贈海印寺上人空宮中風同) 98
- 3.2 흥제암(弘濟庵) · 국일암(國一庵) · 희랑대(希朗臺) 98
- 1) 흥제암차행정축(弘濟庵次行正軸) 98
 - 2) 국일암(國一庵) 99
 - 3) 희랑대(希朗臺) 99
- 3.3 기 타(其 他) 99
- 1) 별용문회운상인(別龍門晦雲上人) 99
 - 2) 증희랑화상(贈希朗和尚) 99
 - 3) 증조안상인(贈祖安上人) 101
 - 4) 가야산(伽倻山) 101
 - 5) 망가야산(望伽倻山) 101
 - 6) 영동사(詠東史) 101
 - 7) 도중기한상제동인(道中寄漢上諸同人) 102
 - 8) 봉기경상조아사(奉寄慶尙趙亞使) 102
 - 9) 우제정화영남첩(又題鄭晝嶺南帖) 103
 - 10) 입동화사(入桐華寺) 103

- 11) 우부삼절(又賦三絶) 103
4. 산 문(散文) 104
- 4.1 해인사사적(海印寺史蹟) 104
- 1) 해인사기(海印寺記) 104
 - 2) 가야산해인사고적(伽倻山海印寺古籍) 104
 - 3) 해인사실화적(海印寺失火蹟) 105
- 4.2 중창기(重創記) 106
- 1) 해인사중창기(海印寺重創記) 106
 - 2) 해인사장경각중수기(海印寺藏經閣重修記) 107
 - 3) 해인사백련암중창기(海印寺白蓮庵重創記) 108
 - 4) 합천군가야산해인사수선사창건기 108
(陝川郡伽倻山海印寺修禪社創建記)
 - 5) 해인사만월당불상중조기(海印寺滿月堂佛像重造記) 109
 - 6) 흥제암중수기(弘濟菴重修記) 110
- 4.3 상량문(上樑文) 110
- 1) 가야산해인사중건상량문(伽倻山海印寺重建上樑文) 110
 - 2) 가야산팔만대장경전상량문(伽倻山八萬大藏經殿上樑文) 116
- 4.4 대장경(大藏經) 118
- 1) 기해인사팔만대장경사적(記海印寺八萬大藏經事蹟) 118
 - 2) 해인사장경(海印寺藏經) 119
 - 3) 대장각판군신기고문(大藏刻板君臣祈告文) 122
 - 4) 해인사유진팔만대장경개간인유 125
(海印寺留鎭八萬大藏經開刊因由)
 - 5) 전대장경소재도장음찬시(轉大藏經消災道場音讚詩) 126
 - 6) 합천군가야산해인사대장경어인출불사경찬소검주별 126
(陝川郡伽耶山海印寺大藏經御印出佛事慶讚疏兼畫別)
 - 7) 원성대장어제문(願成大藏御製文) 127
 - 8) 인성대장경발(印成大藏經跋) 130
 - 9) 인대장경오십건(印大藏經五十件) 131

- 10) 인성대장경발(印成大藏經跋) 132
- 11) 인성대장경발(印成大藏經跋) 133
- 12) 인경사실(印經事實) 134
- 13) 인경발문(印經跋文) 1345
- 14) 대장경판수보발문(大藏經板修補跋文) 135
- 15) 인대장경발(成大藏經跋) 136
- 4.4 유람기(遊覽記) 136
 - 1) 해인사유기(海印寺遊記) 136
 - 3) 유가야기(游伽倻記) 137
 - 4) 남유기(南遊記) 140
 - 5) 유가야산기(遊伽倻山記) 143
 - 6) 유가야산기(遊伽倻山記) 144
- 4.4 서 문(序 文) 145
 - 1) 해인사창수시서(海印寺唱酬詩序) 145
 - 2) 칙사대법보종찰가야산해인사금강계단계첩서 148
(勅賜大法寶宗刹伽耶山海印寺金剛戒壇戒牒序)
 - 3) 기가야대성대사병소서(寄伽倻大成大師并小序) 148
 - 3) 해인사유관서(海印寺遊觀序) 149
 - 4) 해인사불량결서(海印寺佛糧契序) 149
- 4.5 상소문(上疏文) 149
 - 1) 대장경도량소(大藏經道場疏) 149
 - 2) 연복사행대장경피람소(演福寺行大藏經披覽疏) 151
 - 3) 해인사대장경인출낙성소(海印寺大藏經印出落成疏) 152
- 4.5 비 문(碑 文) 153
 - 1) 해인사사명대사석장비(海印寺四溟大師石藏碑) 153
 - 2) 해인사묘길상탑지(海印寺妙吉祥塔誌) 165
 - 3) 해인사호국삼보전망치소옥자(海印寺護國三寶戰亡緇素玉字) 167
 - 4) 해인사옥등(海印寺玉灯) 167
 - 5) 해인사복고사적비(海印寺復古事蹟碑) 168

4.6 기 타(其 他)	170
1) 신라가야산해인사선안주원벽기	170
(新羅迦耶山海印寺善安住院壁記)	
2) 사 찰(寺 劄)	177
3) 계방일기(桂坊日記)	178
4) 서해인사전권후(書海印寺田券後)	178
5) 답일종선사서(答一宗禪師書)	179
6) 해인사정진연기(海印寺精進緣起)	180
7) 입해인사시과차(入海印寺時過此)	180
8) 해인사수선사방함인(海印寺修禪社芳啣引)	181
9) 신라가야산해인사결계장기(新羅伽倻山海印寺結界場記)	181
5.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	184
5.1 잡 지(雜 誌)	184
1) 삼천리(三千里)	184
2) 조 선(朝 鮮)	208
3) 반도시론(半島詩論)	208
4) 신문계(新文界)	208
5.2 신 문(新 聞)	209
1)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209
2) 황성신문(皇城新聞)	209
3) 매일신보(每日申報)	210
4) 동아일보(東亞日報)	224
6. 조정실록(朝廷實錄)	229
6.1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229
6.2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261
6.3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266
[追錄] 詩 : 191) 해인사일주문차임석천운(海印寺一柱門次林石川韻)	269

1. 개요(概要)

1.1 연혁(沿革)

가야산(伽倻山) 해인사(海印寺)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2교구 본사로서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치인리 10번지]에 있으며, 신라 의상대사의 법손(法孫)인 순응(順應)과 이정(利貞) 두 스님이 애장왕3(802)년에 왕과 왕후의 도움으로 창건(創建) 하였다.

그 후 해인사는 창건 당시의 터가 험하고 규모가 작아 약 100년이 지난 효공왕1(897)년 가을에 다시 중창할 것을 합의하고 90일 동안 참선한 뒤에 3겹의 집을 세우고 4급의 누(樓)를 올려서 사역을 확정하였다.

또한 해인사 중수에 관한 기록은 창건으로부터 130여년이 지난 고려 건국 초기의 균여전에 보인다. 이곳 기록에 의하면 해인사의 희랑(希朗)대사는 신라말 왕건을 도와 견훤을 물리치는데 도움을 주었는데 이에 대한 대가로 경중봉사(敬重奉事)하여 전지(田地) 500결(結)을 시사(施事)하고 옛 사우(寺宇)를 중신(重新)하였다고 한다.

고려시대에 들어와 해인사는 균여(均如)대사, 대각(大覺)국사 등 많은 고승대덕을 배출하였다. 그러나 사우(寺宇)의 중수에 관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실록을 보관한 일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는 태조2(1393)년에 정중탑을 중영(重營)하고 해인사를 여러 차례 중수하였다. 이는 조선 왕실이 해인사에 힘을 기울인 결과라 생각되며, 특히 태조 때 고려대장경판이 해인사에 봉안 되었다.

태조 때 강화에 보관되어 있던 대장경을 서울의 지천사(支天寺)로 옮겼고, 장경판이 해인사로 이운(移運)되어 이때부터 법보사찰로 유명하게 되었다. 또한 세조3(1458)년에 임금이 죽헌(竹軒)에게 명하여 대장경 50벌을 인경(印經)하고 신미(信眉), 학조(學祖) 두 스님에게 장경판전을 시찰하게 하고 경상감사에게 명하여 판전 40칸을 다시 짓게 하였다.

그 후 세조14(1468)년에 세조가 승하하자 정희(貞熹)왕후는 해인사를 중건하기 위한 원력을 세웠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며, 성종

19(1488)년 덕종의 비 인수(仁粹)왕비와 예종의 계비 인혜(仁惠)왕비가 선왕의 뜻을 받들어 도목수 박중석(朴仲石) 등을 보내어 학조(學祖)대사로 하여금 판전 30칸을 짓게 하고 보안당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성종21(1490)년까지 많은 전각과 요사 등 160여칸을 완성하여 사찰의 면모를 일신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성종 22(1491)년 조위(曹偉)가 쓴 해인사중수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 후 해인사는 임진왜란 때도 전화(戰禍)를 면했으나 그 후 여러 차례 화재를 당하였는데 숙종21(1695)년 동쪽의 많은 요사와 만월당, 원음루의 화재, 다음 해에 서쪽 여러 요사와 무설전의 화재, 영조19(1743)년의 대적광전 아래 수백칸 당우의 화재, 영조39(1763)년의 화재, 정조4(1780)년의 무설전 화재, 순조17(1817)년 수백칸 당우의 화재, 고종8(1871)년 법성요의 화재가 있었다..

이와 같이 숙종21(1695)년 이후 고종8(1871)년까지 해인사에는 일곱 번의 큰 화재가 있었으나 판전(版殿)은 피해가 없었다. 해인사에서 비교적 오랜 건물은 대적광전, 응진전, 퇴설당, 구광루, 해탈문 등이며, 대장경판전 외에는 모두 순조17(1817)년 직후의 건물이고 나머지 건물은 훨씬 후의 건물들이다. 2009년 12월 21일 사적 제504호로 지정되었다.

1.2 연 보(年 譜)

[신라]

애장왕3(802)년

순응(順應), 이정(利貞) 두 스님이 왕과 왕후의 도움으로 창건하다.

효공왕1(897)년

가을에 다시 중창할 것을 합의하고 90일 동안 참선한 뒤에 3겹의 집을 세우고 4급의 누(樓)를 올려서 사역을 확정하다.

진성왕11(897)년 12월 4일

진성왕이 해인사에서 붕어하여 황산(黃山)에 장사지내다.

[고려]

고종14(1227)년 9월

명종실록 1부를 해인사(海印寺)에 보관하게 하다.

우왕5(1379)년 9월

해인사에 있는 역대실록 및 경전, 사서 등을 경북 선산에 있는 득일사로 옮기다.

[조선]

태조2(1393)년

정중탑을 중영(重營)하고 여러 차례 중수하다.

세조3(1458)년

임금이 경상감사에게 명하여 판전 40칸을 다시 짓게 하다.

정종1(1399)년 1월 9일

경상도 감사에게 명하여 불경을 인쇄하는 승도(僧徒)에게 해인사(海印寺)에서 공궤(供饋)하게 하다.

태종13(1413)년 3월 11일

대장경(大藏經)을 해인사(海印寺)에서 인행(印行)하게 하다.

태종13(1413)년 5월 28일(병오)

승도(僧徒) 2백 명을 모아 자량(資糧)을 주어 합주(陝州) 해인사(海印寺) 대장경을 인출(印出)하게 하다.

세종6(1424)년 4월 5일

합천(陝川) 해인사(海印寺)의 원속전이 80결인데 1백 20결을 더 주다.
거승은 1백명이다.

세종22(1440)년 2월 16일

경상도 관찰사에게 무너진 곳을 수리하게 하다.

세조3(1457)년 6월 26일

경상도 관찰사에게 대장경 50벌을 2월부터 시작하여 해인사에서 모인(募印) 하여 6월 전에 일을 마치도록 하다.

세조4(1458)년 7월 27일

해인사(海印寺)에서 인경(印經)한 대장경(大藏經) 3벌을 경차관 정은(鄭垠)이 임금에게 바치다.

세조10(1464)년 7월 5일

왜인(倭人) 진성행(秦盛幸)에게 해인사(海印寺) 대장경(大藏經) 중에서 대반야경(大般若經)을 주다.

성종18(1487)년 11월 8일(계묘)

중[僧] 학조(學祖)가 해인사 대장경 판당(海印寺大藏經板堂)의 수보 감역(修補監役)을 면하여 주기를 청하다.

성종19(1488)년 2월

덕종의 비(妃) 인수(仁粹)왕비와 예종의 계비 인혜(仁惠)왕비가 선왕(先王)의 뜻을 받들어 도목수 박중석(朴仲石) 등을 보내어 학조(學祖) 대사로 하여금 판전 30칸을 짓게 하고 보안당이라 하다.

성종20(1489)년

7월 학조(學祖) 스님이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이 보낸 군졸로 해인사를 수리하다.

8월 감사 성숙(成俔)이 정부(丁夫) 2천6백여 명을 해인사 역사(役事)에 제공하여 추국(推鞠)을 받게 하였으나 임금이 용서하다.

성종22(1491)년

조위(曹偉)가 해인사 중수기를 쓰다.

선조27(1594)년 2월

가야산 해인사(海印寺)에서 궁전(弓箭)을 만들고 신열이 이끄는 승군(僧軍)은 여가에 화포(火砲)를 교습(教習)하다.

효종10(1659)년 3월

경상도 합천군 해인사(海印寺)의 불상과 석탑(石塔) 및 대장경 판본(大藏經板本)이 3일 동안 땀을 흘리다

숙종21(1695)년

동쪽의 많은 묘사와 만월당, 원음루에 화재가 발생하다.

숙종22(1696)년

서쪽의 여러 요사와 무설전에 화재가 나다.

영조3(1727)년 9월

철묵(哲默) 스님이 주지를 하다.

영조19(1743)년

대적광전 아래 수백칸 당우에 화재가 발생하다.

정조4(1780)년

무설전에 화재가 발생하다.

순조17(1817)년

수백칸 당우에 화재가 발생하다.

고종8(1871)년

법성요에 화재가 발생하다.

[일제강점기]

1911년 12월 4일

이회광 스님이 주지가 되다.

1915년 8월 11일

이회광 스님이 주지에 재임되다.

1930년 9월 26일

허상현 스님이 주지가 되다.

1933년

9월 8일 이고경 스님이 주지가 되다.

6월 17일 합천군 삼가포교당을 설립, 임금해 스님이 담당자가 되다.

1934년

5월 11일 거창군 동동포교당을 설치, 박해월 스님이 담당자가 되다.

8월 27일 대장경판이 보물 제111호로 지정되다.

1935년 12월 8일

함안군 가야면에 함안포교당을 설치하고 조무성 스님이 담당자가 되다.

1936년 11월 21일

합천군 대정면에 하금리포교소를 설치하다.

1937년 12월 20일

안동군 안동읍에 안동포교당을 설치, 이고경 스님이 담당자가 되다.

1938년 4월 25일

변설호 스님이 주지가 되다.

1939년 5월 1일

진주군에 남문산포교당을 설치하고 이우용 스님이 담당자가 되다.

1941년 5월 8일

성하영차 스님이 주지가 되다.

1940년 10월 11일

대구부에 아미산포교당을 설치하다.

1943년 9월 22일

대구부에 포교당을 설치하고 고산영진 스님이 담임자가 되다.

1944년

6월 5일 송원경하 스님이 주지가 되다.

10월 20일 전남 광주포교당을 설치하고 민동선 스님이 담당자가 되다.

[해방후]

1955년 9월 13일

수백명의 비구승 및 신도들이 무장경관 60여명의 입회하에 해인사를 대처승측으로부터 인계받고 대법당에서 초대 주지 취임식을 거행하다.

2009년 12월 21일 사적 제504호로 지정되었다.

2. 사 서(史 書)

2.1 삼국사기(三國史記)

○卷第十 卷第十 新羅本紀 第十哀莊王三年秋八月

八月創加耶山海印寺

신라 애장왕3(802)년 8월에 가야산(加耶山) 해인사(海印寺)²⁾를 창건하였다.

○卷第十一 卷第十一 新羅本紀 第十一 眞聖王十一年冬十二月四日

冬十二月乙巳王薨於北宮諡曰眞聖葬于黃山

겨울 12월 4일 왕이 북궁[해인사]³⁾에서 죽었다. 시호는 진성이고 황산(黃山)에 장사를 지냈다.

2.2 삼국유사(三國遺事)

○卷第二 紀異第二 金傳大王 935년 10월(음)

淸泰二年乙未十月以四方地盡爲他有國弱勢孤不已自安乃與羣下謀舉土降太祖羣臣可否紛然不已王太子曰國之存王必有天命當與忠臣義士収合心力盡而後已豈可以一千年之社稷輕以與人王曰孤危若此勢不能全旣不能強又不能弱至使無辜之民肝腦塗地吾所不能忍也乃使侍郎金封休齋書請降於太祖太子哭泣辭王徑往皆骨山麻衣草食以終其身季子祝髮隸華嚴爲浮圖名梵空後住法水海印寺云

경순왕9(935)년 10월에 사방의 토지가 모두 남의 나라 소유가 되고 나라는 약하고 형세가 외로우니 스스로 지탱할 수가 없었다. 이에 여러 신하들과 함께 국토(國土)를 들어 고려 태조(太祖)에게 항복할 것을 의논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옳으니 그르니 하여 의논이 시끄럽고 끝나지 않았다.

왕태자(王太子)가 말하기를, “나라의 존망(存亡)은 반드시 하늘의 명에 있는 것이니 마땅히 충신(忠臣)·의사(義士)들과 함께 민심(民心)을 수습해

2) 해인사(海印寺) : 현재 경남 함천군 가야면에 있는 사찰로서 의상계(義相系) 화엄종(華嚴宗) 승려인 순응(順應)과 이정(利貞)이 왕실의 후원을 받아 애장왕 3년(802년)에 가야산에 창건하였다.

3) 북궁 : 曹偉의 梅溪集에 실린 書海印寺田畵後에 의거하여 北宮은 해인사를 가리키며, 진성여왕은 효공왕에게 왕위를 물려준 뒤 해인사로 가서 지내다가 그 곳에서 죽었다는 견해도 있다.

서 힘이 다한 뒤에야 그만둘 일이지 어찌 천년의 사직(社稷)을 가벼이 남에게 주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외롭고 위태함이 이와 같으니 형세는 보전될 수 없다. 이미 강해질 수도 없고 또한 약해질 수도 없으니, 죄없는 백성들을 참혹하게 죽게 하는 것[肝腦塗地]은 나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시랑(侍郎) 김봉휴(金封休)를 시켜서 국서(國書)를 가지고 태조에게 가서 항복하기를 청했다. 태자는 울면서 왕을 하직하고 바로 개골산(皆骨山)으로 들어가서 삼베 옷을 입고 풀을 먹다가 생애를 마쳤다.

막내아들은 머리를 깎고 화엄종(華嚴宗)에 들어가 승려가 되어 이름을 범공(梵空)이라 했는데, 그 뒤로 법수사(法水寺)와 해인사(海印寺)에 있었다고 한다

○卷第三 塔像第四 前後所藏舍利 928년(음)

又天成三年戊子默和尚入唐亦載大藏經來本朝睿廟時慧照國師奉詔西學市遼本大藏三部而來一本今在定惠寺 海印寺有一本許叅政宅有一本

또 경순왕(928)년에 묵화상(默和尚)이 당 나라에 들어가 대장경을 싣고 왔으며, 본조 예종 때 혜조국사(慧照國師)가 조칙을 받들고 서쪽으로 유학을 가서 요나라 판본인 대장경 3부를 사 가지고 왔는데, [그] 한 본은 지금 정혜사(定惠寺)에 있다. 해인사(海印寺)에 한 본이 있고, 허참정(許參政)댁에 한 본이 있다.

2.3 고려사(高麗史)

○卷二十二 世家 卷第二十二 高宗 14年 9月

九月 庚辰 監修國史平章事崔甫淳, 修撰官金良鏡·任景肅·兪升旦等, 撰明宗實錄, 藏於史館, 又以一本, 藏於海印寺.

고종14(1227)년 9월 경진일. 감수국사(監修國史)·평장사(平章事) 최보순(崔甫淳), 수찬관(修撰官) 김양경(金良鏡)·임경숙(任景肅)·유승단(兪升旦) 등이 명종실록을 편찬해 올리자 1부를 사관(史館)에 보관하고, 또 1부

를 해인사(海印寺)에 보관하게 했다.

○卷九十 列傳 卷第三 宗室

又於興王寺，奏置教藏都監。購書於遼·宋，多至四千卷，悉皆刊行，始創天台宗，置于國清寺。已而，南遊徧歷名山，後退居海印寺，及肅宗卽位，遣使迎還，住持興王寺。

또 국왕에게 주청하여 흥왕사(興王寺)에 교장도감(敎藏都監)을 설치하게 하였다. 무려 4천권에 이르는 서적을 요나라와 송나라로부터 사들여 죄다 간행하였으며, 천태종(天台宗)을 개창하여 국청사(國淸寺)에 두었다. 얼마 뒤 남쪽의 명산을 두루 유람한 후 물러나 해인사(海印寺)에 거처했는데 숙종이 즉위하자 사자를 보내어 개경으로 다시 맞아들여 흥왕사의 주지로 삼았다.

○卷一百十二 列傳 卷第二十五 諸臣

白文寶，字和父，稷山縣人。忠肅朝登第，補春秋檢閱，累遷右常侍。恭愍初，轉典理判書，上書請設十科以舉士，拜密直提學。兵火之餘，史局所藏史藁·實錄，僅餘數篋，王在淸州，遣供奉郭樞，移置海印寺。文寶時留都，與金希祖議曰，“今寇亂甫定，不可遽移國史，駭人視聽。”留樞待後命。

백문보(白文寶)는 자가 화부(和父)이며 충남 천안시 직산면 사람이다. 충숙왕 때 과거에 급제해 춘추검열(春秋檢閱)에 보임되었고 여러 차례 승진하여 우상시(右常侍)가 되었다.

공민왕 초에 전리판서(典理判書)로 전임되자 글을 올려 십과(十科)를 설치하여 선비를 선발하자고 건의했으며 밀직제학(密直提學)으로 임명되었다. 전란의 여파로 사국(史局)에 소장된 사고(史藁)와 실록(實錄)이 겨우 몇 상자만 남게 되자 당시 청주(淸州)에 있던 왕이 공봉(供奉) 곽추(郭樞)를 보내어 해인사(海印寺)로 옮겨 두도록 하였다. [중략]

初王還都，權置廟主于彌陀寺，設還安都監，文寶與平陽伯金敬直，主其事。稽緩踰月，王怒督之，對以無典籍可稽。遣史官南永伸，詣海印史庫，取三禮圖·杜祐通典至。文寶倣通典，

왕이 개경으로 돌아오자 임시로 종묘의 신주를 미타사(彌陀寺)에 안치하

고 환안도감(還安都監)을 설치하게 했는데, 백문보와 평양백(平陽伯) 김경직(金敬直)이 그 일을 주관하였다. 한 달이 넘도록 일이 지체되자 왕이 화를 내며 독촉하니, 전적이 없어서 전례를 상고할 길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사관(史官) 남영신(南永伸)을 해인사 사고(史庫)로 보내어 삼례도(三禮圖)와 두우(杜祐)의 통전(通典)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卷一百二十二 列傳 卷第三十五 宦者

趙日新之亂，逃匿免死，遂爲僧，在伽耶山海印寺。恭愍遣御史中丞鄭之祥，斬之。世傳忠惠之執，龍普爲內應故，有是刑。

조일신(趙日新)의 난 때는 도망가 숨어서 목숨을 구했으며 뒤에 중이 되어 가야산(伽倻山) 해인사(海印寺)에 살았는데 공민왕이 어사중승(御史中丞) 정지상(鄭之祥)을 보내어 죽여 버렸다.

세간에 전하기로는, 충혜왕이 원나라에 잡혀갈 때 고용보가 내응했기 때문에 처형한 것이라고 한다.

○卷一百三十四 列傳 卷第四十七 禍王5年9月

移置海印寺所藏歷代實錄及經史諸書于善州得益寺。

우왕5(1379)년 9월 해인사에 두었던 역대실록 및 경전, 사서 등을 경북 선산에 있는 득일사로 옮겨 안치하였다.

2.4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세종실록 지리지 경상도 상주목 합천군

◎ 합천군(陝川郡)

해인사(海印寺)는 가야산(伽倻山) 남쪽에 있다. 【교종(教宗)에 속하며, 밭 2백 결을 주었다. 옛 기록에 이르기를, "산형(山形)은 천하에 뛰어났고, 지덕(地德)은 해동(海東)에 짝이 없으니, 참으로 정수(精修)할 땅이다." 하였다. 절에 최치원(崔致遠)의 서암(書岩)·기각(基閣)이 있는데, 《삼국사(三國史)》에 이르기를, "최치원이 가족을 데리고 해인사에 숨어 자유롭게 노닐면서 늙어 죽었다."고 하였다.】

2.5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李荇 等

경상도(慶尙道) 합천군(陝川郡) 불우(佛宇)

해인사(海印寺) 가야산 서쪽에 있다. ○신라 애장왕(哀莊王)이 창건하였다. 수행이 높은 중 순응(順應)·이정(利貞)·희랑(希朗)의 화상이 있다. 고려 때 판각한 대장경(大藏經)과 역대의 실록(實錄)을 모두 이 절에다가 간직하였다.

고기(古記)에, “가야산은 형승이 천하에 뛰어났고, 땅 기운이 해동에는 짝이 없으니, 참으로 수도할 곳이다.” 하였다. 절에 최치원의 서암(書巖) 기각(棋閣)이 있다.

○홍간(洪侃)이 실록(實錄)을 말리러 가는 추옥섬(秋玉蟾)을 전송하는 시에, “내 들으니 가야산 해인사는, 유선(儒仙) 최고운이 일찍이 놀던 땅. 인간의 풍월(風月)은 이르지 못하고, 보서(寶書)와 옥첩(玉牒)이 구름처럼 쌓였다네. 이 속에 가는 사신도 반드시 신선의 무리이리라. 3년 만에 학 타고 하늘에서 내리는구나. 그대 금년에 이런 걸음하게 되니, 가을 풍경이 사람과 함께 맑으리라. 푸른 산 석양에 영가(永嘉) 길이고, 붉은 단풍에 맑은 강 진양성이라. 역마는 훨훨 나는 기러기 같은데, 몸은 시원한 바람 탄 것보다 상쾌하리. 삼한(三韓) 23대의 보록(寶錄) 하나하나를 구름긴 산 속에서 뒤적거리리. 돌아오는 길에는 아무 일 없으리니, 풍요(風謠)를 채집하여 남정기(南征記)를 지으리.” 하였다.

○염정수(廉廷秀)의 시에, “산사에 봄날이 개자 한 점 티끌도 없으니, 도정(道情)과 시 생각을 제어하기 어렵다. 골 안에 꽃빛은 비단을 편 듯하고, 다리 아래 시내 소리는 우리가 구르는 듯, 기각(棋閣)에 이끼 껴는데 옛 글자 남았고, 월봉(月峯)에 솔 늙은데 거친 대(臺)가 있구나. 최고운이 간 지 지금 천 년인데, 선인의 자취를 대해 술마시기 부끄럽네.” 하였다.

○권근(權近)의 시에, “바위 구렁 돌고 돌아 한 가닥 길 통했는데, 만겁의 산이 절을 감쌌네. 하늘이 아끼고 땅이 감춰서 구역이 깊숙하고, 불전(佛殿)이 오래되고 행랑이 둘렀는데 제도가 웅장하다. 서암(書巖)은 흐르는 폭포 위에 우뚝하고, 기각은 저녁별 속에 황량하다. 고운의 높은 자취를 이

을 사람 없어, 천년 동안 나는 새 공중에 사라지듯.” 하였다.

○배중부(裴仲孚)가 해인사에 사신 가는 김덕유(金德儒)를 전송하는 시에, “내 일찍이 남으로 해인사에 놀았더니, 산 구역 별천지 참 선경이었는데. 무릉(武陵) 시냇물은 서로 돌고돌고, 고운의 기각은 매우 아득하네. 바람 바위 물 구멍이 참으로 빼어나니, 뛰어난 경치는 반드시 여항(餘杭)을 논할 것 없네. 봄 바람이 숲에 불면 아름다운 꽃이 피고, 진기하고 기이한 새는 서로 날아 다니네. 6월에도 나는 눈발이 절벽에서 뿌리니, 소나무 아래 누대가 맑고도 서늘해라. 가을이 오면 흰 국화가 단풍에 비치니, 홍류동(紅流洞) 그림 펼친 듯하구나. 겨울에는 얼음과 눈이 교묘하게 조각한 듯, 시내 옆 매화가 그윽한 향기 풍기네. 사시사철 행락하기에 이만한 땅 없으니, 선옹(仙翁)과 중들이 함께 노닌다.” 하였다.

○이승인(李崇仁)이 문 장로(文長老)를 전송하는 시에, “조계(曹溪)의 일미(一味)를 어찌 말로 전하랴. 연꽃 뽑아 미소 지음도 또한 우연이리. 무릉 다리 위를 향해 보소. 산 경치 물빛이 울람천(蔚藍天)이리.” 하였다.

○강희맹의 시에, “가야산이 종단 말, 십년 동안 듣기만 했네. 내가 오니 구름이 짝이 되고, 중이 누웠으니 사슴이 벗하네. 손의 베갯머리엔 차가운 시내 소리 맑고, 향반(香盤)엔 고요한 밤 깊었구나. 많은 생을 고화(膏火) 속에서, 괴로워하던 것 부끄러워라.” 하였다.

○ 또 “맑고 맑은 문창후(文昌侯), 꽃다운 남긴 자취 오랫동안 들었네. 고운이 동방에서 태어났으니, 독수리가 닭 무리에서 빼어나는 듯. 학문은 마음과 함께 넓고, 문장은 손수 나누었다네. 주지가 아름다운 옛일 더듬어, 손이 오면 부지런히 얘기하네.” 하였다.

[신증] 김종직의 시에, “세 선사 유적이 있으니, 찾아 보매 듣던 바와 같도다. 도의 운치는 참으로 짝할 이 없었고, 신통은 무리에서 뛰어났었다. 지원(祗園)엔 꽃이 비오듯 했을 것, 향적(香積)엔 밤을 응당 나누었으리. 허다한 방포(方袍) 입은 사람들, 누구라 그렇게 공부 부지런함 알리.” 하였다.

○또 “고운은 아름다운 은둔의 나그네, 백일(白日)에 큰 이름이 들렸네.

건구(巾履 의복과 신발)는 매미가 껍질 벗듯 하였고, 풍채는 학무리에 섞였었네. 바둑판은 속절없이 부서졌고, 시 썼던 돌도 반은 갈라졌다. 거닐던 지경을 자세히 밝으니, 추모하는 생각 다만 간절하여라.” 하였다. ○ 또 “재판(梓板)을 간직한 천 칸 시령, 먼 지방에도 소문 또한 높았다. 거미는 아침에 줄을 치고, 박쥐는 저물녘에 떼를 짓네. 안개가 자욱하니 글자가 흐려지고, 바람이 두드려서 나무 곁이 갈라졌네. 모름지기 귀신을 시켜 보호하여라. 후세의 임금이 다시 판각하지 않도록.” 하였다. 절에 대장경 판목이 있는 까닭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청량사(淸涼寺) 월유봉 밑에 있으며 최치원이 여기에 놀았다. 월광사(月光寺) 야로현 북쪽 5리에 있다. 대가야(大伽倻) 태자(太子) 월광이 창건한 것이다.

○이승인의 시에, “경치 좋은 곳 만날 때마다 이름을 쓰고, 또 쌍계(雙溪)를 향해 지팡이를 돌린다. 들 다리에 객을 보내니 앞뒤의 그림자요, 소나무 탑에서 불경 외니 길고 짧은 음성이네. 산천은 경치 좋아 그림 같은데, 수목도 해가 깊어 절로 늙었네. 북으로 가니 언제 또 남으로 오나, 이곳 풍경이 잊히지 않은 것 미리 알겠네.” 하였다.

2.6 여지도서(輿地圖書)

慶尙道 陝川

[寺刹] 海印寺在伽倻山西新羅哀莊王所創有高僧順應利貞希朗遺像高麗時鑿大藏經歷代實錄竝藏于此寺古記云伽倻山形絕於天下地德隻於海東眞精修之地寺有在致遠書巖碁閣洪侃送秋玉蟾曬史海印寺詩云吾聞伽倻山海印寺儒仙崔子曾遊地人間風月不能到寶書玉牒如雲委此中奉使必是神仙曹三年鶴駕下雲宵多君今年得此行秋光遠與人爭清青山落照永嘉路紅樹澄江晉陽城翩翩駟騎如輕鴻快於身馭冷然風遙知三韓二十三代之寶錄一一掀攬雲山中歸來馬上無一事採風應作南征記廉廷秀詩山寺春晴絕點埃道情詩思渺難裁洞中花色如鋪錦橋下漢聲似轉雷碁閣苔封餘古字月峯松老有荒臺孤雲一去今千載對仙蹤倒酒盃權近詩巖壑盤廻一路通萬重山擁梵王宮天慳地秘寰區奧殿古廊回結構雄突兀書巖流瀑外荒涼碁閣夕陽中孤雲遐躅無人繼千載悠然鳥沒空裴仲孚送金德儒奉使海印寺詩我

昔南遊海印寺一區天地真仙鄉武陵溪水相盤迴致遠基閣何杳茫風巖水穴信奇絕
 形勢不必論餘杭春風吹林佳卉發珍禽怪鳥相與翔六月飛雪灑絕壁松下樓臺清且
 涼秋末白菊暎丹樹紅流一洞圖書張臘天水雪工琢鏤澗底寒梅飄暗香四時行樂無
 此地仙翁釋子俱徜徉李崇仁送文長老詩曹溪一味豈言傳微笑拈花亦偶然好向武
 陵橋上看山光水色蔚藍天姜希孟詩見說伽倻勝虛經十載間我來雲作伴僧臥鹿爲
 群客枕寒溪澈香盤靜夜分多生膏火裏慙愧抱辛勤皎皎文昌烈遺芳久飽間孤雲生
 海曲一鶚挺鷄群學海心俱闕天章手自分居僧探勝事客至說長勤舊增金宗直詩三
 師有遺蹟尋討愜曾問道韻真無敵神工自絕群祇園花想雨香禎飯應分擾擾方袍士
 誰知如許勤 孤雲佳遯客白日大名間巾屨同蟬蛻風標隅鶴□□□□□落詩石半剝
 分細履徜徉地追懷紙自勤 梓板千間架殊方亦聳聞蠡蛸朝自織蝙蝠暮爲群霧暗
 書檣澁風敲木理分復煩鬼呵護免便後王勤寺有大藏經板故云

2.7 범우고(梵宇攷)

慶尚道 陝川 寺刹

[海印寺]俱在伽倻山◇新羅哀莊王所勅其後屢大隨即重建無復宏侈◇(續)俗傳
 新羅哀莊王旣死己殮而復甦與冥官約發願送使入唐購八萬大藏經七百匣二千五
 百卷以舶載來刻板而加添以銅錫爲粧建閣百二十間藏之至今千餘年板如新刻焉
 寺有崔致遠書岩墨閣寺之西閣又有皇明提督李如松之笠與其所作詩帖法堂有左
 右金塔鼙鼓香鼎皆是新羅時所造云◇(續)四溟大師石藏碑記略曰師名惟政字離
 幻壬辰夏倭賊闌入嶺東至楡岾寺或云我人爲導師曰若賊則難以書喻倘有我人亦
 可警鮮率十餘徒直入山門賊悉縛之獨師至則倭酋知其非常待以賓主鮮其徒指送
 山深處師卽入高城則賊將三人俱加禮遇師以書勸其勿嗜殺三將拱手受誠九郡之
 得免虔劉蓋師力也宣祖西幸抗義懷慨卽募數百僧亟赴順安則諸義僧皆來會有衆
 數千明年正月師協同天將破平壤走行長甲午春劉摠兵縋命入釜營諗清正凡三返
 盡得其要領正問朝鮮有寶乎師曰無有寶在日本正曰何謂也師曰方今我國以若頭
 爲寶是在日本也正乃大敬嘆師返嶺南留兵抄擊連等龍起八公金鳥詣山城戊戌從
 劉提督入拽樓槁皆有首功前後備餉四千餘石器甲万計甲辰奉國書往日本諸倭相
 謂曰此說寶和尚耶及見家康備言兩國生靈久隔塗炭吾因普濟而來康心敬克成和

好而歸因枯回被擄男女一千五百上嘉其勞累加至嘉義階遂入伽倻山戊申八月二十六日跌坐悠然而逝門徒茶毗於寺之西麓祥光燭天飛鳥驚噪於是輦頂珠一鑿石鍾藏之樹窠堵坡於其地云◇(續)我世祖戊寅命僧竹軒等印大藏五十件又命僧惠覺信眉燈谷學祖等往視藏經之堂隘且陋司命道伯稍增舊制構四十餘間越十一年戊子重建◇權近詩曰巖壑盤迴一路通萬重山擁梵王宮天慳地秘寰區奧殿古廊回結構雄突兀書岩流瀑外荒涼棋閣夕陽中孤雲遐躅無人繼千載悠然鳥沒空

2.8 합천군여지(陝川郡輿誌) 陝川郡 1915

[佛宇]海印寺在郡北八十里伽倻山中新羅哀莊王所創○古記云伽倻山形絕於天下地德雙於海東真情修處

2.9 합천군지(陝川郡誌) 河尙洛 編 1936

[佛教]僧一百五十一名

2.10 조선사찰삼십일본산사진첩(朝鮮寺刹三十一本山寫眞帖)

(財)朝鮮佛教中央教務院 1929

本寺卽古之華嚴宗刹新羅哀莊王三年壬午順應大德開山初創 厥後屢經重建而今可考者則

- (一)朝鮮成宗二十一年庚戌 燈谷學祖和尚重創
- (二)朝鮮肅宗二十一年乙亥 東序諸寮火 翌年]丙子 西序諸寮又火 雷音敬悅和尚 與信悅、英祐、尚軒等 重建
- (三)朝鮮英祖十九年癸亥 又火 越三年丙寅 凌雲一宗大師重建
- (四)朝鮮英祖三十九年癸未又火 越三年丙戌 雪坡常彥大師 與西坡、龍坡、玄一等再建
- (五)朝鮮正祖四年庚子 又失火 越五年丙午 星坡念初大師 與奉還、朗珣 協力再建
- (六)朝鮮純祖十七年丁丑又火 越三年 庚辰影月慧堅大師 與晦隱昇慧大師重

建 卽現所存者也

高麗高宗二十四年丁酉 發願刻大藏經 置大藏都監而雕造 凡閱十六年而至三十八年辛亥完成 計經一千五百十二部六千七百九十一卷 計板八萬一千二百五十八枚 至今保存 爲世界重寶故 稱爲法寶宗刹



2.11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제383호 1911-12-06

住持就職認可

慶尙南道陝川郡海印寺ヲリ李晦光ヲ住持住持候補者ト定メ就職ノ件申請ニ付十二月四日之ヲ認可セリ

[요약 : 1911년 12월 4일 이회광 스님을 해인사 주지로 인가함]

○제556호 1912-07-04

寺法認可 慶尙南道陝川郡伽倻山海印寺

【寺法】

海印寺本末寺法明治四十五年七月二日認可。

【寺乘】

海印寺。新羅哀莊王三年癸未。順應理貞兩大德創建高麗高宗王時。

雕造大藏經板。至後代。藏于本寺。

【宗旨】

稱號禪教兩宗法剎大本山海印寺。

【燈規】

海印寺本末寺。清虛休靜禪師之法孫。為住持。

【主職】

海印寺第一任住持李晦光明治四十四年十二月七日。就職認可。第二期再任

【寺格】

本寺海印寺。伽藍名稱。曰觀音殿。窮玄堂。明月堂。四雲堂。堆雪堂。本寺海印寺之【山內末寺】曰。極樂庵。國一庵。白蓮庵。願堂庵。弘濟庵。知足庵。希朗臺。清涼寺。藥水庵。三仙庵【山外末寺】曰。炯湖寺。留鶴寺。(已上二寺在草溪郡)雙溪寺。古僧堂西方丈。國師庵。七佛庵。彌勒庵。(已上六寺在河東郡)靈覺寺。松溪庵。隱神庵。龍湫庵。碧松寺。靈源寺。法華庵。安國庵。金臺庵。上無住庵。文殊庵。默溪庵。上蓮臺庵。(已上十三寺在咸陽郡)演水寺古見寺。(已上二寺在居昌郡)龍門寺。華芳寺。(已上二寺在南海郡)多率寺。奉月庵。彌勒庵。(已上三寺在泗川郡)大源寺。深寂寺。花林寺。羅漢庵。五峯庵。栗谷寺。淨趣庵。(已上七寺在山清郡)青谷寺。護國寺。義谷寺。凝石寺斗芳庵。聖殿。(已上六寺在晉州郡)雙溪寺。青巖寺。修道庵。鳳谷寺。直指寺。西殿庵。能如庵。內院庵。三聖庵。雲水庵。九華庵。卯含庵。正覺庵。孤雲庵。(已上十四寺在慶北金泉郡)水多寺。桃李寺。藥師庵。尾鳳庵。大茆寺。(已上五寺在慶北善山郡)盤龍寺。(在慶北高靈郡)實相寺。藥水庵。百丈庵。洗塵庵。(已上四寺在全北南原郡)海印寺本末寺。共計七十六寺。

○제912호 1915-08-17

本寺住持就職認可

慶尚南道陝川郡伽倻面本寺伽倻山海印寺住持任期滿了ノ處李晦光再任就職ノ件申請二付本月十一日之ヲ認可セリ

[요약 : 1915년 8월 11일 이회광 스님의 해인사 주지재임을 인가함]

○제913호 1915-08-18

本末寺法變更 [本文省略]

○제589호 1928-12-15

本末寺法中改正認可 [本文省略]

○제956호 1930-03-13

寺有建物賣却許可 [本文省略]

○제1127호 1930-10-04

住持就職認可

慶尙南道陝川郡伽倻面海印寺住持ニ許尙玄就職ノ件九月二十六日認可セリ

[요약 : 1930년 9월 26일 허상현 스님을 해인사 주지로 인가함]

○제1558호 1932-03-19

寺有土地無償讓與許可 [本文省略]

○제2004호 1933-09-12

住持就職認可

慶尙南道陝川郡伽倻面海印寺住持ニ李古鏡就職ノ件申請ニ依リ昭和八年九月

八日認可セリ

[요약 : 1933년 9월 8일 이고경 스님을 해인사 주지로 인가함]

○제2032호 1933-10-16

布教擔任者選定届

布教規則第十條ニ依リ布教擔任者選定届ヲ提出シタル者左ノ如シ

届出年月日 : 昭和八年六月十七日

所屬教宗派及布教所名稱 : 朝鮮寺利 大本山海印寺三嘉布教堂

所在地 : 慶尙南道陝川郡三嘉面錦里

住所氏名 : 所在地ニ同シ 林錦海

[요약 : 1933년 6월 17일 대본산 해인사에서 합천군 삼가포교당 담임

자를 임금해로 정하여 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함]

○제2290호 1934-08-27

朝鮮總督府告示第430號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第1條ニ依リ左ノ通指定ス

昭和九年八月二十七日 朝鮮總督 宇垣一成

寶物

指定番號：第一一一號

名稱：海印寺大藏經板

員數：一基

所在地：慶尙南道陝川郡伽倻面緇仁里

所有者ノ氏名及住所：海印寺

[요약 : 1934년 8월 27일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의 대장경판을 보물 제 111호로 지정함]

○제2347호 1934-11-06

寺刹土地賣却許可 [本文省略]

○제2382호 1934-12-18

布教擔任者選定屆

布教規則第十條ニ依リ布教擔任者選定屆ヲ提出シタル者左ノ如シ

屆出年月日：昭和九年五月十一日

所屬教宗派及布教所名稱：朝鮮寺刹 大本山海印寺東洞布教堂

所在地：慶尙南道居昌郡居昌面東洞

住所氏名：慶尙南道陝川郡伽倻面 朴海月

[요약 : 1934년 5월 11일 대본산 해인사에서 거창군 동동포교당 담임자를 박해일로 정하여 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함]

○제2384호 1934-12-20

布教所設置屆

布教規則第九條ニ依布教所設置屆ヲ提出シタル者左ノ如シ

屆出年月日：昭和九年五月十一日

所屬教宗派：朝鮮寺刹

布教所名稱：大本山海印寺東洞布教堂

布教所所在地：慶尙南道居昌郡居昌面東洞

[요약：1934년 5월 11일 대본산 해인사에서 거창군 거창면 동동포교당
설치계를 제출함]

○제2412호 1935-01-29

寺有土地賣却許可 [本文省略]

○제2412호 1935-01-29

寺有林伐採許可 [本文省略]

○제2505호 1935-05-22

寺有建物廢棄處分許可 [本文省略]

○제2662호 1935-11-27

寺有林伐採期間延長許可 [本文省略]

○제2806호 1936-05-23

朝鮮總督府告示第三百十八號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第1條ニ依リ左ノ通指定ス

昭和十一年五月二十三日 朝鮮總督 宇垣一成

寶物

指定番號：第二五一號

名稱：海印寺藏經板庫

員數：四棟

所在地：慶尙南道陝川郡伽倻面緇仁里 海印寺境內

所有者ノ氏名及住所：海印寺

[요약：1936년 5월 23일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의 장경판고 4동을 보물
제251호로 지정함]

○제2818호 1936-06-06

布教所設置届

布教規則第九條ニ依布教所設置届ヲ提出シタル者左ノ如シ

届出年月日：昭和十年十二月八日

所屬教宗派：朝鮮寺刹

布教所名稱：大本山海印寺

布教所所在地：慶尙南道咸安郡伽倻面末山里三二八

[요약：1935년 12월 8일 대본산 해인사에서 함안군 가야면 [함안] 포교당 설치계를 제출함]

○제2819호 1936-06-08

布教擔任者選定届

布教規則第十條ニ依リ布教擔任者選定届ヲ提出シタル者左ノ如シ

届出年月日：昭和十年十二月八日

所屬教宗派及布教所名稱：朝鮮寺刹 大本山海印寺咸安布教堂

所在地：慶尙南道咸安郡伽倻面末山里三二八

住所氏名：所在地ニ同シ 趙武城

[요약：1935년 12월 8일 대본산 해인사에서 함안군 함안포교당 담임자를 조무성으로 정하여 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함]

○제2823호 1936-06-12

布教所所在地變更届

布教規則第九條ニ依リ布教擔任者選定届ヲ提出シタル者左ノ如シ

届出年月日：昭和十年四月十三日

所屬教宗派及布教所名稱：朝鮮寺刹 大本山海印寺布教堂

舊所在地：慶尙南道茂山郡延社面四芝洞山六七〇

新所在地：慶尙南道茂山郡延社面四芝洞山四七〇ノ一七

○제2972호 1936-12-09

布教所所在地變更届

布教規則第九條ニ依リ布教擔任者選定届ヲ提出シタル者左ノ如シ

届出年月日：昭和十一年十月十六日

所屬教宗派及布教所名稱：朝鮮寺刹 大本山海印寺大邱布教堂

舊所在地：慶尙北道大邱府本町一丁目三三

新所在地：慶尙北道大邱府前町二三ノ一

○제3007호 1937-01-26

布教所設置届

布教規則第九條ニ依布教所設置届ヲ提出シタル者左ノ如シ

届出年月日：昭和十一年十一月二十一日

所屬教宗派：朝鮮寺刹

布教所名稱：大本山海印寺大井面下金里布教所

布教所所在地：慶尙南道陝川郡大井面下金里一一〇

[요약：1936년 11월 21일 대본산 해인사에서 합천군 대정면 하금리포교
소 설치계를 제출함]

○제3064호 1937-04-05

寺有土地賣却許可 [本文省略]

○제3119호 1937-06-10

寺有林伐採許可 [本文省略]

○제3234호 1937-10-25

寺有土地寄附許可 [本文省略]

○제3385호 1938-05-03

住持就職認可

慶尙南道陝川郡伽倻面海印寺住持ニ卞雪翹就職ノ件申請ニ依リ昭和十三年四月二十五日認可セリ

[요약：1938년 4월 25일 변설호 스님을 해인사 주지로 인가함]

○제3408호 1938-05-30

△布教所設置届

布教規則第九條ニ依布教所設置届ヲ提出シタル者左ノ如シ

屆出年月日：昭和十二年十二月二十日

所屬教宗派：朝鮮寺刹

布教所名稱：大本山海印寺安東布教堂

布教所所在地：慶尙南道安東郡安東邑西部洞二一〇ノ二

[요약 : 1937년 12월 20일 대본산 해인사에서 안동군 안동읍 안동포교당
설치계를 제출함.]

△布教擔任者選定屆

布教規則第十條ニ依リ布教擔任者選定屆ヲ提出シタル者左ノ如シ

屆出年月日：昭和十二年十二月二十日

所屬教宗派及布教所名稱：朝鮮寺刹 大本山海印寺安東布教堂

所在地：慶尙南道安東郡安東邑西部洞二一〇ノ二

住所氏名：所在地ニ同シ 李古鏡

[요약 : 1937년 12월 20일 대본산 해인사에서 안동군 안동포교당 담임
자를 이고경으로 정하여 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함]

○제3491호 1938-09-03

布教擔任者變更屆

布教規則第十條ニ依リ布教擔任者選定屆ヲ提出シタル者左ノ如シ

屆出年月日：昭和十三年四月二十四日

所屬教宗派及布教所名稱：朝鮮寺刹 大本山海印寺安東布教堂

所在地：慶尙南道安東郡安東邑西部洞二一〇ノ二

舊擔任者氏名：李古鏡

新擔任者住所氏名：慶尙南道咸陽郡西上面霞覺寺 朴南華

○제3565호 1938-12-06

寺有建物廢棄處分許可 [本文省略]

○제3768호 1939-08-11

寺有林伐採許可 [本文省略]

○제3824호 1939-10-16

寺有林伐採許可 [本文省略]

○제3825호 1939-10-18

寺有建物廢棄處分許可 [本文省略]

○제3853호 1939-11-22

布教擔任者選定屆

布教規則第十條ニ依リ布教擔任者選定屆ヲ提出シタル者左ノ如シ

屆出年月日：昭和十四年五月一日

所屬教宗派及布教所名稱：朝鮮寺利 大本山海印寺南文山布教堂

所在地：慶尙南道晉州郡文山面西象文里一〇四三

住所氏名：慶尙南道陝川郡伽倻面海印寺 李又用

[요약：1939년 5월 1일 대본산 해인사에서 진주군 남문산포교당 담임자를 이우용으로 정하여 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함]

○제3870호 1939-12-13

布教所設置屆

布教規則第九條ニ依布教所設置屆ヲ提出シタル者左ノ如シ

屆出年月日：昭和十四年五月一日

所屬教宗派及布教所名稱：朝鮮寺利 大本山海印寺南文山布教堂

所在地：慶尙南道晉州郡文山面西象文里一〇四三

[요약：1939년 5월 1일 대본산 해인사에서 진주군 남문산포교당 설치계를 제출함]

○제3926호 1940-02-23

寺有林伐採許可 [本文省略]

○제3933호 1940-03-02

本末寺法變更認可 [本文省略]

○제4063호 1940-08-06

寺有林伐採期間延期許可 [本文省略]

○제4108호 1940-09-28

寺有土地寄附許可 [本文省略]

○제4129호 1940-10-26

寺有林伐採許可 [本文省略]

○제4236호 1941-03-08

寺有土地寄附許可 [本文省略]

○제4256호 1941-04-02

許可事項變更許可 [本文省略]

○제4287호 1941-05-12

寺有土地寄附許可 [本文省略]

○제4295호 1941-05-21

住持就職認可

慶尙南道陝川郡伽倻面海印寺住持二星下榮次就職ノ件申請ニ依リ昭和十六年五月八日認可セリ

[요약 : 1941년 5월 8일 성하영차 스님을 해인사 주지로 인가함]

○제4310호 1941-06-07

寺有林伐採許可 [本文省略]

○제4322호 1941-06-21

寺有林伐採許可 [本文省略]

○제4578호 1942-05-06

布教所設置屆

布教規則第九條ニ依布教所設置屆ヲ提出シタル者左ノ如シ

屆出年月日 : 昭和十五年十月十一日

所屬教宗派及布教所名稱 : 朝鮮寺利 大本山海印寺大邱峨嵒山布教堂

所在地 : 慶尙北道大邱府南山町六二八

[요약 : 1940년 10월 11일 대본산 해인사에서 대구부 아미산포교당 설치

계를 제출함]

○제4636호 1942-07-13

寺有林伐採許可 [本文省略]

○제4798호 1943-02-01

布教所所在地變更屆

布教規則第九條ニ依リ布教擔任者選定屆ヲ提出シタル者左ノ如シ

屆出年月日：昭和十六年六月九日

所屬教宗派及布教所名稱：朝鮮寺利 大本山海印寺安東布教所

舊所在地：慶尙北道安東郡安東邑西部洞二一〇ノ二

新所在地：慶尙北道安東郡安東邑西部洞五七

○제4847호 1943-03-31

寺有林伐採許可 [本文省略]

○제4911호 1943-06-17

寺有林伐採許可 [本文省略]

○제4973호 1943-08-28

寺有土地寄附許可 [本文省略]

○제4986호 1943-09-13

寺有林伐採許可 [本文省略]

○제5023호 1943-10-29

寺有林伐採許可 [本文省略]

○제5101호 1944-02-07

布教擔任者選定屆

布教規則第十條ニ依リ布教擔任者選定屆ヲ提出シタル者左ノ如シ

屆出年月日：昭和十八年九月二十二日

所屬教宗派及布教所名稱：朝鮮寺利 大本山海印寺布教堂

所在地：慶尙北道大邱府內唐洞一〇六四

住所氏名：慶尙南道陝川郡伽倻面海印寺 高山永鎮

[요약：1943년 9월 22일 대본산 해인사에서 대구부 포교당 담임자를
고산영진으로 정하여 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함]

○제5136호 1944-03-20

布教所設置屆

布教規則第九條ニ依布教所設置屆ヲ提出シタル者左ノ如シ

屆出年月日：昭和十八年九月二十二日

所屬教宗派及布教所名稱：朝鮮寺利 曹溪宗本山海印寺布教堂

所在地：慶尙北道大邱府內唐洞一〇六四

[요약：1943년 9월 22일 조계종본산 해인사에서 대구부 해인사포교당
설치계를 제출함]

○제5146호 1944-04-01

寺有林伐採許可 [本文省略]

○제5201호 1944-06-08

住持就職認可

慶尙南道陝川郡伽倻面海印寺住持ニ松原景霞就職ノ件申請ニ依リ昭和十九年
六月五日認可セリ

[요약：1944년 6월 5일 송원경하 스님을 해인사 주지로 인가함]

○제5286호 1944-09-15

寺有林伐採許可 [本文省略]

○제5289호 1944-09-19

寺有土地寄附許可 [本文省略]

○제5306호 1944-10-10

寺有建物廢棄處分許可 [本文省略]

○제5430호 1945-03-14

布教所設置屆

布教規則第九條ニ依布教所設置届ヲ提出シタル者左ノ如シ

届出年月日：昭和十九年十月十二日

所屬教宗派及布教所名稱：朝鮮寺利 本寺海印寺光州布教堂

所在地：全羅南道光州府芝山町七六番地

[요약：1944년 10월 12일 해인사에서 광주부에 해인사광주포교당 설치
계를 제출함]

○제5431호 1945-03-15

布教擔任者選定届

布教規則第十條ニ依リ布教擔任者選定届ヲ提出シタル者左ノ如シ

届出年月日：昭和十九年十月二十日

所屬教宗派及布教所名稱：朝鮮寺利 海印寺光州布教所

所在地：全羅南道光州府芝山町七六番地

住所氏名：慶尙南道陝川郡伽倻面海印寺 閔東宣

[요약：1944년 10월 20일 조선사찰 해인사에서 광주포교소의 담임자를
민동선으로 정하여 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함]

○제5470호 1945-05-02

寺有林伐採許可 [本文省略]

3. 시(詩)

3.1 해인사(海印寺)

1) 송추옥섬쇄사해인사(送秋玉蟾曬史海印寺)

先生詩格何清越。霜空萬里亭亭月。冰光浩蕩瀉山河。萬象森羅坐可掇。
先生直筆何森嚴。古鏡飛出雙龍匱。是是非非俱自然。懦夫有立頑夫廉。
吾聞伽耶山海印寺。儒仙崔子曾遊地。人間風月不能到。寶書玉牒如雲委。
此中奉使必是神仙曹。三年鶴駕下雲霄。多君今年得此行。秋光遠與人爭清。
青山落照永嘉路。紅樹澄江晉陽城。翩翩駟騎如輕鴻。快於身馭冷然風。
遙知三韓二十三代之實錄。一一掀攬雲山中。歸來馬上無一事。
採風應作南征記。卧閣豈無賢刺史。灌園豈無隱君子。穎川大姓孰豪橫。
巴徼窮民孰悲硬。碧雞金馬騁何嶺。朱草醴泉發何境。山碑海碣訪古奇。
野諺州箴推隱微。大書特書不一書。袖中卷得湖南歸。南人南人好看客。
皇華雖多無此客。埋輪露冕盡兒戲。此客褒誅華袞雜鈇鉞。

洪侃 撰[東文選]

쇄사(曬史)⁴⁾하러 해인사에 가는 추옥섬을 보내며
선생의 시의 격은 얼마나 맑고 뛰어났는가
서리 찬 허공 만 리의 깨끗한 달일네라.
얼음 같은 빛을 호탕히 산과 강에 쏟으면
갓가지 모든 형상을 알아서 주울 수 있네.
선생의 곧은 붓은 얼마나 삼엄한가
옛 거울이 쌍룡 경대에서 날아 나오네.
옳은 것 옳다 하고 그른 것 그르다 함은 모두 자연이거니
나약한 사람도 일어서고 탐하는 사람도 청렴해지네.
내 듣건대 가야산 해인사는

4) 쇄사(曬史) : 실록(實錄)을 산중에 감추어 두고 가끔 관원을 보내 꺼내어 벌에 쪼이고 바람에 쏘여서 좀먹는 것을 방지하는 작업을 말한다.

유선인 최자(고운(孤雲))가 일찍 논 곳이라 하네.
 인간의 바람과 달은 이르지 못하니
 보서와 옥첩이 구름처럼 쌓였다네.
 왕명을 받들고 거기 가는 이는 반드시 신선의 무리이리라
 3년 만에 학을 타고 구름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대는 금년에 거기 가게 되었으니
 가을빛이 사람과 더불어 맑기를 다투리라.
 푸른 산에 떨어지는 해는 영가(안동(安東))의 길이요
 붉은 나무에 맑은 강물은 진양의 성일네라.
 빨리 달리는 역말은 가벼운 기러기와 같거니
 몸으로 냉연한 바람 탄 것보다 더욱 상쾌하리라.
 멀리서 아노니 삼한 23대의 실록을
 구름산 가운데서 날날이 뒤지리라.
 돌아올 땐 말 위에서 아무 일도 없으리니
 아마 풍요를 채집하여 남정기를 지으리라.
 와합에 어찌 어진 자사가 없으며
 관원에 어찌 숨은 군자가 없으랴.
 영천의 대성으로 누가 호세와 황포를 부리던가
 산골 민공은 누가 슬퍼하고 울던가.
 벽계와 금마는 어느 재에
 주초와 예천은 어느 지경에서 났던가.
 산의 비석과 바닷가의 비석에서의 기이한 고적 찾고
 시골의 상말과 고을의 잠에서 은미한 일을 알아내어
 크게 쓰고 특별히 써서 한 번만 쓰지 말고
 소매 속에다 호남을 말아 넣어 돌아오리라.
 남인남인들아 이 손님을 잘 보아라
 왕명 받은 사신이 아무리 많아도 이런 손은 없으리라.
 수레바퀴를 묻고 얼굴을 가리지 않고 드러냄은 모두 아이 장난이네

이 손님은 상 주고 벌 주는데 화근과 부일을 겪었느니라.

2) 차운제해인사(次韻題海印寺)

石徑幽深鳥伴行。滿軒煙月放歡情。憧憧掩映溪涵影。鍾梵鏘洋谷答聲。
坐欠洞雲生又滅。談餘籠燭暗還明。許多風物畵取拾。作記吾今愧李程
[南陽詩集 白賁華]

3) 송추옥섬쇄사해인사(送秋玉蟾曬史海印寺)

[在星州伽倻山之西陝川郡冶爐縣之北。新羅哀莊王所創。高麗嘗藏

歷代實錄于此寺中。令史官乘驛三年一曝焉。本朝移藏于星州]

先生詩格何清越。霜空萬里亭亭月。水光浩蕩瀉山河。萬象森羅坐可掇。先生
直筆何森嚴。古鏡飛出雙龍奩。是是非非俱自然。懦夫有立頑夫廉。吾聞伽倻
山海印寺。儒仙崔子曾遊地[崔致遠自唐東還。同年顧雲作儒仙歌以贈焉。致遠晚年。携
家入此寺洞居焉。一朝。早起出戶。莫知所歸。人以謂仙去] 人間風日不能到。寶書玉
檢[檢一云牒]如雲委。此中奉使必是神仙曹。三年鶴駕下雲霄。多君今年得此
行。秋光遠與人爭清。青山落照永嘉[今安東]路。紅樹澄江晉陽城。翩翩駟騎
如輕鴻。快於身馭冷然風。遙知三韓二十三代之實錄。一一掀攬雲山中。歸來
馬上無一事。採風應作南征記。臥閣豈無賢刺史。[汲黯爲淮陽太守。閉閣臥理]灌
園豈無隱君子。[高士傳。楚陳仲子聘爲相。妻曰。結駟連騎。所安不過容膝。食方丈於
前。所甘不過一肉。夫妻乃逃。爲人灌園] 潁川大姓孰豪橫。巴徼窮民誰悲硬。碧鷄
金馬[漢宣聞蜀有碧雞金馬神 令王褒持節往求焉] 騁何嶺。朱草醴泉發何境。山碑海碣
訪古奇。野諺州箴推隱微。大書特書不一書。袖中卷得湖南歸。南人南人好看
客。皇華雖多無此客。埋輪 張綱 露冕 郭賀 盡兒戲。此客褒誅華袞雜鈇鉞。

[洪崖遺橐 洪侃]

4) 송취덕성사관쇄사해인사(送崔德成史官曬史海印寺)

海印名藍在何許。冶爐縣理伽邪山。聞昔孤雲隱居此。白日飛升唯掛冠。
緱山笙鶴今尚在。往往地仙相往還。云是三災未到處。三韓文籍藏其間。
我嘗承乏曬國史。公餘無事身長閑。是時清秋好時節。乘興日日窮躋攀。

州牧趨風競投刺。紅粧載馬張杯盤。爭勸少年行樂耳。此間不可不盡歡。
 猶嫌油頭汙淨境。斥去不顧心自安。歸來一步登騎省。自古清要稱郎官。
 轉頭廿又九年強。至今兩袖餘芸香。崔侯手有董狐筆。文章遠繼班馬揚。
 快哉此行世希有。況復菜衣稱壽觴。尋奇選勝得佳句。山綠湖光溢錦囊。
 吾君政爾求賢急。來趨文陛承恩光。

[益齋見及菴稿。謂予曰。若未見送崔史官詩耶。乃長篇之尤者也。於是求於崔氏而得之]

[及菴詩集 閔思平]

5) 송라옹제자인대장해인사(送懶翁弟子印大藏海印寺)

舍利光芒照刹塵。門生幹事有精神。伽倻海印印全藏。自道無爲閑道人。
 天闔春光方浩蕩。雲收山勢更嶙峋。歸來明效非難見。九五箕疇獻紫宸。

[牧隱藁 李穡]

대장경을 인출(印出)하러 해인사로 떠나는 나옹의 제자를 보내면서

스승의 사리 영롱하게 온 누리를 비치는데,
 일 맡은 제자 역시 신기 감도는 풍채로세.
 가야산 해인사로 대장경 찍으러 떠나면서
 스스로 할 일 없는 한가한 도인을 말하누나⁵⁾.
 하늘 멀리 뻗친 봄빛 끝도 없이 펼쳐지고,
 구름 걷힌 산의 자태 더욱 우뚝 솟았으리.
 돌아오면 분명한 효과 어찌 보기 어렵겠소.
 기주의 구오⁶⁾를 듬뿍 대궐에 바쳐 올리리니.

6) 추일유해인사증전사관(秋日遊海印寺贈全史官) 二首

滿山秋雨蔚嵐天。路險征鞍立却前。自遠方來良有意。武陵溪上訪儒仙。
 有客來從鶴背天。夜深風雨對尊前。蓬山已是非塵世。更作三清洞裏仙。

5) 가야산(伽倻山) …… 말하누나 : 그가 비록 교종(敎宗)에서 숭봉하는 대장경(大藏經)을 인출하기 위해 떠나지만, 그의 면모를 보면 이심전심(以心傳心) 불립문자(不立文字)를 주장하는 선종(禪宗)의 승려로서 과연 나옹의 제자답다고 하는 말이다.

6) 기주(箕疇)의 구오(九五) : 기자(箕子)가 지은 홍범구주(洪範九疇) 가운데 아홉 번째로 나오는 오복(五福), 즉 수(壽)·부(富)·강녕(康寧)·유호덕(攸好德)·고종명(考終命)을 말한다.

7) 수암문장로인장경우해인사희정
(睡菴文長老印藏經于海印寺戲呈)

睡菴認破本來眞。不是尋行數墨人。安用區區印經卷。止啼黃乘未爲珍。
曹溪一味豈言傳。微笑拈花亦偶然。好向武陵橋上看。山光水色蔚藍天。
海印洞口。有武陵橋。 [陶隱集 李崇仁]

수암 문 장로가 해인사에서 대장경을 찍었다기에
우스개 시를 지어 증정하다
수암은 본시 진면목을 깨달은 분이라서
언어와 문자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닐 텐데,
뭣 때문에 구구하게 경전을 찍어내실꼬.
울음 달래는 황엽은 귀할 것이 없으려면,⁷⁾
조계의 일미⁸⁾를 어찌 말로 전하리오.
염화의 미소⁹⁾도 저절로 된 것일 뿐.
무릉교 위에서 보는 경치 얼마나 좋소
산빛과 물빛이 쪽빛 하늘에 영겼으니.
해인사 동구(洞口)에 무릉교가 있다.

7) 뭣 …… 없으려면 : 이심전심(以心傳心)을 표방하는 선종(禪宗)의 입장에서는 교종(敎宗)에서 중시하는 불경(佛經)에는 관심이 없을 텐데, 무슨 이유로 대장경을 인행(印行)하는 수고를 하느냐는 뜻의 해학적인 표현이다.

8) 조계(曹溪)의 일미(一味) : 조계는 선종(禪宗)을 가리키고, 일미는 일미선(一味禪)의 준말로 선종의 순일무잡(純一無雜)한 최상승선(最上乘禪)의 경지를 가리킨다. 육조대사(六祖大師)로 불리는 당나라 혜능(慧能)이 조계산(曹溪山) 보림사(寶林寺)에서 선종의 정통인 남종(南宗)을 개창하였기 때문에 조계가 선종의 별칭으로 쓰이게 되었다. 또 일미선은 불립문자(不立文字)의 돈오(頓悟)를 목표로 참선하는 것을 말하는데, 당나라 선사(禪師) 마조도일(馬祖道一)이 여러 문파의 오미선(五味禪)에 대해서 자신의 가풍을 단번에 돈오하게 하는 일미선이라고 일컬으면서 선풍(禪風)을 날렸던 교사가 전한다.

9) 염화(拈花)의 미소(微笑) : 언어와 문자를 떠나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선종 최고의 경지를 뜻하는 말이다. 석가모니가 영산회상(靈山會上)에서 염화시중(拈花示衆)했을 때, 대중이 모두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오직 가섭(迦葉)만이 파안미소(破顏微笑)를 짓자, 석가가 “나에게 있는 정법안장(正法眼藏)·열반묘심(涅槃妙心)·실상무상(實相無相)·미묘법문(微妙法門)·불립문자(不立文字)·교외별전(敎外別傳)을 마하가섭(摩訶迦葉)에게 부촉하노라.” 라고 했다는 말이 육조대사(六祖大師)의 법보단경(法寶壇經) 서문과 오등회원(五燈會元) 권1 등에 나온다.

8) 송이서관백유쇄사해인사(送李史官伯由晒史海印寺)

皮裡春秋善否臧。仍將直筆立周行。如今又向藏書窟。實錄昭垂日月光。

[陽村集 權近]

해인사로 사서(史書)를 포쇄(曝曬)하러 가는
서관(史官) 이백유(李伯由) 을 전송하다.
살갓 속에 춘추¹⁰⁾있어 포핼(褒貶)을 잘하기에
곧은 붓대 손에 쥐고 벼슬줄에 서 있었네.
이제 또 장서의 굴로 향해 가니
해와 달같이 실록이 밝아라.

9) 해인사(海印寺)

巖壑盤回一路通。萬重山擁梵王宮。天陔地秘寰區奧。殿古廊回結構雄。突兀
書岩流瀑外。荒涼碁閣夕陽中。自註。書岩，碁閣。皆文昌侯崔致遠所遊處也。孤雲
遐躅無人繼。千載悠悠鳥沒空。 [陽村集 權近]

해인사

깊은 계곡이 돌렸는데 한 길이 트였고
일만 겹 산이 범왕궁¹¹⁾을 에웠구나
하늘이 아끼고 땅이 감추듯이 깊숙이 들어 앉은 곳인데
오래된 궁전에 낭사가 돌려 구조가 웅장하구나
숫아오른 서암은 흐르는 폭포 밖이요
황량한 기각은 저녁 별 가운데로다
자주, 사암, 기각은 모두 문창후(文昌侯) 최치원(崔致遠)이 놀던 곳이다.
고운의 먼 자취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
천재에 유유하게 새만 공중에 나는구나

10) 살갓 속에 춘추[皮裏春秋] : 진(晉) 나라 저부(褚裒)의 자(字)는 계야(季野)인데, 환이(桓彝)가 지목하여 말하기를 “계야는 살갓 속의 춘추[春秋]이다.” 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이는 겉으로 는 시비 선악이 없어도 속으로는 포핼(褒貶)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11) 범왕궁(梵王宮) : 사마 세계를 지키는 색계(色界) 초선천(初禪天)의 대범천왕(大梵天王)의 궁전으로서 여기서는 절을 뜻한다.

10) 억고운(憶孤雲) 游陝川伽倻山海印寺作

林間冠屨去茫茫。誰識儒仙本不亡。流水籠山吟已遠。風雲猶護讀書堂。

奉呈不憂軒居士 申末舟子楫。號歸來亭。高靈人。甲戌丁科府尹。

自古孤芳不寄林。故將松竹作知音。不憂軒外風煙好。只管時時成一吟。
此身行世任疏狂。緣是癡柔不好強。閒退故園知有足。卜隣安敢望餘光。
聞說田園對翠微。掉頭高臥早忘機。濯纓溪畔寒侵骨。倚杖松間露滴衣。
門外影垂彭澤柳。籬邊根托首陽薇。圖書浦壁塵蹤絕。惟有僧敲月下扉。

[不憂軒集 丁克仁]

11) 송호당헌상인환해인사(送浩堂軒上人還海印寺) 三首

伽山偃蹇陝水澄。寺在雲烟第幾層。惆悵去年山下過。白雲可望不可登。
孤雲仙人去千載。三山渺渺有高臺。安得手携上人去。喚得孤雲一笑開。
雲松居士好事者。山中奇事舌生津。春風無限嶺南興。說與浩堂軒上人。

[四佳集 徐居正]

해인사로 돌아가는 호당헌 상인(浩堂軒上人)을 보며. 3수

가야산은 우뚝하고 합천의 물은 맑은데
해인사는 구름 연기 몇 겹 속에 있고
서글퍼라 내 거년에 그 산 밑을 지나면서
흰 구름을 바라만 보고 오를 수는 없었네
고운선인¹²⁾은 떠난 지 천 년이 지났는데
삼신산이 아득해라 높은 누대가 있거니
어떻게 하면 상인과 서로 손 잡고 가서
고운을 부르면서 한번 활짝 웃어나 볼까
운송거사는 일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이라
산중의 기괴한 일로 입에 거품이 생기리니

12) 고운선인(孤雲仙人) : 고운은 신라 말기의 유학자인 최치원(崔致遠)의 호인데, 그가 일찍이 난세(亂世)를 피하여 가야산(伽倻山) 해인사(海印寺)에 들어가 은거했던 까닭에 그를 유선(儒仙)이라 한테서 온 말이다.

봄바람에 하염없는 영남의 흥밋거리를
호당헌 상인에게 남김없이 말해줄 걸세.

12) 차해인사상실판운(次海印寺上室板韻)

見說伽椰寺。虛經十載聞。我來雲作伴。僧臥鹿爲羣。
客枕寒溪澈。香盤淨夜分。多生膏火裡。慚愧抱辛勤。

[私淑齋集 姜希孟]

13) 해인사주지학의(海印寺住持學誼) 持水多寺詩卷請和

金地重輪奐。旁招絕學禪。眞乘良足衛。綺語不曾傳。
分食禽窺鉢。支筇月滿川。非師覩天奧。何以答雲烟。

[佔畢齋集 金宗直]

해인사의 주지 학의가 수다사의 시권을 가지고 와서 화답하기를 청하다

금지에 장대한 건물 중수하고
끊어진 선학을 널리 불러들이니
진실한 교법(教法)은 진실로 호위하기에 족하고
기어¹³⁾는 일찍이 전하지 않았다고.
나눠 먹으니 새는 바리때 엿보고
지팡이 기대니 달은 내에 가득하네
진리를 터득한 스님이 아니면
어떻게 구름 연기에 보답하리오.

14) 해인사(海印寺) 雨後涼甚 夜半看月 贈克己

天將凍雨賭清秋。半夜鍾聲般石樓。却憶當年香積寺。一輪明月萬山頭。

香積寺。在頭流山天王峯下

[佔畢齋集 金宗直]

해인사에서 비온 뒤에 매우 서늘하므로
밤중에 달을 구경하면서 극기에게 주다

13) 기어 : 교묘하게 꾸미어 도리에 어긋나는 말을 뜻한다.

하늘이 찬비 내려 맑은 가을 재촉하는데
 한밤중의 종소리는 석루에 은은하구나
 문득 당년의 향적사를 회상하노니
 한 바퀴 밝은 달이 만산 봉우리에 빛났으리.
 향적사는 두류산 천왕봉 아래에 있다.

15) 해인사(海印寺)

古伽椰裏蔚伽藍。千里雲山對面參。鳥下庭莎僧入定。狙垂園樹梲 羊矢糞
 方甘。書巖棋閣何人住。卽孤雲所遊之處 風伯桐孫偶共談。客裏計程仍不寐。
 夜深蘿月照松龕。客有題于毗盧殿。欲識華嚴不思議。看取毗盧金殿上。桐孫風伯作檀
 那。四時不絕聲供養。 [梅月堂集 金時習]

16) 제해인사(題海印寺)

人靜庭際半綠陰。銅仙無語影沈沈。分裁琪樹遮珠網。擎出青蓮護寶林。
 燈照千廊擎白玉。水包四面蘸黃金。登樓一覽蓬萊境。萬歲高峯插翠岑。
 [虛白堂集 成倪]

17) 해인사회고(海印寺懷古) 四絶

龍象時從麟鳳俱。郎師元是惠休徒。至今海印門前水。似管當時三笑圖。
 辰韓王氣漠然收。金地誰知玉輦遊。落日觚稜餘舊物。人間海屋幾添籌。
 林間冠履去茫茫。誰識儒仙本不亡。流水籠山吟已遠。風雲空護讀書堂。
 甌毳影裏上飄梯。何處丹崖四字題。木客等閑休弄月。急須沽酒要相携。
 [潘谿集 俞好仁]

18) 차해인사벽상운(次海印寺壁上韻)

十里張公霧。晨鍾下界聞。天風初斷夢。凡骨欲超群。
 萬壑秋聲◇。孤燈桂影分。棲霞知有地。忙裏謝勞勩。
 天遊幾龍漢。一 倘君間。霞佩遙傳響。冥鴻獨迴群。

仙班雲共逝。詩■■■■月平分。朝暮如相遇。須知慕◇勤。
君王曾駐蹕。時事不堪聞。寶殿凌霄構。齊民與鹿群。
雨侵金象剝。磚斷劫灰分。黃落鷄林葉。無端感慨勤。

[潘谿集 俞好仁]

19) 해인사(海印寺)

拂盡征衫紫靄邊。長歌遙禮上清僊。風巖倏翕疑冰雪。水穴春容認管絃。
吟桂剩將修月斧。尋真會就與天牋。夕陽半暝雲生岫。政值遊人句欲圓。
武陵橋上逢時叔。玉室金堂訪寶函。半嶺清詩松榻右。一方明月石樓南。
冥心已撥簪纓累。幽夢初和草樹酣。玉頰雲髯猶髣髴。滿庭蒼檜立晴嵐。

[潘谿集 俞好仁]

20) 해인사(海印寺)

石橋斜入訪禪門。暫借瓊樓倚夕曛。蒲盎苔深涼意在。渚蓮風度好香聞。
流回禁液西湖水。清透重簾萬壽雲。閨苑蓬萊尋不得。仙凡疑比路中分。

[忘軒遺稿 李胄]

21) 방해인사(訪海印寺) 僧徒多持紙乞詩。醉中輒漫書與之。

椰山主人眼紺碧。山中幾年掛飛錫。客至迎門笑不言。椰山蒼蒼柳水綠。
山僧知我我知僧。默坐相看話不應。巖畔春花開灼灼。潭心夜月照澄澄。
暫逃簿領叢中苦。來訪紅流洞裏天。造物似嫌閑一刻。更教山衲乞詩篇。
禪窓暫借支頤睡。覺後忘吾正嗒然。何處老僧來索句。我無言說亦無緣。
白首皇華使。厖眉雲水僧。相逢海印寺。共上碧峯層。

[慕齋集 金安國]

22) 해인사독서(海印寺讀書) 儒生朴紹，文濬等求贈語。書贈。

[山西有木谷村。金先生宏弼卜築修學于此]

諸生叩我無他語。末谷村纔十里間。聞有金公棲築處。椰山應是武夷山。

[慕齋集 金安國]

23) 유도희사증우어해인사(有道熙師曾遇於海印寺)

來索詩。簿領中。卒次朴昌世韻。

簿書顛倒眼昏埃。愁緒紛紛未易排。夢咽伽倻山水響。雲扃無計得重開。
[慕齋集 金安國]

24) 해인사(海印寺)

松檜十里轉。梵宮金碧明。入眼未曾見。洗然神骨清。
不有半日雅。幾令負平生。小詩豈爲詠。因之題我名。
[容齋集 李荇]

해인사

십 리라 솔숲 길을 휘돌아 가니
단청도 화려한 절간이 보이누나.
일찍이 못 보던 경치 눈에 드니
씻은 듯 정신과 뼈가 맑아지도다.
한나절도 이곳 머문 적 없다면
거의 평생을 헛되이 보낸 셈이리.
작은 시 어찌 읊기 위한 것이라
이로 인해 내 이름 적기 위해서지.

25) 유해인사(遊海印寺)

三月韶華客中老。騎馬忽踏長安道。長安士女靚粧新。怪余衣冠何草草。
連牆接屋千萬家。堆金積玉如相誇。策轡茫茫無所詣。塵沙漠漠吹面紗。
人入海印寺非遠。入門上堂僧午飯。試登高閣豁雙眸。忽覺胸中破孤悶。
湯湯海子繞皇城。翦翦輕風搖磬聲。閣影連天塔影直。檜花滿地菜花明。
香幡寶蓋殿宇邃。大士高軀金碧秘。古鑪長然無盡燈。貝葉尚留西梵字。
吁嗟佛法入中國。至人悟道迷者惑。柰何不念民力殫。爭尚虛無事崇飾。
礱磚築砌如高山。禁籞瓊樓相對閑。同遊自是權與李。陪侍又有張序班。
輪藏殿前共延佇。啜罷茶甌各歸去。茲遊亦足多環觀。持向邦人誇說與。

[陽谷集 蘇世讓]

26) 해인사경광각(海印寺鏡光閣)

玉河滄瀉似無津。層閣雲梯晚跨身。法供初看椰子釘。琅函重檢竺書陳。
迴窮繚繞三條路。俯視冥茫一片塵。却愧胡僧禪縛熟。去蓬難駐悶征人。
從來圓鏡可降魔。古殿初開竦髮華。佛髻僧眉光洞徹。珠幢寶蓋影橫斜。
磨磚取喻功何累。頓悟明心瑩可誇。珍重遠公能會旨。但供魚菜飲流霞。

[與序班夏君麟小酌閣前。住僧亦來共飲。饋菜菹三種。極美]

[湖陰雜稿 鄭士龍]

27) 해인사증김한이군(海印寺贈金韓二君)

我生久羈鼻。紅塵渾白頭。向在丙申歲。濯纓此溪流。邇來幾夢想。
今茲續舊遊。楓林然萬壑。擺我區中愁。富貴於世間。豈啻行雲浮。
愚夫昧形役。勞生春復秋。誰能謝朝簪。結茅山阿幽。故人金與韓。
骨格真仙儔。早慕孤雲遊。托契依林丘。風情付物外。意氣遊十洲。
邀我七星石。此計良有由。酌酒侑我醉。狂興浩不收。萬事信蕉鹿。
何物非謬悠。我欲入江海。散髮友群鷗。懸符就城市。恐爲青山羞。
永與二君約。斯言非外求。聊爲桃李贈。莫惜金玉投。

[武陵雜稿 周世鵬]

28) 제해인사사문주(題海印寺沙門柱)

一柱門前憩。三竿日已曛。梨花山雨後。滿地白紛紛。

[石川詩集 林億齡]

29) 합천해인사무릉교(陝川海印寺武陵橋)

丹崖不見青鸞返。千載瑤壇只白雲。碧洞春深山杏落。澗風吹雨入禪門。

其二

遠客來尋千古寺。禪宮壯麗對高岑。孤雲獨鶴忽飛去。寂寞荒臺歲月深。

[藥圃遺稿 李海壽]

30) 차해인사운(次海印寺韻)

百尺飛泉十二巒。斷水殘雪淡粧間。雲寒古洞仙蹤遠。欲把瑤琴問此山。
虹流洞裏水悠悠。學士臺荒問幾秋。笙鶴漸遙雲杳杳。蟠桃樹老映山樓。
入定高僧眼正碧。隨身只有一瓶錫。此中所樂問何如。笑指伽倻山水綠。

[拙翁集 洪聖民]

31) 가야산해인사운(伽倻山海印寺韻)

曲曲層崖疊疊巒。不教仙訣漏塵間。臨流說與潺潺水。有底奔忙便出山。
珠樹瓊枝擁作巒。梵宮飛入白雲間。溪流莫放桃花去。恐遣漁郎便入山。
層層琪樹擁重巒。清磬如何落世間。觸石清泉磨濯盡。嫌他陳跡溷仙山。

[拙翁集 洪聖民]

32) 해인사차림운(海印寺次林韻)

檜蔽中天旭。山含萬古曛。春潢噴虎豹。滿壑雪紛紛。

[覺齋集 河沆]

33) 제해인사장불경각(題海印寺藏佛經閣)

六十間藏八萬經。漆邊銅飾字如星。當時肉食人。何不敢諫臺城十萬兵。

[覺齋集 河沆]

34) 구일등해인사학사대(九日登海印寺學士臺)

伽倻山色鬱崔嵬。下有仙人住鶴臺。紅樹千巖迷曉望。黃花一逕負深杯。
登高異國誰堪共。乞法空王我亦來。覽勝不知身是客。更從滄海問蓬萊。

[龍潭集 朴而章]

35) 유해인사(遊海印寺)

伽倻清淑擅南州。今日來尋作勝遊。山意欲呈無盡態。更教疎雨灑紅流。

36) 야유해인사(夜遊海印寺) 次思坡韻。

步入招提境。蕭條落木時。鍾殘僧定早。雲暝鶴歸遲。
簾爲看山捲。床因就竹移。春來應更好。休負後遊期。

元韻

尋芳來古寺。正值陽春時。樹密藏風細。山高出月遲。
溪聲連夜急。嵐氣帶明移。把酒紅霞裏。乘鸞便有期。

[仙源遺稿 金尙容]

37) 해인사(海印寺)

夕陽漸下亂峯西。老樹陰中信馬蹄。借問洞天深幾許。白波紅葉使人迷。

[漢陰文稿 李德馨]

38) 서해인사승축(書海印寺僧軸)

一宿禪房記昔遊。至今魂夢繞紅流。芒鞋布襪非無計。五斗淹留愧白頭。

[愚伏集 鄭經世]

해인사 승려의 시축(詩軸)에 쓰다.

선방에서 하루 묵은 지난 유람 생각하면
지금에도 꿈속에선 홍류동¹⁴⁾을 오고가네.
짚신 신고 다시 가볼 계책 없지 않건마는
오두미¹⁵⁾를 못 떠나는 흰머리가 부끄럽네.

39) 과해인사(過海印寺) 贈戒慧僧。

夢想名區問幾年。偶來今日訪幽禪。蒼藤老檜藏山逕。彩霧祥雲鎖洞天。
紅錦交輝霜後葉。明珠散落石間泉。仙鄉不許留塵客。匹馬西風獨悵然。

[澗松集 趙任道]

14) 홍류동(紅流洞) : 가야산(伽倻山) 해인사(海印寺) 걸을 흐르는 시내 이름이다.

15) 오두미(五斗米) : 쌀 다섯 말이라는 뜻으로서 고을 수령이 받는 하찮은 녹봉(祿俸)을 말한다.

40) 해인사우설(海印寺遇雪)

東風三月入伽倻。只恨紅流不見花。却似天公眞會意。萬山琪樹綴晴葩。

[木齋集 洪汝河]

41) 해인사(海印寺)

山擁觀音殿。雲晴學士臺。興來無遠近。佳處輒徘徊。
石老莓苔合。溪香躑躅開。詩仙今不在。誰與勸深杯。

學士臺是崔孤雲所遊處

[清溪集 洪葳]

42) 해인사귀로(海印寺歸路) 寄李美叔巡相。

聞道秋風玉節還。強扶羸病爲登山。千年寺迴層雲外。一壑溪明亂樹間。
勝地清遊仍別席。美人高唱摠愁顏。歸來洞口頻回首。片月依然在曉巒。

[水村集 任墜]

43) 해인사(海印寺) 同亞使李茂卿喜茂，陝川守徐仲所唱和。

寺創羅之季。山雄嶺以南。歸雲將遠磬。逝水引遊驂。
子且休田事。吾方放酒談。千峯新得雪。頃刻玉巉巖。

[西坡集 吳道一]

44) 송성능상인귀가야산해인사 次其韻 (送性能上人歸伽倻山海印寺)

雲蹤不合久寰中。一錫飄然又漢東。遙指伽倻卽葱嶺。方知海印是龍宮。
潭空此性長留月。栢老前身尚有風。妙在觀心成佛地。津梁未必作眞功。

上人善募緣

[柳下集 洪世泰]

45) 해인사별효선상인(海印寺別曉善上人) 壬午

拋却山南七十州。浩然行色此禪樓。箇中別有關心處。九曲江流滿樹秋。

[損窩遺稿 崔錫恒]

46) 해인사(海印寺) 次吳西坡韻。贈徽上人。

辛巳清和六日。巡到海印寺。偶次西坡韻。贈徽上人。以作他日尋眞之契券云
巖綠溪紅瞥眼移。雨餘山色頓添奇。方當棟宇重新日。政值檐帷始到時。
思愜勝情頻拄杖。爲探佳句細傾卮。孤雲舊跡渾如昨。未覺行旌出洞遲。

[損窩遺稿 崔錫恒]

47) 해인사차최고운운(海印寺次崔孤雲韻)

毗盧故殿擁羣巒。學士遺題水石間。怱悵仙蹤無覓處。長留明月照青山。

[寒圃齋集 李健命]

48) 해인사(海印寺) 次軸中韻

學士遺臺古寺西。孤松無語獸交蹄。千秋欲問仙遊事。萬壑雲烟處處迷。

其二

曉起山房月在西。塵區萬念等筌蹄。他時欲訪紅流洞。只恐仙源路易迷。

其三

歸程又出寺門西。春早溪山雪沒蹄。更與高僧留後約。洞天雲徑不應迷。

[謙齋集 趙泰億]

49) 모춘유해인사(暮春游海印寺) 贈訥上人。

郊居無草木。三月未看花。春風如有意。相約訪禪家。

二

禪家在何許。十里花映樹。洗花踏清泉。洗心參佛祖。

三

我問西來意。鳥啼巖下枝。巖花映春水。春水本無知。

[靑泉集 申維翰]

50) 해인사(海印寺) 走筆 次孤雲韻 甲辰

道體無言自融釋。筌蹄何事經文譯。縱能譯得恒沙多。不是精微是粗迹。

[東溪集 趙龜命]

51) 방향해인사(方向海印寺) 途中口占。

入山衣袖已翩然。馬首秋光照鬢邊。白菊花侵幽澗淨。丹楓葉着早霜妍。
仙區了債知今日。寶刹聞名記幼年。只恐茲遊難盡意。鄉愁渺渺正相牽。

[貞菴集 閔遇洙]

52) 해인사(海印寺)

東入紅流洞。西登學士臺。徘徊想像處。得月故鄉來。

[百弗菴集 崔興遠]

53) 숙해인사(宿海印寺)

飛閣重重夕氣迷。千龕熒晃上燈齊。經藏古刻森空宇。香逐輕霞散遠谿。
煙塔嵯峨高殿上。雲松蕪沒曲臺西。夜深唯對孤僧影。躑躅花開月未低。

臺有孤雲手植松云

[江漢集 黃景源]

54) 야숙해인사(夜宿海印寺)

禪寮遂窈窕。人客自團圓。落木山多月。寒鐘塔在煙。

四溟碑已老。中土鉢猶傳。斗起踰城念。經聲境悄然。

[艮翁集 李獻慶]

55) 동익경방해인사(同翼卿訪海印寺) 暮愁涵碧樓 在陝川

橋勢迢迢送一騾。渡頭微徑接崇阿。巖浮絕怪懸危棟。欄出眞成坐碧波。
暝渚客來星照楫。古龕鍾罷月生蘿。世間熱惱應須滌。笑拂冷風飲絳河。

[樊巖集 蔡濟恭]

56) 해인사(海印寺)

陝川海印寺。壯麗稱八路。肩輿初入洞。幽事漸相聚。湫深若貯汞。
窈窕萬象具。樹影錯脛肘。山光寫肺腑。愛羽鳥頻窺。恃毛獺能泐。

別幽類夢靈。叫奇競清醜。颯廩頰藏粟。蝟載背刺芋。俄頃轉譎詭。
生疎甚疑懼。照爛忽衣錦。十里擁丹樹。飛霆颺高峽。百泉湧傾注。
搏嚙驚相合。觸鬪卻還赴。水性木柔順。犖确石與遇。不肯一頭讓。
遂成千古怒。餘湍伏沙鳴。幽咽向人訴。不知水於石。有何相嫉妒。
使水不相激。石應無怨忤。願言石小遜。水亦流平鋪。奈何力排爭。
日夜事喧嘩。歷險賴舉僧。替擔纔數步。肩駢憐凹窞。巔赭恐破瓠。
捧腰喘方短。透背汗因沍。問爾何所聊。辛苦萬山住。雜役供官紙。
餘力織私屨。猶將畏過客。犇趨似赴募。見此心悱惻。不忍無控籲。
換屨覓短筇。仄逕任顛仆。畫史入秋山。意匠在遠暮。霜林饒丹青。
冷陽替絹素。洞門忽廣圻。百車可並驅。疊樹遠掩映。層閣半呈露。
老僧候蘿逕。巾衲詭制度。慙懃勞遠途。合掌成禮數。引我入寺門。
眩轉勞頤顛。巨靈屹當前。手脚實危怖。張口裂至目。突睛黃金鍍。
耳中拔雙蛇。蜿蜒若射霧。汗漫擁琵琶。落莫執劔屨。努力蹋鬼腹。
鬼目舌並吐。楓魑腕鑿落。竹魍爪回互。覆肩薛蘿襟。掩肚虎皮袴。
乖龍及早魃。尻角相依附。雷公與飛廉。嘴額獨天賦。顛倒竄鞞底。
爬空匝臂股。佛殿寒洞天。蕙梢纔容煦。金碧閃相奪。視陽自昏瞽。
雕窓成菡萏。翩翩浴鷺鷥。連理并紫葳。比翼結翠喙。妖童弄驪珠。
豔女調鳳箏。星官從羽衛。步雲集瓊圃。玲瓏罷周覽。悵然使心駁。
還如夢中景。沉沉常雨雨。又似愁裏饑。滿眼不飽餽。始知詭異觀。
樂極還無趣。我聞牟尼佛。鼻眼本醜惡。或恐後世人。嘔穢不愛慕。
輕儇齊梁兒。私意傳繪塑。么麼或如豆。前生若可悟。塊然丈六身。
一肢可專輅。箇箇指連坎。巨細悉嫩嫻。於佛更何有。此計儘錯誤。
所以尊之者。還自極訛謔。紛紛妍蚩間。慧心應如故。回廊八十間。
蕩蕩藏經庫。漆板明如鏡。烹鹽備蟬蠹。委積若凌陰。失目驚瞿瞿。
譬如列錦肆。五字缺。織織比盾千。簣簣插箇籥。徘徊試抽看。
茫然失箋註。光怪時迸發。五金入鎔鑄。誰能說乘法。無人缺廬渡。
步庭不敢唾。粒墜堪拾哺。除級無封螳。瓦縫絕棲羽。不掃自無塵。
淨若沐新灑。寒風_[缺]瑟然。百神陰呵護。問誰勑此寺。傾國致財賂。

宿昔穿曾僧。浮海常來寓。厥像黑如烏。崎嶇若老嫗。緬言刻經初。
 荒怪難討^[缺]。李氏名居仁。媚佛求嘏祚。家產三眼狗。愛養如養孺。
 狗去不知處。忽若忘嚙。及死到黃泉。乃與神人還。三目亦如狗。
 驚喜潛囑喻。實感主人恩。冥祐行^[缺]寤。願刻八萬偈。佛事廣傳布。
 汗發若夢寐。洒然去沉痼。親戚謀棺斂。鄉隣致賄賂。感激神所言。
 全經剞劂付。此事誠荒唐。邃古非可遯。且令真有是。儒者所不措。
 所歎十三經。遠購燕市驚。彼能一人力。刻板千載固。朝上學士臺。
 文昌如可晤。此子喜神仙。終身不再娶。得道忽飛昇。雙履遺林步。
 軒轅雖騎龍。喬山尚有墓。暝宿倚禪榻。初月^[缺]蟾兔。金塔鳴風鐸。
 玉燈貫虹炷。淸梵搖魚^[缺]。虛籟發釣護。 [燕巖集 朴趾源]

해인사¹⁶⁾

합천이라 해인사 절이 있으니
 웅장 화려는 팔도에 이름이 났네.
 가마 타고 골짜기에 막 들어서니
 그윽한 경치 차츰차츰 모여드누나.
 못은 깊어 수은을 담아 놓은 듯
 온갖 형상 아리답게 갖추었어라.
 팔다리에 얼크러진 나무 그림자
 폐부를 뚫고 드는 산빛이로세.
 제 깃 사랑하여 비취 보려고 새는 자주 물을 기웃거리고
 제 터럭 민고 수달은 능히 물을 거슬러 오르네.
 으스스한 곳 헤치고 지날 땐 악몽을 꾸는 듯
 괴성을 지를 적엔 건주정 피우는 듯.
 다람쥐는 뺨에다 물어 밤을 저장하고
 고슴뚝은 등의 가시로 찢러 토란을 싣네.
 눈 깜짝하는 사이에 기괴하게 변하니

16)해인사(海印寺) : 연암 박지원이 지리산 아래에 있는 경상도 안의현(安義縣)에서 사또로 지내던 1790년대 전반기의 창작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이 있는 글로 정조19(1795)년 음력 9월에 지은 해인사창수시서(海印寺唱酬詩序)가 연암집 권1에 실려 있다.

너무도 생소하여 의구심마저 나네.
 갑자기 으리으리 김옷 입은 것은
 십리 길을 양옆에 낀 단풍나무 숲이어라.
 천둥 같은 폭포 소리 높은 골짜기
 온 샘이 용솨아 한데로 쏟네.
 후러치고 물어뜯다가 놀라서 서로 합치고
 부딪치고 싸우다가 물러섰다 도로 내닫네.
 물의 성질 본래는 유순하지만
 수많은 험한 돌과 서로 만나면.
 한 치도 선선히 양보하지 않아
 마침내 수천 년을 성낸 채 내려오네.
 남은 여울물은 모래밭에 었디어 울며
 사람 향해 하소연 흐느껴 우네.
 모를레라 저 물이랑 저 돌을 보면
 서로 무슨 질투가 있다는 건지.
 물이 돌에 부딪치지 않는다면
 돌도 응당 원망하며 거스르지 않을 텐데.
 원하노니 돌이 조금 양보한다면
 물도 편평하게 퍼지며 흘러갈 것을.
 어찌자고 힘자랑 밀치고 다투어
 밤낮으로 야단법석 일삼는 건고.
 가마 떠먼 중 덕분에 험지(險地)를 지나는데
 두어 걸음 못 벗어나 번갈아 메네.
 어깨 붙어지고 오목한 흠이 패여 가엾고
 시뻘개진 까까머리 박처럼 깨져 버릴까 걱정.
 허리 쥐고 숨을 한창 헐떡거리고
 등에 뺨 땀방울 흐르다 말라 버리네.
 문노라 너희는 무슨 낙(樂) 있어

갖은 고생 다 겪으며 깊은 산속에 사느냐.
 잡역으로 관가에 종이 만들어 바치고
 힘 남으면 사사로 신도 삼지요.
 오히려 무서운 건 지나는 나그네들
 관의 부름에 나아가듯 빨리 달려간다오.
 이를 보니 마음이 측은하여라
 호소할 데 없는 신세 차마 못 볼래.
 미투리 바꿔 신고 지팡일 챙겨
 엎어지고 자빠지며 가는 비탈길.
 화공(畵工)이 가을 산에 들어가면은
 해질녘의 먼 경치 그리려 하나니.
 서리 숲은 단청으로 풍요로운데
 찬 햇별이 하얀 깃을 대신하누나¹⁷⁾.
 골짜기 입구 갑자기 넓게 벌어져
 수레 백 대도 나란히 몰 수 있겠군.
 숲은 첩첩 아스라이 어리비치고
 누(樓)는 층층 반만이 얼굴 내미네.
 여라 넝쿨 무성한 길에 마중 나온 노승을 보니
 장삼 굴갓 차림새가 괴이하구려.
 은근히 먼 길을 위로하면서
 합장으로 대신하며 예의를 갖추네.
 나를 끌어 절 문으로 발을 들이자
 눈이 놀라 몇 번이고 돌아보는 걸.
 사천왕상 우뚝허니 앞을 막으니
 팔다리 느닷없이 벌벌 떨려라.
 벌린 입은 찢겨져 눈까지 달았고

17) 찬 …… 대신하누나 : 찬 햇별이 비치는 가운데 울긋불긋 단풍이 든 광경을 하얀 비단 위에 채색 그림을 그린 것에 비유한 표현이다.

불거진 두 눈깔엔 황금 발랐군.
 귓속에서 뽑아낸 두 마리 뱀은
 꿈틀꿈틀 독 안개 뿜어내는 듯.
 제멋대로 비파를 끼고도 있고¹⁸⁾
 알록달록한 칼 끈을 쥐고도 있네¹⁹⁾.
 힘을 써서 요귀의 배를 밟으니
 그 요귀 혀와 눈이 모두 튀어나왔네.
 단풍나무 귀신은 팔이 잘려 떨어지고
 대나무 귀신은 손톱이 갈컷발 같아.
 벽라²⁰⁾의 옷깃 어깨를 덮고
 호피의 바지로 배를 가렸네.
 괴룡²¹⁾이랑 가뭄 귀신은
 꿈무늬와 뿔이 서로 엉겨 붙었고.
 우레 치는 귀신이랑 바람 귀신은
 부리나 이마가 유독 타고난 자질이라.
 옆치락뒤치락 갖신 밑에 숨어
 팔다리 돌려대며 허공에 허우적이네.
 불전은 깊은 골짜기라 몹시 차가워
 용마루 서까래만 햇볕 겨우 드네.
 황금빛과 푸른빛 번쩍번쩍 눈부실 지경
 해를 보니 저절로 눈이 침침해지네.
 창문을 아로새겨 연꽃 이루고
 파닥파닥 가마우지는 먹을 감누나.

18) 제멋대로 …… 있고 : 사천왕(四天王) 중 북방(北方)을 수호하는 다문천(多聞天)은 비파를 들고 있다.

19) 알록달록한 …… 있네 : 사천왕 중 동방(東方)을 수호하는 지국천(持國天)은 칼을 들고 있다.

20) 벽라(薜蘿) : 덩굴식물인 벽려(薜荔 : 줄사철나무)와 여라(女蘿 : 소나무겨우살이)를 가리킨다. 초사(楚辭) 구가(九歌) 중 산귀(山鬼)에, 산신(山神)을 뜻하는 산귀는 벽려로 옷을 삼아 입고 여라로 띠를 삼아 두른다고 하였다. 은자(隱者)의 의복을 '벽라' 라고 하기도 한다.

21) 괴룡(乖龍) : 전설에 나오는 나쁜 용으로서 비를 내려주기를 싫어해서 온갖 방법으로 숨지만 결국 뇌신(雷神)에게 붙잡히고 만다고 한다.

연리화(連理花)²²⁾는 붉은 꽃받침 함께하고
 비익조(比翼鳥)²³⁾는 푸른 목²⁴⁾이 하나로 되었네.
 예쁜 아이 검은 용의 구슬을 손에 놀리고
 고운 계집 새장에다 봉새 기르네.
 칠성(七星)의 관원님들²⁵⁾ 시위(侍衛)를 거느리고
 구름 타고 경포²⁶⁾에 모여드누나.
 영롱 세계 두루두루 구경코 나니
 서글퍼서 마음이 무너지는걸²⁷⁾.
 도리어 꿈속에서 경치를 보면
 어두침침해서 늘 비 내리는 날과 같고.
 시름 속에 밥을 먹으면
 눈앞에 성찬이 있어도 배불리 못 먹는 것과는 같네.
 비로소 알괘라 괴이한 구경은
 즐거움 극에 달하면 되려 운치 없음을.
 내 진작 들었노라 석가여래는
 코와 눈이 본래 추악했는데.
 뒷세상 사람들이 더럽게 여겨
 애모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
 저 경박한 제(齊)·양(梁)의 아이놈들이²⁸⁾
 제멋대로 화상과 소상(塑像) 만드니²⁹⁾.

22) 연리화(連理花) : 한 꽃받침에 꽃이 두 개 달린 병체화(并蒂花)를 말한다. 사랑하는 부부를 상징한다.

23) 비익조(比翼鳥) : 날개 하나에 눈이 하나인 암수 새 둘이 한 몸이 되어 난다는 전설상의 새이다.

24) 푸른 목 [翠喙] : 규장전운(奎章全韻)에 ‘喙’를 ‘새의 목 [鳥喙]’이라 새겼다.

25) 칠성(七星)의 관원님들 : 칠성각(七星閣)에 모신 북두칠성의 신을 가리킨다.

26) 경포(瓊圃) : 신선이 산다는 동산을 말한다.

27) 마음이 무너지는걸 : 원문의 ‘駈’은 거성(去聲) 우운(遇韻)으로 압운을 했으므로 ‘두’로 읽어야 한다. 규장전운(奎章全韻)에 ‘駈’를 ‘敗也’라 새겼다.

28) 제(齊)·양(梁)의 아이놈들이 : 제 나라와 양 나라는 남조(南朝)에 세워진 나라들로서 당시에 중국의 불교가 가장 극성하였으므로 그 나라 사람들을 경멸하여 부른 말이다.

29) 제멋대로 …… 만드니 : 원문의 ‘傳’가 이본에는 ‘傳’자로 되어 있으나, 채색한다는 뜻의 ‘傳’를 취하여 새겼다.

어떤 건 아주 작아 팔알 같건만
 전생을 깨달은 것처럼 해 놓고.
 우람하기 짝이 없는³⁰⁾ 장륙불상(丈六佛像)은
 다리 하나가 수레를 다 차지할 만하네.
 감괘(坎卦)처럼 손가락들을 맞대었는데³¹⁾
 크고 작은 손가락들 모두 곱고 예쁘네³²⁾.
 부처에게 더구나 그게 무슨 상관이라
 알고 보면 이런 꺾는 모두 잘못이지.
 그렇게 해서 부처를 높이려는 수작이
 도리어 극심한 비방을 초래하였지.
 이러쿵저러쿵 곱네 밍네 해도
 혜심³³⁾은 응당 예전 그대로겠지.
 빙 두른 팔십 칸 행랑을 보소
 넓고 넓도다 장경판고(藏經板庫)³⁴⁾여.
 거울³⁵⁾처럼 윤이 나는 옷칠한 판자
 쯤이 못 들게 소금물에 삶아 냈다지.
 차곡차곡 쌓아서 얼음 창고 같은데
 실명한 듯 깜짝 놀라 제대로 보질 못하겠네.
 비하자면 늘어선 비단 가게와 같아
 - 원문 누락 - .
 방패들이 늘어선 듯 짜임새 있게 놓였고
 댕가지 꽃아 눈 듯 촘촘히 쌓였네.

30) 우람하기 짝이 없는 : 원문은 ‘塊然’인데, 이본에 따라 ‘塊然’으로도 되어 있지만 ‘높고 크다’는 그 뜻은 마찬가지이다.

31) 감괘(坎卦)처럼 손가락들을 맞대었는데 : 감중련(坎中連)이라고 하여 음효(陰爻) 가운데 양효(陽爻)가 끼여 있는 감괘 모양으로 소지(小指)를 대지(大指)와 맞닿게 한 인상(印相)을 말한다.

32) 크고 …… 예쁘네 : 부처는 전생에 베푼 선행의 결과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날 때 32가지 길상(吉相)을 갖추었는데, 그중의 하나로 손가락이 가늘고 길어 예뻐다고 한다.

33) 혜심(慧心) : 불교 용어. 진리를 달관할 수 있는 밝은 마음을 말한다.

34) 장경판고(藏經板庫) : 팔만대장경판을 모신 건물로, 남북으로 마주 보는 수다라장(修多羅藏)과 법보전(法寶殿)의 두 채로 되어 있다.

35) 거울 : 원문은 ‘鏡’인데, 이본에는 ‘鑑’으로 되어 있다.

서성대며 시험 삼아 뽑아다 보니
 주석조차 없어서 도무지 모르겠지만.
 괴이한 빛이 때로 터져 나오니
 오금³⁶⁾이 용광로에 녹아 있는 양.
 뉘 능히 승법(乘法)³⁷⁾을 풀이할 건고
 갈대배 타고 바다 건너 사람 없으니³⁸⁾.
 뜰에서 거닐 땀 침도 못 뺀어
 밥알이 떨어져도 주워 먹겠군.
 섬돌 틈엔 개밧둑도 없고
 기와 이음매엔 새들도 깃들지 않네.
 쓸지 않아도 절로 먼지가 없어
 조출해라 봄비로 씻긴 듯하네.
 찬바람이 으스스하니
 온갖 신이 남몰래 꾸짖으며 지켜주나 봐.
 묻노라 그 누가 이 절 지었노
 나라를 기울일 재물 축냈네.
 옛날 옛적에 천흥³⁹⁾의 종이
 바다를 건너와 살았다는데.
 그 조각상은 새까매 까마귀 같고
 비쩍 말라서 할망구 같았네⁴⁰⁾.

36) 오금(五金) : 금·은·구리·철·주석 다섯 가지 금속을 말한다.

37) 승법(乘法) : 행인을 실어 목적지에 이르케 하는 수레(車乘)에다 부처의 교법을 비유한 말이다.

38) 갈대배 …… 없으니 : 보리달마(菩提達磨)가 남인도에서 갈대로 만든 배를 타고 포교하러 중국에 건너온 고사를 거론한 것이다. 보리달마와 같은 고승이 없다는 뜻이다. 시문에서 ‘折蘆渡江’ 折蘆渡水, 折蘆渡海 등의 표현이 종종 보이므로, 빠진 글자는 ‘折’ 자가 아닌가 한다.

39) 천흥(穿胸) : 중국 남방의 이민족 중의 하나이다. 이아(爾雅)에서 육만(六蠻)에 대한 이순(李巡)의 주석에 “육만은 천축(天竺), 해수(咳首), 초요(樵僇), 기종(歧踵), 천흥(穿胸), 담이(儻耳), 구지(狗軛), 방척(旁脊)이다.” 라고 하였다. 천흥족은 가슴에 구멍이 나 있어, 그중의 귀인들은 그 구멍에 긴 장대를 꿰어 가지고 두 사람이 떠메게 하여 다닌다고 한다.

40) 옛날 …… 같았네 : 해인사의 조사당(祖師堂)에 모셔져 있던 희랑조사상(希郎祖師像)을 묘사한 것이다. 신라 말의 고승이었던 희랑(希郎)은 고려 태조가 후백제의 견훤과 싸울 때 큰 도움을 주어 그 보답으로 해인사를 크게 중건할 수 있었다. 세간에서는 그 유래를 모르고 조사상이 천흥국(穿胸國) 사람의 모습이라는 설이 있었다고 한다.

경(經) 새기던 처음 일을 남김없이 말하는데
 황당하고 괴이하여 후려잡기 어려워라⁴¹⁾.
 이씨 성에 이름은 거인이란 자⁴²⁾
 부처에 아첨하여 복을 비는데.
 그 집에는 눈 셋 박힌 개가 생겨나
 어린애 기르듯이 곱게 길렀네.
 그 개가 달아나 뵈지 않으니
 갑자기 보살펴 준 은공을 잊어버린 듯했네⁴³⁾.
 나중에 몸이 죽어 황천에 가서
 어떤 한 신인(神人)을 만났었는데.
 그 신인 개마냥 눈이 셋이라
 깜짝 놀라 반기며 몰래 부탁했더니.
 주인님 은혜에 실로 감동해
 신령의 도움으로 깨어나게 할 터이니.
 원컨대 팔만의 계(僞)를 새기어
 불사를 널리널리 전파해 달라 했네.
 땀을 쪽 쏟으며 꿈 깨듯 일어나니
 시원스레 묵은 병이 달아났어라.
 친척들이 입관(入棺) 소렴(小斂) 서두는 동안
 고을과 이웃에선 부조 보냈네.
 신인이 한 말에 감격이 되어
 온갖 불경 판목에 새기었다니.

41) 후려잡기 어려워라 : 원문의 빠진 글자는 문맥과 운자(韻字)로 보아, 토포(討捕)의 ‘捕’ 자가 아닌가 한다.

42) 이씨 …… 자 : 이거인(李居仁)은 신라 문성왕(文聖王) 때 함천의 이서(里胥)로서, 왕을 설득하여 해인사의 사간장경판(寺刊藏經板)을 만들게 했다는 인물이다. 이하 시의 내용은 그와 관련한 영험담(靈驗談)을 전한 것이다.

43) 갑자기 …… 듯했네 : 장자(莊子) 대종사(大宗師)에 “샘물이 말라 버리니 물고기들이 함께 물에 처하여, 서로 촉촉한 입김을 불어 주고 입의 거품으로 적셔 주었으나, 강호에서 피차 잇고 지내느니만 못하였다” 고 하였다. 그러므로 원문의 ‘忘濡吻’ 는 어려울 때 도와준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뜻이다.

이 일은 진실로 황당하여라
 아득한 옛날 일을 거슬러 오를 수 없으니.
 설령 진짜 이런 일이 있다 하여도
 유자(儒者)로선 마음에 둘 일이 아닐세.
 십삼경⁴⁴⁾을 생각하면 탄식이 절로
 머나먼 연경(燕京)의 시장까지 달려가 사 오질 않나.
 저네들은 한 사람의 힘만으로도
 천년토록 굳건하게 경판을 전하였구나.
 아침나절 학사대에 올라 보니
 문창후(文昌侯)⁴⁵⁾를 만날 것도 같구만 그래.
 이분이 신선을 하 좋아하여
 종신토록 장가 두 번 안 들었다네.
 도를 얻어 갑자기 하늘 오르니
 신발 두 짝 숲 언덕에 버려두었네.
 황제(黃帝)가 비록 용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하지만
 교산에는 상기도 무덤이 있네⁴⁶⁾.
 선탑(禪榻)에 기대어 밤을 묵으니
 초승달엔 이지러진 두꺼비와 옥토끼⁴⁷⁾.
 금탑에선 풍경이 땡그랑 울고
 옥등잔엔 심지가 무지개 이루었네.
 청아한 범패 소리 어고(魚鼓)⁴⁸⁾ 흔들고

44) 십삼경 : 한(漢) 나라 때 학관(學官)에 세운 역경(易經), 시경(詩經), 서경(書經), 예기(禮記), 춘추(春秋)의 5경에, 당(唐) 나라 때 주례(周禮), 의례(儀禮), 공양전(公羊傳), 곡량전(穀梁)을 합하여 9경이 되었고, 여기에 다시 효경(孝經), 논어(論語), 이아(爾雅)를 더하여 12경이라 하였다. 송(宋) 나라 때 맹자(孟子)를 보태었고, 명(明) 나라 때 이들을 합쳐 13경이라 하였다.

45) 문창후(文昌侯) : 최치원(崔致遠)의 시호(諡號)이다.

46) 교산(喬山)에는 …… 있네 : 교산은 황제(黃帝)를 장사 지냈다는 곳이다. 교산(橋山)이라고도 한다. 열선전(列仙傳)에 황제를 교산에 장사 지냈더니 산언덕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묘에 시신이 사라지고 단지 칼과 신발만 남았다고 한다.

47) 두꺼비와 옥토끼 : 달에 산다는 요정을 말한다.

48) 어고(魚鼓) : 원문에는 ‘魚’ 자 다음에 한 글자가 빠졌으나, ‘鼓’ 자가 아닌가 한다. 어고는 곧 목어(木魚)로서, 나무를 깎아 잉어 모양을 만들고 속을 파낸 것으로 불사(佛事) 할 때 두들긴다.

바람 소리⁴⁹⁾ 일어나 고루 퍼지네.

57) 해인사(海印寺) 寺在陝川`

海惟無盡印無停。寺占伽倻佛有靈。地壓三千圓覺界。閣儲八萬大藏經。
煙將遠瀑凝清磬。物象奇巖繞翠屏。最是孤雲多異蹟。僧言笙鶴尚疑聽。

[無名子集 尹愔]

58) 해인사(海印寺)

茶毗開士有餘因。青燄重傳已冷薪。羅代君臣檀越古。梵王宮殿奩輪新。
灰沈漢苑經過劫。月印滄溟現在身。不問可知秋史筆。畫樑高處掃凝塵。

[秋齋集 趙秀三]

59) 해인사(海印寺)

伽倻之南山千疊。曲曲紆迴煙嵐生。肩輿朝日訪伽藍。洞天重重起化城。
林深鐵瓦一狐走。風動金鐸雙魚鳴。琉璃殿閣空中出。風磨青銅光晶晶。
中有紫金十二像。舍利承趺若神明。紺園結構何壯哉。憶昔貞元始創成。
蓮花秘字楞嚴經。連屋充架百八楹。居仁一夢說荒誕。已道方舟浮大瀛。
江南銅漆月支錦。百萬輸費工巨贏。曾聞鳥雀自遠跡。歲值龍蛇不受兵。
輝煌聖人六經言。厥文微奧其道宏。芸編尚見蠹魚蝕。烈焰不幸經秦嬴。
誰令釋氏異教書。故作奇譏使人驚。却憶桂院崔學士。世亂方知爵祿輕。
塵寰却忘是非場。去托浮屠藏姓名。樂地自有名教中。蹤跡但被囂俗評。
古人亦有佯狂者。下士焉知達觀情。千年人去水雲白。悵望瑤壇一篋橫。

[金陵集 南公轍]

60) 해인사(海印寺)

創開聞說自哀莊。第一琳宮是寂光。大寂光卽二層佛殿。三歷國來眞福地。
千餘年久大禪場。雷奔萬壑鍾聲動。金耀中天塔影長。應接如今知不暇。

49) 바람 소리 [虛籟] : 장자(莊子)의 제물론(齊物論)에 천뢰(天籟), 지뢰(地籟), 인뢰(人籟)가 있다고 했다. 바람 소리는 천뢰로서, 허뢰(虛籟)라고도 한다.

誰料壯麗侈遐鄉。

[存齋集 朴允默]

61) 해인사(海印寺)

伽倻衆壑鬱蒼烟。廿載重來意惘然。閱劫尋常餘古寺。藏經八萬護諸天。
空唵流水籠山句。不見孤雲八道年。昔日題名無覓處。世間龍漢亦堪憐。

[海翁藁 洪翰周]

62) 입해인사(入海印寺)

昨夜翻盆雨。今朝快靚青。瀑肥溪鬪響。嵐捲嶽呈形。
漸與塵心遠。渾如宿夢醒。我非韓愈氏。文欲謝山靈。

[澹人集 申佐模]

63) 추기해인사장경각(追記海印寺藏經閣)

八萬莊經閣。穹崇梵宇尊。泛海知何代。藏山譯此言。
孔壁蝌文爛。倉臺鳥跡繁。無稽未必辨。倚几坐黃昏。

[澹人集 申佐模]

64) 조발령아장향해인사도중유음 (早發靈衙將向海印寺道中有吟)

山驛雞鳴曉氣明。塵襟已覺十分清。蒼松翠竹深深逕。疑是倪迂畫裏行。

[舫山集 許薰]

65) 입해인사(入海印寺)

峇鬱椰山積氣雄。煙雲深鎖梵王宮。戈旄匝甌巖形詭。鍾磬琴笙澗響通。
文昌千載蒼茫跡。希朗當年創始功。多藏經板將焉用。萬法渠家只是空。

[舫山集 許薰]

66) 속해인사발민(宿海印寺撥悶)

囊帙湖山一味寒。伽倻三到得詩難。休云佛境斯能寂。浪道仙蹤猶未刊。

曉起常愁雲鎖住。夜來還得月明看。逢人說與歸亭路。從日登臨眼界寬。

[俛宇集 郭鍾錫]

67) 해인사월야(海印寺月夜) 同李啓道大衡 余仲陽 象勳

孤雲千載洞。明月九光樓。澗定踈鍾夜。山凝古栢秋。
偶隨仙侶至。頗記太平遊。金碧壞真性。瞿曇愁未愁。

[俛宇集 郭鍾錫]

68) 송리자명유해인사(送李子明遊海印寺)

約以明日相邀于紅流亭。及期予滯雨艸幕洞。

五更青嶂雨。一夢白雲蒼。滯客吟幽桂。飛仙躡鬱藍。
遙遙祇可想。寂寂詎同參。爲撫脫簑迹。令人多緬慚。

[俛宇集 郭鍾錫]

69) 해인사(海印寺)

沉沉古刹儂山前。紅流白石清涓涓。大鐘橫撞序飯食。
神燈森動紛香烟。藏經閣在怪禽下。解行堂深饑虎眠。
堂有道人馴虎之像。三姓繁華舊物好。寥寥佛眼看千年。

[韶濩堂集 金澤榮]

70) 해인사증경담화상(海印寺贈鏡潭和尚)

手種松遮戶外巒。不曾送客出花間。十年羨汝雙瞳碧。坐領伽儂萬笏山。

[梅泉集 黃玼]

해인사에서 경담 화상⁵⁰⁾에게 주다

손수 소나무 심어서 문밖의 산봉을 가리고

50) 경담 화상(鏡潭和尚) : 화상은 수행이 높은 승려에 대한 존칭이다. 경담은 구한말의 스님 서관(瑞寬)의 호이다. 속성(俗姓)은 주씨(朱氏)인데, 15세에 백양사(白羊寺)에서 스님이 되고, 뒤에 구암사(龜巖寺)의 백파(白坡)에게서 불교의 경전을 배웠다으며, 일생 동안 계율을 엄격히 지켰다고 한다.

손 전송하러 꽃 사이를 벗어난 적도 없었네
나는 십 년 동안을 그대의 푸른 두 눈동자⁵¹⁾로
앞아서 가야의 만홀산⁵²⁾ 차지한 게 부럽구려

71) 해인사(海印寺)

洞中花木滿天香。寺外峰巒照地光。青鶴數聲聞玉寶。紅流一曲見文昌。
居僧坐說鷄林事。過客來尋貝葉藏。山鳥自飛山葉落。世間此法亦茫茫。
[明美堂集 李建昌]

72) 해인사(海印寺)

鍾聲日出出雲遲。梵殿遙從樹裡知。玄鶴琴傳于勒語。梨花雨歇石川詩。
三千界潤人來往。八萬經深鬼護持。絕頂伽椰餘咫尺。長鑱聊欲問靈芝。
[巖棲集 曹兢燮]

73) 봉송오형국일사남공지주소해인사 因思崔孤雲作此以呈 (奉送吾兄國一師南公之住所海印寺)

伽椰形勝自昔聞。造化神鐘信有異。絕磧冰雪五月寒。深山煙霧萬重翠。
芝朮可令顏色好。蓬萊直與風氣似。緬想仙儒今在否。羞將形役不自由。
千載風規默有契。十年塵土未歸休。孤雲臺上山如畫。孤雲臺下水自流。
於焉逍遙可卒歲。安得一去相遨遊。
[梅軒集 權遇]

74) 송가형남공귀주소해인사(送家兄南公歸住所海印寺)

伽椰山色出雲端。仙子遺蹤杳莫攀。勝景如今空聽說。清游安得却忘還。
重峯衆壑煙嵐斂。古木回巖樓閣寒。揖送吾兄歸此地。傷心回首路漫漫。
[梅軒集 權遇]

51) 푸른 두 눈동자 : 옛날 서역(西域) 출신의 승려를 벽안 호승(碧眼胡僧)이라 한데서 온 말로서 흔히 승려를 이렇게 말한다. 또 불경에 의하면, “여래의 눈동자는 감청색 같은 빛이 난다” 라고 하였다.

52) 만홀산(萬笏山) : 홀은 본래 대신들이 천자를 조현(朝見)할 때 반열에 죽 늘어서 손에 가지는 긴 수판(手板)을 말하며, 만홀은 곧 죽 나열해 있는 듯 산봉우리를 가리킨다.

75) 자가조향해인사(自加祚向海印寺) 山中偶吟。

山澗泠泠山逕微。風吹落葉滿征衣。斜陽漸下寺門近。僧取籃輿迎客歸。

[龍溪遺稿 金止男]

76) 유해인사(遊海印寺)

此寺重來眼更新。菊殘楓老惱遊人。臺前百尺蒼髯叟。白髮相看舊意親。

[无悶堂集 朴綱]

77) 해인사(海印寺)

伽儼形勝絕天下。昔日聞名今見之。詩石碁盤仙躅古。筆巖風瀨化功奇。
平生眞界空吟想。千載孤雲只夢思。不到江南那到此。此行方覺亦恩私。

[水北遺稿 金光炫]

78) 해인사(海印寺) 紅流洞, 泚筆巖, 吹笛峰, 學士臺。皆在寺洞

紅流洞裡丹楓老。泚筆巖邊碧蘚滋。何處仙翁吹玉笛。只今惟有白雲知。

[晚洲集 鄭昌胄]

79) 송득아방해인사(送得兒訪海印寺) 寄意文哲老師。

我昔冥搜叩石扃。紅流洞裡訪仙靈。孤雲舊跡三千界。天竺遺編八萬經。
送爾抽身遊佛寺。愧吾多病隔山庭。文師髓綠今猶在。屈指居然四十齡。

[秋潭集 俞瑒]

80) 해인사(海印寺) [寺殿四角 皆懸伽儼琴]

孤雲一去幾時還。鶴馭飄輪杳莫攀。詩句尚留僧篋裏。琴聲宛在佛簷間。
殘霞曳嶺思仙珮。落月窺窓想玉顏。醉別紅流却回首。靡蕪新綠滿春山。

海印傳名久。星軺采勝來。畦衣蚊市鬧。寮戶蜜房開。

鬼護千函玉。鼉鳴萬壑雷。人功今古接。象教信雄哉。

又

孤雲去後只蒼巒。磨滅詩篇石瀨間。一自俗人移刻後。是非聲與水聲山。

孤雲詩。手刻磨滅。懷宋自書移刻于岩

春早山寒雲景幽。巖花未發鳥鳴愁。沙彌引我松杉路。笑道紅流是碧流。

[松坡集 李瑞雨]

81) 해인사조우(海印寺阻雨) 戲贈陝川使君徐仲所[敬祖]

紅流洞裏住肩輿。身世依然羽化如。僧道使君多惠澤。再尋僊境雨隨車。

[泛虛亭集 宋光淵]

82) 해정아사성원선명유해인사(偕鄭亞使聲遠善鳴遊海印寺)

椰山向上雪崔嵬。飛下中峰作雨來。地似龍門天下勝。人同歐子幕中才。
官厨已解供華饌。歌妓還能酌玉杯。况復諸君乘興至。不妨留醉好懷開。
右雪後酒席口占。

[寤齋集 趙正萬]

83) 해인사(海印寺)

青溪幾度到琳宮。海印今看法界雄。萬瓦藏經留浩劫。千楹護佛聳層空。
鐘魚響沸諸天月。松樾吟清滿壑風。卧聽老禪談古蹟。開山大士想奇功。

[和菴集 申聖夏]

84) 해인사(海印寺) 次主倅吳信卿[命瑞]韻。

鸞笙消息杳層臺。亂石寒流十月哀。千載孤雲招不得。武陵橋畔月徘徊。
右武陵橋

西北扶輿積。天低只一圓。化翁非造次。神鬼與周旋。雲擁千尋壑。

雷騰百折泉。惟應今夜夢。硬語和崔仙。右宿方丈

禪樓信宿若平生。競秀爭流不盡情。携水出山山漸遠。水聲如送又如迎。

右出山

[西州集 曹夏望]

85) 해인사(海印寺) 尋希朗臺，學士臺諸勝。次唐人韻。

崔子舊遊地。客來山鳥啼。招提行處得。林壑坐間迷。
琴韻風鳴檜。霜華月朗溪。初無長往意。到此欲冥棲。

[牧谷集 李箕鎮]

86) 해인사(海印寺) 用海字作長句。

椰山中有大伽藍。初自貞元十八載。國師[新羅國師。順應利貞也]經始蓋有受。誌公 [晉時祖師。來占寺基] 東來占爽塏。寺名海印問何義。萬象影印香水海。人心如水證妍醜。欲人自照除愆罪。當時結搆千萬間。慧雲映發流丹彩。中間火鳥幾作灾。可恠山靈禍不悔。朱衫赤幘鬼憑陵。淨界焦裂愁真宰。佛靈扶持雙殿餘。獸角尊與山巖嵬。我來穿雲訪古跡。山僧引觀無得怠。踏盡雲梯到層閣。毗盧含笑如相待。鼉皮鼓吟湫龍應。碧銅鍾鳴仙磬詒。山門鎖若子瞻帶。重之不減神禹鼎。細看道子菩薩板。掛肩百八珠磊磊。僧言三物中國來。世間佛寶皆瑣猥。西邊有殿亦多奇。黃金雙塔光璨瓘。東西層級象天星。[東二十八宿。西三十三天] 輪相纓絡千珠琲。生靈膏血盡在此。鷄林國勢寧無殆。西洋綉障織千佛。一佛兼將一塔每。工如虎頭尚難描。况乃鳳梭千縷綵。孤雲影子貌何年。竊恐生年見未迨。學士風流縱彷彿。神仙之氣無乃餒。最是大經讀何盡。自古僧未窺豕亥。字字皆含佛子心。瑞靄如結蓮花蕾。千神呵禁百靈護。烏鼠由來不敢浼。徘徊爲尋舊甲題。却恨遺墨今無在。[先考暨季父。率大提從兄及四兄。昔在甲申入此寺。題名於經閣云。而今余回甲。來尋不見。故云]風磨霧蒸自應滅。撫迹年深感懷倍。回看焦土衆工趨。重閣脩廊頓觀改。吾聞財力搃民出。莫言萬木茲山採。清朝文德爲一誦。施佛曾無半分賄。雖云禪教淨塵根。爭及春臺真樂愷。今行只愛名山水。十方天花非爲乃。烟霞搜盡欲回筇。餘興尚掛青山叢。

[石門集 尹鳳五]

87) 해인사(海印寺)

空山落雨動神靈。肅肅松陰覆石扃。繡障一千彌勒佛。雕樓八萬大藏經。
黃金寶塔眞珠綴。赤鐵香爐古畫銘。欲問慈莊求福意。故都無主草青青。

[太華子稿 南有常]

88) 해인사(海印寺) 次家大人韻。

嶽氣干雲肅。中間幾水迴。紫藤提督帽。蒼檜古仙臺。
小子雙溪至。大人三洞來。記遊詩軸在。相視喚燈催。

[丹陵遺稿 李胤永]

89) 해인사(海印寺)

鐵瓦猶吾見。楡楹竟孰知。游魚依佛靜。翔鳥繞經遲。
鉅剎多年久。名山信跡奇。祇今雲洞裏。學士有遺詩。

[石堂遺稿 金相定]

90) 해인사동대(海印寺東臺) 聽伽倻琴 辛亥

恍訝瑤笙鶴背聆。松臺高處御風冷。孤雲一去無消息。曲罷伽倻山獨青。

[華泉集 李采]

91) 해인사념운정순상이공태영(海印寺拈韻呈巡相李公泰永)

時居昌金使君鏐安義朴使君趾源李進士道永同會

公視禪房似故鄉。同城親友暨同堂。相看白髮秋懷積。一宿青山夜話長。
五斗不妨歸栗里。二天何幸遇蘇章。追遊名剎今如許。盛事應難異日忘。

[華泉集 李采]

92) 해인화판상운(海印和板上韻) 三首 與克己同賦。

三師有遺蹟。尋討愜曾聞。道韻真無敵。神工自絕羣。祇園花想雨。香積飯應分。
擾擾方袍士。誰知如許勤。[三師。順應，理定，希朗。皆新羅人也。應初基此寺。定繼營。朗又重修。崔致遠有真讚] 孤雲佳遯客。白日大名聞。巾屨同蟬蛻。風標混鶴羣。
碁盤空剝落。詩石半割分。細履仿徉地。追懷祇自勤。[寺之少西。有孤雲基石] 梓板千間架。殊方亦聳聞。蠅蝸朝自織。蝙蝠暮爲羣。霧暗書楷澁。風敲木理分。須煩鬼呵護。免使後王勤。[日本知有大藏板。每請印本而去]

[佔畢齋集 金宗直]

해인사의 판상운에 화답하다
 세 수(首)를 극기와 함께 짓다
 세 선사(禪師)의 유적이 있다하여
 찾아보니 듣던 바와 같도다.
 도의 운치는 참으로 상대가 없고
 신통한 공은 절로 무리에 뛰어났네.
 기원정사엔 꽃이 비오듯 했겠고
 향적사에선 밥을 응당 나누었으리라.
 수많은 가사 입은 사람들이여
 이렇게 부지런함을 누가 알리오.

[세 선사(禪師)는 순응(順應) · 이정(理定) · 희량(希郎)인데, 모두 신라 사람들이다.

순응이 맨 처음 이 절을 터잡았고, 이정이 계속하여 경영하였으며,
 희량은 또 중수(重修)를 하였는데, 최치원(崔致遠)에게 그들의 진찬(眞讚)이 있다]

고운은 세상 은둔한 나그네인데
 백일하에 큰 명성이 들리었네.
 두건과 신은 매미 허물 벗듯 했고
 풍채는 학의 무리에 섞이었어라.
 바둑판은 속절없이 이지러졌고
 시 적은 돌은 반이나 갈라졌네.
 거닐던 지경을 세밀히 견노라니
 추모의 생각만 절로 간절하구나.
 절의 약간 서쪽에 고운의 바둑판이 있다.
 재판 간직한 천 칸의 시령은
 먼 나라에도 소문 또한 높았네.
 갈거미는 아침에 줄을 치고
 박쥐는 저녁에 떼를 짓도다.
 안개가 끼니 글자 모양 흐릿하고
 바람이 치니 나뭇결이 갈라졌네.
 부디 귀신을 시켜 잘 보호하여

후왕이 다시 판각하지 않게 하라.

[일본은 여기에 대장경판이 있는 것을 알고 늘 청하여 책을 인쇄하여 갔다]

93) 대장경급소재도장음찬시 應制 自正言至三品所製摠附
(大藏經及消災道場音讚詩)

大藏經道場音讚詩

殘寇虛張菜色軍。吾皇專倚玉毫尊。若教梵唱如龍吼。寧有胡兒不鹿奔。
藏海微言融乳酪。叢林深旨辨風幡。法筵未罷狼煙散。萬戶安眠亦佛恩。
胡虜磨牙劇吠鹿。餘涎還欲播南江。休煩鐵甲千軍禦。須仗金身十力降。
竺域三乘如鎖鑰。周家九鼎孰能扛。梵筵今日方心禱。戰鼓何人更手撻。
才喜殘胡折翼東。雁門還有犯關戎。玉霄負宸勞宸慮。金殿拈香禮梵雄。
覺月淨涵三藏海。禪源彌暢一搥風。六天環繞森兵衛。蹴踏毘裴定掃空。
拒轍胡雛不足鞭。神兵八部擁檀筵。如來藏裏無非寶。衲子琴中勿用絃。
大地震傳龍象吼。洪溟傾洗犬羊羶。官軍奏凱朝天後。千載昇平第一年。
費盡謀籌計國肥。不如憑仗梵雄慈。暫勞玉體千千拜。行作蘿圖萬萬期。
佛與舌長宣海藏。祖傳心密寄風樅。太平在眼誰先見。已倚功山正築基。
象步繩繩盡竺卿。赭袍親降鳳墀迎。空王藏密金龍啓。老衲歌高石女賡。
照水月爲千佛鑑。滿天霞是一人誠。須知國祚山難轉。已倚熏功辦太平。
吾皇覬沐覺皇慈。黃屋親臨講梵儀。千指繙經殊勝力。萬家高枕太平期。
雲隨屣步浮龍袞。風入談筵鼓塵塵。不用金城橫百雉。人天競集築邦基。
玉仗前頭象步騰。菊裳禪子椹袍僧。舌根覆地翻三藏。鼻孔遼天揭一燈。
導去宸誠香穗直。含來瑞景日華昇。梵音似有神交唱。兵已深苞國大興。
八部交參御仗排。千函新自海宮來。龍顏稽顙三歸切。佛鑑臨頭一念迴。
道韻直生無孔笛。梵音連震不雲雷。靈臺夜奏胡星落。諜騎朝傳虜氣摧。
筵用檀成寶殿堂。鉢從雲擲萃緇黃。經翻藏海探龍寶。談揭禪林嚼祖香。
統國一人親稽首。等空千佛惣迴光。旋教四境風塵靜。辦作三韓日月長。
淨筵才展鉢飛來。龍象叢中振法雷。教海波從今日暢。祖林花勝去年開。
願輪已與天同轉。覺鑒何憂月不迴。朝種善根堪暮穫。三韓慶算可涯哉。
香幢寶蓋挾階陳。熏範今年斗頓新。自是一人親屈體。端知八部露呈身。

法音雷作連空震。御步天旋遶佛巡。願轂輾迴無礙鑿。眞風吹作太平春。
 王殿年年佛事精。吾君今日痛輪誠。琅函霧濕龍擎到。檀席風生象踏行。
 教海珠探如意寶。祖家燈續自心明。一聲梵唄千災散。倭寇區區不足平。
 形勝新開白玉京。江山王氣擁明堂。更憑佛力金城固。寧畏胡雛鐵騎強。
 龍手捧來三藏寶。祖心傳續百燈光。頑戒自却蒼生活。都在吾皇一瓣香。
 此一首。移都年所著。

消災道場同前詩

乾象頻愆帝慮兢。香泥塗地演眞乘。神通杵下靈風襲。教令輪中怒電騰。
 若借光明尋放焰。有何災沴不消冰。六天鑒照無羅隔。四海恬安似鏡澄。
 虜吻流涎已足懲。乾文見謫又何徵。天心似水雖難測。佛力如山信可憑。
 神呪光明增熾盛。胡兵氣勢旋摧崩。太平自古先多難。感變吾君道復興。
 謫見珠躔喻象頻。憂形玉色礪精新。梵筵未放拈香手。御眼親瞻遶火身。
 鐵捧金拳揮似電。氈裘鑿耳碎爲塵。榆關按堵連千里。松麓深根跨萬春。
 爲壓星祇便却戎。梵筵移自淨居宮。香泥結界熏儀盛。蒼海凌波怒像雄。
 釋虎咆哮聲正厲。胡雛瑟縮氣先窮。欲知頃刻災消去。烈火光中片雪融。
 沙羅密藏足威光。一粒靈丹勝萬兵。火焰像前宣梵呪。金剛拳下眼魔精。
 高山共峙熏功就。朗月同懸慧鑑明。彈指未終災旋散。羶戎掃地立澄清。

[東國李相國集 李奎報]

왕명(王命)에 응하여 대장경(大藏經)⁵³⁾과

소재도량(消災道場)⁵⁴⁾을 음찬(音讚)⁵⁵⁾하는 시(詩)

정언(正言)에서 삼품관(三品官)에 이르기까지의 지은 것을 모두 붙였다

대장경도량 음찬시(大藏經道場音讚詩)

굵주린 도적들 부질없이 설치는데

우리 임금 오로지 옥호(玉毫)⁵⁶⁾의 힘만 믿으시네

53) 대장경(大藏經) : 석가모니가 열반한 뒤에 제자들이 석가모니가 설법(說法)한 것을 경(經)·율(律)로 나누어 편집한 대다 경(經)을 주석한 논(論)을 합쳐서 삼경(三經)이라 하는데, 이 가운데에는 모든 진리가 쌓이고 간직되어 있어 마치 큰 곳간[大藏]과 같다는 뜻에서 장경(藏經) 또는 대장경》이라 하는 것이다.

54) 소재도량(消災道場) : 국난이 있을 때 그 재난이 소멸되기를 축원하기 위하여 마련한 도량.

55) 음찬(音讚) : 음성(音聲)으로 불덕(佛德)을 염송(念誦)하면서 찬미(讚美)하는 것이다.

56) 옥호(玉毫) : 부처님의 두 눈썹 사이에 있는 흰 털. 옥호에서 광명이 난다 하여 옥호광명(玉毫光

저 범패(梵唄) 소리 용의 울음 같게 한다면
 어찌 오랑캐가 사슴 달아나듯 쫓기지 않으리
 장해⁵⁷⁾의 은미한 말은 우유같이 부드럽고
 총림⁵⁸⁾의 깊은 뜻은 깃발처럼 뚜렷하네
 법회를 마치기도 전에 봉화(烽火)가 흠어지니
 만백성 단잠자는 것도 부처님 은덕일세
 오랑캐 쳐들어올 제 삽살개보다 사나워
 여독(餘毒)이 사뭇 강남까지 뻗치려 하네
 천 명의 철갑군 번거롭혀 막기보다
 금신의 십력(十力)⁵⁹⁾ 빌어 항복케 하리
 축건(竺乾)의 삼승(三乘)⁶⁰⁾으로 진압한다면
 주 나라 구정(九鼎)⁶¹⁾을 뉘 옮겨가리
 부처님을 받드는 이 자리에 진심으로 비옵나니
 그 누가 승전고를 다시 치려는가
 동쪽의 잔호 소탕을 겨우 기뻐했는데
 안문⁶²⁾엔 또다시 관문을 침범하는 자 있네
 옥소 병풍 아래 임금의 심려 그지없고
 금전에선 향 올려 부처님 받드누나
 각월⁶³⁾은 고요히 삼장⁶⁴⁾ 바다에 잠겨 있고
 선월⁶⁵⁾은 한 주장자(拄杖子) 소리에 번져가도다

明)이라고도 한다.

57) 장해(藏海) : 대장경의 분량이 많고 뜻이 깊고 넓은 것을 형용하기 위하여 장경의 바다[藏海]라는 뜻에서 한 말이다

58) 총림(叢林) : 승도(僧徒)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 즉 승원(僧苑)·승당(僧堂)·선림(禪林)·전문도량(專門道場) 등 많은 승려들이 모여 수행하는 곳의 총칭을 말한다.

59) 십력(十力) : 부처님이 간직하고 있는 불가사의(不可思議)한 열 가지 지혜의 힘을 말한다.

60) 삼승(三乘) : 성문승(聲聞乘), 연각승(緣覺乘), 보살승(菩薩乘)의 세 가지 교법을 말한다.

61) 구정(九鼎) : 하(夏) 나라 우(禹) 임금이 구주(九州)에서 쇠[鐵]를 거두어 들여 주조한 솥. 하(夏)와 은(殷) 나라 이후로 천자(天子)의 보물로서 보전되었으며, 두 개의 손잡이와 세 개의 발이 달렸다고 한다.

62) 안문(雁門) : 중국 산서성(山西省) 대현(代縣)의 옛 군명으로, 관문(關門)이 있는 요충지이다.

63) 각월(覺月) : 달과 같이 밝게 깨달은 불성(佛性).

64) 삼장(三藏) : 경(經)·율(律)·논(論)의 총칭 또는 이에 통달한 고승의 총칭을 말한다.

육천⁶⁶⁾이 둘러싸고 병위가 삼엄할 제
 털옷 입은 오랑캐를 짓밟아 쓸었구나
 하찮은 오랑캐들 쳐부술 것도 없으리라
 팔부신장(八部神將)⁶⁷⁾이 단연⁶⁸⁾을 옹위했네
 여래장이야 보배 아님 있으리
 스님의 거문고는 줄 없이도 울리누나
 대지엔 용상⁶⁹⁾의 부르짖음 울려퍼지고
 넓은 바다에선 견양의 노린내를 모조리 씻었네
 관군이 개선을 아뢰며 임금께 조회하던 날
 천 년 태평의 첫째 해가 되리рода
 온갖 주책 다 써가며 국가 부강 꾀한 것이
 크신 부처님 자비에 의지함만 못하리
 잠깐 옥체를 수고롭게 하여 천백 번 배례하면
 장차 나도처럼 만만년을 기약하리
 부처님의 장광설(長廣舌) 삼장(三藏) 바다에 펼쳐 있고
 조사(祖師)의 전하는 마음은 한 주장자(拄杖子) 소리에 붙였네
 눈앞의 태평성대를 뉘 먼저 볼까
 태산 같은 공을 힘입어 터전 닦았네
 줄줄이 이은 꼬끼리는 다 천축(天竺)의 사신인데
 임금이 봉지⁷⁰⁾에 내려 친히 맞이하네

65) 선원(禪源) : 예로부터 연면히 이어온 불교의 연원.

66) 육천(六天) : 욕계(欲界)에 있는 육천을 말한다. 즉 사왕천(四王天), 도리천(忉利天), 야마천(夜摩天), 도솔천(兜率天), 낙변화천(樂變化天),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을 말한다.

67) 팔부신장(八部神將) : 부처님의 한 권속(眷屬)으로서 시주하는 자리에 열을 지어 불법을 수호하는 천(天), 용(龍), 야차(夜叉), 건달바(乾達婆), 이수라(阿修羅), 가루라(迦樓羅), 긴나라(緊那羅), 마후라가(摩候羅伽)의 여덟 신장을 말한다.

68) 단연(檀延) : 불공하는 자리, 또는 부처님을 모신 자리라는 뜻인데, 전단(栴檀)은 향기가 많이 나는 나무로, 불상(佛像)을 새기거나 불단(佛壇)을 만드는 데 쓰인다.

69) 용상(龍象) : 지(智)와 행(行)을 겸비한 고승(高僧), 즉 선지식(善知識)을 가리키는 말로서, 물에 사는 동물로서는 용, 육지에 사는 동물로서는 코끼리가 힘이 가장 세다 하여 여기에 비유한 말이다.

70) 봉지(鳳杼) : 궁전(宮殿) 또는 궁궐의 뜰을 말한다.

공왕⁷¹⁾의 현묘한 법문 금룡이 아뢰고
 노승의 높은 노랫소리 석녀(石女)⁷²⁾가 화답하네
 물에 비친 달은 일천 부처의 지혜요
 하늘에 가득찬 안개는 임금의 정성일세
 알괘라 태산 같은 국운은 움직일 수 없나니
 공덕을 의지하여 태평성대 이룩하리라
 우리 임금 각황의 자비 받잡고자
 황옥 타고 친히 나와 불사(佛事) 닦으시네
 일천 손가락 경을 펼치니 뛰어난 힘이요
 만백성이 베개 높이니 태평 시대로다
 구름은 천보(天步)를 돌아 곤룡포 위에 떠 있고
 바람은 설법하는 자리에 들어 주휘⁷³⁾를 흔드네
 백치의 굳은 성벽 만들 필요 없으리
 하늘과 사람이 다투어 나라 터전 쌓았네
 옥장 앞 머리에 상보가 넘름할 제
 스님들 가사는 누르고 검붉네
 설근은 땅을 뒤엎으며 삼장을 풀이하고
 비공은 하늘 흔들면서 등불 하나 걸었네
 임금 정성에 끌리는 듯 향불 줄기차고
 상서를 간직한 양 아침 해 돌아오네
 독경 소리 신이 서로 창화하는 듯하니
 병란 그치고 나라 크게 부흥하리
 팔부 신장(八部神將) 잇달아 임금 행차 옹위하는데

71) 공왕(空王) : 부처님의 다른 이름. 법을 공법(空法)이라 하고 부처를 공왕이라 하는데 이는 모든 그릇된 집착을 여의고 열반에 들어가는 요문(要門)이 되는 까닭이다.

72) 석녀(石女) :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당(唐) 나라 현장(玄奘) 이후에는 허녀(虛女)라 번역했다.

73) 주휘(塵魔) : 주미(塵尾)라고도 하며, 가늘고 기다란 나무 끝에 사슴의 꼬리털을 달아 부채 비슷하게 만든 것이다. 처음에는 먼지떨이, 파리채로 썼으나 후에는 불도(佛徒)들의 위의를 정돈하는 기구가 되었다.

일천 함 다시 해궁⁷⁴⁾에서 오는구나
 임금은 머리 조아려 삼귀⁷⁵⁾ 발원 간절하고
 불감⁷⁶⁾이 머리에 임하니 한 생각 일어나네
 도운은 곧장 구멍 없는 피리에서 나고
 범패 소리는 갠 날 천둥치듯 하누나
 밤에 영대에서 호성이 떨어졌다 아뢰더니
 아침에는 파발말이 승전 소식 전해주네
 전단(梅檀)으로 법연(法筵) 만들어 전당 장식하고
 구름 따라 바리때 던지니 검고 누른 옷 다 모였네
 삼장 바다 풀이하여 용궁 보배 찾아오고
 선림의 법 게시하여 조사(祖師) 향기 음미하네
 임금이 친히 머리 조아리니
 천불이 모두 빛을 돌이키네
 곧바로 온 세상 풍진 고요해진다면
 단연코 삼한 국운 무궁하리라
 법연을 겨우 펴니 스님들 나는 듯 모여들고
 용상이 떴지은 가운데 법음(法音)이 드높도다
 교해⁷⁷⁾의 물결 오늘부터 펼쳐지고
 조림⁷⁸⁾의 꽃은 지난해보다 아름답네
 서원(誓願)의 법바퀴[法輪]⁷⁹⁾ 하늘과 함께 굴러오니
 깨달음의 거울 어찌 달 돌아오지 않을까 근심하리

74) 해궁(海宮) : 바다 속에 있다고 하는 용왕(龍王)의 궁전을 말한다. 여기서는 부처님이 돌아간 지 7백 년 후에 남천축(南天竺)에서 태어난 용수보살(龍樹菩薩)이 용궁에 들어가서 철탑(鐵塔) 속에 감추어진 화엄경(華嚴經)을 가지고 나왔다는 전설을 말한 것이다.

75) 삼귀(三歸) : 불(佛), 법(法), 승(僧) 즉, 삼보(三寶)에 귀의하는 것을 말한다.

76) 불감(佛鑑) : 거울같이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마음을 말한다.

77) 교해(教海) : 부처님의 교화(教化)를 바다에 비유한 것인데, 혹은 장해(藏海)와 같은 뜻으로도 쓰인다.

78) 조림(祖林) : 선림(禪林)과 같은 뜻으로서 선도(禪徒)들이 많이 모여서 수도하는 것을 수풀에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

79) 서원(誓願)의 법바퀴[法輪] : 보살(菩薩)의 몸이 언제나 자기가 서원(誓願)하는 대로 굴러 다닌다고 하여 원륜(願輪)이라 한다.

아침에 선근 심어 저녁에 거두나니
 삼한의 무궁한 국운 헤아릴 수 있으라
 향당·보개 뜰을 둘러 벌였는데
 장엄한 법식 이 해 따라 더욱 성하네
 이로부터 임금 친히 몸 굽히시고
 팔부 신장 현신(現身)하였네
 우뢰 같은 법음은 연이어 하늘 흔들고
 어보는 천상(天上)을 선회하며 부처님 따라 도네
 바라던 법바퀴 돌고돌아 걸림 없는 거울
 참된 교화 바람 불어와 태평성대 이룩하리로다
 옥전의 불사 해마다 정성스럽지만
 우리 임금 오늘 따라 새삼 정성 지극하네
 안개 젖은 구슬함[玉函]은 용이 받들어 오고
 바람 인 단석은 코끼리가 밟고 가네
 교해에선 여의주보(如意珠寶)를 찾고
 조사(祖師)의 집엔 불심(佛心) 밝히는 등불 이어졌네
 범패 소리 한 마디에 온갖 재앙 사라지니
 조그만 왜구 따윈 절로 평정되리라
 뛰어난 경관 백옥경에 열리니
 강산의 왕기 명당을 옹위했네
 다시금 불력 빌어 금성⁸⁰⁾이 견고하니
 오랑캐의 군센 기병인들 어찌 두려우랴
 용수보살(龍樹菩薩)은 삼장 보배 받들어 오고⁸¹⁾
 조사(祖師)의 전하는 마음 백등의 빛으로 이었네⁸²⁾

80) 금성(金城) : 쇠갑이 견고하여 적이 공략하여도 능히 방비할 수 있는 튼튼한 성을 말한다.

81) 용수보살(龍樹菩薩)은……오고 : 현세(現世)에서 불법(佛法)이 행해지지 못할 때는 용궁(龍宮)에서 불교의 경전을 수호한다고 하는데 용수보살이 용궁에 가서 이것을 가지고 왔다는 전설을 말한 것이다.

82) 조사(祖師)의……이었네 : 불법(佛法)의 깨달은 묘리(妙理)를 등불에 비유한 것이다. 즉 이심전심(以心傳心)의 경지를 말한 것이다.

완악한 오랑캐 절로 물러가고 백성들 살게 되니
 모두가 우리 임금 치성 때문일세
 이 한 수는 도움을 옮기던 해에 지은 것이다.
 소재도량(消災道場) 앞의 시와 같음
 천문(天文) 자주 어긋나매 임금 심려 극진하여
 향기 흙 땅에 뿌리고 참된 교법 연설하네
 신통한 금강저(金剛杵)⁸³⁾ 아래 신령스러운 바람 불어오고
 교령륜⁸⁴⁾ 가운데 성난 번개 번득이네
 만일 광명을 빌려 불꽃 타오르게 한다면
 어떤 재앙인들 얼음 녹듯 아니 사라지랴
 아무런 거침없이 육천은 굽어보리
 편안한 사해 거울같이 맑은 것을
 쳐들어온 오랑캐 이미 다 막았는데
 하늘이 또 꾸짖음은 무슨 까닭이고
 하늘 마음 물 같아 헤아리기 어려우나
 불력은 산과 같아 참으로 믿음직하네
 신주의 광명은 더욱 성한데
 호병의 기세는 도리어 꺾이는구나
 예부터 태평을 얻으려면 먼저 재난 많나니
 우리 임금 정성 따라 다시 일어나리
 천문(天文)으로 꾸짖어 변괴 자주 보이니
 임금은 근심하여 새삼 마음 가다듬었네
 범연에선 향 올리는 일 그치지 않고

83) 금강저(金剛杵) : 오고저(五鈷杵)라고도 한다. 승려들이 수법(修法)할 때 쓰는 도구의 하나.로서 쇠나 구리로 만든다. 양 끝을 한 가지로 만든 것을 독고(獨鈷), 세 가지로 만든 것을 삼고(三鈷), 다섯 가지로 만든 것을 오고(五鈷)라 한다. 저(杵)는 본래 인도의 무기. 금강저는 보리심(菩提心)의 뜻이 있으므로 이것을 갖어야 불도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한다.

84) 교령륜(敎令輪) : 3윤신(輪身)의 하나이다. 성질이 완강하여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을 위하여 성난 형상을 보여 명령을 내리고, 만일 그 명령을 어기면 바로 벌을 준다는 방편불(方便佛)을 말한다.

불타는 몸 어안으로 친히 보셨네
 철봉·금강권(金剛拳)⁸⁵⁾ 번개처럼 휘둘러
 전구⁸⁶⁾·거이⁸⁷⁾ 부수어 가루로 만들었네
 유관⁸⁸⁾에서 천 리를 백성들이 안도하니
 송악산(松嶽山) 깊은 뿌리 만만세를 누리리라
 별의 재앙 누르려고 오랑캐 물리칠 제
 범연을 정거궁⁸⁹⁾에서 옮겨왔네
 향니⁹⁰⁾로 경계 만드니⁹¹⁾ 법의(法儀) 성대하고
 창해의 물결 가로질러 노여운 모습 웅장하네
 범 같은 스님 고함 소리 드높으니
 하찮은 오랑캐 기가 꺾여 움츠러드네
 경각간에 재앙 없애는 법 알고자 한다면
 타오른 불빛 속에 눈 녹는 것 불지어다
 사라의 밀장⁹²⁾은 위광도 많을시고
 한 알의 영단(靈丹)이 만군(萬軍)을 이기었네
 화염상(불꽃같이 밝고 선명한 부처의 상) 앞에서 범주 베푸니
 금강권 아래 마정이 굴복하네
 성취된 공훈 태산같이 높고
 지혜의 거울 달과 함께 걸려 있네
 순식간에 재앙 모두 사라지고

85) 금강권(金剛拳) : 가장 강한 주먹으로, 무엇이든지 파괴할 수 있다는 제석천(帝釋天)의 주먹을 말하며, 주먹의 네 가지 종류의 하나로, 엄지손가락을 손바닥 안으로 넣고 쥐는 것이다.

86) 전구(甄裘) : 털로 만든 오랑캐의 의복을 뜻한다.

87) 거이(鑿耳) : 옛날 오랑캐들이 즐겨 쓰던 금·은·옥의 귀걸이를 말한다.

88) 유관(榆關) : 산해관(山海關)을 말하며, 중국 허북성(河北省) 임유현(臨榆縣)에 있다.

89) 정거궁(靜居宮) : 승가람마(僧伽藍摩)의 준말. 승원(僧園) 또는 정사(精舍)로 번역되며, 사원(寺院)의 이칭(異稱)이다.

90) 향니(香泥) : 향기나는 진흙을 말한다. 여기서는 불상이나 법당의 주위에 쓰여진 흙을 말한다.

91) 경계 만드니[結界] : 당탑(堂塔)과 가람(伽藍)을 세우거나 도량(道場), 계단(戒壇) 등을 마련할 때 악마를 막기 위하여 신주(神呪)를 외면서 일정한 구역 경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92) 사라(沙羅)의 밀장(密藏) : 석가모니불이 사라수(沙羅樹) 숲에서 열반에 들 때의 오묘한 말씀을 말하며, 여기서는 부처님의 위력을 말한다.

씻은 듯 오랑캐 소탕하니 강산 맑아졌네

94) 선정전행대장경도장음찬시 二
(宣政殿行大藏經道場音讚詩)

一藏全勝百萬師。故應魔外不容窺。揀來龍象渾無畏。掃去豺狼更莫疑。
晝講杵頭舂玉屑。夜談梭腹吐金絲。願王已輦千祥至。社稷昇平自可知。
一會藏嚴是驚峯。百爐香動瑞煙濃。講唇走玉翻三藏。譚舌飛珠演五宗。
端信覺皇分著力。定教兵騎不留蹤。龍天亦感宸誠切。導灑眞泠蹟國容。

[止浦集 金坵]

95) 제팔만대장경각(題八萬大藏經閣)

僧言自古大藏閣。落葉浮埃不敢侵。萬寶光明花點點。閣門內地花四時長青云
千神拱護晝沉沉。若微若顯盈天地。無滅無生貫古今。慧力妙工誰敢測。板頭
箇箇是烏金。

[存齋集 朴允默]

96) 대장경(大藏經)

人在西天法苑場。夢魂長濕芸花香。板雕靈異遙伽嶽。卷帙完全度正陽。
五十函成充一室。七千編富演三藏。沙門功德唐皇帝。萬物終歸種福鄉。

[嘉梧藁略 李裕元]

97) 해인사술견(海印寺述見) 二首

海印寺僧飽欲死 願堂白日坐生驕 山門雜還渾如市 時有佳娥捲翠轎
永世不忘閔炯植 多財勸善李容直 無量大福要都輸 八百善男朝暮祝

[溪南集 崔瑑民]

98) 해인사조발(海印寺早發)

隱隱青山曲曲溪 門前蒼檜檜間蹊 武陵橋上雲千疊 樵客還應到此迷

[孤村集 裴正徽]

99) 속해인사(宿海印寺)

投宿伽倻寺 微茫月上初 禪窓成一夢 意味覺清虛

[孤村集 裴正徽]

100) 해인사(海印寺)

仙界無關歲月流 居僧衰髮底緣愁 石壁孤懸希眼閣 銅楹擎出九光樓 文人繡板空山裏 學士僊蹤古渡頭 追憶龍蛇經却地 白雲臺畔萬林秋 白雲臺卽文康公避亂之地

[果齋先生文集 張錫蓋]

101) 해인사차권양촌시수미이구운 海印寺紀行止此 (海印寺次權陽村詩首尾二句韻)

北入神州一路通 東來現化聚成宮 最茲疽梨人誰信 佛法從前萬理空 峽川郡誌 順應理貞兩大師 入中國請法放梁朝 寶誌公公告其實 又曰汝國有牛頭山 此是佛法大興處 汝其作寺兩師循命作之 乃新羅哀莊王三年而在唐爲貞元十八年也 哀莊王后有疽疾使人問兩師 兩師曰宮前有何物 使曰有梨樹 兩師與五色線 曰一頭係梨一頭粘疽則無事矣 歸如其言梨枯而疽瘳是以王崇其寺與畚二百斗

○伽倻山一名牛頭山

[果齋先生文集 李教宇]

102) 해인사견념불승희제(海印寺見念佛僧戲題)

紅袈妙釋子念佛坐鳴金 已將空寂教却鍊靈昭心

[廣川集 趙性胤]

103) 해인사(海印寺)

禪家不在不深山 百聒除來只有閒 上界微塵起滅裏 白雲淨土虛無間 蠟屨周還千佛國 儒冠羞對四溟顏 孤雲學士風何在 可望遙遙不可攀

[膠宇先生文集 尹胄夏]

104) 해리자명병헌속해인사(偕李子明炳憲宿海印寺)

叢林積雨晝常寒惆悵無因古色看役役郵書馳日下
呶呶譯舌鬧雲端山空鹿去留殘草壑斷龍藏送急湍
聞道遠公頻臥病到今何術肺能寬余所誠老衲應海
以病不至故及之 [苟齋文集 鄭載星]

105) 유해인사(遊海印寺)

恩行與外兄李乃成及李光震劉正七遊海印寺
琳宮縹緲白雲中人語還疑帝座通逆旅相逢皆舊雨
眞仙不見尙遺風松濤忽與秋聲壯楓葉偏添夕照紅
玉笛一吹司馬過遊山亦是聖恩隆 [兢齋先生文集 李柄運]

106) 해인사(海印寺)

寶刹開巖下丹青照夕曛僧殘煙火冷佛古劫塵昏
老檜樓前見微涼殿後聞忽然歸意急山上有孤雲
[畸翁集 朴玃衢]

107) 해인사차림석천운(海印寺次林石川韻)

蒼檜迷晴霰丹楓照夕曛銀潢春虎豹滿壑雪紛紛
[畸翁集 朴玃衢]

108) 유가야숙해인사(遊伽倻宿海印寺)

微雨依山過寒泉繞枕流上方僧語細窗外月如鉤
[洛浦集 李宗文]

109) 차족질찬언진태제해인사락화담운
(次族姪贊彦鎮兒題海印寺落花潭韻)

落花雖好不如開錦浪成紋歲色催爭似爛熳山花席對酌青蓮盃又盃
[丹砂遺稿 河復浩]

110) 숙해인사(宿海印寺)

藏王初創昔何年物物看來意渺然樹老螺鬟三判後霞生彌塔九光前
縱言此地成慈海不救浮生在漏船千古吾家真正訣寧修玄寂學神仙
[陶川先生文集 安有商]

111) 해인사(海印寺)

海印名區獨占清崢嶸樓閣入雲成三千界闢天花寂八萬經藏佛氣明
江北江南皆嶺土山中山外各人情欲從此處尋仙跡幽壑艱深不可行
[東菴集 李鉉郁]

112) 차해인사시사운(次海印寺詩社韻)

遠客探真路出東伽藍知在畫圖中籠山萬瀑懸紅溜供佛千燈耀碧空
自擬癡才蠅附驥誰令佳會燕違鴻年年修社應如是第待明春趁好風
[遜窩遺稿 權憲貞]

113) 과해인사홍류동(過海印寺紅流洞)

地關紅流上青山緣樹多水春千丈壑巖極九秋花
來去孤雲躋幽深釋子家行行尋別界登路不嫌賒
[晚軒遺稿 盧國賓]

114) 해인사(海印寺)

千秋獨立伽椰山廿載重來李壽安海印寺前紅水盡白雲無事任渠閒
[梅堂集 李壽安]

115) 해인사제영(海印寺諸詠)

武陵橋

雲外蒼巒立幾層紅花滿岸繞青藤桃源勝景應如 此橋號端宜揭武陵
紅流洞
手策藜筇入洞中青山欲暮起微風長行十里清波 上喜看山花映水紅

光風瀨

光風瀨上辨清遊霽月分明照碧流追念前賢隨柳 跡也知工力在源頭

學士臺

學士臺空往迹留山禽啼處洞天幽清塵欲躡今方 到爲問仙人去幾秋

吹笛峯

何年此岳仙吹笛一去千秋不復迴今日峯頭清響弄依然羽客却還來

白蓮菴

強扶綠玉杖步上白蓮菴疏竹侵幽檻斷巖作小龕

寺鍾驚客夢山鳥和僧談不有真仙訣何能到此酣

山房夜話

石扉開處水雲深強策藜筇步步尋青立檻前當客面白飛溪上洗吾心

簷邊老檜風聲細牕外疏篁月影陰此夜清遊猶未足明春更賞約山禽

[無名齋文集 權壽大]

116) 심해인사(尋海印寺)

蠟屐行行古寺尋紅流洞裏幾青岑落花潭底風鳴玉疊石臺邊月湧金

山外蒼煙朝暮色樓前綠草古今心孤雲千載無蹤跡吹笛峯頭野鳥吟

[無名齋文集 權壽大]

117) 해인사(海印寺)

古寺尋何處樹深翠滿山鍾聲清夜半佛性碧雲間

紅流瀉石急明月掛松閑如境千秋遠遊人幾往還

[閔氏兩世栢岩幼栢詩文稿 栢巖遺稿 閔泳案]

118) 해인사동금후급천민망풍림(海印寺同金侯及天民望楓林)

青娥一夜弄神機巖谷渾驚錦繡圍却喜天公供勝賞更教疏雨作熹微

[璞齋先生文集 金紐]

119) 박사상근원도해인사이미태주급
(朴使相謹元到海印寺以米太周急)

聞道皇華駐上方病餘難得拜清光仁恩忽爾霑衰朽閭里爭言寵渥長
[璞齋先生文集 金紐]

120) 속해인사(宿海印寺)

洞僻山雄法界奇諸天花雨夜來遲林下藜筇來俗客雲邊松衲坐禪師
西城古經大藏地新羅寺刹重建時伽倻都是煙霞窟却向紅流有後期
[芳州文集 文國鉉]

121) 해인사(海印寺)

雲中鍾落響清風意謂群仙講法宮及到雲中無所見紛紜千態盡虛空
[柏村先生文集 河鳳壽]

122) 해인사(海印寺)

海印寺與李士晦金鉉可[台應]尹德載[厚遠]至日共賦
白頭修契對披心流水伽倻有古琴玉管灰飛雷在地梵宮鍾動月橫林
山寒竦立干雲檜塔古閑樓避雪禽待到東風花信報與君携手木蘭陰
[柏後集 金基洙]

123) 초십일저해인사(初十日抵海印寺)

東皇何日送春來九曲紅流洞府開嵐翠滴成無本柏雪華飄作不香梅
已謀仙戲排棋局空守禪心斷酒杯飯後期人猶未至午鍾纔歇晚鍾催
[柏後集 金基洙]

124) 유해인사(遊海印寺)

八十遊觀古所稀山光水色略收歸親朋幸得 通宵話忘卻人間是與非
[不愠堂逸稿 成昌遠]

125) 해인사우제(海印寺偶題) 三首

羸馬尋眞客秋風到伽倻滿山無限景終日入吟哦
萬壑千峰處處奇山光雲影共參差佳景欲吟還未得不知何物最宜詩
探盡名區出洞西歸裝都付一蹇蹄寄言疊石臺前樹莫使明春再到迷
[不憂軒文集 鄭相點]

126) 유해인사(遊海印寺)

與朴天仁鄭埴鄭孔若同遊海印寺 丙辰
兩少年從二老人清秋作伴好尋眞黃溪瀑又紅流洞詩料元來不自貧
[士農窩文集 河益範]

127) 차해인사운(次海印寺韻)

雙不借穿碧樹林一篇詩入白雲深風煙隨處忘歸去獨倚斜陽萬丈岑
[沙浦先生遺集 鄭弘鉉]

128) 금상사독서우해인사(金上舍讀書于海印寺)

贈金上舍天祐俞集曰金上舍讀書于海印寺樽定菴相就
夜話因贈數絕云而今未考本集只聞此篇俞潘溪好仁
二十年來理白魚伴猿禪定閱三餘他時會向雲霄去留得匡山幾 卷書
[三足堂先生逸稿 金大有]

129) 화리과재해인사시(和李果齋海印寺詩)

歲寒松能秀谷幽蘭有芳吁嗟果齋子蘭質又松腸杜門何所樂髮短心愈長事業書千
卷風韻琴一張我幸忝交密幾警覺守堂思苦因成夢共君叢桂傍欣聽海印景傾飲玉
流漿覺來雁有信咳珠落塵箱
[西岡文集 朴亨東]

130) 해인사(海印寺)

大佛元爲上世塵虛張清淨厚欺人伊來法界如城市彼本無靈謾幻新

[西岡先生文集 柳遠重]

131) 해인사(海印寺)

海印名天下紅流豈世間如今不是夢真箇在椰山

[石溪遺稿 河世熙]

132) 해인사(海印寺)

爲愛清流步步前梵樓鍾落夕陽天龍藏古窟常吹雨鹿過幽蹊靜鎖煙
盡日看山僧獨坐名區多月客無眠至今學士臺猶在仙躅依如遯跡年
淨界蓮花撒地生枯禪棒偈破塵情樓藏貝葉千年古水擁伽藍一壑明
多少仙居皆畫榭東南天險拋名城同安妙訣鍾聲在舊獵何須肚裏橫

[省窩文集 李寅梓]

133) 입해인사(入海印寺)

曉霧連空山忽低夢中猶聞子規啼纖塵不入空牀下香雨新晴古磻西
仙去千年流水在僧歸萬壑白雲齊寄語塵場絆紲者清緣那得此間携

[省窩文集 李寅梓]

134) 해인사(海印寺)

嶠南靈境最伽山探勝來人暫不閒怪跡依稀三古上老松蒼翠四時間
半空樓閣增丹腹萬壑曇花鎖碧灣役役塵寰成甚事優游禪榻却忘還

[誠齋文集 鄭珪錫]

135) 해인사체우(海印寺滯雨)

閒話無人晝夢長雨中蕭索沒風光遊觀未盡十方界旅思還同千里鄉
雲裏鍾鳴知近午林間花老惜餘香霽行潦止隨無定佇待天南日載陽

[小塘集 金基堯]

136) 입해인사(入海印寺)

九月十九日入海印寺午憇伽川石壇偶吟 壬申○藥峯

簿牒令人癯抽身向靜居一臺臨玉磴數刻駐藍輿
豈但須眉燭全教穢濁除耽觀愁日暮欲去更躑躅

[松溪集 權應仁]

137) 차해인사주지지인시축운(次海印寺住持智仁詩軸韻)

萬古紅流洞澄潭水映空烟霞三島勝杖屨幾人同與星牧善倅同遊世事虹橋外笳聲
鶴夢中興闌留偈別眞似踏泥鴻

[松溪集 權應仁]

138) 유해인사(遊海印寺) 二首

丘山性癖老猶羸強作紅流洞裏行谷鳥和鳴如有
意巖花含笑若相迎門前却憶林翁句臺上空留學
士名金像儼然如長者胡爲左道惑愚氓壁立危巖似獸
蹲梵宮迢遞坐三尊羅王事佛終何益故國爲墟寺獨存

[松風齋先生集 宋之棧]

139) 해인사(海印寺)

伽倻山裏有禪關幽閑元非此世間梵貝知應驚俗客鍾聲自在響空山
紅樹參天靈境祕白雲同宿老僧閒曾聞四部無遮會往往迷人去不還

[睡齋集 姜永暉]

140) 취과홍류동장향해인사(醉過紅流洞將向海印寺)

吾生何恨白頭秋優得名山汗漫遊爲有前人遺躅在紅流洞口久停留

[心齋集 金箕彩]

141) 가야산해인사(伽倻山海印寺) 二首

八月星山路涼風拂布衣伽倻千萬狀點盡一筇歸
環寺皆山骨緣蹊盡水聲丹青模不得物物總難形

142) 해인사(海印寺)

衰年始入此禪堂五月名花色色香一洞紅流開錦繡群巒碧立割陰陽
經藏萬卷教何大寺關千年運亦長縹緲心期間似佛悠悠忘却世雌黃

[梧岡文集 權鳳鉉]

143) 해인사(海印寺)

行到伽倻淑氣明萬千形色畫難成風回峽谷常噓冷鍾落雲林晚報晴
穿石窺臨鳴水處憑牕閒聽誦經聲此來俱是塵寰客暫借仙房興自生

[玉窩遺稿 李德來]

144) 입해인사(入海印寺)

仙球塊北路西東萬疊伽倻活畫中千載孤雲無處問回看虛影滿蒼空

[愚川遺稿 李圭夏]

145) 송류경직여재유해인사(送柳敬直汝梓遊海印寺)

送君海印山中去學士仙區好往來遙想紅流攜手處松花應落紫霞杯

[月溪公遺集 沈日三]

146) 유해인사(遊海印寺)

己卯春同金侯[鳳洙]金鶴農卞藟山[濬欽]遊海印寺

重入伽倻面不生山行爲我雨還晴圖成白社三人笑詩似黃初七子鳴
花氣薰人寒士侈松陰入座長官清相逢休說將相別自是空門貴忘情

[渭叟集 河在九]

147) 문금사군입해인사용최문창운서기 二首
(聞金使君入海印寺用崔文昌韻書寄)

開關初頭天作巒豈料仙佛擅其間孤雲脫屣誠難信甚思携琴訪此山

石氣輪囷聳翠巒空空三界大千間鷄林黃葉多秋色何不存邦謾入山

[酉澗先生文集 朴熙典]

148) 해인사증승응해(海印寺贈僧應海)

玉晨清磬樹杪生提起心猿頓一醒掃了區中無物事此心提起竟何成

[柳下聯芳集 宋鎬文]

149) 해인사(海印寺)

衰翁作伴暮春路伽岵蒼蒼入馬前花鳥佳辰三四月溪山浩劫二千年
雲深洞壑疑無地日出樓臺別有天笑我詩情老漸竭竭來收拾若干篇

[宜庵集 安德文]

150) 해인사추감임인고사용룡산정운 庚午五月
(海印寺追感壬寅故事用籠山亭韻)

廿九年前過此巒聚星當日藉人間祇今賢德凋零盡獨有鰈生復入山
壬寅五月陪崔勉蒼崔溪南鄭老柏農山權明湖諸先生及同志數十人遊此

[而堂先生文集 權載奎]

151) 유해인사(遊海印寺)

法宇無塵夜氣清百年無警獨昇平誰云妙道曾藏印只見仙區不入荆
暮磬聞來人已定曲欄移坐月初生伽倻萬疊行吟盡留與閒僧話盡情

[二山文集 崔元根]

152) 방해인사(訪海印寺) 二首

石路何時盡危巖登復登琳宮知不遠溪午累逢僧
列壁層層玉居僧箇箇珠孤雲遊路遍仙筆表巖殊

[一樹軒集 鄭樟]

153) 해인사제최문창후화상(海印寺題崔文昌侯畫像)

紅流喧壘石歸隱問何年史祕孤雲卒僧言學士僊
肅清留影像蕭灑出塵煙長往非忘世烏紗尚在顛
[典庵文集 姜鼎煥]

154) 해인사차장백영운(海印寺次張伯永韻) 二首

新羅學士擅風流吹得參差楚竹秋月下依然聞舊曲數峯青處卽仙遊
採採靈芝度幾春深山應有隱淪人從知不仕元無義況復春臺有聖神
[典庵文集 姜鼎煥]

155) 해인사(海印寺)

步步烟霞曲曲山伽椰深處剩偷閑春來怪鳥知何語歲久奇巖幻佛顏
客到孤雲已去後峯回流水白然間不須更問中秋約卽到佳辰一詠還
[濟南集 河經洛]

156) 해인사증해봉상인(海印寺贈海鵬上人)

經閣鍾樓列後前伽椰山寺創何年煙雲掩擁三千界花雨涵澍十二天
苦海浮生多恻夢慈航法侶摠仙緣海鵬倘記鵝亭客禪俗元來兩理懸
[竹潭集 金永祚]

157) 해인사(海印寺) 五詠

弘濟菴 有惟靜大師畫像
靖亂功無右談禪道益尊畫中看彷彿壯氣尚軒軒
藏經閣
百劫羅麗躅千編迦葉書巧匠參神造珍藏宛石渠
解行堂 有崔文昌畫像
入唐曾聞道歸海却成仙德容肖粹玉惟有畫圖傳
紅霞門
立馬紅霞地秋陰滿樹繫問誰留玉帶媿乏鎮山門

吹笛峯

隱然聞玉笛遺響暮山蒼
天空人不見揮手意茫茫
[竹塢先生文集 河範運]

158) 속해인사(宿海印寺)

古寺千年久奇巖萬丈危
鍾收夜靜後僧認客來時
溪壑轟雷轉林霞活畫宜
孤雲不可見緬想獨題詩
[芝峯先生文集 李宗榮]

159) 해인사동구(海印寺洞口)

纔度平郊上石途嵯峨山角轉
縈紆塵心流水聲中洗詩興
蹇驪背上輸廿五男兒初到處
三千法界儘名區奇觀最是紅
流洞竟日忘歸得自娛
[池上世濟錄 河達永]

160) 귀속해인사치중양(歸宿海印寺值重陽)

七十翁隨九十翁蕭蕭鬚髮映
楓紅可憐學士千年迹臺古雲
空但晚風歷盡名區近故鄉
紅流洞裏值重陽一川籠得煙
霞氣萬樹粧成錦繡光醉客醒
來叢菊晚孤雲飛去遠山蒼
清遊十日渾如夢回首花林却
未忘
[芝厓先生文集 鄭煒]

161) 해인사여리동벽창화(海印寺與李東壁唱和)

山水中間氣概真仙笑對十年
人不期自會青山暮無語相看
白髮新巖隙殘楓紅有信臺中
學士去如賓明朝攜伴深深去
拂盡衣冠未拂塵
[芝厓先生文集 鄭煒]

162) 입해인사(入海印寺)

十年南北散如星今日名區使
蓋青學士臺前山寂寂紅流洞
裏日冥冥仙歸石榻雲生夢佛
坐曇窓月照經却恐人心無住
著喚來醒字更爲銘

[芝厓先生文集 鄭煒]

163) 해인사(海印寺)

幾認三山別有山此身恍惚紫琳間
舉家崔子遂陳迹佞佛羅王猶未還
亂石各成曇像怪循除不斷玉流潺
謾令勝界終渠擅倘爾仙靈悔不慳

[聽江集 崔道燮]

164) 송류경직여재유해인사(送柳敬直汝粹遊海印寺)

送君海印山中去學士仙區好往來
遙想紅流攜手處松花應落紫霞杯

[青己世稿 沈自光]

165) 입해인사(入海印寺)

伽椰山上海印寺寺裏鍾聲報晨初
隔澗林花紅雨過滿山松栢翠烟疎
法界安閒無俗累仙岑磊落繞庭除
爐香細注黃金榻禪誦時時靜對書

[癡史集 安鑽]

166) 유해인사(留海印寺)

一柱門前落日曛石川佳句至今存
千年樹老蒼藤合兩岸溪回白石分
泚筆過時揮綵筆白雲深處問孤雲
秋風準擬探紅葉却向山靈寄後言

[癡齋文集 許命申]

168) 유가야산해인사(遊伽椰山海印寺) 庚戌

四十年中再度行山靈慣我笑顏迎
塵冗滌盡烟霞吐綠葉成陰錦繡明
怪鳥嬌春詩上語溪流添雨筆頭鳴
天台夢與劉郎話不覺吾行到赤城

[杏亭文集 河鎮兌]

169) 해인사(海印寺)

五洲風雨一青山點得叢林歲月閒
煩誰有力毆仙佛同我歸仁學孔顏
孤雲不見川聲裏落日行吟岳色間
烏絲布刊今如許歎息皓天不欲還

[晦堂先生文集 張錫英]

170) 해인사수세(海印寺守歲) 二首

大陸蒼茫走壑蛇悠悠懷緒苦無佳嗟我泉魚無地養爲誰旅鴈在天涯時余新經草土
伯兄又遠遊故及之世事擾擾棲不定童年忽忽鬢生華俯仰良辰何所往名山深處訪
藍迦水陸沙門大醮筵百羣梵唄迓新年冥王肅肅千魔伏老佛重重萬燭懸下界煙塵
如夢國上房鍾磬在雲天此行 不是參禪客獨向須彌度惡緣

[晦堂先生文集 張錫英]

171) 해인사(海印寺)

夕陽驅馬入山門畫榭琳宮體勢分翠壑懸天陰欲雨紅流坼地暖生雲
月臨樹杪明還滅風遞鍾聲斷復聞清境重來更奇絕却愁羈夢太繽紛

[晦峯先生遺書 河謙鎮]

172) 해인사(海印寺) 二首

穿樹探花玉洞傍尋真一選是中央人間月照新羅國物外春深釋氏堂
數曲狂歌來德裕十年孤夢滯金剛後身金粟如成佛不道今生誤十方
先向枯禪問劫灰同來石榻掃青苔萬經玄理藏天竺千斛紅流吼地雷
新檻水添今夜雨古查春到去年梅三霜餓骨涼如雪知是前生謝世埃

[吃窩集 李根玉]

173) 여문가야해인지승구의(余聞伽倻海印之勝久矣)

余聞伽倻海印之勝久矣。今者奉命路過。遂得略窺山門。其巖壑棟宇。固壯麗
稱所聞。而孤雲舊躅。尤令人起感。途中輒賦五言長篇五十八韻以記之。亦未
敢書以示人也。後十數日。復到陝川郡齋。始取紙筆書之。奉呈太守兄。或有
寺僧來過者。可出示之。

朝發金山南。策馬行百里。借問伽倻山。蒼然眼中是。嵬嵬大嶺表。
秀出獨無比。舉鞭喜始覩。逸興殊未已。行行入谷口。短景迫濛汜。

是時九月初。霜露蕩氛滓。璀璨萬楓樹。照爛崖谷紫。暝度疊石臺。
 喧聞水聲沸。路窮得諸天。壯哉羅代寺。增構繚脩廊。中有僧千指。
 解鞍嶺月高。深房夜睡美。天明起披衣。壯觀何靡靡。千棟排雲出。
 連椽若鱗齒。中窺駭沈深。仰睇歎鬱歧。綺疏籠朱霞。藻井披丹蘂。
 鯨吼六時鐘。龍注百筒水。森嚴塔劫雄。慘惓壁畫詭。經臺賞最殊。
 緇徒指相視。貝葉百千編。刻鏤盡登梓。充棟度高閣。堆疊玄雲起。
 頗聞鳥雀遠。未受兵燹燬。嗟哉此孰爲。用心亦已侈。焜煌古六籍。
 傳世多瘡痍。誰令異教言。終古不可毀。驕莠掩良苗。久矣失芸耜。
 振衣步古臺。引領望崔子。仙游排冥筌。千載疑不死。青冥懸玉琴。
 絃斷含宮徵。冷風自度曲。如聞素腕理。飄飄想逸韻。感歎久徙倚。
 却下紅流洞。水石燦如綺。風瀨連月潭。步步皆可喜。傍看絕壁大。
 高眺衆峰峙。百泉中奔濺。噴薄不可止。一唱孤雲詩。三嘆感妙旨。
 蒼崖攬古刻。數字鐵相似。當時二十八。磨滅獨有此。髣髴雲漢曉。
 列宿餘參觜。徘徊惜不得。世遠終已矣。嗚呼桂苑筆。曾傾天下士。
 雞林氣蕭瑟。黃葉感將委。冥鴻一以舉。滅沒竟誰企。尚聞南昌尉。
 時游吳門市。高人避時危。達士遺俗累。商山與鹿門。浩蕩同一軌。
 顧慚昧遠引。簪纓枉相被。摧藏籠底鶴。局促池中鯉。榮途有得失。
 吹萬相譎訛。今古一是非。昔人已掩耳。涇渭日瀕洞。其誰識涯涘。
 逝將決焉去。遺榮如脫屣。行採赤芝秀。不惜青鞋胝。此意竟徒然。
 崩奔問行李。商飆振長路。秋日忽移晷。立馬武陵橋。回首仙源裏。
 寒溪響如昨。碧雲猶在適。去住與願違。含恨何時弭。多謝山中人。
 歲暮且相俟。

[農巖集 金昌協]

내가 가야산(伽倻山) 해인사(海印寺)의 경관이 좋다는 말을 들은 지 오래
 되었는데 이번에 왕명을 받들고 이 고장을 지나가게 되었기에 이 절을 한
 번 살펴볼 수 있었다.

암벽으로 이루어진 골짜기와 절간의 규모는 웅장하고도 아름다워 사실
 헛소문이 아니었으며 무엇보다 고운 최치원의 유적이 한층 더 감회를 불러
 일으켰다.

다녀오는 길에 오언장편(五言長篇) 58운(韻)을 지어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하였으나 이것을 감히 정서하여 남에게 보이지는 못하였다. 그후 십여 일이 지나 다시 합천(陝川) 고을의 관아에 와서야 비로소 종이와 붓을 가져다가 정서하여 태수(太守) 형께 받들어 올리고 혹시 찾아오는 해인사의 중이 있으면 꺼내 보여주도록 하였다.

이른 아침 금산 떠나 남쪽을 향해
 백리 길을 말 몰아 달려와서는.
 가야산 어디냐고 물었더니만
 눈 안에 든 아련한 저 산이라네.
 높고 높은 소백산맥 이남에서는
 가장 높아 견줄 곳 아예 없다나.
 처음 보는 기쁨에 말을 달리니
 호방한 흥취 일어 아니 가시네.
 가고 가 골짜기 어귀 들어설 즈음
 짧은 해는 어느덧 서산에 뉘엿.
 때는야 바야흐로 구월 초로서
 차갑고 맑은 서리 안개 걷어내.
 아름답다 온 산의 단풍나무가
 산비탈을 비추어 붉기도 하이.
 어들 무렵 첩석대⁹³⁾ 지나가자니
 골짜기를 뒤흔드네 계곡물 소리.
 가던 길 끝난 곳에 선경 만나니
 웅장한 신라 시대 절이로구나.
 증축한 행랑채가 에워쌌는데
 그 안에 사는 스님들 천명을 헤아려
 산마루 달빛 아래 안장 풀고서
 깊은 산방 단잠을 자고 난 뒤에

93)첩석대(疊石臺) : 가야산 19명소 가운데 하나이다.

동틀 무렵 일어나 밖에 나오니
 장관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천길 높은 기둥은 구름 위 솟고
 연이은 서까래는 물고기 이빨
 대웅전은 드넓어 깊기도 한데
 위를 보니 웅장하고 다채롭구나.
 비단 창 붉은 노을 자욱하다면
 천장에는 붉은 연꽃 흐드러졌네.
 크고 맑은 종소리 육시(六時)⁹⁴⁾ 울리고
 용입에선 백 통의 물을 뿜누나.
 장엄한 석탑에 숙연해지고
 기괴한 벽화에 간담이 서늘
 장경각 구경거리 가장 좋은데
 스님들 모여 나를 보며 이상한 눈짓
 팔만이라 대장경 수많은 글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판각을 하여
 차곡차곡 쌓아놓은 높은 누각에
 검은 구름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참새소리 어렴풋 들려오누나.
 참혹한 전쟁에도 끄떡없으니
 어허 당초 이 설계 누가 했는고
 마음씀이 그 또한 각별하여라.
 찬란할사 먼 옛날 유가 경전은
 전해오는 그동안 상처 많건만
 어느 누가 이단의 가르침만은
 손상없이 고스란히 보전케 했나.

94) 육시(六時) : 불교에서 하루를 여섯으로 나눈 시간으로 새벽, 정오, 석양, 초야(初夜), 중야(中夜), 후야(後夜)를 말한다.

잡초가 벼포기를 덮었는데도⁹⁵⁾
 뽑아 내지 못한 지 오래되었네.
 먼 옛날 학사대(學士臺)를 산책하면서
 고개 들어 고운 최치원(崔致遠) 생각해 보니
 세속 굴레 벗고서 선경에 놀아
 어찌면 아니 죽고 영원할 텐데.
 푸른 하늘 옥 거문고 매달아 뒀나
 슬기덩 가락은 아니 들리고
 맑은 바람 곡조를 절로 보내와
 보드랍고 하얀 팔 내음이런가.
 호방한 선생 기풍 머리에 스쳐
 감탄하며 한동안 머뭇거렸네.
 홍류동⁹⁶⁾ 계곡 따라 내려가 보니
 수석도 아름답다 비단 폭인데
 광풍리(光風瀨)와 제월담(霽月潭) 서로 잇달아
 걸음마다 하나같이 즐거운 구경
 곁에는 깎아지른 절벽이라면
 위로는 높이 솟은 산봉우리들
 온갖 샘물 그 가운데 치달리는데.
 뿜어대며 달는 기세 어이 막을꼬
 최치원 선생 남긴 시⁹⁷⁾ 크게 읊으며
 거듭거듭 감탄하네 오묘한 그 뜻

95)잡초가 벼포기를 덮었는데도 : 잡초는 이단, 곧 불교 등을 말하고 벼포기는 유학을 가리킨다. 곧 불교가 유학을 밀어냈다는 것이다.

96)홍류동(紅流洞) : 홍류동천(紅流洞天)이라고도 하는데, 가야산 입구에서 해인사까지 이르는 10리의 계곡을 말한다. 가을이 되면 붉게 물든 단풍이 맑은 계곡물에 비춰 흐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97)최치원 선생 남긴 시 : 최치원이 가야산에 있을 때 그의 독서당에서 지은 칠언절구로, 홍류동 계곡의 바위에 새겨져 있었던 것을 말한다. 그 시에 “바위 골짜기 치달는 물 첩첩 산골 뒤흔드니, 바람 말은 지척에도 분간하기 어려워라. 세속의 시비 소리 행여나 들릴세라, 흐르는 계곡물로 산 둘러치게 했다.[狂奔壘石吼重巒 人語難分咫尺間 却恐是非聲到耳 故教流水盡籠山]” 하였다.

푸른 비탈 옛 각자(刻字) 더듬어 보니
 곳곳한 두세 글자 힘찬 획일레.
 스물여덟 그 당시 글자 가운데
 마멸되고 남은 건 고작 이것뿐
 새벽녘 저 하늘과 흡사하거니
 이십팔수(二十八宿) 그 가운데 두 별만 남아
 애석할손 나머지 알 수 없지만
 아서라 오랜 세월 어쩔 수 있나.
 오호라 계원필경 훌륭한 문장
 일찍이 천하 선비 압도하다가
 계림에 서린 기운 쓸쓸해지자
 누런 잎 이우리라 예감하고서⁹⁸⁾
 기력 되어 하늘 멀리 날아오르니
 속세를 떠나는 몸 누가 따를꼬
 남창위 벼슬하던 한나라 매복(梅福)
 오현(五縣) 저자 문지기로 숨어살 듯이⁹⁹⁾
 고매한 자 위태로운 세상 피하고
 초연한 이 세속을 벗어났거니
 상산이라 사호(四皓)와 녹문의 덕공(德公)¹⁰⁰⁾

98) 계림(鷄林)에 …… 예감하고서 : 최치원이 신라는 장차 망하고 고려가 일어나서 흥성할 것을 예언한 말이라고 전하는 “곡령의 소나무는 푸르고 계림의 숲은 누렇게 이을 것이다.[鶴嶺松靑 鷄林葉黃]” 라고 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계림은 신라의 도읍지인 경주(慶州)의 탄 이름으로 신라를 뜻하고, 곡령은 고려의 도읍지인 개성(開城) 송악산(松嶽山)의 탄 이름으로 고려를 뜻한다.

99) 남창위(南昌尉) …… 듯이 : 매복은 한 평제(漢平帝) 때 구강(九江) 수춘(壽春) 사람으로 자는 자진(子眞)이다. 상서(尙書)와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을 통달하여 군문학(郡文學)을 거쳐 남창위를 지냈다. 왕망(王莽)이 권력을 휘두르자 가족을 떠나 성명을 바꾸고 오현(吳縣) 저자의 문지기가 되었다 한다.

100) 상산(商山)이라 …… 덕공(德公) : 상산은 중국 섬서성(陝西省) 상현(商縣)의 동쪽에 있는 산 이름으로서 사호(四皓)로 불리는 동원공(東園公), 기리계(綺里季), 하황공(夏黃公), 녹리선생(角里先生) 네 사람이 진시황의 어지러운 시대를 피하여 숨은 곳이다. 녹문(鹿門)은 호북성(湖北省) 양양현(襄陽縣)에 있는 산 이름으로, 후한 말기에 현산(峴山) 기슭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방덕공(龐德公)이 벼슬살이를 하라는 형주 자사(荊州刺史) 유표(劉表)의 청을 거절하고 처자를 데리고 들어가 약을 캐며 살았다는 곳이다. 흔히 세상의 영화를 추구하지 않고 초야에 은거하는 사람을 형용할 때 인용된다.

호탕할사 그 기상 한 법도였네.
 부끄럽다 나는야 떠날 줄 몰라
 호사로운 관복을 입고 있으니
 나래 꺾여 새장 갇힌 학의 신세요.
 앞길 막힌 못물 속 잉어의 몰골
 벼슬길 그 가운데 고충 있으니
 갖가지 트집잡아 비방하는 것
 시비는 고금 세상 마찬가지로.
 옛사람 슬기로워 귀를 가렸지
 실새없이 넘실대는 경수(溼水)와 위수(渭水)
 뉘라서 맑고 흐림 알아볼 건고
 아서라 나도 장차 결연히 떠나
 헌신짝 팽개치듯 영화 버리고
 썩썩 자란 붉은 영지 캐고 또 캐며
 짚신이 닳든 말든 좋다 했건만
 이러한 뜻 마침내 헛꿈이 되어
 짐 보따리 챙겨들고 허둥대면서
 갈바람에 먼 길을 달려왔다네.
 가을이라 짧은 해 금세 넘어가
 무릉교 다리에서 말을 세우고
 신선 사는 저곳에 고개 돌리니
 차가운 시내 소리 어제와 같고
 푸른 구름 가까워 손에 잡힐 듯.
 가고 머뭇 소원과 맞지 않으니
 이 유감 어느 제나 풀어지려나
 산속의 사람들에게 부탁하노니
 내 늙는 그날까지 기다려다오.

174) 해인사구광루(海印寺九光樓)

猗猗經閣對仙巒 往事無非一夢間 適有乾坤吞吐客 九光樓上秤千山

[鏡虛集]

175) 자범어사향해인사도중구호(自梵魚寺向海印寺道中口號)

識淺名高世危亂 不知何處可藏身 漁村酒肆豈無處 但恐匿名名益新

[鏡虛集]

176) 차해인사벽상(次海印寺壁上)

曦朗祖師昔日尋 印山冰海古如今 九光樓上禮三寶 大藏殿中觀一心
門懸法刹紅霞額 仙弄伽耶白水琴 遙思三目因緣在 羅史麗網摠入襟

[茶松詩稿]

177) 海印寺退居有作(海印寺退居有作) 四首

海印却勝盧岳寺 伽耶還似虎溪流 伽耶者溪名也卷二〇第三張

遠公高迹雖難繼 且喜終焉志已酬

屈辱多年寄帝京 教門功業耻無成 此時行道徒勞爾 爭似林泉樂性情
事去幾迴興嘆息 年來無計報君親 可憐少壯心如昨 不覺銷磨四十春
榮華富貴皆春夢 聚散存亡盡水漚 除却拈神安養外 筭來何事可追求

[大覺國師文集]

178) 차해인사송경허(次海印寺宋鏡虛)

依依經閣對仙巒 往事無非一夢間 適有乾坤吞吐客 九光樓上秤千山

[大東詠選]

179) 해인사(海印寺)

古伽椰裏蔚伽藍 千里雲山對面參 鳥下庭莎僧入定 狙垂園樹樛羊矢棗方甘
書巖碁閣何人住 即孤雲所遊之處 風伯桐孫偶共談 客裏計程仍不寐

夜深蘿月照松龕 客有題于毗盧殿 欲識華嚴不思議 看取毗盧金殿上

桐孫風伯作檀那 四時不絕聲供養

[梅月堂詩四遊錄]

180) 재입해인사(再入海印寺)

丹桂蒼松峽路清 穿雲聊自伴藤行 山禽見客提提下 慣我當牛曳屐聲

[蒙庵大師文集]

181) 해인사근차농암상공시(海印寺謹次農岩相公詩) 五十八韻

西天海印教 東流十萬里 要簡有緣土 茲山即其是 盤亘高且大 並落羣峰比
白馬到此止 胥宇寧可已 胡僧自胷虛 折蘆渡江汜 風塵飛不到 雲泉淨無滓
琳宮起萬架 一一塗朱紫 說法逞神通 三韓救鼎沸 沁園病良已 翠華親臨寺
崇奉何雜遝 更僕未易指 繡佛來殊域 東國獨擅美 金塔數十層 雕琢極華靡
江左有通度 其如神不齒 岳麓雖云好 對此亦難歧 六時奏天樂 百鳥含花藥
神童奉巾瓶 宮娃供浴水 千秋已往矣 後人疑幻詭 經閣呈神奇 宛在目前視
嵬峩六十間 中藏八萬梓 豈由經營力 應籍鬼神起 兩癸火其居 斯閣不隨燬
金玉備莊嚴 宜也非爲侈 須信如來法 火宅醫瘡痛 如何世儒氏 今古多忌毀
慢山徒增高 心花不假耔 三教融一貫 偉哉新羅子 文章動中華 命名今不死
青松與黃葉 細推興亡理 歸山弄仙琴 無絃引商徵 清風隔千古 令人感久倚
紅流浪如琴 武陵霞成綺 月潭坐忘飢 仙洞望亦喜 衆壑互吞吐 列岫競奔馳
盱衡紛應接 半日行且止 壁苔萋迷詩 句中有深旨 超然塵世外 恍惚難相似
往時農岩公 繡衣曾過此 長篇鎮山門 把玩難下觜 摳衣欲問學 奈非同世矣
難弟有淵翁 自號老居士 爵祿知可辭 將身林壑委 吟鞭繼又至 玉律孰能仕
世人不識寶 當鬻波斯市 愚也浮屠者 幸無周何累 不識前路險 冥行遭覆軌
埋頭文字白 苦爲浮名被 敢望驤首鶴 空作曝腮鯉 雅志在骯髒 與人絕諠訛
居山三十年 是非頻到耳 平生妄自假 未涉北海涘 從今拋講床 等視一敝篔
名山有宿債 此行足生胝 岩谷自成蹊 非是爲桃李 清游那易得 秉燭以繼晷
休筇得其所 孤庵白雲裡 山中豈寂寥 諸公多在邇 斟酌旅中愁 過從須不弭
詩成誰相愛 獨吟有所思

[蓮潭大師林下錄]

182) 금가야산해인사십삼경(唵伽耶山海印寺十三景)

武陵完在紅流洞 泚筆巖間噴玉琉 疊石臺雲僧富貴 七星峰月客風流
落花潭上看花笑 吹笛峯邊聽笛遊 學士唵風仍歇脚 光風霽月却疑秋
十三景武陵橋 紅流洞 噴玉瀑 七星峯 完在岩 泚筆岩 疊石台 落花潭
吹笛峯唵風瀨 霽月潭學士台 光風瀨 [龍岳堂私藁集]

183) 견해인사판전지화생(見海印寺板殿地花生)

爲報仙山前宿債 穿雲始入竹筇鳴 層層佛塔庭中立 六六鍾聲耳下清
後瀑流時前瀑出 天花落處地花生 九光樓上仍高座 黑白圍碁爭衡枰
[龍岳堂私藁集]

184) 우유해인사(優遊海印寺)

此地經營數十年 促裝今日到山邊 誰知學士台前路 便入隱仙洞裡天
憎彼世間名與利 愛吾物外道兼禪 十三景處應多興 把筆寫詩宿債緣
[龍岳堂私藁集]

185) 유해인사(遊海印寺)

伽椰形勝古猶今 能使遊人日復臨 滿地煙霞無俗界 繞樓松檜更春心
行尋仙跡雲留壑 聽罷經談月在岑 叅觀禮節倍嚴淨 時夜不停鍾聲音
[藕堂詩稿]

186) 해인사유련(海印寺留連)

伽椰物色抵秋清 那使遠人懷感生 殘蝴添夢菜花坐 踈雨引愁匏葉鳴
良田賴得蓬麻直 靈地幸無風浪驚 諸友將離留我在 一筵孤鬱此難情(一)
[藕堂詩稿]

187) 복유해인사(復遊海印寺)

峭寒西渡洛江舟 此地從期共集頭 春色漸看花木潤 雨聲恒聽石溪流

舊緣且喜來今日 經業還憐費去秋 昔時學伴留何處 惹起深懷暮倚樓(一)
 樹擁雲開境自幽 東來百里伴春留 相逢故舊偏生喜 回憶鄉關暗起愁
 影子堂閒無俗事 花辰日暝復清遊 盆梅看愛茶兼味 不必從他大白浮(二)
 松梢滿地有樓清 客子來時見鶴鳴 水雪漸消前臘色 柳梅先得一春情
 乘陽蟄族驚須啓 含雨雲陰過不輕 同志殷勤隨喜足 使人忘却返鄉成(三)
 一雨均沾四海春 凍痕消盡洗纖塵 欲將栽樹初翻曆 且待看花更約人
 穿水魚苗應有性 棲林鳥隊可安身 隨時觀感生生理 物物東風日日新(四)
 [藕堂詩稿]

188) 제해인사구광루(題海印寺九光樓)

精舍誰開太古巒 至今縹緲水雲間 東方名勝知非一 何必藏經乃此山
 [藕堂詩稿]

189) 종서시종병두유해인사(從徐侍從丙斗遊海印寺)

金芙削立紫凝霞 別景多般說莫加 肉眼未能真面見 名區不向俗人誇
 清溪白石頻停馬 紅葉黃花便忘家 此地如令隨意住 何須仙子服丹砂
 [藕堂詩稿]

190) 증해인사상인공궁중풍동(贈海印寺上人空宮中風同)

孤雲一去白雲空 聞道藏經佳麗宮 心遊海寺烟霞裡 夢到伽山水石中
 邂逅初逢千里客 逍遙晚坐夕陽風 不識蕉隱安在否 庚申年月講論同
 [義龍集單]

3.2 흥제암(弘濟庵)、국일암(國一庵)、희랑대(希朗臺)

1) 흥제암차행정축(弘濟庵次行正軸)

斜陽騎馬入深谷。寺在清溪第一曲。山僧何苦強索詩。我對楸枰圍白黑。
 [忘窩集 金榮祖]

2) 국일암(國一庵)

亭午循幽壑。逍遙釋氏宮。煙蘿孤磬遠。雲木一谿空。
錫影隨僧淨。燈光與佛通。安平有墨妙。紫氣出龕中。

[江漢集 黃景源]

국일암

한낮에 그윽한 골짜기를 돌아다니다
석씨의 궁전을 소요하였네.
담쟁이덩굴 얽혀진 속에 외로운 풍경 소리 멀리 퍼지고
구름 낀 숲 속엔 온 시내가 텅 비었네.
석장(錫杖)은 승려를 따라 청정하고
등잔 불빛은 부처와 더불어 통하네.
'안평' 이라 쓴 묘한 글씨 있어
자줏빛 상서로운 기운이 감실에서 새어나오네.

3) 희랑대(希朗臺)

朗師修行處也。老師愨公年七十九。顏頰枯澹。宛似朗師塑像。甚可異也。
蘭若迢迢孤塔圓。僧居七十有餘年。少無妻子身依鶴。老食松花骨蛻蟬。
去剪白雲縫短衲。坐疏清澗注丹田。從渠欲問楞嚴意。流水空花息世緣。

[太華子稿 南有常]

3.3 기 타(其 他)

1) 별용문회운상인(別龍門晦雲上人)

龍門隱士出南遊 閱盡名區與大流 二夏同過海印寺明朝利涉洛東洲
老槐當路如相揖 踈雨侵簾似欲留 投轄如令終可得 荷塘應好賞清秋

[藕堂詩稿]

2) 증희랑화상(贈希朗和尚)

步得金剛地上說。扶薩鐵圍山間結。苾芻海印寺講經。雜花從此成三絕。
 龍堂妙說入龍宮。龍猛能傳龍種功。龍國龍神定歡喜。龍山益表義龍雄。
 磨羯提城光遍照。遮拘盤國法增耀。今朝慧日出扶桑。認得文殊降東廟。
 天言秘教從天授。海印真詮出海來。好是海隅興海義。只應天意委天才。
 道樹高談龍樹釋。東林雅志南林譯。斌公彼岸震金聲。何似伽倻繼佛跡。
 三三廣會數堪疑。十十圓宗義不虧。若說流通推現驗。經來未盡語偏奇。

[孤雲集 崔致遠]

희랑 화상에게 증정하다

보득이 금강지에서 설한 가르침을
 부살들이 철위산에서 결집하였네
 필추가 해인사에서 강경하였으니
 잡화가 이로부터 삼절을 이루리라
 용당의 묘설을 용궁에서 들여온 뒤
 용맹이 용종의 공을 제대로 전했네
 용궁의 용왕이 정녕 환희함은 물론이요
 용산은 의룡의 걸출함을 더욱 표하리라
 마갈제성의 광명이 두루 비치고
 차구반국의 불법이 더욱 빛나네
 오늘 아침 부상에서 떠오른 지혜의 해
 문수가 동묘에 강림한 것을 알겠도다
 천언의 비교를 하늘에서 전수받고
 해인의 진전을 바다에서 꺼내 왔네
 멋지도다 해인의 뜻 해우에서 밝힘이여
 천의는 단지 천재에게 맡기려 할 뿐이랴오
 도수의 고담은 용수가 해석했고
 동림의 아지는 남림이 번역했네
 빈공이 피안에서 금성을 떨쳤다지만
 가야에서 불적을 이은 것과 같으리오

삼삼의 광회의 숫자는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십십의 원종의 뜻이야 잘못될 리가 있겠는가.
 유통을 말한다면 현함을 밀고 나가야 하리니
 경의 미진한 해석은 문자가 이상한 탓이로다.

3) 증조안상인(贈祖安上人)

柔兆涖灘歲。四月廿九日。雨霽海印寺。雲銷衆峭出。拉汝躋冢頂。
 同汝倚遼廓。群山眼底皺。萬仞懸雙屨。岸中九萬風。騰身欲跨鶴。
 半生誤六塵。夙願今始適。吾輕四海儒。爾實彌天釋。永結謝支盟。
 贈詩聊一拍。 [武陵雜稿 周世鵬]

4) 가야산(伽倻山)

東國多仙山。伽倻固無雙。試入海印寺。手排碧雲窓。千峯疑畫出。
 萬壑響淙淙。我欲弄玉簫。碧海爲酒缸。携手崔孤雲。共吐平生腔。
 空懷焉能果。淚瀉如長江。 [武陵雜稿 周世鵬]

5) 망가야산(望伽倻山) 癸巳

伽倻山在古伽倻。連峯疊嶂高嵯峨。縹氣漫漫接紫霄。疑是聖母凌蒼霞。
 靈神異跡訪遺俗。古記相傳莽真訛。山中聞有海印寺。金堂玉室眞仙家。
 崔仙去後一千載。白雲寂寂留山阿。古閣唯餘藏灑壘。玄壇不復養芝砂。
 至今猿鳥嘯青葵。石徑埋沒蒼苔多。我欲南尋智異問至道。歸來及見山桃花。
 紅流洞裏青竹杖。喚起崔仙從以萬素娥。彈伽琴弄雲月。一醉千日遊無何。
 [退溪集 李滉]

6) 영동사(詠東史)

其三百二十

伽倻山壯列蒼屏。海印寺高護佛靈。勞費當時凡幾許。至今留貯大藏經。

其三百二十一

哀莊政事苦難知。作寺胡爲又禁之。石立塔撞塩庫吼。史書不絶定因誰。

哀莊王作海印寺。又禁立佛寺。禁佛寺用金銀錦繡。牛頭州有石自起立。

望海寺二塔相擊。西九城塩庫鳴。聲如牛。

[無名子集 尹愔]

동사를 읊다

320

가야산 웅장하여 푸른 병풍 펼친 듯한데
높이 솟은 해인사가 부처의 신령 지키네
인력과 경비가 그 당시 얼마나 들었을까
지금까지 대장경이 남아서 전해오누나

321

애장왕의 정사는 참으로 알기가 어려우니
사찰 짓더니 어찌 또 사찰 건립 금하였나
바위가 섰네 탑이 부딪쳤네 염고가 울었네
사서에 끊이지 않음은 대체 누구 때문인지

신라 애장왕(哀莊王)이 해인사(海印寺)를 창건하더니 또 사찰의 건립을 금지하고 사찰에 서의 금은이나 화려한 비단 사용을 금하였다. 우두주(牛頭州)에서 바위가 스스로 일어났으며 망덕사(望德寺)의 두 탑이 서로 부딪쳤다. 서형성(西兄城)의 소금 창고 [塩庫] 가 울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소의 울음소리 같았다.

7) 도중기한상제동인(道中寄漢上諸同人)

肩輿跟僕馱輕裝。踏遍西南幾郡疆。海印寺中千佛氣。玉靈樓畔萬花香。
平生快意無公事。到處歡情似故鄉。京洛親朋携不得。題詩寄去遠相望。

[寧齋集 李建昌]

8) 봉기경상조아사(奉寄慶尙趙亞使)

靑油幕况近何如。九月秋光掌試餘。海印寺幽眞勝境。嶺南樓迥卽仙居。
名區可以窮登眺。羈恨應知賴發舒。聞說北堂朝暮待。莫教歸騎暫躊躇。

[無何堂遺稿 洪柱元]

9) 우제정화영남첩(又題鄭畫嶺南帖)

孤雲去後書庄捨爲海印。述郎之去丹字屬於夢泉。

神仙不競歸何處。萬壑千峯盡着禪。右海印寺

[后溪集 趙裕壽]

10) 입동화사(入桐華寺)

金沙一路小溪緣。慧月曇雲護法天。寶界新羅王所創。芳名海印寺相傳。

千年樹老看棲鳳。三月花殘聽怨鶉。深夜蒲團閒夢得。詩人還作定中禪。

[尼溪集 朴來吾]

11) 우부삼절(又賦三絶)

錦樹重重洞壑幽。禪鐘忽落九光樓。聲聲穿出巖雲翠。引我行裝到上頭。

笙鶴飄然去不迴。寥寥雲裏有空臺。今宵一片峯頭月。猶作崔仙影子來。

寺誌繙看樺燭前。空門誕說不堪傳。梅溪之述乖厓撰。公案千秋此二篇

[舫山集 許薰]

4. 산 문(散文)

4.1 해인사사적(海印寺史蹟)

1) 해인사기(海印寺記)

海印寺新羅哀莊王時 順應利貞兩大師所創 希浪祖師重創 崔孤雲 率妻子入化爲仙 三目鬼王 刊八萬藏經留鎮山之絕勝眞妙 不可靚觀而言之 自治爐 傍溪行二十里 至紅流洞 自此入寺 已隔十里 兩山相對 皆是層岩絕壁 峯回路轉 但聞水聲而已 入缺岸初見 左右石角 或疊或削 如引臂 如豎幢 次見泉澗 隨疊峰曲路白石層岩而北來 如瀉如酒 如懸練 如絕線 其於石之面水之角 多題于朝廷搢紳之名 仰看俯察 絕無人迹 閑吟崔先生狂奔疊石之詠 踏溪而入 水石相薄磷磷鑿鑿 跳珠濺玉 動驚耳目 峯是千矣 壑亦萬矣 而中有平地 周回可十餘里 於此乃開基造寺 爲國禪補斯境絕勝 天地間其有幾何 惟四方耳目杖履可及者 春有錦繡谷花 夏有石門澗雲 秋有滿山丹楓 冬有點石青松別爲壺中天地 而更作嶺南之金剛 普眼閣希奇 自古然矣 以余及見言之丙子二月初一日 天火焚渾寺 藏經未能 佛天衛護 有若斯之善矣 人以此寺爲法寶云者 豈非此也耶

[應雲空如大師遺忘錄]

2) 가야산해인사고적(伽倻山海印寺古籍)

大抵人之起廢必有其所地之盛衰亦關時數祥夫伽倻山[一名牛頭]海印寺者海東之名刹也昔梁朝寶誌公臨終以踏山記囑門徒曰吾沒後有高麗二僧求法而來以此記付之後果有順應理貞兩大士入中國求法誌公門徒見之以踏山記付之并說臨終時語應貞聞而問法師葬處而往尋之云人有古今法無前後七日七夜入定請法墓門自開誌公出爲之說法以衣鉢傳之又贈蟒皮鞋[衣鉢與鞋至今傳爲寶]仍囑曰汝國牛頭山西有佛法大興處汝等還國可勅立別禪補大伽藍海印寺言訖還入二師還國途牛頭山自東北踰嶺而西遇獵人間曰汝等因獵遍閱此山有可以勅寺地否獵人答曰此去小下有一水泊處[今昆盧殿是也]多有鐵瓦[今昆盧屋上所覆鐵瓦是也]宜往觀之二師到水泊處見之甚叶其意籍草而坐入定頂門放光紫氣衝天時新羅第三十九王哀

莊大王王后患發背良醫無效王大患之遣使臣分往諸方冀得碩德異僧倘蒙扶救也中使於路上望見紫氣疑其有異人到山下披捩入洞至數十里許溪深峽束行不能前[今致遠書其詩曰狂奔疊石吼重巒人語難聞咫尺間常恐是非聲到耳故殺流水盡籠山]徘徊久之忽見一狐緣巖而去中使心異之隨之而後及見二師入定光從頂門出敬信禮拜因請邀還王宮二師不許中使乃以王后發背之患告之師授以五色線曰宮前有何物答曰有梨樹師曰持此線一頭繫於梨樹一頭接於瘡口即無患其使還報於王王依言試之梨枯患差王感之敬之使國人勅立茲寺焉時哀莊三年壬午即唐貞元十八年也大王親幸於茲寺納田二千五百結慶讚畢後還國道誦玄明歎題此寺云時演華嚴大士家一說伽椰三災不到處而有王侯之地[指殺捕亭]也句高麗時有一措大死至帝釋宮帝釋喚蓋金來其服飾皆髑髏即無常大鬼也帝釋曰句高麗多行不義汝往徵艾願謂措大曰蓋金去則汝國必盡灰燼唯伽椰三災不到之地汝可往彼避之措大還生移居於此後有蓋蘇文之難蘇文即蓋金也措大果免其難焉古聖所謂三災不到之地明矣新羅末僧統希朗住持此寺得華嚴神衆三昧時我太祖與百濟王子月光戰月光保美崇山食足兵強其敵如神太祖力不能制人於海印寺師事朗公師遣勇敵大軍助之月光見金甲滿空知其神兵懼而乃降太祖由是敬重奉事納田加五百結重新其舊山形絕於天下地德雙於海東真可謂精修之地副福利之場不可得而稱比國家最要文書入安鎮兵春秋行四天王法席無別祈恩年終還願進呈齋料出處晉州陝川興安府領任領內收合供養間閣修營如前各州文書堂直伽祚縣其人二名冶爐縣其人二名佛油出處冶爐縣司一年三斗式長年不絕引燈立石件等事永永不墜故以天福八年癸卯十月依板成籍

[朝鮮寺刹史料 朝鮮總督府, 1911년]

3) 해인사실화적(海印寺失火蹟) 1874년

夫一氣流元二儀肇判理不變而事變消長之運成毀之數往復其間而物無不受茲寺也唐貞元十八年壬午新羅哀莊王所勅而麗初藏大藏板至有明洪武癸酉我太祖大王重營古塔印大藏以安于塔親撰跋文天順戊寅世祖大王又印經五十件重修板堂而勅寺千餘架何其盛也越康熙三十四年乙亥偶然失火東隅諸寮及滿月圓音等閣俱灰明年丙子春又火西隅諸寮及無說等殿亦灰至乾隆癸亥癸未庚子鱗火有緣者繼興隨而葺之庶前烈不墜越嘉慶二十二年丁丑又如前火其禍蔓延數千餘架盡八

灰燼爾時道伯金公魯敬氏揆畫事機使影月淵月輩茸之然運有消數有毀不能盡復前烈至同治十年辛未法性寮失火尚未復之以待有緣者耶噫自康熙至同治不幾百年凡七歷火而唯經閣獨專無乃事變而理不變耶今蹟既重刊而中間事實慮有失漏故依散籍一以貫之以付古人餽飯之餘味

同治十三年甲戌二月下浣 蓮波門人退庵述

[大藏經跋文、海印寺古籍，朝鮮總督府，1915年]

4.2 중창기(重創記)

1) 해인사중창기(海印寺重創記)

伽倻之山。最秀東南。峻絕峭壁如畫。山之陽。有巨剎曰海印。新羅哀莊王時。高僧順應所創。寺前有蓬萊，方丈，瀛洲等峯。衆壑之水。繞出前洞。奔流激石。萬雷轟歷。俗號紅流洞。自武陵橋抵寺十有餘里。丹崖翠壁。愈深愈佳。古記山形絕於天下。地勢隻於海東者。信不誣也。文昌公崔致遠晚年。掛冠卜隱于此。讀書堂廢。而題詩石尚存。高麗時。藏國乘。又藏大藏經板。山之著於圖誌。寺之額於東方者。尚矣。我世祖惠莊大王。中興王業。萬機之暇。留意釋道。思欲洪揚竺教。普濟群生。天順戊寅。命僧竹軒等。就本寺。印大藏經五十件。又命惠覺，尊者，信眉，燈谷，學祖等往視之。藏經之堂隘且陋。仍命本道監司。稍增舊制。措四十餘間。越十一年戊子。世祖上賓。貞熹王后。克定大義。寧濟東民。深仁厚澤。決于遠近。念惟世祖之尊崇篤信者。琅函祕典。而曾幾何時。藏經之堂。已爲傾墜。可不動念。於是乎慨然有重營之志。而歲辛丑。始停住持。命學祖主其寺。屬仍歲侵。國家多事。未遑舉也。癸卯。貞熹昇遐。仁粹王大妃，仁惠王大妃殿下。適追先志。凡所以嗣徽音而薦冥福者。無所不盡其心。而悼貞熹之有志而未就也。則又命學祖。往董其役。戊申春。施內需司米布若干石匹。遣都料匠朴仲石等。改構藏經板堂三十間。扁曰普眼堂。又撤板堂中佛殿三間。移構於寂光殿西。扁曰眞常殿。又撤祖堂三間。移構於眞常殿側。扁曰解行堂。明年己酉春。又施米布。又明年。亦如之。構窮玄，探眞，鑑物，雙運等堂及一源，谷應，摠持，倒瓶等

寮。修講堂曰無說。食堂曰滿月。改營毗盧殿曰大寂光。主佛補處。皆改飾黃金。起鍾樓曰圓音。建中門曰不二。撤舊大藏殿。移營於寂光殿東。扁曰含虛寮。藏銀字大藏經有脫字卷。又營解設，蕭然，可鑑，圓融，雙割，浩然，逗元，緣起，冥真，玄根，達俗，省行，重瑩，轉生，作熟等寮。又起東西樓庫。東曰無盡藏。西曰貳盈庫。凡爲屋百六十間。或增或損。皆因舊制。而宏麗精彩倍之。庖廡廩之所。鍾魚鐃鼓之類。亦莫不畢具而一新。金碧輝煌。照耀山谷。乃於秋九月望。招集淨侶數千指。大設法會以落之。於是。山門之事。畢矣。燈谷以偉曾遊是地。粗識其槩。走書求記甚勤。偉本儒者徒。於釋教。蓋懵然者也。修善種福之理。輪回因果之說。未之學也。其餘功德。何足論之有無哉。雖然。崔文昌。吾東文士之祖。此是終焉之地。則不可不致意於此。而況兩殿爲先后之誠。終始彌篤。在所當書。垂之罔極。而能奉慈旨。孜孜靡遑。程功授事。不使小怠。操術要而收功速。在乎董役之得其人也。可不記其勝蹟。與古順應同傳不朽乎。噫。盛衰。數也。成毀。亦數也。寺創於有唐貞元十八年。歷新羅高麗。巍然獨存於兵火之餘。至于今日。遇太平之世。逢任姒之聖。殿堂寮宇。煥然一新。豈非有數存乎其間。而海印之一大幸耶。抑不知成毀之數。一係於天耶。一係於人耶。盛衰成毀之理。無窮於人世。則寺之長如今日。亦安可保耶。使後之主此寺者。恤念兩殿篤孝之誠。燈谷營構之勤。謹守不毀。無徒諉於盛衰成毀之數則可矣。

弘治四年龍集辛亥十月上澣。昌寧曹某。記。

[梅溪先生文集 曹偉]

2) 해인사장경각중수기(海印寺藏經閣重修記)

嶺南伽椰山之陽。有海印寺。新羅哀莊王時。高僧順應所創。唐貞元十八年壬午也。後六百五十二年洪武癸酉。我太祖大王。重營古塔。願成大藏。以安于塔。有親撰跋文。世祖戊寅。命僧竹軒等就本寺。印大藏五十件。使慧覺，信眉，燈谷，學祖諸僧。往視藏經堂之隘且陋。令道臣稍增舊制。癸卯。仁粹王妃，仁惠王妃。以貞熹大妃遺志。仍命學祖董其役。戊申。內下米布。遣都料匠朴仲石等。改構板堂三十間。額之曰普眼。己酉春。施檀越亦如之。此寺之

興廢緣起也。今聖上壬申。卽大祖開國之八回甲也。舊命維新。百度更始。僧曇華，慧峯，古鏡輩。謀重修是閣。屬余記之。噫。寺本崔文昌讀書之所。題石尚宛然。逮高麗藏國史。兼藏法經。古蹟可攷。而其峯巒之秀。洞府之窈。已有曹梅溪遺筆也。我聞佛氏大意三藏十二部。一言以蔽之。曰無善無惡。蓋十方世界。現在未來。無非經也。三乘六通。長留於祇花慧月之境。何必鏤之梓鐸之金然後。爲波羅蜜心心偈也。昔在英廟癸亥寺火。癸未又火。惟板堂不犯。脊梁之間。雖翎毛之微。亦不敢近。果爲沙門之鴻寶。而尤驗神呵而鬼護也。余曾於蓬萊之正陽寺。閱一部大藏經。是乃世祖戊寅分葬者也。余跡不及伽倻一步。而其經則有領畧者存。今於藏經閣記。亦可謂緣業之不薄也。

[嘉梧叢略 李裕元]

3) 해인사백련암중창기(海印寺白蓮庵重創記)

海印諸庵 白蓮爲寂境 萬曆三十三年乙巳 西山門人昭庵大師 肇創庚向其後三年戊申 松雲大師瓦焉 康熙六年丁未 日軒印壽如贊雙暉等昇焉 其祖室樓閣則海明上人及葆光道峰月坡諸德 相繼有功 今上乙卯武庵公主室 以青烏家言合靖堂祖室樓閣 新於壬坐 前住持寬修 監其役 定閑掌其財泰宥壯活 指揮使人 春而始 秋而訖軒敞周密 前所未有的 余謂有相功德皆幻 武庵以幻智起幻悲爲後來 作幻住莊嚴 居於是庵者 卽極樂世界 須教身心 離着如淨蓮 飾行如數花 該徹因果 如花中實 以至毛端寶刹 微塵法輪 無往而不現然後 宜其爲海印之寂境也夫 [鏡巖集]

4) 합천군가야산해인사수선사창건기 (陝川郡伽倻山海印寺修禪社創建記)

余嗜好遊山水者也 遊得徧仙人尸解祖師創大伽藍 幽顯之王 以大願力助成大藏經板者 陝州之伽倻海印也而未得遊爲缺 然歲己亥秋 訪到 閱其經 繞其宇 紅流洞裡 探仙人之靈蹤 放曠然忘其形骸矣 一日有一禪和子謂余曰 今天子聖神至 仁洽而惠暨乎禪林 印經修宇 又勅建修禪社居心學者 倣前聖資福國祐世化士梵雲 與一山雲水 服勤勞 忘身宰 始是歲五月 過五箇月而落之 其爲樹玄

功之偉且大者 有若是者也 而師其文者也 幸記之以垂示不朽也 余曰毋爲是也 禪和子曰 昔釋迦氏 以正法眼藏付囑摩訶迦葉 傳至達磨來震旦 又傳至石屋 而我東國太古 傳得石屋 又傳至清虛 清虛於釋迦氏 爲六十三代孫也 當是時也 非特山林衲子 見其性而作導師也 上自天子 下至王公巨人 施及于草野賢達 莫不徹證無生坐脫立亡 故叅尋決擇 如飢就食渴赴飲 然勢莫得以遏之也 而降于今 視正法如土塊 持續慧命者 爲兒戲 甚者 相目憎嫉之 而至於靡所不至也 嗚呼 後之人 雖欲聞正法眼藏之說孰從而聽之乎 於斯時也 創修禪社者寔爲火中蓮華也 此尤不可不以記之而垂示不朽者也 余曰毋爲是也 禪和子曰 正法眼藏者 先佛之慧命也 建修禪社者 今天子之勅命也 若不一遵終始而廢之也 或革之也者 此非特蒙譴罰於神祇 抑亦犯罪於彝倫也 孰敢不戒懼 而爲是之爲哉 雖然若不昭示后人 後之人 安能知此社之嚴重也有其若是而一遵之哉 此又不敢不以記之 而垂示不朽者也 師其無得固止而可從事之也 余正色曰 鄙夫子之見解也 子知其有記之爲有記也 而不知其無記之爲有記之爲愈者也 安知夫未有一人修禪 而十類群生 已是一時見性了也 未舉一則公案 而山河大地明暗色空 以至麻線竹針 已是一時皆放大光明了也 又安知夫未開基也 已是一時成禪社了也 未具椽闌材也 已是一時記其事詳悉了也 夫如是 則豈可以爲紙墨之而贅疣脂粉於參正法眼藏之禪社也哉 禪和子悚然避席曰聽師之言 未敢自許聞道百也 然敢問 正法眼藏 是箇甚麼 曰祇這是 又問曰云是者 是箇甚麼 曰伽椰山色插天碧 良久云 直下言前薦得 未免觸途狂見 縱饒句下精通 也是箭過西天恁麼也 頭上安頭 不恁麼也 斬頭覓活 且道 到這裡 禪却如何叅 喝一喝 是日爲閑話 移晷 妨却忘形骸之趣味禪和子 請次第書 着打葛藤一絡索以爲修禪社記記之 [鏡虛集]

5) 해인사만월당불상중조기(海印寺滿月堂佛像重造記)

夫凡所有相 皆是虛妄 則此其所以前佛之滅也 成之者毀也 毀之者成也 則亦其所以後佛之興也 其興與滅 特關於世 而不關於心 則佛則心也 安知其未嘗關乎興與滅也 而後而前 在於情 而不在於理 則亦安知其未嘗係於前且後也 歟 曰前曰後 曰滅曰興 特在於世與數而已也 則於佛又何傷哉 雖然世有成住1)毀

空人有生老病死也 則佛既現世 人能歸之 庸詎知其亦未嘗隨其世隨其人隨其前後興滅之數也哉 嗚呼 往在龍集白黑之際 鬱攸一星 流禍金園 紫金月面 潛彩雙林 今有攝虛大師 卽熊川人也 誓以復之 自庚子六月 至壬寅 于三年告訖 使金容再煥于祇林 屬余以記其事始末 將欲壽於可畏心目 其功烈之勤物力之浩 不足待筆而知之 是用佛重光之跡 以書爲記 [東溪集]

6) 흥제암중수기(弘濟菴重修記)

往年。余以禮曹員外。鎖直于京司。偶閱軫中古事。有僧惟政奏。國家兵燹之後。聖賢經籍蕩然。請命有司。改印以布中外。余嘗心異之。後得其遺事於西厓先生集中。惟政姓任。密陽人。其先士族。惟政出家爲僧。號松雲。住金剛山。壬辰亂。倭人。持兵入寺中。僧皆奔竄。惟政凝坐不動。倭畏之致敬。羅拜而去。是歲秋惟政。收其徒千餘人。至平壤。與倭戰有功。再入清正營。論說義氣激烈。無畏懾意。甲辰。朝廷命往日本。探賊中形勢。人皆危之。惟政恬然就道。留日本一年。得被擄人一千餘以還。倭遣其臣偕行。當是之時。新經大亂。危疑未解。雖平日讀書仕於朝者。猶且逡巡。而惟政挺身獨往。卒能辦大事。立大功。何其韙哉。噫。釋之爲道。以無爲爲有爲。故爲吾儒者。靡不張目而斥之。斥之誠宜也。有能尊尚乎。儒學。盡心乎王國。如惟政爲也。則何可以空言斥之哉。古有儒名而墨行者。聞其名則是。較其行則非。此君子之所深惡也。若惟政。聞其名則非。較其行則是。豈古之隱道之流。讀經籍抱義理莊名於左道。而其意則實未嘗忘世者歟。噫。惟政有如是之識之高。才之美。而必欲避世而逃名。吾道中。自有樂地。何以蔥嶺爲哉。此則爲惟政惜也。惟政不樂於京山杖策。入太白山中。構小菴以居。名曰弘濟。所以識其志也。菴在萬山深處。不能庇風雨者。有年。其徒覺蓮。鳩材以葺之。來請記余。記惟政之行與蹟。特詳以爲學其道者勸。 [葛川集 金熙周]

4.3 상량문(上樑文)

1) 가야산해인사중건상량문(伽倻山海印寺重建上樑文)

竊以大雲普被。火宅回涼。法月重輪。寶刹湧瑞。滅三毒而超三界。更見歡喜之天。現十德而證十門。永奠堅牢之地。赤燦閩陽九之厄。金粟增大千之光。蓋聞一大事因緣顯妙用於虛空者。法海之相續也。萬有行功德貫真諦於塵刹者。密印之相傳也。是故未嘗顛倒減增。寧有作止任滅。七仙揚殊勝之表。六祖囑秘密之要。廣大之華嚴寶藏。玄奧之陀羅聖果。卵生胎生濕生化生之所影現。無邊無量。一佛二佛三佛四佛之所住持。正等正覺。此圓法珠之三昧。妙禪華之一宗者也。夫伽椰山海印寺。白毫示光。東方爲不動智境。金髻留像。南國豎無上等幢。繼釋迦成道之場。山王標秀。符大乘說經之處。地德獻祥。在昔新羅。哀莊王轉仁王寶輪。聖穆妃握天妃金鏡。紅流渙八德之水。牛頭張廣施之林。攝神匠於忉利天宮。儼然檀旃瑞相。弘願力於極樂世界。巍乎蓮華寶臺。霧欲霞歎。接金繩於像殿。波譎雲詭。交珠網於香城。孤雲結文字之禪。絮家遯迹。朗空說菩提之義。選場尋師。種種光中。遙抗芬皇火珠之塔。非非相處。對映佛國七寶之池。爰有麗代舊鏡內典大藏。包東山北山之部。該唱吒唱嚩之音。佐盧神書。玄言無盡。毗尼秘笈。白法難窮。如如覺後之詮。的的西來之意。飾之以赤堊髹漆。承之以大廈深簷。礎液流恬。鑽紙之蜂許釀。屋危嫌污。誦唄之禽禁翔。神物護持。寶氣充溢。在於震旦。無此汗漫。不見藏經。那知富貴。且如殊錫侈於宸翰。恩光耀於禪林。唐宗弁聖教之文。宋帝留名山之墨。龍章鳳藻。旣施外護之玄功。羊乘鹿車。爰暢內賜之盛典。帝機幹而慧日朗。聖澤覃而法源澄。十方之瞻視旣尊。大衆之皈依亦久。迺茲融風起陸。烈焰場空。華觀驚園。可憐焦土。天界龍窟。盡歸沉灰。法有所不通。無賴清涼之神力。運有所適值。亦燬慈恩之金身。然而獨留度閣之書。不泯持世之具。龍樹之口海。波瀾永安。玄裝之性門。關鍵無恙。意者謔出之警匪偶。度化之旨孔彰。鎔嗔煉癡。蒸金剛之智焰。銷邪熄惡。煽光音之慧芒。所以山狂谷狠。不侵接廊之簷。玉焚石焦。能保溢宇之帙。是將標聖諦於現劫。宣法曜於無方。雖空如來藏碎祖師關。猶有不滅者在。出斷常坑登真實際。豈爲無明所焚乎哉爾乃悔懺普圓災障隨豁鳩工不憚於裹足發誓並根於信心。遂汰愆而淘尤。永築功而基福。幻華界上。板蕩之悲同齋。祇樹園中。回向之願齊奮。銖累青鳧紫貝。粒聚銀粟金星。善女信男。析貨而贍力。宰官居

士。歸珍而裕工。于是理法基襲奮觀。回真照於頽運。隨滅卽生。握妙圓於墮機。由喪復顯。整頓三千淨土。嚴飾五百寶樓。慈像瞻奇。慧路仰異。初佛後佛同名。日月燈明。過因來因悉現。百千億妙。欄楯幢塔交錯。瑪瑙車渠匝環。或以圓相或以勝相。千燈續燃於一燈。或如樹形或如華形。彼界復明於此界。神衆則妥其幢蓋。闍梨則安其瓶筴。鐵瓦苔函古春。寶爐香盤舊篆。夫見正果之脫惡道。譬如瑞蓮之出火坑。如是我聞。以偈偉唱。

兒郎偉拋梁東。東方阿閼鞞。須彌光妙音。金剛勝菩薩。最降伏邪魔。

兒郎偉拋梁南。南方虛空住。德雲法慧佛。次復須彌燈。次復日月燈。

兒郎偉拋梁西。西方無量壽。精進無畏行。及大光大明。正觀日沒處。

兒郎偉拋梁北。北方雲自在。雲自在王俱。衆生蔭慈覆。無心無着故。

兒郎偉拋梁下。下方名聞佛。名光復達摩。大放獅子吼。撐天豎法幢。

兒郎偉拋梁上。上方金團天。香光大焰肩。無上波羅樹。裸色寶華嚴。

種種諸色相。悉從此地現。此是光明海。此是般若海。此是清淨海。此是妙法海。此是圓覺印。此是首楞印。此是金剛印。此是法華印。願長住此界。此海而此印。[阮堂全集 金正喜]

가야산 해인사 증건상량문

그옥이 헤아리건대 대운(大雲)이 널리 덮임에 화택(火宅)이 서늘한 데로 돌아오고 법월(法月)이 겹바귀가 되매 보찰(寶刹)은 상서가 솟았도다. 삼독(三毒)¹⁰¹을 없애고 삼계(三界)를 뛰어나니 다시 환희의 하늘을 보고 십덕(十德)을 나타내고 십문(十門)을 증명하니 길이 견뢰의 땅에 정했구려. 붉은 불뚝은 양구(陽九)의 액을 그치고 금속(金粟)은 대천(大千)의 빛을 더하도다.

대개 들으니 하나의 대사(大事)의 인연이 묘용(妙用)을 허공(虛空)에 나타내는 것은 법해(法海)의 서로 이음이요, 만 가지 행실의 공덕이 진체(眞諦)를 진찰(塵刹)에 관통하는 것은 밀인(密印)의 서로 전함이라 하였소.

이런 고로 전도(顛倒)나 감증(減增)이 없었는데, 어찌 작지(作止)와 임멸

101)삼독(三毒) : 탐욕(貪慾) · 진에(瞋恚) · 우치(愚癡)를 의미한다. 줄여서 탐[욕심] · 진[분노] · 치[어리석음]라고도 하며, 이 세 가지 번뇌가 중생을 해롭게 하는 것이 마치 독약과 같다고 하여 삼독이라고 한다.

(任滅)이 있으리까. 칠선(七仙)은 수승(殊勝)의 표(表)를 드날리고, 육조(六祖)는 비밀의 요결(要訣)을 부치도다.

광대한 화엄(華嚴)의 보장(寶藏)이요 현오(玄奧)한 타라(陀羅)의 성과(聖果)로서 난생(卵生)·태생(胎生)·습생(濕生)·화생(化生)의 영현(影現)하는 바라 가도 없고 양(量)도 없으며, 일불(一佛)·이불(二佛)·삼불(三佛)·사불(四佛)의 주지(主持)하는 바라 정등(正等)이요 정각(正覺)이니, 이는 원법주(圓法珠)의 삼매(三昧)요, 묘잡화(妙禱華)의 일종(一宗)인 것이다.

무릇 가야산 해인사는 백호(白毫)가 빛을 보이며 동방은 부동지(不動地)의 지경이 되고, 금계(金髻)의 상(像)을 남겼으니 남국에 무상등(無上等)의 당(幢)을 세웠네. 석가(釋迦)의 성도(成道)의 장(場)을 이었으니 산왕(山王)이 빼어남을 표하고, 대승(大乘)의 설경(說經)의 곳과 부합되니 지덕(地德)이 상서를 드리도다.

옛날 신라에 있어 애장왕(哀莊王)은 인왕(仁王)의 보륜(寶輪)을 굴리고, 성목비(聖穆妃)는 천비(天妃)의 금경(金鏡)을 쥐었으며, 홍류(紅流)에는 팔덕(八德)의 물이 넘실거리고, 우두(牛頭)에는 광시(廣施)의 숲이 우거지도다. 신장(神匠)을 도리천궁(勿利天宮)에서 관장하니 엄연한 단전(檀旃)의 서상(瑞相)이요, 원력(願力)을 극락(極樂)의 세계에서 넓혀가니 높다란 연화(蓮華)의 보대(寶臺)로세. 안개가 자욱하고 노을이 빛나니 금승(金繩)은 상전(像殿)에 맞대었고, 물결이 황홀하고 구름이 찬란하니 주망(珠網)은 향성(香城)에 어울리도다.

고운(孤雲 최 치원(崔致遠))은 문자의 선(禪)을 맺어 권속을 이끌고 자취를 감췄으며, 낭공(朗空)은 보리(菩提)의 의(義)를 설명하니 도량(道場)을 가려 스승을 찾도다. 종종광(種種光)의 속에 분황(芬皇) 화주(火珠)의 탑과 멀리 맞서고, 비비상(非非相)의 곳에 불국(佛國) 칠보(七寶)의 못이 마주 비치도다.

여기에 고려 시대 옛날 새긴 내전(內典)의 대장(大藏)이 있어, 동산(東山) 북산(北山)의 부(部)를 감싸고 창타창박(唱吒唱磬)의 소리를 합했으니, 거로(佉盧)의 신서(神書)는 현언(玄言)이 다함이 없고 비니(毗尼)의 비급

(秘笈)은 백법(白法)을 마치기 어렵도다.

여여(如如)한 각후(覺後)의 비결이요 적적(的的)한 서래(西來)의 뜻이로다. 적근(赤堇)과 휴칠(髹漆)로써 꾸미고 대하(大廈)와 심침(深簷)으로써 바치도다. 주초(柱礎)의 액(液)은 단물이 흐르니 찬지(鑽紙)의 벌들이 꿀을 비지고 집 추녀[屋危]가 더럽힐세라 범패(梵唄)를 외는 새도 날아들지를 않네. 신물(神物)이 감싸 유지하고 보기(寶氣)가 차 넘치니 진단(震旦)에 있어서는 이러한 한만(汗漫)이 없을진대 장경을 보지 못하면 어찌 많고 귀함을 알쏭가.

더더구나 특수한 선사는 어찰(御札)이 화사하여, 은총의 광영이 선림(禪林)에 빛나네. 당종(唐宗)이 지은 성교(聖敎)의 서문(序文)이며 송제(宋帝)가 남긴 명산(名山)의 묵적(墨跡)일레. 용장(龍章)과 봉조(鳳藻)는 이미 외호(外護)의 깊은 공을 베풀었고 양승(羊乘)과 녹거(鹿車)는 자못 내사(內賜)의 성전(盛典)이 거룩하도다.

제기(帝機)를 돌리자 혜일(慧日)이 명랑하고 성택(聖澤)이 거룩할싸 법원(法源)이 맑도다.十方의 첨시(瞻視)도 이미 높거니와 대중의 귀의(歸依)도 또한 오래로다.

이해에 미쳐 누그러진 바람이 물에서 일자 맹렬한 불꽃이 공중을 덮어 화관(華觀)과 취원(鷲園)은 가련하게도 초토가 되고 천계(天界)와 용굴(龍窟)은 다 침회(沈灰)로 돌아갔네. 법도 통하지 않는 데가 있으니 청량(淸涼)의 신력을 힘입을 수 없고 운(運)도 어찌다 당하는 수가 있으니 또한 자은(慈恩)의 금신(金身)이 불타도다.

그러나 홀로 기각(度閣)의 책만은 남아, 세상 유지할 기구는 없어지지 않았네. 용수(龍樹)의 구해(口海)는 파란(波瀾)이 길이 편안하고 현장(玄奘)의 성문(性門)은 관건(關鍵)이 탈이 없도다.

아마도 희출(喜出)의 경보(警報)는 우연이 아닐진대, 도화(度化)의 조지(詔旨)가 심히 빛나도다. 진(瞋)을 녹이고 치(癡)를 달구니 금강(金剛)의 지염(智焰)이 활활 타고 사(邪)를 녹이고 악을 제거하니 광음(光音)의 혜망(慧芒)이 펼쳐도다.

이 때문에 산과 골짜기는 무너지고 벌어져도 행랑에 접한 처마에는 침노하지 못했고, 옥과 돌은 그슬리고 탔지만 능히 집에 넘치는 책은 보존됐으니, 이는 장차 성체(聖諦)를 현겁(現劫)에 표본하고 법요(法曜)를 무방(無方)에 선포함이라.

비록 여래(如來)의 장(藏)을 비우고, 조사(祖師)의 관(關)을 깨뜨려도 오히려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어 존재하며, 단상(斷常)의 구덩이를 벗어나서 진실(眞實)의 즘에 올랐으니 어찌 무명(無明)의 불타는 바가 됐겠는가.

마침내 참회(懺悔)가 크게 뚜렷하고 재장(災障)이 따라서 걷히니 공장(工匠)을 모으매 과족(裹足)을 꺼리지 않고 다짐을 발하니 모두 신심(信心)에 근본하도다.

그래서 허물을 씻고 원망을 맑히고 길이 공을 쌓아 복을 다지니 환화(幻華)의 경계 위에 판탕(板蕩)의 서러움을 함께 품고, 기수원(祇樹園) 안에 회향(回向)의 소원이 일제히 분발했네.

수(銖)로 쌓인 청부(靑鳧)와 자패(紫貝)요 싸라기 모여진 은속(銀粟)과 금성(金星)이며 선녀(善女)와 신남(信男)은 물화(物貨)를 짜개어 힘을 보태고 재관(宰官) 거사(居士)는 진보(珍寶)를 돌려 일을 치르게 하도다.

이에 법기(法基)를 수리하고 구관(舊觀)을 인습하여, 진조(眞照)를 퇴운(頽運)에 돌리니 사라짐에 따라 바로 생기고, 묘원(妙圓)을 휴기(隳機)에 감아쥐니 잃은 데서 다시 나타나도다.

삼천의 정토(淨土)를 정돈하고 오백의 보루(寶樓)를 장식하니 자상(慈像)은 신기를 바라보고 혜로(慧路)는 특이를 우러르며 초불(初佛)과 후불은 일월등명(日月燈明)과 이름을 같이 하고 과인(過因)과 내인(來因)은 모두 백천억묘(百千億妙)를 나타냈도다.

난순(欄楯)과 당탑(幢塔)은 어울려 섞이고 마노(瑪瑙)와 거거(車渠)는 두루 고리하여 혹은 원상(圓相)으로 혹은 승상(勝相)으로 하니 한 등(燈)에 이어 천 등이 켜지고, 혹은 수형(樹形) 같고 혹은 화형(華形) 같아 피계(彼界)는 다시 차계(此界)에 밝도다.

신중(神衆)은 그 당개(幢蓋)를 간직하고 도리(闍梨)는 그 병공(瓶筴)을

안치(安置)하며 철기와[鐵瓦] 이끼함[苔函]은 고춘(古春)이요, 보로(寶爐)와 향반(香盤)엔 옛 전(篆)이로세. 정과(正果)의 악도를 벗어남을 쾌히 보니 비하자면 서련(瑞蓮)이 화갱(火坑)에 솟은 듯하도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기에 육위(六偉)의 노래에 올리놋다.

어기어차 들보의 동에 떡을 던지니 동방이라 아축비와 수미의 광묘음과 금강의 승보살이 가장 사마를 강복시키네.

어기어차 들보의 남에 떡을 던지니 남방이라 허공에 머무른 덕운의 법혜 불이로세. 다음으론 수미등이요 다음으론 일월등이로세.

어기어차 들보의 서에 떡을 던지니 서방이라 무량수는 정진한 무외의 행이로세 대광 대명에 미치니 해지는 곳을 바로 보았네.

어기어차 들보의 북에 떡을 던지니 북방이라 구름이 자재하여 운자재왕과 함께로세 중생이 자애로운 비호를 받으니 무심하여 옛것에 애착이 없네.

어기어차 들보 아래에 떡을 던지니 하방이라 명문불과 명광과 다시 또 달마가 사자후를 크게 내치며 하늘을 떠받아 법당을 세웠네.

어기어차 들보 위에 떡을 던지니 상방이라 금단천이 있네. 향광의 대염을 견차(肩次)한 무상의 바라수요 잡색의 보화엄이라.

이종 저종의 모든 색상이 다 이곳으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바로 광명해(光明海)요, 이는 바로 반야해(般若海)요, 이는 바로 청정해(清淨海)요, 이는 바로 묘법해(妙法海)요, 이는 바로 월각인(圓覺印)이요, 이는 바로 수릉인(首楞印)이요, 이는 바로 금강인(金剛印)이요, 이는 바로 법화인(法華印)이라, 원컨대 길이 이 경계에 머물러, 이 해(海)에 이 인(印)으로.

2) 가야산팔만대장경전상량문(伽倻山八萬大藏經殿上樑文)

二百年泰平禪風應時而作。八萬大藏經寶殿不日以成。僧俗齊懽。山河動色。竊以七祖布教。兩宗承流。玉牒瑤編。演金仙之至論。琅函芝匣。翻雪山之神方。眞如之秘訣孔彰。般若之善根畢露。十方諸佛妙道咸陳。千劫恒河嘉言罔伏。塵塵剝剝蒐軟語而括囊。寂寂空空會歸旨而挈領。豈徒儒道釋之三淵所匯。抑亦始衷終之衆理斯涵。赤縣間三十六名山列王壯石室之蓄。青丘中千百

億多十闕關玄金匙之開。仍念峻茲伽倻。鎮于荒徼。南維一裔。窮白頭之扶輿。東嶠千峯。挹滄溟之渤滴。崔仙子曾留鶴馭。曹處士寔所菟裘。碧嶂丹崖。隱約天台之烟月。垂泉深沼。依稀廬嶽之洞天。紅流卽鍊砂之仙源。素琴替靈川之寶筏。摩尼珠交映佛頂。窳堵波列樹禪龕。吟風瀨泚筆巖。往事已去。雞林黃鵠嶺青。異說誰證。顧勝致不足多。而鴻寶實在茲。蓋聞大藏之經。創麗朝之盛葉。寄海印之伽藍。鳩四方之工。斤鉅如沐。楮千山之梓。鐫繡彌齡。原善本出自中州。集羣書非止西梵。曼辭汎博。童壽不曾偏知。奧語瓌奇。黃香曷窺遺記。載酒而子雲難識。繙訖而老聃倦聽。雕題戰戈。截林洞而息警。漆簡流汗。先亂離而示灾。印松楮之可窮。屢勤蠻价。貨金壁而莫賞。浪愁胡僧。上覆壓以藻樑。天日晝晦。傍衡架爲蘭椅。鐵軸霞排。結構之渠渠百間。壞漏之苒苒幾載。誰令闐闐之摧雷。化作隆隆之畫堂。茲由運會河清。時丁海晏。金甌鏡淨。浩壽域之茫茫。黎首春融。藹衢謳之洩洩。爰有佛弟子。誕告衆優婆。無量慈悲。戶誘家道。多般勸戒。身後生前。民財已豐。人人僧寶海珍之施。國計斯阜。陳陳教倉水衡之擅。恭惟章烈貞聖明淑王妃殿下。媿德慈仁。貳體宸極。問詩女史。躬周母之玄紉。傳業儒文。斥漢后之黃老。誰云夫子之禱已久。亦知封人之祝難辭。進脫簪之規。植本莫如廣嗣。闕含飴之樂。渴望惟在承家。聞道不滅之優曇。能降無彊之洪祉。稽之往牒。世廟重新於成化之年。捐其帑儲。貞熹助功於教宗之請。豈但述聖祖神后百年之遺風。實乃祚大殿東宮萬福之亨運。彼徒杠也與梁也。尚見陰隲之來。矧翬飛如鳥革如。可無靈祐之應。宜令百間朱栱。日照風疏。復使大廈長檐。陽開陰闔。則重重複複。如山如陵。而字字行行不蟬不朽。可牖爾環區萬生之閉。庶貽我聖人多子之禎。不勞金篋。刮盡蓄眼之瞶。開祥震索。快覩重明之離。行致苾蒞之綿綿。佇俟螽羽之戰戰。旣主臬之定位。競剗劂之加功。舉雄樑而齊聲。效兒郎之唱偉。

兒郎偉拋樑東。陰壑深深萬竅風。坐送紅溪流出洞。莫邀舟子入花叢。

兒郎偉拋樑西。碧嶺參雲反照低。植杖晚林杉檜影。綠苔迷徑咽幽溪。

兒郎偉拋樑南。屏擁層巒織翠嵐。俗客洗纓山鬼嚇。一溪流水淨潭潭。

兒郎偉拋樑北。伽倻大嶽攢天色。斲開山足蔚蘭房。呵護神經玄武力。

兒耶偉拋樑上。空翠夜鶯星月朗。南極老人渡海來。金樓銅輦天齊享。

兒郎偉拋樑下。嶺外山河皆野馬。須彌原地作邦基。元氣蒼茫坐可藉。

伏願上樑之後。山祇供瑞。海靈效祥。祈禱禳災。陋清涼爽塏之太壹。卹胤錫行。笑淵蝸蠖濩於甘泉。商后多苗。不億厥麗。周王四乳。有百其支。雲孫仍孫不知何人。目見福田之溢地。三千大千無窮世界。手撫壽嶽之後天。羣生鼓舞於春臺。率土陶甄於華胥。雲敷列殿。那由他視若崇朝。天敞參宮。盤古氏來問故事。

[於于集 柳夢寅]

4.4 대장경(大藏經)

1) 기해인사팔만대장경사적(記海印寺八萬大藏經事蹟)

寶誌道人者。蕭梁之佛弟子也。以名釋著於佞佛之世。將滅。出踏山歌一篇。付弟子之高足者曰。吾寂後。當有新羅名僧來。以歌傳之也。果數年。順應。利貞二大師者。聞誌公風。從新羅來。北謁于誌公。誌公已寂矣。其弟子汪然戚也。奉所藏歌。仍傳誌公戒。二師恭承歌及戒。汪然戚也。合掌立誌公瘞者三易晝夜。梵呪念佛惟勤。墓開而誌公見曰。新羅牛頭山。福地也。爾其建刹。異應多矣。二師惕然迺歸。牛頭山者。陝州之伽倻山也。谷口逢樵老人。問訊宜建刹地。樵老人笑曰。彼轉數崖。有水滙焉。上有鐵瓦萬萬。盍往胥宇。二師謝而進。果地平行。而鐵瓦堆鱗鱗也。相謂曰。有地而又有瓦。奈無人何。誰能助是役者。祇念呪。放光瑞氣。直亘于空外而已。是時。哀莊王之后。疽于背。醫藥技殫無可已。命求異人技聖。而伏於草萊巖穴者。使者遍於國裡矣。一使者。覘瑞氣直亘於伽倻山頂。稽首致命於二師。請偕往。師辭不敢。仍探橐中。取紅絲之鮮如血色者一。傳與之曰。一端繫於後苑梨花樹。一端接於疽。疽乃已矣。使者歸試之。梨樹枯而疽則瘳矣。哀莊王德之。遣使者謝。問師之願者。將以酬之也。師以建刹復。王命大匠。損金建之。後有陝州里丁李居仁者。路見狗之幼者三目而蹒跚。居仁憐而畜之。狗也每日停午吃一飯。主人出入。必數里迎送焉。後三年斃。居仁悽之。斂諸棺。葬祭如人禮。居二年。居仁不病而溘然。魂恟恟入于佛氏所謂冥府者。門內有官者。儼然具

公服。下堂接慇懃曰。吾主人胡爲來哉。居仁視之。素所昧而但三其目焉。又曰。昔吾有譴。被毛於陽界。幸蒙主人恩過三年。復此官矣。居仁謝僕僕曰。余澗劣。閻王殿前。奚辭以供哉。三目人。付之曰。祇言在陽界日。意欲刊八萬大藏經。而不遂云爾矣。居仁如其言供之。閻王大奇。命削鬼簿名。釋之。三目人別而語曰。還陽界。寫八萬大藏經化主勸善。券踏陝州印以藏置。它日。庶相逢矣。居仁甦。如其言歲寘。時哀莊王貴公主兄弟。俱病瘧。忽怵惚曰。如得藏寘八萬大藏經勸善文者。吾疾瘳矣。王命求之。陝州守以居仁。應。藥傳謁公主。主作地中三目人語曰。別後平安。因謂王曰。八萬大藏經者。陰界之所貴也。閻王所以釋斯人出陽界。使圖之也。願王助斯人成之。仍別居仁曰。自此其永隔矣。已而疾獲瘳。是時巨濟洋中。有大舟浮。自何國來。滿載八萬大藏經。皆金銀字也。王命發國中匠。偕居仁往島中刊。移藏于陝州海印寺。海印寺者。迺順應。利貞之所營云。李先生曰。吾夫子未嘗言怪力亂神。君子豈可以言怪哉。言猶不可。況載之策哉。逮張華博物志。于寶搜神記。王子年拾遺記。段成式酉陽雜俎。蘇軾仇池筆記出。而言怪者輩出矣。是記而溺者也。從而信之。今余記八萬大藏經者。所以貶謊誕。而爲談幽怪者戒焉。[青莊館全書 李德懋]

2) 해인사장경(海印寺藏經)

藏經。世稱八萬大藏經。大凡佛家多稱八萬四千。如大戒。亦有八萬四千條也。舉大數言之。未必經卷爲八萬也。海印寺藏經版。俗傳新羅哀莊王時所鑄。荒誕不經。寺僧別有所記。戊申年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案高麗定宗三年。穆宗十一年。文宗二十二年。仁宗六年。明宗十八年。高宗三十五年。忠烈王三十年。恭愍王十七年。皆是戊申。高麗凡六戊申。未知何代所造。今攷目錄三卷。起天字至洞字。各一函。自大般若波羅蜜多經六百卷。止一切經音義一百卷。統一千五百六十三部。六千五百二十九卷。印紙七千七百二十八牒二張。又攷騰傳世祖朝搨印節目一冊。今畧錄。○天順元年戊寅八月日來二月爲始。所用米糶。附近各官糶上米五千石。○天順元年九月二十六日。右副承旨金礪。次知純倭紙二件。交倭紙一件。校正結褵上京。裝冊經衣紙。松染

大藏經衣紙。全羅道九百九十卷。慶尙道九百九十卷。忠清道九百七卷十張。江原道四百五十一卷五張。黃海道五百十卷五張。○天順二年二月二十三日。同副承旨鄭軾。次知印出純倭紙。交倭紙。裝結時。一冊張數百張。以限定。給合爲一冊。或過百張不及百張亦可。心經目連經。張數不多。經一冊。合五六經合結。○天順二年七月二十四日。右副承旨合磧。次知大藏經五十部。印出。海印寺一本。興天寺一本。禮曹一本。四十七件內一件。擇善福泉寺安邀。其餘安邀各寺和尚。議論啓聞。○天順二年九月十四日。都承旨曹錫文。次知四十七件內。陝川海印寺二件。高靈盤龍寺四件。晉州白巖寺一件。五臺寺一件。七佛寺一件。凝石寺一件。星州龍淵寺一件。安峯寺一件。靈山普林寺一件。密陽載岳寺一件。安東白蓮寺一件。梁山通度寺一件。中方寺一件。大菟寺一件。慶州天龍寺一件。佛國寺一件。咸陽君子寺一件。宜寧菩提寺一件。永川居祖寺一件。鼎鄉寺一件。尙州觀音寺一件。楊州檜巖寺一件。砥平上元寺一件。順天松廣寺一件。康津萬德寺一件。靈巖道岬寺一件。綾城雙峯寺一件。長興成佛寺一件。光陽玉龍寺一件。茂長懺堂寺一件。南原勝蓮寺一件。海南大菟寺一件。珍原下清寺一件。泰仁雲住寺一件。務安法泉寺一件。光州證心寺一件。潭陽龍泉寺一件。報恩福泉寺一件。沃川地勒寺一件。高城楡岾寺一件。○天順二年九月十四日。慶尙道經紙九萬九千四百貼。全羅道九萬九千四百貼。忠清道九萬七百五十四貼。江原道四萬五千一百二十六貼。黃海道五萬一千一百二十六貼。純倭紙一萬七千二百五十四貼。交倭紙八千六百三十四貼。印經正入三十八萬五千八百九十五貼。內雜草紙經四十七件。每一件所入七千七百七十貼十張。凡三十萬二千七百二十二貼十張。純倭紙經二件。所入七千七百十七貼十張。雜草紙經四十七件。衣紙正入三千四百二貼十二張。○赴役僧數。公糧僧七千五十七。私糧僧一千四百八十五。供給中米四千六百七十九石六斗。○監董諸臣。奉直郎行成均主簿鄭垠。保義將軍行龍驤衛攝護軍尹贊。推忠佐翼功臣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經筵參贊官兼尙瑞院尹修文殿直提學知製教充春秋館修撰官兼判奉常寺事知吏曹內直司樞院事曹錫文。翰忠衛社協策靖難同德佐翼功臣崇政大夫判中樞院事集賢殿大提學知經筵春秋館事兼判兵曹事成均館大司成高靈君申叔舟。崇祿大夫判中樞院事修文殿大提

學兼判戶曹事李仁孫。輸忠衛社同德佐翼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鈴川府院君尹師路。輸忠云云功臣桂陽君璿。官高者。從左而右。○印成大藏經跋。臣聞我佛如來。初成正覺。乃曰奇哉。衆生具有如來智慧德相。但以妄想執著而不證得。豈憫其人人具足於清淨無漏之性。而無明所覆輪轉六趣歟。此牟尼出世之本懷。而無恠乎真說諡說。而其文之至千萬軸之多者也。雖然。法不自弘。由人而弘。則其法之行不行。又在時君世主之信不信如何爾。至於覆至尊之位。窮上聖之資。研窮性命之理。極乎道德之懿。而又有以洞三藏妙契真乘。惟我佛慈濟之道。思與億兆蒼生。捨邪歸正。同植德車躋之于仁壽之域。則是乃明君義辟。出於尋常萬萬者之所爲。而千百罕遇之盛際也。天順紀元年丁丑之冬。上傳旨于桂陽君臣璿，領中樞院事臣尹師路，議政府左贊成臣申叔舟，判中樞院事臣李仁孫，權學，吏曹判書臣韓明澮。承政院都承旨臣曹錫文等若曰。余以否德。承天地祖宗之靈。位乎臣民之上。幸與卿等而共際會。亦非小種善根。惟佛教之流于震朝以來已久。其說之載于文。又莫若藏經之專。幸其刊版。具在於海印寺。近世 缺 善者。印成全部。然間被國家賜于日本。存者無幾。予欲印就若干部。缺缺 山福地。上爲先王先王后暨祖考之靈。以資福吉於冥冥。下爲法界含靈。以至昆虫草木之微。幽明共利。普及無際。且凡事始厥爲難。今因肇功。成至五十部。將遍鎮于我國僧藍之大處。卿等其措置當爲之次第以聞。臣璿等奔走惟謹。其經本末巨細。悉謀於慧覺尊者臣信看，判禪宗事臣守看，禪師臣學悅。隨即啓于上。下承政院。移于各道。分其地之廣狹。以定出紙之多寡。命副知通禮門事臣尹贊，宗簿主簿臣鄭 缺。往慶尚道。預爲區辦。與判禪宗事臣守看，海印住持臣竹軒。仍督其務。且諭監司臣李克培監揔之。遂用明年閏二月創役。至其年四月日告訖。於是命臣守溫跋其後。臣謂諸佛出興。惟爲一事。王者握符膺籙。以興于世。則亦惟欲救民而已。故佛爲三界之師。以導其迷君。爲萬民之主。以濟其生。是雖有經世出世之異。其發誓願廣度無邊之志。則佛與王者一也。恭惟我主上殿下。曩在潛邸。親遭大難。掃除姦兇。天與人歸。天命以集。其爲盛德大業。實我東方未有之聖主也。然卽位以來。不自滿暇。切切求理。民安而猶恐不安。時和而猶恐不和。且謂自古聖帝明王之治天下國家也。莫不崇三寶仗大業。以之福國利

世。延洪業於無疆。以無忘世尊正法付屬之遺意。於是成大典。弘揚真化。蓋後之千有餘歲。去之萬有餘里。而我聖上精神心術之妙。慈悲廣大之量。與佛同一機也。或問於臣曰。世之名好學善讀者。不過數十卷而止。今三藏之書。充於棟宇而不可極矣。孰能遍觀而盡究其說乎。臣應之曰。夫妙明圓覺之體。徹乎古會而無所變。通乎凡聖而無所異。是皆無迷無悟無此無彼者也。楞嚴經曰。一人發真歸元。十方虛空。悉皆消損。是則我聖上發意之初。卽已轉大法輪而無佛刹。微塵衆生。同證於無上菩提之智矣。又豈必人人之目此而後爲功德哉。是不可以常情而所能度也。天順二年六月日。嘉善大夫行忠佐衛上護軍臣金守溫。拜手稽首撰。善山府使臣金仁民書。○菩 缺 戒 缺缺 朝鮮國王李。親押。伏爲先王先王后暨祖宗之靈。亡子懿敬。超登極樂。兼及法界含靈。成得解脫之願。印成大藏五十件。裝潢已訖。以本月初十日。於海印寺。特設法會者。右伏以一音圓演於羣機教。遂立頓漸之別。五竺通詮於真乘文。則有華梵之殊。半偈福聚。難思片言。善根不議。竊以幸夙植於過去。獲勝報於現今。日有萬機。恒切淵冰之戒。身居九極。敢忘家國之憂。尚恐己德之虧。未享天心之簡。冀三寶之是仗。與百姓而同休。譬之水曰江曰河。豈若海水之大。論其道或儒或老。何如釋氏之高。惟經律論之。全書在佛法僧之捨相。版本在御寺。鬼擁護而神禁呵。真化及震朝。天奉行而人信受。宜模印而廣置。作凡聖之皆恭。爰募役於數千餘。庸就帙於五十件。琅函貝牒。玄宗宗密旨之具存。象 缺 雨花。妙用神功之莫測。方能事之甫畢。邀悟流而是披。曠劫法筵。天開一代。徽言泉漲。諒勝采之攸辦。庶妙力之遄逝。伏願先王列聖之靈。亡兒孤魂之類。親受大慈之荊。登極樂。方速成正覺之力。坐寂光土。悉捨有漏。普洽無邊。缺缺 無任虔禱之至。表宣謹疏。天順二年八月初十日。○海印寺藏經匱藏于無說殿。乾隆庚子正月初八日。殿火經匱燒。余嘗遊海印寺。亦有筭記。詳載寒竹堂筆記。[青莊館全書 李德懋]

3) 대장각판군신기고문(大藏刻板君臣祈告文) 丁酉年行

國王諱。謹與太子公侯伯宰樞文虎百寮等。熏沐齋戒。祈告于盡虛空界十方無量諸佛菩薩及天帝釋爲首三十三天一切護法靈官。甚矣達旦之爲患也。其殘忍

凶暴之性。已不可勝言矣。至於癡暗昏昧也。又甚於禽獸。則夫豈知天下之所敬有所謂佛法者哉。由是凡所經由。無佛像梵書。悉焚滅之。於是符仁寺之所藏大藏經板本。亦掃之無遺矣。嗚呼。積年之功。一旦成灰。國之大寶喪矣。雖在諸佛多天大慈之心。是可忍而孰不可忍耶。因竊自念。弟子等智昏識淺。不早自爲防戎之計。力不能完護佛乘。故致此大寶喪失之災。實弟子等無狀所然。悔可追哉。然金口玉說。本無成毀。其所寓者。器耳。器之成毀。自然之數也。毀則改作。亦其所也。況有國有家。崇奉佛法。固不可因循姑息。無此大寶。則豈敢以役鉅事殷爲慮。而憚其改作耶。今與宰執文虎百僚等。同發洪願。已署置官當官司。俾之經始。因考厥初草創之端。則昔顯宗二年。契丹主大舉兵來征。顯祖南行避難。丹兵猶屯松岳城不退。於是乃與群臣。發無上大願。誓刻成大藏經板本。然後丹兵自退。然則大藏。一也。先後雕鏤。一也。君臣同願。亦一也。何獨於彼時丹兵自退。而今達旦不爾耶。但在諸佛多天鑑之之何如耳。苟至誠所發。無愧前朝。則伏願諸佛聖賢三十三天。諒懇迫之祈。借神通之力。使頑戎醜俗。斂蹤遠遁。無復蹈我封疆。干戈載戢。中外晏如。母后儲君。享壽無疆。三韓國祚。永永萬世。則弟子等當更努力。益護法門。粗報佛恩之萬一耳。弟子等無任懇禱之至。伏惟炤鑑云云。

대장경을 판각할 때 군신(君臣)의 기고문(祈告文) 정유년에 하였다.

국왕(國王) 휘(諱)는 태자(太子)·공(公)·후(侯)·백(伯)·재추(宰樞), 문무 백관 등과 함께 목욕 재계하고 끝없는 허공계(虛空界), 시방의 한량없는 제불보살(諸佛菩薩)과 천제석(天帝釋)을 수반으로 하는 삼십삼천(三十三天)의 일체 호법영관(護法靈官)에게 기고(祈告)합니다.

심하도다, 달단이 환란을 일으킴이여! 그 잔인하고 흉포한 성품은 이미 말로 다할 수 없고, 심지어 어리석고 혼암함도 또한 금수(禽獸)보다 심하니, 어찌 천하에서 공경하는 바¹⁰²⁾를 알겠으며, 이른바 불법(佛法)이란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때문에 그들이 경유하는 곳에는 불상(佛像)과 범서(梵書)를 마구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에 부인사(符仁寺)에 소장된 대장경(大藏經) 판본도 또

102) 천하에서……바 : 불상 등을 가리킨다.

한 남김없이 태워버렸습니다. 아, 여러 해를 걸려서 이룬 공적이 하루아침에 재가 되어버렸으니, 나라의 큰 보배가 상실되었습니다.

모든 부처님과 삼십삼천(三十三天)의 대자심(大慈心)에 대해서도 이런 짓을 하는데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생각하건대, 제자 등이 지혜가 어둡고 식견이 얇아서 일찍이 오랑캐를 방어할 계책을 못하고 힘이 능히 불승(佛乘)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큰 보배가 상실되는 재화를 보게 되었으니, 실은 제자 등이 무상한 소치입니다. 후회한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의 교설(教說)은 본래 이루게 되거나 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요, 그 붙여 있는 바가 그릇이라 그릇의 이루어지고 험해지는 것은 자연의 운수입니다. 험어지면 고쳐 만드는 일은 또한 꼭 해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국가가 불법을 존중해 받드는 처지이므로 진실로 우물우물 넘길 수는 없는 일이며, 이런 큰 보배가 없어졌으면 어찌 감히 역사가 거대한 것을 염려하여 그 고쳐 만드는 일을 꺼려하겠습니까?

이제 재집(宰執)과 문무 백관 등과 함께 큰 서원(誓願)을 발하여 이미 담당 관사(官司)를 두어 그 일을 경영하게 하였고, 따라서 맨 처음 초창(草創)한 동기를 고찰하였더니, 옛적 현종 2년에 거란주(契丹主)가 크게 군사를 일으켜 와서 정벌하자, 현종은 남쪽으로 피난하였는데, 거란 군사는 오히려 송악성(松岳城)에 주둔하고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종은 이에 여러 신하들과 함께 더할 수 없는 큰 서원을 발하여 대장경 판본을 판각해 이룬 뒤에 거란 군사가 스스로 물러갔습니다. 그렇다면 대장경도 한가지고, 전후 판각한 것도 한가지고, 군신이 함께 서원한 것도 또한 한가지인데, 어찌 그때에만 거란 군사가 스스로 물러가고 지금의 달단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만 제불다천(諸佛多天)이 어느 정도를 보살펴 주시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진실로 지성으로 하는 바가 전조(前朝)에 부끄러워할 것이 없으니, 원하옵건대 제불성현 삼십삼천(諸佛聖賢三十三天)은 간곡하게 비는 것을 양찰하셔서 신통한 힘을 빌려 주어 완악한 오랑캐로 하여금 멀리 도망하여 다시는 우리 국토를 밟는 일이 없게 하여, 전쟁이 그치고 중외가 편안하며,

모후(母后)와 저군(儲君)이 무강한 수를 누리고 나라의 국운이 만세토록 유지되게 해주신다면, 제자 등은 마땅히 노력하여 더욱 법문(法門)을 보호하고 부처의 은혜를 만분의 일이라도 갚으려고 합니다.

제자 등은 간절히 비는 마음 지극합니다. 밝게 살피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운운.

4) 해인사유진팔만대장경개간인유 (海印寺留鎮八萬大藏經開刊因由)

李居仁陝川人也身雖薄寒性度溫良恒以里胥爲己任者鄉人目爲仁胥焉有唐大中壬戌年秋催王租於聚落暮歸還家乃於路上得一狗兒蓋三目也率豢家中其爲狗也迥出庸格形如獅子性若賢人只惟一食事主甚勤出從五里拜送入迎五里隨侍以歸由斯愛而念之撫而恤之及至三年甲子秋狗子無疾而坐視日而死居仁庇棺以埋具尊以祭如喪家豚也越丙寅冬十月居仁亦死初到門觀有一王面開三眼頭冠五峯手擎寶忽身著緋衣唇如激丹齒如齊貝高踞牙床左右從官皆烏冠朱服者牛頭惡卒馬面羅刹森衛嚴列如世國王行公之狀也得見居仁王卽下堂而執手曰嗟嗟主人何至於此也吾頃適被冥論衣毛帶尻居謫三霜賴主人之遇善善來復我感不自抑矣今忽相看敢忘其德耶扶引之措居仁始悟其由乃拭漏曰踐子素是不學無知者將何以控辭奉招於冥府乎伏願大王示教刹喜王曰善哉仁者諦聽吾說以供冥聖居仁俯首聽命而後隨使入冥府則閻王問曰汝在人間作何因緣答曰居仁自少爲官使無暇攝善矣將欲作大事因緣承命佛歸求慨子懷也王曰使來眼前居仁趨進座下王曰汝欲何事而未遂以直言之居仁曰賤子伏聞法寶之至貴將欲刊板宣布而未能焉徒有志願終無事實以此悶懼大王卽庭揖曰願須登殿小歇一時居仁固辭大王卽命判官名除鬼籙與僚佐步至門外慰而拜送焉居仁退至三日王所王預令設席以待使之登坐雍容叙話載叮嚀囑曰主人萬萬莫以事大爲慮還家買紙就於文房寫成勸疏題曰八萬大藏經板勸功德說[云云]納官踏印置之君家佇待我歸則我將以巡撫於人間也於是居仁唯唯而退欠申而覺乃一夢也依然勸文打印待之及丁卯之春三月旣望新羅國公主娣妹同時行疫臥痛在床曰父王急詔大藏經化主來若不爾者女等從此永訣王卽宣旨國中夾州太守已知其事召居仁傳乘上京都直赴門下謁者入通公主曰善來化士近無餘患否我是三日鬼王也與君有約故來此也又語國王曰此人頃入冥府

冥府勸送陽界刻經流傳者願國王作大檀越助成大事爲何若爾則非徒公主無患國祚永固王亦享壽矣王拜命曰可而後又與居仁有惜別之態現身而去焉公主等還得本心卽起而拜白於父王母后曰冥界尚做善事况陽界仁國乎父母其母忽哉王曰諾於是待化主甚善盡傾私儲以施之申命內外集諸良工巨濟島繡經於梓莊金而塗染運鎮于伽倻山之海印寺設十二慶讚之會焉此皆冥府之使然實非鬼王之私意者也居仁之夫婦考壽康寧俱登樂邦云噫佛法之爲寶也無處不寶也明矣何則冥王寶之而善治陰界人主寶之而舉得民情天王寶之而長年快樂覺皇寶之而垂仁萬品[云云]說明載於大藏後跋 [朝鮮寺刹史料 朝鮮總督府, 1911년]

5) 전대장경소재도장음찬시(轉大藏經消災道場音讚詩)

兩手蕉心經卷卷。半肩山色衲層層。補閑集曰。每歲春秋。轉大藏經及與消災道場。皆命誥院詞臣作四韻音讚詩。李公仁老初登誥院。以謂音讚詩乃讚佛德也。蔡拾遺寶文云。性空月滿乾坤曉。覺樹花開世界春。此真讚佛也。然若不能專讚佛寶。通讚三寶亦得。如陳補闕云。兩手蕉心經卷卷。半肩山色衲層層。此讚僧寶也。文順公云。琅函霧濕龍擎到。紺席風生象踏行。此通讚法寶僧寶也。禪朝按上香堆爐。講夜簷頭月減稜。補閑集曰。文順公云。形勝新開白玉京。江山王氣擁明堂。更憑佛力金城固。寧畏胡雛鐵騎強。李學士云。嘻嘻出出如鳴社。戰戰兢兢若履冰。文順公當遷新都日禳狄兵。李學士當廩災後招梗。宜敘事如此。陳補闕云。禪朝按上香堆爐。講夜簷頭月減稜。雖語格清爽。賦景致非也。第一聯言設席。領聯頸聯皆讚三寶。落句言福利。此音讚詩之範也。 [梅湖遺稿 陳渾]

6) 합천군가야산해인사대장경어인출불사경찬소겸주별 陝川郡伽耶山海印寺大藏經御印出佛事慶讚疏兼晝別

竊以仁舟溺於兩河 衆生沒其苦海 惠日沈於八樹 盲徒失其光明 緣此而鉢羅窟中 三疑頓斷 沙竭宮裡 萬法揜持 迄千六七百載 馬鳴大師 宗說於冰海 龍樹尊者 誦翻於印山 由之而破邪見幢 燃正法炬矣 泊乎青精南渡 康會遊吳之秋 白馬東翻 法蘭入漢之日 於是金文遍時 玄篇鬱興 五百應供 結集之言 動論車載 八萬多羅所詮之理 競抱斗量 且自見殞星於魯君 禎祥嘉瑞 示佩日於漢后

兆自由來 法音則萬籟號風 教說則百川含月 今海印藏經殿 稽乎濫觴 羅莊王
開堂而鎮國史 麗文宗剏殿而刊佛文 藏三乘而叅三寶之宗統三國而隳三韓之域
雖羅麗之剏 難則難 而我朝之盛 興且勃焉 世祖大王 印五十件 而分藏於金剛
之釋王 貞熹大妃 出三十部 而布鎮於雪岳之勝地 必乎匿王迦帝之再現 龍女
天后之重來 率土普洽 法化普天咸沐佛恩 暨我大韓皇帝中貴嚴后 允文允武
迺神迺聖 神功邁於軒昊 至治美於成康 曩植四弘 普閭堯雲之惠雨 夙資五德
再扇唐后之景風 每以解網爲心 結繩在念故 茲龍庭虎穴 盡入堤封 瀚海天山
咸霑聲教斷髮文身之魁 俱請命於王庭 穿胸儋耳之酋 共獻暎於皇闕 由之小心
翼翼 內整四儀 大德閑閑 外齊七政 掩頓八域 朝宗萬方 上仙旣發三歸之心
中貴盍起四依之願 加以留心八正 篤意五乘 廣運檀那 聿脩淨業 眷言真要 无
過釋典 特命京都大德梵雲 爰刊海印大藏經板 紙練三百許塊 財費六萬餘金
載勅道臣式摹法事 烹三江之墨 五色玲瓏 擣五城之楮 六文雜沓 烏箒撓撓兮
均濡精烟 素手輕輕兮 殫諸神變 琅函玉軸 攝疊於千匠之鋒 寶偈金文結集於
毛錐之刃 聯華綵而嚴飾 色練秦姬之絲 披雲衣而莊鞞 光染蜀娥之帛 卽乃三
帙齊修 不疑三寶宗之運出 七部分堆 恍似七金山之飛來 何但闡法因緣 抑亦
度生方便 以今際散僧之日 開千僧无遮之筵 第供佛之時 建諸佛有緣之會 大
秦紅粟 備香積之羞 周穆金膏 陳梵宮之供 芬芳妙味 形五淨而擎來 灼焯名花
麗三山而捧至 琉璃琥珀之盃 海錯山珍 鬪鬪釘釘 珊瑚瑪瑙之盤 玉粒金粟 隱
隱潔潔 何人世之三德 軒蛟宮之八珍 烟散名香 藻黻交映於虹蜺之彩 雲飛玉
宇 金碧煥爛於牛斗之光 貝角并響而鳴山 威驚八寒之獄 梵鼓競喧而震野 氣
動九頂之天瑞 烏禎祥玉 燭和四時之氣 曇雲垂彩 金鏡含七曜之暉 仰冀華藏
慈尊 塵方影響 不捨本誓 旣受微忱 金口偈所流詮 導衆盲於安養 玉毫光所照
燭 爍群昏於樂邦 九光樓前 印山屹而伽神獻賀 紅霞門內 冰海清而局師禎祥
奉祝皇帝陛下 中貴嚴后 澤被无疆 恩霑有際鴻基峻極 鶴算彌長 抑願太子殿
下世嬪邸下 四等福田 生生具足 六因善報 世世莊嚴 劫石碎而寶曆長存 芥城
空而皇基永固 光武三年己亥五月初一日 湖南臣僧寶鼎 百拜謹上 [茶松文稿]

7) 원성대장어제문(願成大藏御製文) 1393년

蓋聞經律論。通名大藏。佛教雖有方便萬殊。要之指歸則不過乎戒定慧三學而已。原其三學。只在乎一心。然則心與大藏。三一俱圓矣。况佛教妙理。通三際亘十方。其功德豈易量哉。寡人蒙天地之祐。祖宗之德。獲膺推戴以即寶位。惟念否德。不克負荷。尚賴佛教方便之力。庶可以福先世而利羣生也。肆於即位之初。重營古塔。莊嚴畢備。仍與羣臣。願成大藏。以安于塔。冀因密護。法雲廣布。羣物咸蘇。福國利民。兵韜世治。萬世永賴。此寡人之願也。

朝鮮國王李[旦] 洪武二十六年癸酉七月日跋

同願

王顯妃。王世子[芳碩] 鎮安君芳雨。永安君兼義興親軍衛節制使芳果。(定宗) 益安君芳毅。懷安君芳幹。靖安君芳遠。(太宗) 撫安君兼義興親軍衛節制使芳蕃。寧安君良祐。純忠佐命功臣興安君兼義興親軍衛節制使知壽筵事李濟。特進輔國崇祿大夫判門下府事洪永通。特進輔國崇祿大夫領三司事集賢殿太學士安宗源。同德奮義佐合開國功臣特進輔國崇祿大夫門下左侍中判都評議使司吏曹事兼判尚瑞司事修文殿太學士監藝文春秋館事領經筵事世子師平壤伯食邑一千戶食實封三百戶趙浚同德奮義佐命開國功臣輔國崇祿大夫門下右侍中判都評議使司兵曹兼判尚瑞司事領經筵上洛伯食邑一千戶實封三百戶金士衡。推忠協贊開國功臣崇祿大夫判三司事同判都評議使司上將軍尹虎。純忠佐命開國功臣崇祿大夫商議門下府事同判都評議使司事兼判義興親軍衛事義安伯李和。奮義佐命開國功臣崇政大夫門下侍郎贊成同判都評議使司事判戶曹事兼判尚瑞司事實文閣太學士知經筵藝文春秋館事兼義興親軍衛節制使世子貳師奉化君鄭道傳。崇政大夫三司左僕射同判都評議使司事集賢殿太學士提點書雲觀事權仲和。崇政大夫判開城府事同判都評議使司兼判司農寺司上將軍禹仁烈。崇政大夫門下侍郎贊成事同判都評議使司判刑曹事上將軍崔永訖。崇政大夫藝文春秋館太學士同判都評議使司事兼判司農寺事金湊。正憲大夫叅贊門下府事同判都評議使司事判禮曹事慶儀純忠佐命開國功臣正憲大夫叅贊門下府事同判都評議使司事判工曹事兼兵曹典書鷹揚衛上將軍判衛事鷄林君鄭熙咸。正憲大夫叅贊門下府事同判都評議使司事上將軍李居仁。寶文閣學士知經筵事世子右賓客宜城君南玉。嘉靖大夫中樞院副使都評議使司事上將軍具成孝。嘉靖大夫商

議中樞院事都評議使司事上將軍郭忠輔。嘉靖大夫商議中樞院事都評議使李仁壽。推忠翊戴開國功臣嘉靖大夫司憲府大司憲都評議使司事實文閣學士安景恭。嘉靖大夫中樞院副使司事兼工曹典書實文閣學士柳亮。輔國崇政大夫檢校門下侍中載寧伯康舜龍。輔國崇政大夫檢校門下侍中成汝完。輔國崇政大夫檢校門下侍中李茂芳。輔國崇政大夫檢校門下侍中南乙蕃。輔國崇政大夫檢校門下侍中李崇。前同知密直司事金受益。翊戴開國功臣通政大夫中樞院都承旨經筵集賢官實文閣直學士充春秋館修撰官知吏曹事李稷。翊戴開國功臣通政大夫中樞院左承旨經筵集賢官知兵曹事李勲。翊戴開國功臣通政大夫中樞院右承旨經筵集賢官兼尚瑞莊知製教戶曹事韓尚敬。通政大夫中樞院左副承旨經筵集賢官知禮曹事崔遠。通政大夫中樞院右副承旨經筵集賢官知工曹事柳原之。嘉靖大夫判內侍府事李得芬。嘉靖大夫判內侍府事金師幸。嘉善大夫同判內侍府事尹祥。嘉善大夫同判內侍府事李匡。通政大夫敬興府左司尹曹恂。中訓大夫同知內侍府事金玠。檢校判內侍府事李忠。檢校判內侍府事孟天祿。通訓大夫判內侍府事趙禾。前濟州牧使呂禰。平海郡夫人黃氏。樂安郡夫人金氏。竹山郡夫人全氏。純忠佐命開國功臣正憲大夫叅贊門下府事同判都評議使司事兼義興親軍衛節制使青海君李之蘭。正憲大夫叅知門下府事同判都評議使司事金立堅。資憲大夫三司左僕射同判都評議使尹師德。資憲大夫商議門下府事同判都評議使司事實文閣大學士兼判內侍府寺事李恬。奮義佐命開國功臣資憲大夫判中樞院事吏曹典書宜寧君南閻。嘉靖大夫知中樞院事上將軍趙琳。推忠協贊開國功臣嘉靖大夫知中樞院事都評議使司事趙胖。純忠佐命開國功臣嘉靖大夫知中樞院事都評議使司事兼義興親軍衛同知節制使化寧君張思吉。嘉靖大夫同知中樞院事都評議使司事上將軍朴永忠。推忠佐贊開國功臣嘉靖大夫商議中樞院事都評議使司事兼義興親軍衛知節制使黃希碩。嘉善大夫刑曹典書金希善。楊廣道按廉使佐命開國功臣嘉善大夫禮曹典書趙瑛。慶尚道按廉使翊戴開國功臣保功將軍千牛衛大將軍沈孝生。資憲大夫完山府尹柳珣。通政大夫知陝州事李鞅。中訓大夫南原府使尹會宗。通德郎草溪郡事李洽。承議郎高靈監務鄭淑道。通德郎昌寧監務金潤德。宣教郎溫水監務李虔。奉直郎時興驛丞趙湖。前禪教都摠攝統判僧錄司事海印寺住持國一都大師敬南。奉翊大夫商議上護軍李宥。

星山郡夫人李氏。棟樑禪德信源。禪林寺住持萬雄。香山中德覺蘇。志寶。天珪。信成。志禪。信宗。戒願。達禪。希志。佛心。海樞。覺海。志傳。宗淵。希全。信連。覺正。 [朝鮮佛教通史, 李能和 1918年]

8) 인성대장경발(印成大藏經跋) 1458년

臣聞我佛如來。初成正覺。迺曰奇哉。衆生具有如來智慧德相。但以妄想執著而不證得。豈憫其人人具足於清淨無漏之性。而無明所覆輪轉六趣歟。此尼尼出世之本懷。而無恠乎真說諭說。而其文之至於千萬軸之多者也。雖然。法不自弘。由人而弘。則其法之行不行。又在於時君世主之信不信如何爾。至於覆至尊之位。躬上聖之資。研窮性命之理。極乎道德之懿。而又有以洞明三藏妙契真乘。惟我佛慈濟之道。思與億兆蒼生。捨邪歸正。同植德本躋之于仁壽之域。則是乃明君義辟。出於尋常萬萬者之所爲。而千百年罕遇之盛際也。天順紀元丁丑之冬。上傳旨于桂陽君臣璿，領中樞院事臣尹師路，議政府左贊成臣申叔舟，判中樞院事臣李仁孫，臣權擎，吏曹判書臣韓明滄。承政院都承旨臣曹錫文等若曰。余以否德。承天地祖宗之靈。位乎臣民之上。幸與卿等而共際會。亦非小種善根。惟佛教之流于震丹其來已久。其說之載于文。又莫若藏經之專。幸其刊版。具在於海印寺。近世士民之好善者。印成全部。然間被國家賜于日本。存者無幾。予欲印就若干部分置于名山福地。上爲先王先王后暨祖考之靈。以資福吉於冥冥。下爲法界含靈。以至昆虫草木之微。幽明共利。普及無際。且凡事始厥爲難。今因肇功。成至五十部。將遍鎮于我國僧藍之大處。卿等其措置當務之次第以聞。臣璿等奔走惟謹。其經畫本末巨細。悉謀於慧覺尊者臣信看，判禪宗事臣守眉，禪師臣學悅。隨即啓于。上下承政院。移于各道。分其地之廣狹。以定出紙之多寡。命副知通禮門事臣尹贊，宗簿主簿臣鄭[銀]。往慶尚道。預爲區辦。與判禪宗事臣守眉，海印住持臣竹軒。仍督其務。且諭監司臣李克培監摠之。遂用明年閏二月創役。至其年四月日告訖。於是命臣守溫跋其後。臣謂諸佛出興。惟爲一事。王者握符膺籙。以興于世。則亦惟欲救民而已。故佛爲三界之師。以導其迷君。爲萬民之主。以濟其生。是雖有世出世之異。其發誓願廣度無邊之志。則佛與王者一也。恭惟我主上殿

下。曩在潛邸。親遭大難。掃除奸兇。天與人歸。天命以集。其盛德大業。實我東方未有之聖主也。然即位以來。不自滿暇。切切求理。民安而猶恐不安。時和而猶恐不和。且謂自古聖帝明王之治天下國家也。莫不崇三寶仗大乘。以之福國利世。延洪業於無疆。以無忘世尊正法付屬之遺意。於是特成大典。弘揚真化。蓋後之千有餘歲。去之萬有餘里。而我聖上精神心術之妙。慈悲廣大之量。與佛同一機也。或問於臣曰。世之名好學善讀者。不過數十卷而止。今三藏之書。充於棟宇而不可極矣。孰能遍觀而盡究其說乎。臣應之曰。夫妙明圓覺之體。徹乎古會而無所變。通於凡聖而無所異。是蓋無迷無悟無此無彼者也。楞嚴經曰。一人發真歸元。十方世界。悉皆消隕。是則我聖上發意之初。即已轉大法輪而與佛刹。微塵衆生。同證於無上菩提之智矣。又豈必人人之目此而後爲功德哉。是不可以常情而所能度也。天順二年六月日。嘉善大夫行忠佐衛上護軍臣金守溫。拜手稽首謹跋。 [朝鮮佛教通史, 李能和 1918年]

9) 인쇄장경오십건(印大藏經五十件)

臣聞我佛如來。初成正覺。迺曰奇哉。眾生具有如來智慧德相。但以妄想執着。而不證得。豈憫其人人具足於清淨無漏之性。而無明所覆。輪轉六趣歟。此牟尼出世之本懷。而無恠乎直說喻說。而其文之至於千萬軸之多者也。雖然。法不自弘由人而弘。則其法之行不行。又在於時君世主之信不信如何爾。至於履至尊之位。躬上聖之資。研窮性命之理。極乎道德之懿。而又有以洞明三藏。妙契真乘。推我佛慈濟之道。思與億兆蒼生。捨邪皈正。同植德本。躋之于仁壽之域則。是乃明君義辟。出於尋常萬萬者之所為。而千百年罕遇之盛際也。天順紀元丁丑之冬。上傳旨于桂陽君臣增。領中樞院事臣尹師路。議政府左贊成臣申叔舟。判中樞院事臣李仁孫。臣權擊。吏曹判書臣韓明澮。承政院都承旨臣曹錫文等。若曰。予以否德。承天地祖宗之靈。位于臣民之上。幸與卿等。而共際會。亦非小種善根。惟佛教之流于震丹。其來已久。其說之載于文又莫若藏經之專。幸其刊板具在於海印寺。近歲士民之好善者。印成全部。然間被國家賜于日本。存者無幾。予欲印就若干部。分置于名山福地。上為先王先后。暨祖考之靈以資福吉於冥冥。下為法界含靈以至昆虫草木之微。

幽明共利。普及无際。且凡事始厥為難。今因肇功成至五十部。將遍鎮于我僧藍之大處。卿等其措置當務之次第以聞。臣增等奔走惟謹。其經畫本末巨細。悉謀於慧覺尊者臣信眉。判禪宗事臣守眉。禪師臣學悅。隨即啟于上。下承政院。移于各道。分其地之廣狹。以定出紙之多寡。命副知通禮門事臣尹贊。宗簿注簿臣鄭垠。往慶尚道。預為區辦。與判禪宗事臣守眉。海印住持臣竹軒。仍督其務。且諭監司臣李克培。監摠之。遂用明年春閏二月創役。至其年四月日告訖。於是。命臣守溫跋其後。臣謂諸佛出興。唯為一大事。王者握符膺籙以興于世。則亦惟欲救民而已。故佛為三界之師。以導其迷。君為萬民之主。以濟其生。是雖有出世之異。其發誓願廣度无邊之志。則佛與王者一也。恭惟我主上殿下。曩在潛邸。親遭大難掃除奸兇。天與人歸。大命以集。其盛德大業。實我東方未有之聖主也。然即位以來。不自滿暇。切切求理。民安而猶恐不安。時和而猶恐不和。且謂自古聖帝明主之治天下國家也。莫不崇三寶仗大乘。以之福國利世。延洪業於无疆。以無忘世尊正法付囑之遺意於是。特成大典。弘揚真化。蓋後之千有餘歲。去之萬有餘里。而我聖上精神心術之妙慈悲廣大之量。與佛同一機也。或問於臣曰。世之名好學善讀者。不過數十卷而止。今三藏之書。充於棟宇而不可極矣。孰能遍觀而盡究其說乎。臣應之曰。夫妙明圓覺之體。徹乎古今以無所變。通於凡聖而無所異。是蓋无迷無悟。无此无彼者也。楞嚴經曰。一人發真歸元。十方世界悉皆消殞。是則當我聖上發意之初。即已轉大法輪。而與佛剎微塵眾生。同徵於無上菩提之智矣。又豈必人人之目此。而後為功德哉。是不可以常情而所能度也。

天順二年六月 日嘉善大夫行忠佐衛上護軍臣金守溫拜手稽首謹跋。

[朝鮮佛教通史, 李能和 1918年]

10) 인성대장경발(印成大藏經跋) 1500년

原夫妙湛圓明。虛徹靈通。包羅四維。綿絡十方。出乎萬眾之表。超乎兩儀之先。非今非古。无始无終。昭昭動靜之間。歷歷視聽之際。本无凡聖之殊。安有利鈍之異。祇為眾生日用而不知。識浪內湧。業風外湊。翳天性於三惑。瞽慧日於重昏。長奔苦趣。無有休期。故我大覺。隨其根機。演無言言。開經律

論。普使羣迷。均沾法雨。等證菩提。復此妙湛之域。還一真之境矣。弘治十有三年春。我王妃殿下。宿種內薰。善根外發。奉為主上殿下睿筭天長。元子寶體椿年地久。命臣就板本所海印寺。做紙八千餘卷。印此三藏部法。粧潢畢備。琅亟緗帙。眩輝。人目。越明年孟夏。製道具。集韻釋百八。期三日轉讀。以落之。臣竊惟。理絕名言。強演教者。機分小大認玄源者。夫因指以見月。執指以為月。終無見月之理。因詮以得意。執詮以為意。寧有得意之時。必也詮指兩忘。月可見而意可得矣。雖然如是。直得意月亦忘。忘其所忘。然後本地風光。自然呈露。要知四十九年橫說豎說。盡是黃葉止啼。空拳誑小。若是過量漢。憑斯法門。從麤入精。沂流窮源。直破虛空。入佛覺海。則雖曰彌天葛藤。換成菩提淨樹。滿口雌黃。還同般若靈詮。如斯功德。塵墨難窮。恆沙莫喻。以是勝緣。聖壽无疆。儲齡罔極。八方無警。四民有樂。宗圖永固於磐石。瑞氣長騰於魏闕。斷無疑矣。然則我殿下之弘願圓成。非心思口議所能髣髴也。詎不韙歟。皇明弘治十三年六月 日 黃嶽山人臣學祖謹跋

[朝鮮佛教通史, 李能和 1918年]

11) 인성대장경발(印成大藏經跋) 1865년

我覺皇垂教傳入聖以超凡遂返常而合道功沾萬彙思庇四生然而去聖幽遠塵情牢縛白馬來夏負龍宮之秘典金人入夢通天竺之殊祥使海內九流風迻方外四俗雲駛教雖三藏濟衆不億蓋以邦運泰回天道好還慧燭桑津恩恤蓬海爰及麗朝變魯成道非山山珎高士李公居仁募衆緣而召匠鏤板藏而印本我世祖惠莊大王驟登寶位命名僧信眉等五人傾國財而印五十件呂韻釋禪僧幾百人讀五六日了使三途越迷津而登覽岸開方便而度沙界我聖上即位之明年昆盧藏上士南湖與長老南溟斷金爲誓以利也方便遊世而晝經夜叅性乎無偏無僮心方寬矣綽矣歷銓山水摸相設壇舉無不鑑以杜口禪那留心教門於是時也比丘比丘尼信男信女同結蘭約志掛雪岬是以來雨露同均風雷順軌歲泰而可見耕衆時和而誰諮喘牛衆筑出洞化力風揚四遠募緣施心泉湧不期年而鳩財一萬四千金不改月而引經兩藏二件而一安五垓後爲攷具一安雪嶽開人眼目而于時瑞出法藏巖洞共徹乾坤相煥晝不能及明不能可也而作千燈而燭之珠網間錯成衆樂而告之梵天具下玄侶風迻緇徒雲集殷開霧市嘉

會雪山若非如來之神化孰能與於此哉但是威音之玄切案末如之何也又有監其役曰部林大德而眡其事曰清霞影應通虛等上人也辛勤百務爲法忘勞此○如來使耶昏衢慧燭巨海芳舟時乎至矣數亦當之若余者不材藏山無用弃世長歎潛龍之勿用獨斬畫虎之不成然才鮮八字口輪三尺雖未能咀嚼百家之章句躬叅時事之顛末故回命毛公爰撥圓切永示可畏云爾 同治四年乙丑秋九月下浣 海冥壯雄述

[大藏經跋文、海印寺古籍，朝鮮總督府，1915年]

12) 인경사실(印經事實) 1898년

光武二年戊戌五月 日

勅令奉承 宮內府大臣李載純 侍從院奉侍姜錫鎬 尚宮 崔氏

七月 日

劃下錢六萬二千五百金于化主僧梵雲

二十五日到寺 抱應 自宮內府差下監董僧應海 錢監僧翫虛 米監僧海耕

印監僧鳳城

己亥三月 日 自宮內府奉 勅差下印經都監董前營將俞鳳濬亦有訓令于本道觀察使曹始永

三月初七日始役印經特賜自主通符武監金永澤。同月二十一日到寺幹護。特下十三道都摠攝僧景明角牌二綬。及封山禁松牌二雙。四月二十日 印成四部經二十一日 尚宮崔氏到寺 賜送佛輦一座 具各色威儀

各法堂佛坐服四十件 寢帳十件 卓衣十一件 經衣錦各色一櫃 結絲一櫃

奉命前叅奉金顯國同日到寺 當日設齋七日轉讀一部經

五月初二日 回向畢齋觀察使病不進替送主事金永勳及地方官朴起默來叅所印經一部奉安法宗本寺

一部奉安佛宗通度寺，一部奉安僧宗松廣寺，一部分布十三道各寺

13) 인경발문(印經跋文) 1899년

如是我聞。釋迦如來見星悟真。理具六通。道現三乘。禪宗大法。俱載於大藏經文。儘一大光寶藏。須彌極天。業鏡無塵。一心慈悲。眾生普濟。願雲廣

大。福海澄深。惟茲海印寺。創自羅代。海左靈源。嶠右名藍。經有板而藏是寺。千有餘載。夙著靈異之跡。實叅機緘之化。肆我列聖祖祈福植德。必以印是經為符讖因果之證。而經之顯晦。亦有關於一時之氣數歟。今又奉承勅教。印成四部。琅函緗帙。藏諸名山福地。使之弘揚竺教。陰隲邦籙。顧不休矣哉。余於茲寺藏經文字之役。竊有所辭不獲者。以先祖之有記述故也。經既竣印。山谷林樾。瑞氣騰空。夜色移晷。人謂之佛靈放光。如是者五是果天地報應。非偶然而然。供齋之日。十千乾闥婆。五百阿羅漢。轉經引唄。北望稽首。咸祝聖人萬年無疆。百祿維新。壽期于翼。國安于碧。南省士女。與之舞蹈。欣抃於蓮花道場之中。可以見時代昇平之象矣。

光武三年己亥四月 日 慶尚南道觀察使曹始永謹跋。

[朝鮮佛教通史, 李能和 1918年]

14) 대장경판수보발문(大藏經板修補跋文) 1906년

恭惟釋尊應運出世其說法度生之方便不一其道而論其旨則戒定慧三學也言其文則經律論三藏而已故雖有能藏所藏之名實不同而其體則一也今之寺之藏經閣即統三藏為一藏而自勝國寶藏者也譬之財寶無物不具亦如百川同歸終成大海其福國祐世之異驗濟迷拯苦之徽蹟備載乎傳記矣凡欲研三學而悟一乘超苦海而到樂邦者捨此奚以哉所以崇奉代不廢典而粵在我太祖高皇帝膺命即祚之後德洽仁方心切玄宗印全藏而流布親製跋而發輝實我國無疆之休福也暨乎列朝聖王一遵先志欽茲護茲而至我皇上陛下德符神人道邁前聖無幽不照從善如流徃在戊戌劃下內帑錢六萬餘金印出四部全經而分藏于三宗刹及各名刹其畢齋之時諸縉雲集之盛儀府郡風馳之衛護亦近古所未嘗有也但板之設久矣邊飾之鐵剝而脫者殆居其半而字畫之剝而泐者亦徃亡有之實法事未盡善之一憾也適今春尚宮林氏因法釋龍般之言仰達于純妃殿下稟承綸命出內帑錢二萬金仍勅奉齋臣林氏監董僧大蓮不日到寺晨夕勤惟恐不及連送別監董臣全聖業爰速厥事有若寺僧景明泳海各執其勞首尾兩月飾之脫者字之泐者一以新之傍助寮役及經閣瓦費人天勝緣於是乎畢由是而我邦家之洪祚捋無窮於萬仞歲矣凡居此土而仰至化者孰不感頌也哉余為職糜未叅其齋沐之席而聊述其隨喜之萬一云爾

光武十年丙午四月 日 從二品前漢城判尹朴昌善謹跋

[大藏經跋文·海印寺古籍, 朝鮮總督府, 1915年]

15) 인대장경발(成大藏經跋) 1915년

佛敎者物物全眞頭頭玄極鈔○爲舟智慧爲舵方便爲帆佛力爲風盡未來際渡衆生釋尊涅槃後聽法弟子追述其敎者汎傳東西後世之沙門繙其經典別抉淵源剖析底裏以爲霧海之南針夜途之北斗眞不滅之大法也雖然經星霜二千五百年之久梵文經典旣散佚現存於印度者僅有巴利藏經而所收不完滿蒙藏暹等之譯本亦傳于今日者殆罕也獨於漢土則佛敎之東漸日久譯述亦盛行唐朝已有大藏之存至宋繼紹之三藏始備文義整然唯憾屢經改刻誤謬倍多在朝鮮高麗顯宗時一附鏤梓未幾有兵燹之灾高宗深信三寶命僧守其等參照校訂北宋本契丹本及前雕本而上梓世稱現存藏經中正確無比之善刻也今藏在於慶尙南道伽倻山海印寺眞是天下之至寶也及今不講保存之途恐貽千載之悔仍整理經板且欲印三本乃一九一四年八月立之規畫至臘而準備方成山門高寒刷摺甚艱乃待翌春三月始役至六月而畢搬之京城施裝綴八月告成募工于京城大邱陝川等地所用紙絹則京城陝川三嘉之製墨則陽德之產摸裝古制其一本特用意作絹衣折本帙入他二本則作紙衣冊子費紙五十二萬四千枚絹一萬一千尺絲一萬一千尺役工五千人以裝折本六千八百五冊六百六十三帙綴本二部二千三百二十冊製紙裝潢皆用樂而防蠹魚之害冊衣文樣摸搨高麗瓦當之蓮瓣及蔓草其落板缺字者則據朝鮮及東都增上寺西都東本願寺所藏印本或新雕或填刻焉折本則納諸鴨東泉涌寺以傳先帝鴻圖之一端于不朽他二本隨便保存俾勿散佚茲敘印裝之顛末聊贅卷端云爾

一九一五年九月 朝鮮總督 伯爵 寺內正毅

[大藏經跋文·海印寺古籍, 朝鮮總督府, 1915年]

4.4 유람기(遊覽記)

1) 해인사유기(海印寺遊記)

入寺樓臺佛相製作雄麗眩纈入眼周覽彷徨問寺僧能識文辭習佛書者爲誰有以曰

文慧長老對者余曰可相見否有頃一老僧鬚眉皓白貌頗古樸前一闍梨入室頂禮時微月生白松濤滿壑夜漏初更燈穗耿結余曰長老容寂而氣專能息斷諸緣否對曰未能余曰大力金剛吉盤茶鬼之稱結澶誦呪二十五類朱夫子已以麤鄙俗惡排之何如對曰云麤鄙則麤鄙云俗惡則俗惡呼我以牛我應牛呼我以馬我應馬所謂荷葉團團菱角尖尖似鏡似錐依他本相余曰正覺圓覺俱是一般境界對曰心識寂滅一念不起卽儒家所謂寂然不動未發境界者是正覺也神識圓通萬境俱融卽儒家所謂感而遂通已發時節者卽圓覺也如何道一般余曰蓮花不着水摩尼清淨寶珠禪家論心之妙而珠之論吾儒多取之如珠落清濁水之說是也蓮花則不取對曰周濂溪先生愛蓮莫是此意否人生於世而無累於世蓮生於水而不着於水——天真個個本相是此心本體也余曰蓮花生於水人心本於天若以爲蓮不着水則人之心亦可以屏絕天理乎愛蓮說取其泥而不滓如不累外物不染邪惡非謂其不着於水也又問而壁觀心以何觀對曰以心觀心余曰心有兩個乎對曰此與儒家所謂靜坐觀喜怒哀樂未發前氣象同余曰此說朱夫子已云做病喜怒哀樂未發是心之未感物也與觀心之說本不相似朱夫子猶非之則以心觀心之非是可知慧師曰祖師有言仁義禮智在性而不在人智愚順背在人而不在性此與儒家論性不同乎余曰仁義禮智便是性而今日在性恰似性外別有仁義禮智禪之似是而非正在此處又問此山之名伽倻何也寺創自何時對曰新羅哀莊王時高僧順應利貞希朗三人入伽倻山因樹爲屋而處人莫有知時王有疾夢見伽倻三道僧物色求之數月不得忽有犬前行指路得見三僧禮致之以療其疾卽於其處創此寺山曰伽倻者出於禪宗記伽倻卽僧之別稱此山有衆僧禮佛之狀故名也余曰山神之稱正見者何也對曰正見者大伽倻國母后也與天神夷毗阿交感生惱室朱日卽大伽倻伊珍阿豉王也生惱室青齋卽金官國首露王也其後后死而爲伽倻山神今祠中神祠乃正見天王此說在崔孤雲文集中余曰寺中多藏書不知佛經之外亦有他書否對曰難可盡舉但一龕有金字藏經四十二章而不知何人筆一龕有銀字書圓覺經一帙卽新羅金生真筆字畫宛然如新藏書此最古也慧老以夜深辭退余朝起記其問對以備禪房故事云

[齋先生文集 趙性濂]

2) 유가야기 (游伽倻記)

辛卯冬。家君由地部郎。除開寧縣監。壬辰正月赴任。余以女病不及從。四

月。始往省。處于燕休堂之西室。六月。家君爲會下從叔父監役公葬。請暇上京。七月。歸而伯從兄隨之。與余同室。朝夕怡愉。甚相樂也。吾二人者。夙聞雙溪海印之勝。冠于嶺之南。而又適至近邑。不可以不一觀。遂告于家君。以八月二十六日丁丑。早飯同發。是日也。朝有雨微灑而止。行至玉山村前。逢敲方寺僧碩輝。先數日往見敲方時。與之面熟者也。班荆少話。午飯于美谷村。金山地也。未及村一里許。得一川大盤石平鋪。水流其上。甚樂之。下馬坐石上濯足。令篋奴吹一曲。篋響共水聲嘹亮。殊覺惺惺開豁。意致悠然。先走人報雙溪寺僧。因前進未及山口。日已暮。宿歧川里。里有老儒生姓名李滋。暫相見。談山中景可聽。戊寅晴。李生子東老早來見。蓐食至立巖。巖在山口。距雙溪十餘里。一峰拔地直聳。大川出山中經其下。匯爲澄潭。大石盤陀。曲曲可坐。壁刻觀察使洪萬朝，李宜顯，察訪金啓煥諸人姓名。雙溪僧持舁來。遂捨馬乘籃輿。晚至寺。山之勢雖欠明潔雋雅。而磅礴雄偉。如巨人開席。大將臨帳。無松栢。但栝檜榆梓如織。水又新得雨大漲。喧吼闐聒。若萬馬爭奔。洞門如拱而旋開者且十里。始平行通豁。寺門外。有大石臨溪。有一監司名以清心臺。題其橋曰濟勝云。寺門曰紫霞。鍾樓曰泛鍾。閣下塑四天王像。甚奇偉可愕。大雄殿兩廊。東曰探真。西曰窮玄。外寮曰寶林曰養性。後又有香積廚。有僧休侃解賦詩可與語。武屹書堂。距寺亦七八里。鄭寒岡少日讀書於此。僧徒因結社居之。藏寒岡舊書累十篋。清菴去武屹尤近。淨而僻。令人塵慮頓消。不欲起。有僧義訥居之。貌矍而清。己卯晴。朝飯。行可二十里。山路旁。有二壑匯然而邃。窈然而深。如蓄奇勝在中。由厓壁捫蘿攀藤而入。有水從山谷間。平舒緩流幾百步。始折旋盤回。三過灣而得一盤石。方成瀑而下。長數丈許。兩壁如束。楓柟被之。匍匐蹒跚。窮源乃止。題名于石壁。僧云古無知者。有金姓按使始得之。因名金公瀑云。過黃店。採硫黃處也。又度二大嶺。海印僧持籃輿來候。時少雨卽止。遂謝送雙溪羣衲。歷見弘濟菴。在寺之西北。安四溟大師真。菴外有四溟碑。斲去述者姓名。僧云筠也撰。四溟真之旁。有松坡真。卽其高足覺敏云。有松坡碑簇掛其側。李判書殷相撰。金判書宇亨書。金判書萬重篆。寺外又有松坡浮屠。仍訪願堂寺。在寺之正西。地污下。又無可觀。僧傳新羅哀莊王所勅云。至海印寺。自北門行百

餘步。爲學士臺。又北上數百步。卽觀音殿。無他觀。有一老釋。云自妙香來棲。年今七十五。神觀不衰。談辯快爽。若有道者。其名定慧。寺之外門三。曰紅霞。次曰鳳凰。次曰不二。次鍾閣曰圓音。內有正門。中勅法堂。扁以大寂光殿。匪懈堂筆也。共一百二十間。石階二十級。象二十重廣大刹云。大唐貞元十八年。新羅哀莊王時所建。殿有三爐。制甚巧。謂是唐朝所捨。後有一大閣。藏八萬大藏經板。新羅所刊。閣亦一百二十間。分前後爲重行。列植如貫繩。上各安佛軀無數。中安毗盧。左右安文殊普賢。其門曰普眼。堂陛共三十三級。象三十三天云。法堂亦安毗盧，文殊，普賢三佛塑像。絕大甚偉。堂蓋鐵瓦千葉。後安金裝身。頭牌中牌。安六光菩薩。有大銅甑二。四壁各掛像幀甚多。經板四隅。飾以銅釘。塗漆如鏡。明澈可照。使寺僧呂覺上柱識名。楣間有尹衡覺，尹攀，尹彬，趙逢源，趙楷，朴光秀，朴龍秀，申瓖，尹鳳朝，尹鳳九等名字。法堂之東。有凝香閣。又有冥府殿。殿後有涵虛堂。僧聞侑居之。殿之東。爲探真堂，浩然堂。堂後有明珠寮，重烟寮。少南爲雙割寮，達俗寮。正門外。有緣起寮，逗遠寮。法堂之西。曰眞常殿。殿內安毗盧等三佛如法堂。左右有金塔二坐。左二十級。右三十三級。塑佛後掛千佛像。以白錦織成。一軀大可寸許。經歷幾千年。而尚未澆滅。又使題名柱上。殿下有解行堂。安希朗祖師木像。卽高麗名僧云。其下有無說殿。中安毗盧佛。上有大藏經印本。其後有雙運堂，轉生寮。前有窮玄堂，可鑑寮。正門外。有清虛寮，四雲堂，明鏡堂。又有省行堂。舍病僧處。鍾閣外。有滿月堂，凝香閣。後有堆雪堂。東門曰海清。寺共可千五百餘間。而僧亦通寺菴爲三百餘云。寺之僧聞侑示其師明誓詩軸。中有農巖繡衣記遊詩五十餘韻。寺有世祖朝所賜教旨。曰慶尙道陝川地海印寺乙良。監司守令。曾下傳旨更審。尤加完護。雜役減除者。上書國王安御押。下書天順元年八月十四日。年月安御寶。高麗時。賜希朗祖師諡號教旨亦有之。書曰贈海印尊師圓融無尋不動常寂緣起相由照揚始祖大智尊者。下書己酉五月日。安寶而篆以高麗王印。又有世祖遺惠覺尊者信眉御札。書曰眉師前從幸後。所在各遠。音問邈爾。且國中多事。塵勞日煩。身亦違和。累日弛事。不謂煩緣靜慮。恒祈佛前。遣人數問。尤用感惶。不必如是違遠精修。是我破僧罪矣。圓覺寺之事。具如普聞。難以盡

述。猶爲震怖。未知何緣。願自安住。副我至情。隨次遣金處善。祇奉佛盖及殿額。並奉香燭等物。下書朝鮮國王。安御押印。小篆惠莊圖書。又書慈聖王妃。又印惠溫二字圖書。信眉者。卽其時宰相金乖厓守溫之兄也。又有天朝將官票文及本道按使完文。大藏經印出時謄錄一大冊。而其糜費之宏侈。不可殫記。庚辰晴。朝飯後。上堆雪堂。由海清門。肩舁從山路。尋極樂殿。歷知足菴。處於山下。而前面曠濶。甚有幽意。又歷希朗臺。僧云希朗祖師常講道於此。故因建閣以名之。無僧。有尼數人。轉上白蓮菴。菴處深谷。形勢恰似清菴。有明誓師影頓。卽聞佾之師也。示寂已數歲矣。在時淵翁來留贈詩而去。其徒出示之。題云白蓮菴借榻。留贈察老師。伽椰山色碧依然。清漢浮杯返曰蓮。塵土疑君堪一笑。招提留客亦奇緣。春深馥郁生枯藪。雨散星河在朗天。案上華嚴三十九。披來共對一燈懸。招提以下。一作雲林會我。下書戊子季春下浣雪嶽歸人。又尋國一菴。無足觀。因出洞登落花潭。在寺外數百步。僧云古有人携妓來遊。妓爲風所吹。墜崖而死。後人因刻之曰落花潭云。水自山深處逶迤而來。曲曲轉灣。到此始成瀑。匯爲澄潭。廣袤可數頃。過落花潭又數百步許。向之澄潭奔流而下。水勢澎湃。兩巖在其旁。上刻光風瀨霽月潭六字。其下有泚筆巖。無他奇。但石理柔滑。可泚筆故得名。紅流洞在洞口。水至此尤大。喧豗噴薄。郡守金洵刻紅流洞門四字於巖石上。傍又有紅流洞三字。卽孤雲筆也。孤雲詩。疊石奔流吼重巒。人語難分咫尺間。常恐是非聲到耳。故教流水盡籠山。刻在石上。磨滅已盡。故以尤翁筆。移刻於他石。傍有俞宇基。受基兩族兄及監司族叔刻名。午飯石上。轉向法水寺。庚辰。始朶於舊基。居僧甚少。自紅流洞冒雨而行。因少憩。到檜淵書院。留宿村家。院享鄭寒岡。九月朔辛巳晴。中火扶桑驛村。午後還衙。 [知守齋集 俞拓基]

4) 남유기(南遊記)

余嘗東遊於雪嶽金剛之間。而亦西浮大洋。登摩尼之頂。近又南下。躡無等跨月出。夫世必稱子長遊者。是固古來文士之張目壯談也。然遊亦豈無助乎哉。余竊自惟恨大明之亡也。少讀詩。略知辨物通情。讀書觀古君臣之際。使一到天子之庭。吐胸中之有。雖朝暮死而無悔也。嗟乎。安得溯龍門砥柱而窮黃河

之源也。余嘗讀范仲淹岳陽樓記。恨其文之繁也。洞庭湖七百里。望君山一點足矣。然則此南遊錄何足道哉。此南遊錄何足道哉。丁未九月。余既乞罷景陽矣。將遊嶺南。送印于兼官淳昌郡守李浚。十二日乙丑發行。從者金玉聲，梁慶祚，金俊弼也。四十里過潭陽府。又四十里宿淳昌郡。[中略] 二十一日甲戌。行二十里。朝飯于歸耕村。過椰川之水。民云此地是古冶爐縣也。又行四十里。入伽椰山。到武陵橋。山明日朗。風珮鏘鏘。如聞伽陵之鳥。渡橋謂之紅流洞。遇一老僧。下坐溪傍石上。山風蕭蕭。黃葉亂落。流水上下。皓石磊磊。曹南冥神興洞記。銀河橫截。衆星錯落。瑤池宴罷。綺席縱橫者。正爲此境道也。洞中有崔孤雲題詩石。而濤盪瀾磨。今不可復認。尤翁移寫之。鑿之洞壁。如虬龍騰攫。是洞大抵多刻石含朱者。如泚筆巖吟風瀨。姜晉山希孟之所名也。其餘自七星臺以上。至噴玉瀑落花潭。俱不知名者爲誰。而蓋亦好事者之爲也。其中落花潭尤奇。上有碧峰矗立。下有百丈澄泓。時聞有神物吟弄云。籃輿向海印寺。見往來人牛馬不絕。余嘗翹想紅流之洞仙靈之居。人跡不到。如玄圃閼風之苑矣。今甚不然。此無他。托於海印之故也。君子於斯。當審其所托。而夫空谷處子。初不有求於人。而人自至。彼紅流之洞。本未嘗與海印爲謀。而海印自來相托。亦何罪夫紅流之洞耶。僧徒出迎於紅霞門。日色已暮。入窮玄堂。夜有山陰士人尹濯者來話。自言年前遊頭流之天王峰。其上蓋有聖母祠。祠中有一婦人石像號天王。塗粉拖黛。眼彩淫淡。祠東礪空。有一小佛。俗稱其淫夫。屋梁上下。掛無數紙錢。常見女巫婆娑其中。有氣融結。陰穢之窟也。今年六月。忽有風雷起自峰頂。擊之粉碎云。余聞之駭曰。若然則吾自頭流山來。僧徒不言何也。尹生固言其真的無疑。僧出粧銅古櫃示余。中有高麗太祖追贈希朗國師教旨一通。又有光廟申起居于信眉長老手札一度。噫。屈千乘之尊。執敬於匹夫者。爲其抱先王之道也。夫浮屠何爲者。而使君父執敬也。二十二日乙亥。住持哲默引余上法堂。棟宇宏敞。庭陞煒朗。增椽重椽。連閣雲蔓。蓋新羅哀莊王時所勅也。累經重修。其雄奇瓌麗。甲于東方。殿中有二十層金塔。制度精巧。又有普眼堂度。所謂八萬大藏經板。銅粧塗漆。燐爛嵯峨。噫。糜財如此。其民困可知也。有解行堂。坐希朗塑像。甚黑詭。寺之右有學士臺。軒爽佳絕。上有孤雲手植松。爲大風所落。如虎倒

龍顛之狀。余撫之嗟惋。嗚呼。孤雲奇偉人也。仕於大國。年纔十八。爲侍御史。一檄黃巢。聲震天下。及其奉詔東歸也。一麾棲遲於詩山富城之間。而自傷其不遇。遂乃超然高蹈。不與世相聞。其風度格韻。雖謂之神仙中人可也。但其沉淫左道。不免於後人之疑。豈金濯纓所謂玩世之衰。而與時俯仰。托於禪佛。以自韜晦者耶。賢哲之生於人國。自有遇不遇幸不幸。而以唐末極亂之世。孤雲猶能一鳴於中區。而顧不容於父母之邦。斯獨非雞林之羞乎。且觀於黃葉青松之說。其骨鯁忠愛。決知非淪於異教而爲亂倫之歸者。周景遊陸沉之誚。無乃非原情之論耶。仍舉一爵。酌孤雲之魂。是日欲上奉天臺。僧言路險苦止之。往極樂殿。有老僧圓旻年七十九。頗識古事。其上數十步。有知足菴。又左轉十餘步。磴道磅礴。有希朗堂棲巖隙。如黃鵠抱卵。稍前有小臺。僧云是朗師逍遙處。又行一里。上白蓮菴。義訥大師出迎。余先問覺聰消息。往龍興寺未歸云。訥問曰。前因覺聰。聞上舍欲來棲此菴久矣。今行何其晚也。余答曰。世事本來難必。訥曰。近聞上舍以救世自任。何不念自己心上。余解其意。答曰。雖囊中藏兜率天。掌上生須彌山。無益於事。奈何。訥曰。特未到其地位耳。苟到自無是語。遂相與一笑。日晚。下國一菴少坐。又下一里。涉磴入願堂寺。又北渡入弘濟菴。轉往觀音殿。與大師斗慧談老螺和尚鑿池得劍之事。義訥自白蓮來會。談鋒益長。余謂義訥曰。昔叔向聞堂下之言。不失驥明。驥明固有意於人知者人能知之也。若夫含光韜輝之類。惟恐人之或知。故人固朝夕遇之。而視之無如也。前年。余讀書于華山太古寺。有客僧牛尋者乞食久不去。僧徒苦之。至有叱辱者。尋猶蚩蚩笑語。諸僧尤憤。舉杖欲搏之。尋乃走。數日復歸。一日寺僧盡出。余獨與尋在。招尋問曰。汝屢遭辱。能無恚乎。尋率爾答曰。本無榮。安知辱也。余不覺驚歎。尋又多發癡騃之態。欲掩其言。余正色謂尋曰。吾已知汝非常。今日無他人。汝何不爲知己一吐心乎。尋遂斂膝而坐。發言皆奇。余執手嘆曰。是所謂藐然喪其天下者也。尋笑曰。放勳乃不能喪其身。而獨喪其天下耶。余益驚歎曰。奇才奇才。汝何自棄如草木乎。尋又笑曰。吾旣不知有吾。况知有名迹乎。是日逃去。訥大驚曰。尋也嘗住是山三年。而人不知其爲異僧也。訥因言喚醒堂知安事。安方爲南中宗匠。會上常千餘人。狀貌雄俊有威。士大夫遇之。亦加敬焉。安乃

雪霽大師門人也。少時狷狂多氣。傍若無人。雖以雪霽之嚴。猶不能挫其氣。霽嘗據胡牀揮塵尾。說華嚴經。座皆潛心伏聽。無敢謹譁者。獨安軒眉抵掌。發難不已。霽常稱之爲大器云。大抵負重致遠者。無論儒釋。非拙劣人所可堪也。夕柳生漢徵自草溪至。見余請從之受業。其言憤悱有志者也。[中略] 初五日丁亥。早發三十里。朝飯于板橋。又三十里渡漢江。日寒。行人爭渡。見星入崇禮門。到家下馬。昏鐘已動。翼日。李友伯春。山人剋念俱至。問所遊歷詩篇多少。是行不過千餘里。所過名山水若干。橐中無多詩。且觀山不如觀人。而未遇一人焉。發邵先生還洛之歎。何足謂之壯遊乎。然余於智異之山。不無所得焉。是山也雄博峻大。而無物不有。有石山焉。有土山焉。有神仙之區焉。有糞壤之阜焉。有佳木惡木焉。石有白而美者。有黑而醜者。水有東流者。有西流者。天王之峰能插天。而不自以爲高。又降而趨於南海之濱。而不自以爲屈。挾一牧 晉州 二府 南原。河東。一郡 咸陽 四縣 雲峰。光陽。丹城。山陰。四附邑。花開。岳陽。薩川。赤良。而不自以爲富。其根自長白山而來。扶輿磅礴。盤據於七百餘里。而不自以爲雄。落於荒陬而天子不知。無金泥玉牒升中于上帝之文。而亦不自以爲恨。噫。觀斯可以洪吾之量也。旣歸之七日癸巳。春洲居士書于三角山之新旺寺。[春洲遺稿 金道洙¹⁰³⁾

5) 유가야산기(遊伽倻山記)

自高靈縣往伽倻有二路。其一自縣西北行。從綠葛田踰 缺 峴。達于紅流洞。其一自縣西南行。從草谷峴渡武陵橋達于紅流洞。道里亦相均也。自縣至草谷峴十八里。又五里許有尤谷書齋。泉石亦好。有白身巖清風巖可逍遙也。又二里許有伊淵書院。一蠹先生祠也。曠野臨流。長松繞院。院旁有住鶴亭。乃紅流下游也。北行十里。有曰覺寺。卽鄭仁弘舊居。又行五里。卽武陵橋。又五里許曰七星臺。又二里許卽紅流洞。是爲伽倻山洞口也。路旁巖面大書三字而刻之。僞傳崔文昌筆。又二里許有峯曰吹笛峯。有巖曰泚筆巖。水中盤石有光風瀨。霽月潭。宛在巖。噴玉瀑。吟風瀨之號。皆大書而刻之。吟風瀨。泚筆

103) 김도수(金道洙) ? ~1742(영조18)

본관은 청풍(淸風). 호는 춘주(春洲)이며, 음보(蔭補)로 공조정랑, 지례현감(知禮縣監), 통천군수(通川郡守)를 하였다. 저서로는 춘주집(春洲集)과 창선감의록(倡善感義錄)이 있다.

巖。乃姜晉山希孟所名而後人刻于石。晉山自序以爲自法修第一佳處。容齋曰今之刻處。疑非晉山所名云。巖上刻狂奔疊石吼重巒。人語難分咫尺間。常恐是非聲到耳。故教流水盡籠山二十八字。世傳文昌題詩石是也。然流水所磨。字樣已剝。殆不可辨矣。寺僧聞客至。持籃輿來迎于此。山高谷邃。石白水清。無一點塵埃。而萬樹千林。都成錦繡。宛若畫圖中行。沿路有會賢巖。落花巖不知命名何義。所謂疊石臺形如疊石。石如累麴亦異狀。自紅流行六七里至一柱門。一名紅霞門。卽寺外沙門也。寺凡千餘間。彌滿一洞。而棟樑之大。間架之廣。制度之巧。丹腹之煥。他處所罕也。佛殿之外。有鑑物堂。大寂光殿。又有經閣。卽大藏經板子所儲處也。 [損菴集 趙根]

6) 유가야산기(遊伽倻山記)

余到嘉樹纔浹辰。聞秋葉向衰。同伯氏趣裝入伽倻山。箕應從道出江陽。登涵碧樓看竹竹碑。日下春抵郡。聽伽倻琴。蚤朝先發。枉過伊淵。次冶爐倉待伯氏。日昃向海印。昏黑抵武陵橋外。肩輿秉炬入紅流洞。兩山間樹木參天。烟光上雜。萬葉玲瓏。泉瀑交鳴。不見其處。過之灑如。歷三門至禪堂前卸輿。天明步出山門。至石檣下。還入佛殿。周覽良久。入普眼閣。觀大藏經板。纖塵不棲。常若新掃。至眞常殿數兩金塔。歷希朗塑坐。見孤雲巨仁畫像。出後門佇立學士臺。索芒鞋。僧請所向。余曰向絕頂。衆僧爭言從來遊客。皆不到此。且此有何觀。或視晷曰遠不能往還。余皆不答。徑就輿坐。衆乃輿而前。行十五六里。漸看林木間青峰迭出窺人。炯炯欲語。至上率捨輿而鞋。過石門左轉右陟。見山後新雪未消。從者爭掬以沃渴。遂上至巔。觀牛鼻井。前瞻積翠造天。萬玉嶙峋。如佛之圓光。如海之揚瀾。前者低後者高。如戲場之坐人。奇詭不可殫狀。蓋方丈云北顧主屹以下諸山。僂僂附地。洛東江一綫閃映西日。而其間烟氣濛濛而上者。皆郡縣也。余始歛然自小。繼以傲然自高。旣而歎曰夫欲與傲。均之爲喪我。彼所觀愈大。所守愈定者。果何人哉。於是散步舒嘯。形神相接。儻焉忽焉。若有所得。而天際孤雲。不可攀矣。怊悵而去。下憩石門。兩巖對峙。拔地如削。其高者尤可觀也。入觀音庵。歷極樂至白雲。遇詩僧。還至希朗臺。見巖隙小庵。至寺暝飯。邀經僧有璣夜語。觀天

將笠指空鉢盂。翌日出山。至疊石臺屏輿。觀落花潭。下至光風瀨。復上至噴玉瀑。又下至宛在石。望吹簫峰。見泚筆巖。次紅流洞。洗眼于巖竇滴泉。尋孤雲題詩處遂歸。余方至落花。僧問鑱名。余指左右巖壁笑曰此寧有片隙可鑱。無已則必於昨日所憩石門巖間鑱之。乃不果鑱。 [石堂遺稿 金相定]

4.4 서 문(序 文)

1) 해인사창수시서(海印寺唱酬詩序)

慶尚道觀察使兼巡察使李公泰永士昂行部。路入伽倻。宿海印寺。善山府使李采季良，居昌縣令金錄孟剛暨趾源。迓候會寺下。皆公之里閭舊要。以次參見。公各詢當邑年成民之疾苦。然後起更衣。因剪燭命酒。寬假禮數。歡然道舊。殊不見其高牙大纛擁七十二州以自尊大。而在列者。亦不自覺其身在大嶺千里之外。恍然若履屐微逐於平溪盤池之間。甚盛事也。明日公拈韻。各賦二律。命趾源序之。趾源復于公曰。昔曹南冥之還山也。歷訪成大谷于報恩。時成東洲以邑倅在座。與南冥初面也。南冥戲之曰。兄可謂耐久官也。東洲指大谷笑謝曰。正爲此老所挽。雖然。今年八月十五日。當待月海印寺。兄能至否。南冥曰。諾。至期。南冥騎牛赴約。道大雨。僅渡前溪入寺門東洲已在樓上。方脫簑。噫。南冥處士也。東洲時已去官。而盡夜相語。不離於生民休戚。寺僧至今相傳爲山中故事。趾源歲迎輜軒。入此寺已三更。使亦可謂耐久官矣。非有候月邂逅之約。而不敢避甚風疾雨。每入寺門。不期而會者。常七八邑。梵宇如傳舍。緇徒如館妓。臨場責詩如催博。進供張如雲。簫鼓啁轟。雖楓菊交映。流峙競奇。亦何補於生民之休戚哉。每一登樓。未嘗不愀然遐想于昔賢之雨簑也。並錄此。以備山寺掌故。乙卯九月廿日。安義縣監朴趾源仲美。序。 [曹南冥名植。成大谷名運。成東洲名悌元。俱徵士。報恩縣名]

士之出處一也。處而不志乎生民休戚。則髡緇而已矣。出而無涉於楓菊巖泉。則徒隸而已矣。南冥東洲之禪榻憂民。按使太守之官尊賦詩。其事正相反。而其志則未始不同。不爲舊要而昵慢。不爲上官而諂屈。若風若頌。文旨剴切。

[燕巖集 朴趾源]

해인사(海印寺)에서 창수(唱酬)한 시의 서문

경상도 관찰사 겸 순찰사 이공 태영(李公泰永) 사망(士昂 이태영의 자(字))이 관하를 순시하다가 가야산(伽倻山)으로 접어들어 해인사(海印寺)에 묵게 되었다.

선산 부사(善山府使) 이채(李采) 계량(季良), 거창 현령(居昌縣令) 김유(金繇) 맹강(孟剛) 및 지원(趾源)이 마중하기 위하여 절 아래 모이니 모두가 이공의 한동네 친구였다.

차례로 나아가 뵈자 공은 각각 소관 고을 농사의 풍흉과 백성의 질고를 묻고 나서 일어나 관복을 평복으로 갈아입었다. 이어 촛불을 돋우고 술을 내오라 하여 예의절차를 무시하고 반가이 지난날을 이야기하였다.

공은 그 큰 깃발들 아래 경상도 일흔두 고을을 다스리는 높은 지위에 있음을 전혀 내세우지 않았고, 자리를 같이한 이들 역시 자신이 대령(大嶺 조령(鳥嶺)) 너머 천 리 밖에 있다는 것을 깨달지 못한 채 마치 예전에 나막신을 신고 평계(平溪)와 반지(盤池)¹⁰⁴⁾ 사이에서 서로 오가며 놀듯이 하였으니 몹시도 성대한 일이었다.

다음 날 공이 운을 정해 읍시 두 수씩을 각기 짓게 하고 지원에게 이에 대한 서문을 지으라 명하므로, 지원은 공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예전에 조남명(曹南冥)이 지리산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은(報恩)에 있는 성대곡(成大谷)을 방문하였다. 이때 그 고을 원이던 성동주(成東洲)가 자리를 함께하였는데 남명과는 초면이었다. 남명이 그를 놀리며 “형은 내구관(耐久官)¹⁰⁵⁾이시군요.” 하였다.

이에 동주는 대곡을 가리키며 웃으면서 사과하기를 “바로 이 늙은이가 붙들어서 그렇게 되었지요. 비록 그렇긴 하나 금년 팔월 보름에는 해인사에서 달이 뜨기를 기다릴 테니 형은 오실 수 있겠소?” 하였다.

104) 평계(平溪)와 반지(盤池) : 평계(平溪)는 평동(平洞), 거평동(居平洞)이라고도 하였다. 서대문 밖 반송방(盤松坊)에 속한 동네로, 지금의 종로구 평동 일대이다. 예전에 평동과 냉정동(冷井洞: 지금의 냉천동) 사이에 지금은 복개된 계천(溪川)이 흘렀으므로 평계라 한 듯하다. 반지(盤池)는 반송지(盤松池) 또는 서지(西池)라고도 하며, 서대문 밖 반송방에 있던 큰 연못으로 명승지의 하나였다. 지금의 서대문구 천연동 금화초등학교 자리에 있었다.

105) 내구관(耐久官) : 벼슬을 무던히도 오래 하는 관리를 비꼬아 말한 것이다.

남명은 그러마고 하였다. 기약한 날이 되자 남명은 소를 타고 약속한 대로 가다가 중도에 큰비를 만나 간신히 앞개울을 건너 절 문에 들어서니 동주는 벌써 누각에 올라 막 도롱이를 벗고 있었다.

아아! 남명은 처사였고 동주는 이때 이미 관직을 떠난 처지였으나 밤새도록 이야기한 것이 민생 문제를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절의 중들은 지금까지도 이 일을 서로 전해 산중의 고사(故事)가 되었다.

지원이 해마다 감사의 행차를 맞아 이 절에 들었는데, 하마 세 번이나 감사가 바뀌었으니 나 역시 내구관이라 이를 만하다. 달이 뜨기를 기다려 만나자는 약조가 있는 것도 아니건만 모진 바람, 심한 비를 감히 피하지 아니하였으며, 매번 절 문을 들어서면 기약 않고도 모인 수령이 늘 일고여덟은 되었다. 절간은 여관처럼 즐비하고 승려는 기생처럼 많으며 모임자리에서 시를 지으라 재촉하기를 마치 도박에 돈을 걸라고 독촉하듯 하고, 차일과 다담상은 구름 같고 통소소리와 북소리 요란하니, 비록 단풍과 국화가 어울려 비치고 산수가 절경을 자랑하나 민생 문제에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매양 누각에 오를 적마다 시름없이 옛날 어진 이의 비 맞은 도롱이를 아스라하게 상상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아울러 이를 기록하여 산사의 장고(掌故)에 대비하는 바이다.

정조19(1795)년 9월 20일 안의 현감(安義縣監) 박지원 중미(仲美 연암의 자(字))가 서문을 쓰다.

조남명의 이름은 식(植)이요 성대곡의 이름은 운(運)이며 성동주의 이름은 제원(梯元)인데 모두 징사(徵士)¹⁰⁶이다. 보은은 고을 이름이다.

선비의 출사(出仕)나 은거(隱居)는 그 뜻이 한가지이다. 은거한다 하여 민생 문제에 뜻을 두지 않는다면 승려일 따름이요, 출사한다 하여 산수 자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노예일 따름이다. 남명과 동주가 선탑(禪榻)에 앉아 백성을 걱정한 것과, 감사와 수령이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시를 지은 것이 그 일은 정반대이지만 그 뜻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다르지 않았다.

옛 친구가 된다 해서 허물없이 대하지도 않았고 상관이라 해서 아첨하지

106) 징사(徵士) : 임금의 벼슬을 주며 불렀는데도 응하지 않은 은사를 말한다.

도 않았다. 풍(風) 같기도 하고 송(頌) 같기도 하여¹⁰⁷⁾ 글 뜻이 매우 진지하고 간절하다 하겠다.

2) 칙사대법보종찰가야산해인사금강계단계첩서 五月十五日 勅賜大法寶宗刹伽耶山海印寺金剛戒壇戒牒序

菴唯我覺皇氏 金口親宣木叉彝訓 廣則無量 畧唯三聚 節要得中 特五部梵網最焉 以源乎百劫精進之前 派乎千花辭退之時 濫觴鹿苑 六群自調 終極鷲嶺 七衆咸服 佛佛親說祖祖相傳 齷齪氏渡江 一華現於少林 六葉敷於寶林 祖燈不昧 戒珠無瑕 五派分流 只存懸絲之識焉 嗚呼 法運循環 何幸古祖朝覲五臺 密承妙吉祥之儀軌 自是戒林轉芳 定河宴清 爰稽歷朝之昌崇 唐宋之代奉勅闡戒 指不勝屈 明清之後 承認建壇 蓋復崇焉 萬曆聖祖仁皇帝 勅住松祖於惠居寺 大暢南宗 雍正世宗憲皇帝 勅住文祖於大法源寺 中興祖風 欽承奉持 唯我鰈域 根行懈怠 戒林蕭然 有萬化和尚 奮志西泛 詣大法源寺 皇戒戒壇 靜涵大和尚 敬受三壇大戒 律身東還 某聞法乳東流 就靈鷲山佛宗刹金剛戒壇 請萬化和尚 欽受三壇大戒 晦名塵外 藏光壺中 今於勅建大法寶宗刹金剛戒壇 七衆輯埴 三壇圓備 依律結界 開演寶戒 內有菩薩戒弟子 系某地籍某人之子 名某字某年某 就某地某寺某師祝髮 年某叅于本壇 圓受三壇大戒 願諸同袍 自受大戒 如法行持 展轉化導 俾務修明釋教 整守僧規 [茶松文稿]

3) 기가야대성대사병소서(寄伽椰大成大師并小序)

余遊伽椰凡兩遭。一遭。庚午春。仲兄宰赤羅。余省親之餘。冒雨往遊。花意政嫩。泉石娟好。一遭。己亥正月初。陪東征監軍御史岷麓公。夜半入山。雪深馬蹶。無火自照。但尋蕭鼓聲。三更抵海印寺。三十年間。非但物色迥殊。老少存亡之感。不覺淚沾襟矣。卽奉成大師以書相問洛下。師方在海印無恙。錄此以抒情云爾。曾見伽椰雪與花。兩行中隔卅年賒。人生老少宜相別。世事悲歡奈亦差。吹笛峯前春帶雨。孤雲臺畔夜聞笳。書來韻釋知無恙。欲往重尋

107) 풍(風) …… 하여 : 풍과 송은 시경의 세 가지 시가(詩歌) 유형 중의 하나이다. 풍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풍간(諷諫) 즉 넉지시 충고하는 노래라는 뜻이 있고, 송은 덕을 칭송하는 노래이다.

病未涯。

[五峯集 李好閔]

4) 해인사유관서(海印寺遊觀序)

絆羈愁於黃堂久埋朱墨耽勝景於玉洞始入紅流沿十里之清溪別有天地踰萬重之絕巘踏罷烟霞三入岳陽誰識洞賓之真趣重尋滿月遠躡學士之仙蹤千峯插天完禹斧之雕琢孤雲出岫恍仙袂之踟躕藏萬帙於仙經烏鵲不到開十襲之宸翰龍蛇尚騰霽月光風追暄老之遺跡重巒疊石賞尤翁之新題金飆振柯飄梵宮之紅葉玉露零華綻靈臺之黃花雪袂霜髭共樽酒而歡謔沙門法侶閱舊軸而索詩境北良朋幸提携於席上嶺南才彥偶邂逅 於山中欣做良夜之清游更期他日之後會

[梧溪先生文集 曹挺立]

5) 해인사불량결서(海印寺佛糧契序)

湖南青峰和尚 募緇白性柔願牢者如干 斷金矢志 爲海印寺大藏殿佛糧契余問之曰 契意何 居有致其語者曰八表山之勝者無多 而伽倻最刹之巨幾何而藏板獨和尚 慨此殿淨供之缺4)憫晨昏守掃之無 售其衣鉢 兼5)募衆緣 不論人之高下貧富 亦不問財之豐纖輕重 凡輸其錢者 皆得名于冊 聲九臯 應千里 不幾年而錢過百 田踰頃 以奉香火 用資冥路 余蹙然起哂曰 子可謂言其膚而忘其髓者也 自大朴旣散 人欲益熾 知其錢而忘其身知其身而昧其心 故和尚 發等心運大願 托此事而引人 修契冊而受啣誘人以檀 漸人以戒 以至於忘緣復本性則此微供 不下雲門餅仰山飯矣可以此供養三世如來 亦可供養十方世界一切無央數飢虛衆生 盡沾此供矣 吾於是6)乎 知上來奉香火資冥路種種說 皆不知和尚者也 若知和尚之心不在資冥路 庶可語佛糧7)稷 公乎 歸語*稷中人 皆點頭矣 [蒙庵大師文集]

4.5 상소문(上疏文)

1) 대장경도량소(大藏經道場疏)

躉佛教如一味海。本絕酸甜同異之差。由人情有三種根。故標大小偏圓之別。

苟冥心而懸解。卽會極以齊驅。念以不良。臨于有衆。夕惕若厲。居無逸豫之心。禍生有胎。常戒幾微之漸。尙緣事統之多闕。屢致乾文之示祚。金忽犯於大微。木復干於熒惑。寔深兢灼。益切解禳。宜投微妙之門。仰荷慈悲之援。斯沿舊典。宏敞熏科。千指繙貫線之文。高張法網。一槌辨拈花之旨。彌漲祖源。甫築功山。卽通覺月。伏願災萌不朕。福聚增深。兵革韜藏。中外絕風塵之警。朝廷輯睦。將相如水乳之和。 [東國李相國集 李奎報]

대장경(大藏經) 도량(道場) 소

불교는 그 맛이 하나뿐인 바닷물과 같아서 본래 시고 달거나 같고 다른 차이가 없고, 인정에는 세 가지의 근기[三根 사람의 지혜를 상근(上根)·중근(中根)·하근(下根)의 셋으로 나눈 것]가 있기 때문에 크고 작거나 편벽되고 원만한 분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진실로 마음을 다해 고통을 면하려 한다면, 곧 구제하여 앞길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생각건대 현량하지 못한 제가 대중 위에 임한지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심조심 가다듬어도 편안하거나 즐거운 마음이 없고, 화(禍)가 언제 생길는지 몰라 항상 그 기미(幾微)를 경계합니다만, 역시 정사의 빠뜨림이 많으므로 말미암아 여러 번 천문(天文)에 나타나는 요사함을 보게 되니, 금성(金星)이 갑자기 태미(太微)에 덤벼들기도 하고 목성(木星)이 또 형혹(熒惑)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깊이 조심스럽고 두려워 더욱 재앙을 물리칠 생각이 간절하와 미묘한 법문에 몸을 던져 자비의 도움을 우러러 바라오며, 이에 옛 전례(典禮)를 따라 널리 훈과(熏科 법석(法席))를 베푸오니, 천 손가락이 선(線)을 펜 무늬를 휘날려 높이 괘불(掛佛)을 내걸고 한 방망이로 염화미소(拈花微笑)의 뜻¹⁰⁸⁾을 가르쳐 더욱 조원(祖源)을 넘치게 하며, 겨우 공의 산[功山]을 쌓자, 바로 달과 같이 환한 깨달음에 통합니다.

엿드려 원하건대, 재앙의 싹이 아예 트지 않고, 복덩어리가 더욱 깊으며,

108) 염화미소(拈花微笑)의 뜻 : 석가모니가 연꽃을 따서 제자들에게 보였는데, 그 뜻을 가섭(迦葉)만이 알아서 미소(微笑)하였으므로, 석가모니가 그에게 도(道)를 전수했다는 고사(古事)이다.

무기를 감춰 버려 안팎으로 풍진(風塵)의 경고가 끊어지고, 조정이 화목하여 장수와 재상이 수유(水乳)의 화합처럼 되어지이다.

2) 연복사행대장경피람소(演福寺行大藏經披覽疏)

一音所演。大藏至萬軸之多。萬機甚繁。小子無一日之暇。意欲致邦家之鞏固。必須憑佛法之加持。乃與臣僚。同發誓願。營五層之塔殿。光覆舊基。印千函之法文。克成新典。既已度藏而奉置。亦宜轉讀而揚披。肆邀苾芻之流。俾讀貝葉之說。口口騰法螺之響。震吼十方。心心炷戒香之熏。遍復三界。供養之儀悉備。功德之用必周。惟財費盡出於庶民。豈利福獨專於一己。冀覺鑑之普照。乞惠澤以均施。上導先世之真遊。下及群生之咸樂。曰壽曰富。與嘉耦以康寧。俾熾俾昌。綿景祚於永久。銷干戈而鑄農器。興禮樂而戰刑威。

[陽村集 權近]

연복사(演福寺)에서 대장경(大藏經)을 피람(披覽)하는 소

한마디의 법음(法音)을 설하신 장경(藏經)은 1만 축이나 되고, 온갖 정무가 번다하여 소자는 하루의 여가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튼튼히 하려면 반드시 부처님의 도움에 기대야 하겠기에, 곧 신하들과 함께 서원(誓願)하고서 다섯 층의 탑전(塔殿)을 세워 옛터를 빛나게 했고, 1천 상자의 법문(法文)을 새겨 새로운 경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이미 정성껏 만들어 봉안하였으니 이제는 두루 읽어서 선양(宣揚)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비구 무리들을 청하여 법문의 말씀을 읽게 하니, 입마다 법라(法螺)¹⁰⁹ 소리가 우렁차서十方(十方)에 떨치고, 마음마다 계향(戒香)¹¹⁰의 냄새를 풍기어 삼계(三界)에 가득합니다.

이처럼 공양하는 범절이 갖추어졌으니 그 공덕의 쓰임이 반드시 원만할 것입니다. 이 비용이 모두 백성에게서 나온 것이라, 어찌 그 복리를 나 혼자 독차지하겠습니까. 부처님의 밝은 거울로 널리 비추시어 혜택을 골고루

109) 법라(法螺) : 수험도(修驗道)에 쓰이는 일종의 악기. 소라고둥의 껍데기에 금속으로 만든 취구(吹口)를 단 것인데 경행(經行)·법회(法會) 때에 사용한다.

110) 계향(戒香) : 계를 잘 가지면 덕이 저절로 갖추어져서, 향기가 사방에 퍼지는 것과 같이 그 이름이 널리 퍼지는 것을 말한다.

베풀어 주기 바랍니다.

위로는 선조를 천도하여 좋은 곳에 왕생하게 하고, 아래로는 중생들에게 까지 모두 즐거움을 주소서. 수하고 또 부하여 왕비와 함께 강녕하고, 성하고 또 번창하여 국가의 큰 복이 길이 뻗게 하며, 무기를 녹여서 농사의 기구를 만들고 예악을 진흥시켜 형벌을 거두게 하소서.

3) 해인사대장경인출낙성소(海印寺大藏經印出落成疏)

法界藏中 無爲眞人無出沒 無爲正法無興衰 佛若出世 不可於增 佛母出世 不可於減 譽海之深 誇日之明 佛性在法界藏中 有理無解 佛性在衆生心中 有理有解 非識所能識 亦非心境界 其性本清淨 開示諸羣生 法性本空寂 無取亦無見 性空卽是佛 不可得思量 譬如大地普生菓實 農夫不種不得其菓 如來廣開十二部經 衆生不學不能成道 如人設美饌 自餓而不食 於法不修行 多聞亦如是 如人設方藥 自疾不能救 於法不修行 多聞亦如是 昭昭於心目之間 相不可觀 煌煌於色塵之內 理不可分 空耶有耶卽有之空 有耶空耶 卽空之有 全法界於目前 指大千於身際 收羣生於掌握 納萬彙於胷襟 不施一工 成就稜嚴之大空 不拔一字 徧覽普眼之眞經 彈指未終 普天匝地 開闢四十二般若波羅密門 叅透三十七助道品 華嚴會教內教外一時收 世出世間並周備 無邊罪垢 如火冰銷 無盡勝義 如恒沙聚 無影樹頭花灼灼 不響山頂鳥喃喃 堂堂無影迹 徧界不曾藏 聖主御宇 皇天之下 一人之上 靈鑑虛極 保合太和 聖文掩於百王 順風扇於萬國 運回於乾之之九五 延吉 時來於坤之之六二 合德 天保九如之頌 地呈三譯之獻 東風入律 西天 翰越海之誠 南隣御書 北闕 獻祖宗之敬 福國之徵 無過於三藏竺教 祐世之兆 不踰於十二梵文 是以 戊戌年 戊戌月 降香燭於允旨 己亥歲 己亥日 點清齋於印經牛頭山高 並驚嶺而峒嶢 紅流洞深 分香海而浸灌 南州四百八十寺 海印寺居其中 多少樓台 烟雨中 九光樓次第 二 唐之太宗 弁聖教之金文 宋之初祖 潤法海之寶墨 唱唵也 玄極 說話無盡 呿唵也 百法 眞言難窮 其爲旨也 處瓦愚而不減 在賢聖而不增 住煩惱而不亂 居禪定而不寂 龍章鳳盖 迺外護之神將 羊車鹿乘 實內弼之賢哲 佛聖菩薩 四果沙門 天道人道 十類衆生 坐蓮花藏獅子座 分波利曇花影裡 器呈三德六味之供 壇開七軸五法之香

貝多羅樹葉 八萬四千卷 金身坐蓮萼 三十二相好 盡是濟度衆生之方便 無非
妙圓正智之解脫振祖風於絕吹之世 燃佛燈於欲滅之時 茲經流施 將日月而無
窮 斯福遐敷 與乾坤而有永 於是 探用錢之上下 青銅十萬金 問飭穀之出入
白米三百石 論紙政之多少 三百塊爲限計冊絲之長短 一萬把作定 印經結集衲
子 幾至於千口 冠蓋相望尊卑 不下於萬人 聖主陛下 統天隆運 肇極敦倫 神
椿之於翠茵 仙李之於丹萸桃野千由延地 仁踰之解網 鯨域三百州境 政和之結
繩 伏念中宮陛下 年未滿於五旬 忽離化於四大 臣民泣拜於衣裳之下 朝野哭
揖於榻床之側 若以胎蓮生淨 則長遊九品之垓 還來娑婆 則更登萬乘之位 太
子殿下 桂苑郁郁 蘭庭青青 德譽日趨 壽亨月恒 太子妃殿下 金枝鬱鬱於胎蠻
玉葉垂垂於菰快 神物護持 寶氣充溢國祚磐石 朝莖泰平 雨以順麥秀二枝風以
調禾登九穗 時和歲豐 萬民咸樂日出而作 日入而息 鑿井而飲 畊田而食 帝力
於尼 何有我哉 法雲法雨清涼於三界之中 戒香定香 芬覆於十方之內 塵裡之
經卷 有待明人 空中之大藏 俟彼智者 上來所修回向三處先王先后 列位仙駕
同入菩提大道場轉增無上法王位 次願爲國節死忠義將卒 非命惡死 含怨抱恨
多生師長多生父母 及此山門 此寺刱建以來化別都監 大小結緣同叅 執務施主
兼及法界 鐵圍山五無間獄 八寒八熱輕重諸地獄 萬般苦楚 各各失諱亡名火炭
爐炭劔樹刀山 一日一夜萬死萬生 一切受苦衆生 列名靈駕 同入華藏莊嚴海
了明心地發菩提 至道一言革凡成聖 願我所修呪 變作甘露味一滴之所沾 衆魂
可以供 同入彌陀大願海 以報諸佛莫大恩 譏毀讚譽 利衰苦樂 同種蓮胎之因
見聞覺知 喜怒哀樂 各證菩提之果 願我末底婆羅密 三天微命 一箇貧道 本以
三千里關北小釋 周行百十城嶺南巨刹 濫叅竺教印出之經場 僭越罪犯雀躍之
驚舞 筭法界河沙之信 校四心印經之數渾華藏刹海之塵 滿傳法度生之願 四生
六趣 彼諸無盡 尚可有盡 十方三世 此我願王 無有窮盡 從日深思 書成復毀
如荊山人 以玉抵鵲 舜若多性可銷亡 爍迦羅心不動轉 仰對三寶表宣痴疏

[龍岳堂私藁集]

4.5 비 문(碑文)

1) 해인사사명대사석장비(海印寺四溟大師石藏碑)

慈通弘濟尊者四溟大師石藏碑銘（篆題）

有明朝鮮國慈通弘濟尊者四溟松雲大師石藏碑銘并序

□□□□□□□□□□

□□□□□□□□□□

自象教之東被三韓也教律竝倡圓漸分門數千年來蒙伽黎者人人各自誇握牟尼之寶矣唯牧牛江月獨得黃梅宗旨蔚爲禪門之冠鉗槌一震萬人皆廢俾涅槃心正法眼藏密傳於青丘之域豈不异哉普濟五傳爲芙蓉靈觀而清虛老師稱入室弟子其慧觀妙悟有出於前輩寔近代之臨濟曹洞也厥後嗣法者不無其人而緇門盛推四溟大師謂可繼西山之傳或庶幾乎哉師名惟政字離幻四溟其自號也其先妣晚日夢駕白雲携黃幘金人躋萬仞高臺則有仙老踞其上卽頂禮覺而誕師生而聰穎嶷然不類常兒稍大不好弄偕羣童嬉游川上則或團沙爲塔或豎石爲佛或採花拾粟爲蒲供一日見罽人捉大驚聚粟償之放諸涸中羣童感之咸以所收粟置師前師分餉甚均空手以歸鄉諸老見而異之七歲其王父誨以史師問曰學者之業貴歟賤歟若貴則當學之不倦乎王父曰世間事無貴於學古今聖賢皆由學就其敢忽諸曰若以聖賢之心爲學則貴矣違是則賤也世之所學多害人之說而少成人之訓槩可謂貴乎曰成人害人在空言唯係心之善否汝言至哉師自是力學不懈十三學孟子於黃柳村汝獻一夕廢卷歎曰俗學賤陋世緣膠擾豈若學無漏之學乎卽投黃嶽山直指寺禮信默和尚被剃初閱傳燈錄未熟已悟奧旨諸老宿皆就質焉辛酉中禪科華聞漸彰一時學士大夫詩人如朴思菴李鷺溪高霽峯崔嘉運許美叔林子順李益之之輩咸與之驩唱和詩翰傳播詞林人以爲美談嘗與荷谷約一覽韓文寂鉅篇誦之不錯荷谷亟以手寫本償之奇高峯曰恃此自足則學必不進可惜虛費枉功矣師竦神受教勤苦不少懈因受四子於蘇齋相又學李杜詩自是文章日益進而內典千函亦盡涉獵方袍習竺墳者雲集山門矣乙亥歲以空門衆望住持禪宗告辭拂錫而去入妙香山始受益於清虛座下老師提醒心地直授性宗師言下大悟卽掃蕪羣言斷除閑習從前遊戲詞家懺爲法語一志於安心定性苦行三載盡得其正法戊寅別老師向楓岳結三夏於報德寺南遊八公清涼太白諸山丙戌春到沃川法山東菴一夜驟雨庭花盡落師忽悟無常招門人語之曰昨日開花今日空枝人世變滅亦復如是浮生若蜉蝣而虛度光陰實可矜悶汝等各具靈性盍反求之以了法大事乎如來在我肚裏何必走外求而蹉過日時耶卽散門徒獨入

禪室杜口結跏或旬日不出窺之則兀若塑人已丑住五臺山靈鑑闌若誤絀逆獄拘于江陵府儒士輩訟其寃得釋庚寅遊楓岳又結三夏壬辰夏倭賊闌入嶺東至楡岾寺時或云我人爲導師曰若賊則難以爲諭倘有我人則亦可譬解率十餘徒直入山門賊悉縛之獨師至中堂則倭頭知其非常待以賓主解其徒師書以往復諸倭敬服指送山深處師語門徒曰如來出世元爲救護衆生此賊張甚恐肆殘害吾當往諭狂賊俾戰凶鋒則庶不負慈悲教也卽飛錫入高城則賊將三人俱加禮遇師以書勸其勿嗜殺則三將皆拱手受戒挽三日設供出城祖之九郡之得免虔劉者蓋師功也宣廟西幸抗議慷慨語諸僧曰我等生居國土食息優遊閱有季紀者秋毫皆上力也值茲艱危其忍坐視卽募數百僧亟赴順安則諸義僧皆來會有衆數千矣時清虛以朝命摠攝諸道僧兵辭以耗薦師自代師遂統大衆從驪察使柳公成龍協同天將明年正月破平壤走行長因隨都元帥權公慄下嶺南駐扎於宜寧頗多殺獲上嘉之授堂上階甲午春劉總兵縱命師入釜營諭清正凡三返盡得其要領正問朝鮮有寶乎師應聲對曰無有寶在日本何謂也曰方今我國以若頭視寶是在日本也正乃驚歎上招詣內闈備問平生下教曰昔劉秉忠姚廣孝俱以山人建立殊勳名流後世今國勢如此爾若髮則當任之百里之寄授以三軍之命矣師謝不敢而退上以武庫鎧仗給之師返嶺南留兵抄擊連築龍起八公金烏諸山城屹爲保障各飭儲胥然後卽還上印綬戰馬以尺籍納于備局抗章乞閑朝廷敦諭不許丁酉冬從麻提督貴入島山戊戌又從劉提督入曳橋皆有首功前後備餉四千餘石器甲萬計上甚嘉之特階嘉善授同知中樞府事辛丑築釜山還內隱山癸卯承命來京甲辰秋奉國書往日本諸倭相謂曰此說寶和尚耶自馬島抵其都諸大帥皆信受約束一流塵至願受教師一一^三皆頂禮稱佛及見家康備言兩國生靈久陷塗炭吾因普濟而來康亦歸心釋教者聞而發信心敬之如佛克成和好而歸因括回被擄男女一千五百自備穀舖之還渡海乙巳復命^三其勞就加嘉義階賜御馬紵絲表裏以獎之時清虛已示寂師便入紗香禮其影塔仍守制普賢寺丙午春領營繕軍赴法宮役結茅三清洞丁未秋乞骸還雒岳山戊申聞宣廟諱音抵洛拜哭因得病甚苦今上欲令備胡西陲不獲應命入伽耶山調治上屢賜御藥庚戌秋上念之欲其就醫京山令方伯敦遣八月二十六日師大會諸禪那告曰四大假合今將返真何用屑屑往來勞此幻軀吾將入滅以順大化也遂趺坐悠然而逝十一月二十日門徒鼻蛻骨茶毘於寺之西麓祥光燭天飛鳥驚噪於是輦頂珠一具鑿石鍾藏之樹窳堵坡於其地云師

俗姓任氏豐川望族也曾大父孝昆文科官掌樂院正曾守大丘因而家密陽生幼學宗元宗元生校生守成娶達城徐氏以嘉靖甲辰十月十七日生師享世壽六十七而法臘五十五私諡曰慈通弘濟尊者師少日多所著述在我仲氏荷谷所失於兵火門人哀其傳誦者爲七卷以傳知者賞其清瞻云嗚呼師之生當俶擾之代偏側戎馬間與國家捍強賊其於宣揚法室振刷迷塗蓋未之暇淺之乎知師者或病其乏津筏而徒區區救世爲夫豈知誅魔濟難是渠家無量功德而摩詰無言直入不二法門又奚用曉曉立訓乎不佞雖儒家者流以弟兄之交知師最深試問今世續牧牛江月之道脈者捨吾師其誰後必有辨之者仍係之以銘曰

維薄伽梵倡法竺乾涅槃妙心燈以燈傳眞丹之東逝我三韓疇承永明江月獨圓嗣其
 西山最先慧炬晨朗智鏡宵懸于于上足其指百千只詔鍾峯能筏迷川鍾峯之教廣濟無邊備脩衆善不染羣緣卷而懷之瓶鉢蕭然出而用之旄戟在前摧魔拔苦邦賴不瘡獸袍金章寵若浮烟茫茫苦海東浸夷漚泛我慈航格彼苗環觀卉服如渴赴泉跪奉約束王略克宣國難甫紓歸興愈翮思乞幻軀以養殘年法宮董旅因疾就便優游紺宇偃息青蓮庶享大耋益演重玄云胡霍樹遽集人天嶽摧特河尼連瓊閣彩金相失妍寂滅爲樂昧者涕漣烝哉梵徒募化繪錢塔廟以報師恩佛恩虹流之隩象設奩焉願力所弘銷劫不騫謳頌勿替琬琰斯鑄頭陀微笑摩詰無言立訓顯化二俱蹄筌無諍三昧可實可權明明日月萬古長鮮 萬曆四十年十二月 日立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gsm.nricp.go.kr)]

[해석문]

자통흥제존자사명대사 석장비명 (篆書)

조선국 자통흥제존자 송운대사 석장비명 병서

허균(許均)이 짓다.

양만세(楊萬世)가 쓰다.

불교가 중국을 거쳐 三韓에 전래된 이후 律宗과 教宗이 함께 번창하였는데 圓教와 漸教로 나뉘어져 數千年 동안 僧伽梨를 입은 스님들이 각각 스스로 자신들의 宗派가 부처님의 最上法이라고 자랑하였다.

그런데 오직 牧牛와 江月만이 홀로 五祖인 黃梅宗旨를 전해 받아 올창하게 禪門의 으뜸이 되어 鉗槌의 방망이를 한번 휘두르면 萬人이 모두 폐하

였다. 그리하여 涅槃妙心과 正法眼藏인 부처님의 法統을 靑丘의 지역에 密傳였으니, 이 어찌 감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普濟尊者 懶翁의 五代 法孫이 곧 芙蓉靈觀禪師이고, 청허스님은 그의 入室弟子이다. 청허스님은 지혜가 투철하여 前輩들에 비하여 特出함이 있었으니, 近代의 臨濟宗과 曹洞宗의 宗主이다.

그 후 그의 法을 계승한 자가 적지 않았으나, 스님들은 거의 四溟大師를 추앙하였으니, 西山스님의 法을 계승하였으며, 또는 참으로 제대로 된 일이라고도 이룰만 하였다.

스님의 法名은 惟政이요, 자는 離幻이며, 自號는 四溟이다. 어머니께서 스님을 분만하는 날 꿈에 白雲을 타고 황색 頭巾(幘)을 쓴 金人이 만 길이나 되는 높은 臺로 올라가는데 어떤 老仙이 그 臺上에 걸터 앉아 있어 그에게 頂禮하는 태몽을 꾸고 스님을 낳았다.

스님은 날 때부터 총명하고 巖然하여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 점점 자라면서 群童들과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溪川에서 놀 때에는 모래를 쌓아 塔을 만들거나, 혹은 돌을 세워 앉히고 부처님으로 삼고, 꽃을 따고 밤과 도토리·산 과일 등을 주어 供養具로 하여 獻供하였다.

어느 날 그물로 고기를 잡는 사람이 큰 자라를 잡은 것을 보고, 아이들이 주운 밤을 모아 이것으로써 그와 交換하여 못 속에 놓아 줌으로서 群童들이 이를 보고 모두 感嘆하였다.

아이들이 주운 밤을 각자 가지지 않고, 모두 스님 앞에 내놓으면 스님은 이를 똑같이 나누어 주고 스님 自身은 빈 손으로 돌아갔다. 모든 鄉老들이 이를 보고 奇異하게 여겼다.

7살 때 스님의 할아버지가 史記를 가르치려고 했더니 스님이 “學者の 業이 貴한 것입니까? 賤한 것입니까? 만약 귀한 것이라면 마땅히 배워서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물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이 世上에서 배움보다 더 貴한 것은 없다.

古今의 賢聖이 모두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니, 어찌 감히 이를 疏忽히 할 수 있겠는가?” 라 하였다. 스님이 말하기를 “만약 聖賢의

마음으로써 배움을 삼는 것이라면 貴한 것이고, 이를 어기는 것은 賤한 것이라 하겠으나, 그러나 간혹 世上에서 배운 바가 오히려 사람을 해롭게 하는 說이 많고, 반면 사람을 이롭게 하는 敎誨이 적으니, 이를 어찌 貴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라 하자.

할아버지께서 말씀하되 “사람을 이롭게 하거나, 해롭게 하는 것이 空虛한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의 善과 惡에 매여 있는 것이다. 너의 말이 참으로 一理가 있다.” 고 칭찬하였다. 그리하여 스님은 이 때부터 스스로 힘써 공부하고 게을리하지 않았다.

13살 때 柳村 黃汝獻으로부터 孟子를 배우다가 어느 날 저녁 책을 덮고 탄식하면서 말하되, “俗學은 微賤하고 固陋하여 世緣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니, 어찌 불교의 無漏學說을 배우는 것만 같겠는가!” 하고 곧 김천 黃獄山의 直指寺로 가서 信默和尚을 은사로 하여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다.

처음부터 禪典中 景德傳燈錄을 열람하다가 얼마되지 않아 이미 오묘한 宗旨를 깨달았으므로 여러 老宿들이 모두 찾아와서 배우고 質問하였다. 辛酉年에 禪科에 합격한 후부터 스님의 華麗한 所聞이 점차로 높아지자 一時의 學士·大夫·詩人인 朴思 菴·李驚溪·高霽峰·崔嘉運·許美叔·林子順·李益之 등의 학자들이 모두 스님과 깊은 交驩을 가지면서 詩와 文翰을 唱和함으로써 詞林人들에게 널리 전파되어 美談이 되었다.

일찍이 荷谷과 더불어 韓愈(退之)의 文章中 가장 많은 鉅篇을 골라 외우기 내기를 하였는데 스님은 한 번 읽고 완전하게 暗誦하였으므로 荷谷은 감탄하면서 곧 바로 手寫本을 전해 주었다.

奇高峰이 격려하되 “만약 이 재주만 믿어 自足하면 학문이 반드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이며 세월을 虛費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의 功勞를 그르칠 것이니 可惜하다.” 고 하였다. 스님은 이 말을 듣고 정신을 가다듬고 엄숙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연마하고 조금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四子書를 蘇齋相에게서 수학하였고, 또 李白과 杜甫의 詩도 배웠다. 이로부터 文章이 날마다 더욱 進趣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內典의 千函도 또한 모두 섭렵하였으니, 方袍를 입은 스님으로서 쓰墳을 익힌

강주들이 스님이 있는 山門으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乙亥年에는 空門의 衆望을 받아 禪宗寺刹의 주지 추천을 받았으나, 굳게 사양하고, 錫杖을 짊고떠나 妙香山으로 들어가서 비로소 淸虛座下에서 법문을 청하였다.

서산스님은 心地法門을 제시하여 바로 性宗의 道理를 傳授하므로 스님은 청허의 言下에 大悟하고 곧 言語文字인 群言을 모두 쓸어버리고 閑翫도 함께 끊어버렸다.

從來에 詞家들과 교류하여 遊戲하면서 綺言妙句로 말 잔치를 벌리던 모든 것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정리하고 安心과 定性에 뜻을 집중하여 3년 동안 苦行精進하여 正法의 골수를 얻었다. 戊寅年에 이르러 청허스님을 하직하고 楓岳山으로 가서 報德寺에서 3년간 정진한 후, 남쪽으로 발길을 돌려 八公山, 淸涼山, 太白山 등을 두루 순례하였다.

丙戌年 봄 음성 沃川山 上東菴에 이르러 잠시 머무는 동안, 어느 날 밤 폭우가 내려 뜰 앞에 피었던 꽃이 모두 떨어졌다. 이를 본 스님은 문득 無常을 깨닫고 門人들을 모아 놓고 이르기를 “어제 활짝 피어 정원에 가득 하였던 꽃 가지가 오늘은 쓸쓸한 빈 가지뿐이니, 人間 世上의 變滅함도 또한 이와 다를 바 없건마는, 허무한 人生이 마치 蜉蝣와 같은 데도 세월을 虛送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련한 일이어닐 수 없다.

너희들은 각각 신비한 自性を 具足하고 있거늘, 어찌 이를 다시 찾아 生死大事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가? 부처는 나의 마음속에 있거늘 어찌하여 마음 밖으로만 달려가 추구하여 세월만 보내고 있는가?” 라 하고, 곧 문도를 四方으로 흩어 보내고는 홀로 禪室에 들어가서 가부좌를 맺고 默言하면서 골똘히 精進하였다.

간혹 10여 일씩 문 밖으로 나오지 않으므로 문 구멍으로 엿보면 오뚱하게 앉아 있어 마치 흙으로 빚어 놓은 사람과 같았다. 己丑年에 강원도 卞昌郡 五臺山靈鑑蘭若에 머물고 있었는데, 鄭汝立의 逆謀 사건에 연루되어 江陵府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儒士들이 그 억울함을 官에 호소하여 풀려났다. 庚寅年에는 楓岳山으로 가서 3년간 住錫하였다.

壬辰年 여름에는 倭賊이 嶺東으로 침입하여 유점사에까지 이르렀다. 그 때 어떤 사람이 “우리 나라 사람이 왜적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스님이 말씀하되 “만약 倭賊뿐이라면 설득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혹시 우리 나라 사람이 案内를 하고 있다면 또한 筆談으로 이해를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10여 명의 문도를 거느리고 곧 유점사 山門으로 들어갔다.

문도들은 모두 결박을 당하였으나, 오직 스님만은 泰然한 자세로 당당하게 一柱門·中門을 거쳐 中堂인 큰 법당에 이르렀다. 이 때 倭將의 頭目이 스님을 보고 非常한 人物인 줄 알고 賓主의 禮儀로써 공경히 접대하고 결박했던 모든 스님들을 풀어 주었다.

스님께서 글로써(筆談) 주고 받으면서 法門을 들려 주었더니, 모든 倭寇들이 敬服하고 산중의 깊고 고요한 곳으로 보내드렸다. 스님께서 門徒들에게 이르시되, “如來께서 出世하신 본 뜻은 중생을 救護하기 위함인데, 이 倭賊들이 앞으로 횡포가 심하여져서 우리 백성들을 殘害할까 염려되니, 내가 마땅히 그들을 찾아가 狂賊들을 說諭하여 흉악한 무기를 버리게 한다면 아마 부처님의 慈悲한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라 하고, 곧 바로 육환장을 짊고 高城으로 들어가니 賊將 3인이 함께 禮遇를 지극히 하였다.

스님께서 글을 써서 그들에게 절대로 殺生하기를 즐겨하지 말 것을 권하니, 세 장수가 모두 歛掌하고 꿇어 앉아 戒를 받았다. 3일 동안 그들의 營內에 머물면서 供養을 받고 떠날 때, 倭將들이 高城 문 밖까지 나와서 祖宴(錢別)을 베풀어 주었다. 당시 高城·杆城 등 九個郡의 백성들이 모두 虔劉의 殘酷을 면하게 된 것은 대개 스님의 덕택이었다.

1592년 4월 마침내 宣祖大王이 한양을 내어주고 義州를 向하여 떠날 때, 비분 강개하여 모든 스님들에게 이르되, “우리들이 나라 땅에 살면서 편안히 먹고 자고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秋毫만한 작은 것도 모두 임금의 恩惠가 아닌 것이 없다.

이와 같이 어렵고 위태한 國難을 당하여, 그 어찌 앉아서만 바라볼 수

있겠는가?” 하고, 곧 數百名의 스님을 모아 火急히 順安 法興寺로 달려가니, 이미 각지에서 물려온 數千名의 義僧兵이 모여 있었다.

이 때 淸虛스님은 朝廷으로부터 摠攝諸道僧兵이라는 직책을 받았으나, 스님께서는 自身이 年老하여 氣力이 衰耗하다는 이유로 代身 사명스님을 추천하였다. 그리하여 드디어 사명스님은 義僧兵인 대중을 통솔하고 體察使 柳成龍을 따라 明나라로부터 온 應元군의 總司令官 劉挺을 도왔다.

그 다음 해인 1593년 1월에 平壤을 탈환하고, 倭將인 小西行長을 몰아냈다. 그 후 都元帥 權慄을 따라 嶺南으로 내려가 宜寧에 주둔하면서 적을 죽이고 生捕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 선조 임금은 이를 嘉賞히 여겨 堂上官의 官階를 내렸다.

甲午年 봄 總司令官인 劉挺의 命으로 스님은 釜山鎮營인 蔚山 西生浦로 세 번 찾아가서 倭將 加藤淸正을 만나 대화하면서 敵情의 자세한 內容을 파악하였다. 이 때 淸正이 탐욕스러운 눈으로 “朝鮮에 貴重한 보물이 있는나?” 고 물었다. 스님은 소리를 높여 대답하되 “우리 나라에는 보배가 없고, 귀한 보물은 日本에 있다.” 고 하였다.

청정이 “무슨 말입니까?” 라 하자 스님이 말씀하되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당신의 머리를 가장 귀한 보물로 보고 모두 노리고 있으므로 보배가 日本에 있다고 한것입니다.” 라 하였다. 이 말을 들은 淸正이 깜짝 놀라면서 스님의 法力과 愛國精神에 감탄하였다.

선조 임금께서 스님을 궁중으로 초빙하여 자세하게 平生에 대한 일을 묻고는 下敎하여 이르되, “옛날 元나라의 劉秉忠과 明나라의 姚廣孝는 모두 山人인 스님의 신분이었으나, 나라에 큰 功勳을 세웠으므로 그 이름이 後世에까지 널리 流布되었습니다.

지금 國勢가 이와 같이 어려운 형편이니 스님이 만약 下山하여 머리를 기른다면 마땅히 百畞의 食邑을 주는 한편 三軍의 統帥權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스님은 감히 굳게 사양하고 물러났다.

宣祖가 무기고에 보관된 鎧仗을 스님께 주었으므로 스님은 嶺南으로 돌아와서 남아 있는 倭賊을 抄擊하고, 龍起·八公·金鳥 등 여러 山城을 높

고 굳게 쌓고, 그 山城의 要所마다 鎭地를 구축하고는 각각 藩鎭을 修飾하여 마친 후, 印綏와 戰馬를 왕에게 되돌려 보내고 尺籍을 정리하여 備邊司에 보내고는 장서를 올려 한가롭게 수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朝廷에서는 간곡히 만류하고 許諾하지 않았다.

丁酉年 겨울 명나라에서 원군으로 온 提督 麻貴를 따라 島山 陣地에 들어갔고, 戊戌年에는 또 提督 劉挺을 따라 曳橋 陣地에 들어가서 모두 큰 공을 세웠는데, 前後에 걸쳐 軍糧을 준비하여 먹인 것이 무려 4천여 섬이고, 武器와 갑옷의 수도 한량이 없었다. 임금께서 크게 嘉賞하게 여기시고 종2품 嘉善大夫로 特進하고 同知中樞府事를 제수하였다.

辛丑年에 釜山城을 수축하고는 內隱山으로 돌아갔으며, 癸卯年에는 王命을 받고 서울로 올라갔다. 甲辰年 가을에는 國書를 받들고 日本으로 건너갔다. 그 때 모든 倭人들이 서로 “이 스님이 머리가 보배라는 얘기를 한 和尚이나” 면서 수군거렸다.

對馬島에서부터 서울인 大阪에 이르니 모든 總帥들이 함께 信受를 約束하고는 마치 塵尾를 따르듯 隨從하여 스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였다. 스님이 자상하게 일러주니 모두 頂禮하고 生佛이라고 칭송하였다.

이어 德川家康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지금 兩國 백성이 도탄에 빠진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내가 이들을 救濟하기 위하여 왔다.” 라고 말하였다. 家康도 또한 佛教를 믿는 信者였으므로 스님의 말씀을 듣고 信心을 發하여 마치 부처님과 같이 공경하였다.

순조롭게 講和를 성취시키고 歸國하는 길에 男女 포로 1,500명을 인수받아 스스로 양식을 구하여 먹이면서 바다를 건너 돌아왔다. 乙巳年에 임금께 復命하였다. 왕은 크게 가상하게 여겨 그 功勞를 위로하고 嘉義大夫의 官階를 더해주고 御馬와 紵絲를 하사하여 포창하고 장려하였다.

이 때는 이미 淸虛스님이 入寂한 후였으므로 스님은 곧 그 길로 妙香山으로 가서 淸虛의 영정과 사리탑에 예배하고 普賢寺에서 守制하였다. 丙午年 봄에는 營繕軍을 거느리고 法宮의 役事에 나아가 三清洞에 茅屋을 짓고 거주하였다. 丁未年 가을 允許를 받고 雉岳山으로 돌아갔다. 戊申年 宣祖

대포이 승하하였다는 諱音을 듣고 서울로 올라가 拜哭한 후 병이 생겨 매우 고통을 받았다.

지금의 임금(光海君)께서 스님으로 하여금 西道の 邊方으로 가서 胡僥을 방비하게 하려고 하였다. 스님은 받아들이지 않고 伽耶山 해인사로 들어가 병을 치료하면서 요양하였는데, 광해군이 여러 차례 御藥을 보냈다. 庚戌年 가을에 왕이 크게 염려하여 스님을 서울로 모시고 와서 치료를 받게 하려고 方伯으로 하여금 火急히 보내게 하였다. 그 해 8월 26일 스님은 문도와 많은 大衆을 모아놓고 말씀하시기를 “四大肉身은 본시 假舍한 것이다.

나는 머지 않아 眞如의 世界로 돌아가려 하거늘, 어찌 屑屑하게 왔다 갔다하면서 허망한 몸뚱이를 괴롭힐 必要가 있겠는가! 나는 곧 入滅하여 大化를 따를 것이다.” 라 하고는 드디어 跏趺坐를 맺고 단정히 앉아 조용히 入寂하였다.

11월 20일에 문도들이 스님의 法軀를 모시고 해인사의 서쪽 산 기슭에서 화장하니 祥瑞로운 광명이 하늘을 찔렀고, 날아가던 새들도 슬피 울었다. 화장이 끝난 후, 位牌를 모시고 갔던 侍輦의 앞 부분에서 頂珠一顆를 얻어 石鐘을 다듬어 安藏하고 牽堵坡를 세웠다.

스님의 속성은 任氏니 豊川の 명망이 높은 집안이다. 曾大父는 孝昆이니 文科에 급제하여 掌樂院正과 大丘守長 등을 역임하고, 密陽으로 이사하였다. 그 곳에서 幼學인 宗元을 낳았고, 宗元은 校生인 守成을 출생하였다.

守成은 達成 徐氏와 결혼하여 嘉靖 甲辰年 10월 17일에 스님을 낳았다. 스님의 세수는 67세요, 법랍은 55夏였다. 私諡를 慈通弘濟尊者라고 하였다. 스님은 젊은 시절에 著述한 바가 매우 많아서, 仲氏인 荷谷의 처소에 보관되어 있었으나, 兵火로 모두 소실되고 말았다.

門人이 그 傳誦한 것을 함께 모아 7권으로 엮어서 傳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곧 『四溟大師文集』이다. 이는 사람들은 스님의 淸瞻함을 상찬하여 이르기를 “오호라! 스님의 生涯는 倭擾한 시대에 태어나 戎馬가핍박하여 국가가 強賊과 대적해 싸우는 亂時를 당하였으므로 法室을 宣揚하여 미혹한 중생의 번뇌를 털어 없애주고, 씻어주는 일을 제대로 할 겨를이 없었다.”

고 하였다.

스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명스님이 중생으로 하여금 迷津인 此岸에서 彼岸으로 건네주는 일을 등한히 하였고, 區區하게 나라를 위하는 일에만 급급하였다고 비판하지만, 그들이 어찌 나라를 침범한 惡魔를 죽이고, 國難을 구제하는 것이 곧 불교의 한량없는 功德을 짓는 일인 줄 알 수 있겠는가!

유마거사의 無言이 바로 不二法門에 들어가는 것이어늘, 어찌 요란스럽게 말로 訓導할 필요가 있으랴! 不佞이 비록 儒家에 속하는 무리이지만, 서로 형님 아우라고 호칭하는 친한 사이로 누구보다 스님을 깊이 알고 있다.

시험삼아 世人들에게 질문하는 바이니, 牧牛와 江月의 道脉을 계승한 분으로는 우리 스님을 除外하고 그 누가 또 있겠는가! 생각건대 後輩中에 반드시 분명하게 分辨할 자가 있을 것이다. 銘을 읊어 이르되,

이 世上에 가장 높은 부처님께서 印度에서 成道하사 教主되시다.
모든 煩惱 사라지온 淸淨한 涅槃 以心傳心 전해오는 그 法燈이여!
漢明帝 때 중국으로 전하여 왔고 獸林王 때 三韓으로 傳來되었다.
永明까지 이어오던 그 法統이여! 江月만이 그 密旨를 傳해 받았네!
懶翁王師 法을 받은 法孫中에는 西山大師 그의 法統 最先이시다.
赫赫하온 그 햇불이 아침에 밝고 朗朗하온 그 智慧는 밤에 비추다.
많고많은 西山大師 弟子中에는 너무나 그 數ぞ를 헤일 수 없네!
그렇지만 그 중에는 鍾峰이 으뜸 苦海衆生 건지느라 겨를이 없네!
偉大하온 鍾峰스님 엄격한 教訓 限量없는 衆生들을 제도하였고
모든 善行 닦고닦아 規範이 되어 世上일엔 물안들어 연꽃같도다.
모든 活動 푹푹 말아 修行할 적엔 헤어진 옷 三衣一鉢 그것뿐이고
나라 위해 분연하게 일어날 때는 여러 가지 器仗들이 羅列되도다.
惡魔들을 물리치고 백성을 구제 빼앗겼던 祖國江土 되찾은 功勳
獸袍金章 받은 것이 榮光이지만 스님께선 浮雲처럼 돌보지 않다.
茫茫하온 苦海中에 헤매는 衆生 동쪽 나라 오랑캐가 侵犯해 왔네!

偉大하신 우리 스님 慈航을 띄워 塗炭中에 빠진 民族 구제하였네!
 스님 道德 欽慕하여 一見을 願해 목마른이 물을 찾듯 모여든 佛子
 合掌하고 꿇어앉아 誓願을 하되 王의 政策 널리 闡明 忠情을 펴다.
 八年風塵 임진왜란 모두 끝나니 山中으로 돌아갈 맘 더욱急하네!
 몸과 마음 放下하고 精進에 沒頭 남은 餘生 虛送않고 頤養하시다!
 法宮建立 감독맡아 現地로 떠나 工事中에 병을 얻어 물러나와서
 환경 좋고 任意로운 절을 찾아가 편안하게 쉬시면서 靜養하였다.
 古稀世壽 앞에 두곤 大化를 豫告 많은 大衆 모아놓고 禪法에 置重
 端正하게 跏趺맞고 入寂하시니 人天大衆 구름같이 몰려들었네!
 檀特山이 무너지고 天地가 震動 尼連江물 말라지고 日月은 無色
 부처님의 白毫相도 빛을 잃었고 거룩하신 三十二相 無色하시다.
 生과 滅이 사라지면 寂滅한 涅槃 중생들은 우매하여 눈물 흘리네!
 德이 높은 많은 스님 함께 모여서 願을 세워 四方으로 募金하였네!
 塔과 碑를 세우므로 크고도 넓은 부처님과 스승 恩惠 모두 갚고자
 虹流언덕 弘濟옆에 塔碑세우니 影幀上과 塔中에서 放光하도다!
 넓고 깊은 忠情으로 나라를 위해 未來劫이 다하도록 우뚝 서있어
 籍籍하온 그 稱頌이 끊임이 없어 石藏碑에 담고 있는 그 願力이여!
 迦葉尊者 多子塔서 微笑를 짓고 維摩居士 毗耶離서 杜口로 說法
 苦口叮嚀 설법하여 訓導를 하나 句節句節 그 모두가 蹄筌인 것을
 一切煩惱 사라진 후 無諍三昧는 權實頓漸 自在無碍 원융하도다.
 밝고 밝은 日月같이 變함이 없어 千萬年이 지나가도 길이 빛나리!
 光해4(1612)년 12월 일에 세우다.

※陰記(後面)는 名單뿐이므로 譯註를 省略한다.

2) 해인사묘길상탑지(海印寺妙吉祥塔誌)

海印寺妙吉祥塔記 崔致遠撰 唐十九帝 中興之際 兵凶二災 西 歇東來 惡中
 惡者 無處無也. 餓殍戰骸 原野星排 粵有海印寺別大德僧訓 盡傷痛于是 乃
 用施導師之力 誘狂衆之心 各捨茅實一科共成珉甃三級 其願輪之戒道也大較

以護國爲先 就是中 特用拯拔 寬橫沈淪之魂識 禱祭受福 不朽在茲 時乾寧二年申月旣望記 大匠 僧蘭交

(陰)寧二卯年相月 雲陽臺 吉祥塔記 石塔三層 都高一丈三尺 都費 黃金三分 水銀十一分 銅五鎰 鐵二百六十秤 炭八十石 作造料并租百廿石 匠士 僧蘭交 僧清裕 副 居弗 堅相 具祖 勾當維那 僧性幽 僧忍淨 乞士釋宜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gsm.nricp.go.kr)]

해인사(海印寺) 묘길상탑지(妙吉祥塔誌)

최치원(崔致遠) 지음

당(唐)나라 19대왕 소종(昭宗)이 중흥(中興)을 이룰 때 전쟁과 흉년의 두 재앙이 서쪽에서 멈추어 동쪽에 와서, 나쁜 중에 더욱 나쁜 것이 없는 곳이 없었고 굶어 죽고 싸우다 죽은 시체가 들판에 즐비하였다.

해인사(海印寺)의 별대덕(別大德)인 승훈(僧訓)이 이를 애통해 하더니 이에 도사(導師)의 힘을 베풀어 미혹한 무리들의 마음을 이끌어 각자 벼 한 줌을 내게 하여 함께 옥돌로 삼층을 쌓았다.

그 발원 법륜의 계도(戒道)는 크게 보아 호국을 으뜸으로 삼으니, 이 중에서 특별히 억울하게 죽어 고히(苦海)에 빠진 영혼을 구해 올려 제사를 지내서 복을 받음이 영원히 그치지 않고 이에 있도록 함이다.

때는 신라 진성여왕9(895)년 2년 7월 16일에 적는다.

대장(大匠)은 승 난교(蘭交)이다.

(陰記)

진성여왕9(895)년 7월의 운양대(雲陽臺) 길상탑기(吉祥塔記)

석탑은 3층으로 전체 높이가 1장 3척이다. 전체 비용은 황금 3푼과 수는 11푼과 구리 5정과 철 260칭과 숯 80섬이다.

만든 비용이 모두 조(租) 120섬이다. 장사(匠士)는 승 난교(蘭交)와 승 청유(淸裕)이고, 부장사(副匠士)는 거불(居弗)과 견상(堅相)과 구조(具祖)이다. 담당 유나(維那)는 승 성유(性幽)와 승 인정(忍淨)과 비구 석의(釋宜)이다.

3) 해인사호국삼보전망치소옥자(海印寺護國三寶戰亡緇素玉字)

海印寺 護國三寶戰亡緇素玉字 乾寧 濁世於海印寺 護國三寶 戰亡緇 素玉字
列之左右 判萱 芮嚴 憶惠 僧必 圭吉 鳳鶴 芮弘 東英 心用 回久 名宗 忍券
永侶 安柔 平宗 言會 正永 息達 平達 堅必 開角 俊乂 帝光 通正 到堅 今
善 珍居 希幸 安相 宗乂 旬宗 息休 券湛 平吉 才賢 緊丁 昕海 戈如 今吉
開云 心海 利垢 安心 布弥達 其名 息善 息永 式然 弘吉 文永 小哀 阿祖
能信 萱吉 允言 其悅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gsm.nricp.go.kr)]

해인사에서 나라와 삼보(三寶)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돌아간 승려와 속인의 이름.

신라 진성여왕 때 해인사에서 난리가 일어나 나라와 삼보를 지키고자 싸
우다 돌아간 승려와 속인들의 아름다운 이름을 좌우에 쓴다.

판환 예엄 역혜 승필 규길 봉학 예홍 동영 심용 회구 명종 인권 영암 안
유 평종 언회 정영 총달 평달 견필 개각 준예 제과 통정 도견 금선 진거
희행 안상 종예 순종 총휴 권잠 평길 재현 긴정 흔해 과여 금길 개운 심해
이구 안심 포미달 기명 총선 총영 식연 흥길 문영 소애 아조 능신 환길 윤
언 기열

4) 해인사옥등(海印寺玉灯)

特爲聖壽天長之願先考妣生淨土弟子無諸難厄終生淨土法界生亡共悟無生造」
成大玉灯一箇懸于海印寺 至元十年三月日尚州牧 李淑立」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gsm.nricp.go.kr)]

해인사 옥등

특별히 임금님의 만수무강[聖壽天長]을 위하여 발원하면서, 선고(先考)와
선비(先妣)가 정토(淨土)에 태어나고, 제자(弟子)가 여러 재액 없이, 마침내
정토에 태어나고, 법계(法界)의 죽고 산 모든 이들이 함께 무생(無生)을 깨
달기를 발원하면서 큰 옥등(玉灯) 1개를 조성(造成)하여, 해인사(海印寺)에

매달았다.

고려 원종14(1273)년 3월 일. 상주목사(尙州牧使) 이숙(李淑)이 세웠다.

5) 해인사복고사적비(海印寺復古事蹟碑)

海印寺事蹟碑

有明朝鮮國嶺右陝川海印寺復古事蹟碑銘并序

陝川郡北距八十里 有伽倻山海印寺 新羅哀莊時名僧順應所建也 高麗文宗時藏大藏板我惠莊大王 戊寅歲重修板閣 又印其經文焉 寺之重非他刹所比 及至聖上十九年 癸亥大砌以下數百間 盡火伊時觀察使金公尙星氏 捐貲出計以復之 越二十一載 癸未又如前火 公之堂弟尙喆氏時亦按道 其捨財設畫倍於前而復之 之易有如一草店 蓋以先王寶蹟之所藏 而兩癸之季金氏二伯之來 豈有數存於其間耶 天必遣二公使之先後也 書之至此 莫得而稱矣 至於山之奇寺之勝 則曹梅溪之記已悉焉 今闕之銘曰

山門保靖實由國恩願此尺碣與天長存

崇禎紀元後三己丑六月 日立 雲客有璣 撰, 申夢駿 書并篆

王妣殿下壽齊年 主上殿下壽萬歲 世子邸下壽千秋

桂坡聖能造武陵橋伐石紀功爲念未豎而入寂今於事蹟碑用之

都監 通照審, 別 通致演, 片 判建榮, 片 通典益, 刻 品官 品軒 永元 願性, 冶 金次同.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gsm.nricp.go.kr)]

해인사 사적비

조선국 영우합천 해인사 복고(復古) 사적비명(史蹟碑銘) 병서(并序)

합천군(陝川郡)의 북쪽 80리(里)되는 곳에 가야산(伽倻山) 해인사(海印寺)가 있는데, 이는 신라(新羅) 애장왕(哀莊王) 때 승려(僧侶) 순응(順應)이 세운 것이다.

고려(高麗) 문종(文宗) 때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 판(板)을 그곳에 보관하였는데, 우리 혜장대왕(惠莊大王 세조)께서 세조4(1458)년에 판각(板閣)을 중수(重修)하고 또 그 경문(經文)을 인쇄하였으니, 그 사찰(寺刹)의 중요성은 다른 사찰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성상(聖上)이 즉위(卽位)한 지 19년째인 영조19(1743)년에 섬돌 이하 수백 칸이 모두 불에 타버렸다. 그 당시의 관찰사(觀察使) 김상성(金尙星)이 재물을 내어 도와주고 계획을 세워서 복구하였다. 그 뒤로 21년이 지난 영조39(1763)년에 또 전처럼 불이 났다.

공의 당제(堂弟)인 김상철(金尙喆)이 당시에 또한 관찰사로 있었다. 그가 재물을 내어 도와주고 계획을 세워서 전보다 규모는 배가 되었으나 용이하게 복구하기는 마치 초가집 한 채를 짓는 것과 같이 하였다.

대체로 선왕(先王)의 보적(寶蹟)을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써 두 번의 계년(癸年 계해년과 계미년)에 두 김씨(金氏)의 도백(道伯)이 부임(赴任)한 것은 어찌면 그 사이에 운수(運數)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는 하늘이 필시 두 공(公)을 보내어 앞뒤로 부임하게 한 것일 것이다. 여기까지 쓰고 보니 더 이상 일컬을 수가 없다.

산의 기이한 형세와 절의 빼어난 형세에 대해서는 조매계(曹梅溪 조위(曹偉))의 기록에 모두 자세하므로 이제 기록을 생략한다.

다음과 같이 명(銘)한다.

산문(山門)이 편안함을 유지하는 것은 시로 나라의 은덕(恩德)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이 짧은 비갈(碑碣)이 하늘과 함께 영원히 보존되기를 바라노라.

영조45(1769)년 6월 일 세우다.

운객(雲客) 유기(有璣)는 비문(碑文)을 짓다.

신몽준(申夢駿)은 글씨를 쓰고 전서(篆書)를 쓰다.

왕비전하(王妃殿下)는 해와 같이 장수(長壽)하소서!

주상전하(主上殿下)는 만세(萬歲)토록 장수하소서!

세자저하(世子邸下)는 천세(千歲)토록 장수하소서!

계파(桂坡), 성능(聖能), 조무(造武), 능교(陵橋)가 돌을 채취(採取)하고 공(功)을 기록해서 기념(紀念)을 하려다가 세우지 못하고 입적(入寂)하였는데, 이제 사적비(事蹟碑)를 세우는데 사용하였다.

도감통(都監通) 조심(照審), 별통(別通) 치연(致演),

편판(片判) 건영(建榮), 편통(片通) 전익(典益)
각(刻) 품관(品官), 품헌(品軒), 영원(永元), 원성(願性)
치(治) 김차동(金次同)

4.6 기 타(其 他)

1) 신라가야산해인사선안주원벽기 (新羅迦耶山海印寺善安住院壁記)

[內供奉兼翰林學士承務郎前兵部侍郎權知瑞書監事賜紫金魚袋崔致遠撰]

王制。東方曰夷。范曄云。夷者抵也。言仁也而好生。萬物抵地而出。故天性柔順。易以道御。愚也謂夷。訓齊平易。言教濟化之方。按尔雅云。東至日所出爲大平。大平之人仁。尚書曰。命羲仲。宅嵎夷。曰暘谷。平秩東作。故我大王之國也。日昇月盛。水順風和。豈唯幽蟄振蘇。抑亦勾萌鬯懋生化。生化出震爲基。加復姬詩。舉西顧之言。釋祖始東行之步。宜乎九種。勉以三歸。地之使然。天所假也。儒行篇曰。上不臣天子。下不事諸侯。慎靜尚寬。博學知服。雖分國如錙銖。不臣不仕。其規爲有如此者。則大易之不事王侯。高尚其事。幽人貞吉。其履道乎。幽人何謂梵子。僅是援儒譬釋。視古猶今。偉矣哉。天所貴者人。人所宗者道。人能弘道。道不遠人。故道或尊焉。人自貴矣。能助道者。惟崇德歟。然則道之尊 德之貴。睠惟法首。方洽物情。必也正名。乃稱大德。是由道強名大德成而上。禮稱得位得名得壽。則敦化之說。將非是歟。東倭峻塔。義取窺豹。試稽所根。則有梁童子學士。著荆楚歲時記云。昔吳主孫權病篤。道士葛玄往看之。權家人聞空宁語曰。既有大德道士。宜爲啓申。遂差大德之目。或記于茲。後譯葉書。廣編花偈。如大德舍利弗輩瑩瑩然者 斑有焉。且三界大師付囑尊法于邦君國宰。有深旨哉。其故何耶。化俗所資。尊賢是務。意圖馴虎。事甚好龍。故有國者。欲俾業熾傳燈。光踰銜燭。爰崇淨號。或表奇林。昔我善德女君。宛若吉祥聖化。誕膺東后。景仰西方。時有觀光比丘。曰智穎。曰乘固。去探赤水。來耀青丘。於是寵彼上乘。擢爲大德。自爾厥後。寔繁有徒。五岳群英。竟勵爲山之志。四海釋種。能均入海之名。曰瑜伽。曰驃訶健拏。曰毗柰耶。曰毗婆

沙。復有彩混楚禽。號齊周璞者。或推懺誦。或採摠持。或舉華儕。或躋苦節。斯皆假王給之所擢。舉重金牌。俾帝網之相含。光融玉刹。舉之若取火於燧。用之猶度木於山。覲使粉躬。終無犯齒。遂制過衛瑗知非之歲。時滿魯丘學易之年。始許遷喬。終期七稔。其或業敦時敏。德協老成。則令禰鶚獨飛。蓋獎宋鷄奇辯。仍加別字。用慶後生。故幼學十成。謂優曇一現。就是方廣相應二宗也。靜則粹山王之氣。動則儼海會之雄。譬夫翔空九苞。蹠實一角。代上猶价逢化佛。鬻中若虔奉嚴君。衆旣肘趨。事皆頤指。然咸能潔己。罕見驕人。寔所謂高而不危。威而不猛者余。抑又學之能講。言必可師。觀其鯨杵騰雷。鵲爐飛靄。仰三尊而有裕。顧四衆以無諱。窟現象王。緩舉象王之步。座升師子。高揚師子之音。天口籠雲。海脣鼓浪。旣比神錐鬪銳。實同明鏡忘疲。有問必酬。無疑不剖。或能折角。奚翅解頤。俾遮著者失儀。寄載者知返。每游刃而無畏。欲藏鋒而莫能。誰言虐我則讎。允協當仁不讓。誘人也俗以之悟。護國也道以之興。經云。受持萬偈經。不如一句義。猶信後發前至。其惟是山。何則。有若祖師順應大德。効成覲於神琳碩德。問老聃於大曆初年。託竅木以忘軀。尋住山而得髓。窮探教海。俊達禪河。洎遂言歸。光膺妙選。乃歎曰。人資琢玉。世貴藏金。旣含天地之靈。亦籍山川之秀。烏能擇木。吾盍誅茅。越貞元十八年良月旣望。牽率同志。卜築於斯。山靈鈞妙德之名。地體印清涼之勢。分裝五髻。競拔一毛。于時聖穆王太后。母儀四夷。子育三學。聞風敬悅。誓日歸依。捨以嘉蔬。副之束帛。是乃自天獲祐。實惟得地成因。然屬生徒方霧擁岵扉。耆德遽露晞林宇。利貞禪伯。踵武興功。依乎中庸。盡住持之美。取諸大壯。煥營構之奇。雲蠹霞舒。日新月改。自是伽耶勝境。雅符成道之基。海印殊珍。益耀連城之價。旣見玉林皆拔。寔同珠岸不枯。故得開薶則僅一百年。徵躬者盈四七德。以誦持同昇者五。由演暢別座者三。是皆行不浮于言。名克保于實。書曰。不矜細行。終累大德。競能敦化。詎欲踰閑。且嶽不辭塵。川能注海。可畏者如涌。並行者自沉。餬口雖資乎地財。鍊心唯貴乎天爵。旣仰止龍象。盍煥乎鳥蹤。遂志粉墉。聊光黛巘。庶使入室者堂基順法。負墻者壁觀宜機。如能敏則有功。自得歿而不朽。獲麟晉乘。其或在茲。希驥顏徒。云胡不勛。巨唐光化三禩天一泰齋臆

月霧日記。[東文選]

신라 가야산 해인사 선안주원벽기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동쪽을 이(夷)라 한다.” 하였고, 범엽(范曄)은, “이(夷)는 뿌리라는 뜻이다. 어질고 살리기를 좋아하는데 모든 물건은 땅에 뿌리를 박고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성이 유순하여 도리로 어리석은 사람을 인도하기가 쉽다. 이것은 이(夷)의 뜻을 평이(平易)와 같이 해석하여 교육과 감화하는 방법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또 이아(爾雅)에 보면, “동쪽으로 해뜨는 곳에 이르면 그곳이 대평(大平)이다. 대평의 사람은 어질다.” 하였고, 상서(尚書)에는, “희중(羲仲)에게 명하여 우이(嵎夷)에 자리 잡게 하였으니, 양곡(暘谷)이라는 곳이다. 농사짓는 일을 고르게 보살피라.”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대왕의 나라는 해와 달처럼 떠오르고 왕성하며 물은 순조롭고 바람은 온화하다. 어찌 다만 깊이 움츠렸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뿐이겠는가.

또한 새로운 싹이 무성히 뻗어나서 나서 자라니, 나서 자라는 것이 동쪽[震]을 터전으로 하는 것이다. 더구나 시경(詩經)에, “서쪽에서 돌아보았다.” 는 말을 제시하였고, 석가모니는, “처음 동쪽으로 걸어갔다.” 하였으며, 마땅히 동방의 종족이 노력하여 불법에 귀의할 것이다.

이것은 지역은 그렇게 되어 있고 하늘이 마련해 준 것이다. 예기 유행편(儒行篇)에 이르기를, “위로는 천자에게 신하 노릇도 않고, 아래로는 제후도 섬기지 아니한다. 삼가고 고요히 하여 너그러움을 숭상하며 널리 배우면서도 복종할 줄 안다.

비록 나라가 작게 나뉘어져 있지만 신하노릇이나 벼슬살이를 하지 않는다.” 하였다. 곧 주역에 이른, “왕후를 섬기지 않고 높이 자기의 일을 소중히 여긴다.” 는 것과 “숨어서 사는 사람은 바르게 살아서 길(古)하다.” 한 뜻이다.

숨어서 도를 행하는 사람이 어찌하여 중만을 가리키겠는가. 이것은 유학

의 말을 인용하여 불교에 비유한 것이니,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훌륭한 도이다. 하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이요, 사람이 존중히 여기는 것은 도이다.

사람이 도를 크게 발전시키는 것이요, 도는 사람과 떨어져 있지 않다. 도가 만일 높아진다면 사람은 저절로 귀하게 되는데, 도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덕을 높이는 것이니, 곧 도를 높이며 덕을 귀히 여기는 것이 오직 법의 첫머리이다.

그러면 비로소 사물의 흐름에 맞게 된다. 반드시 이름을 바로잡아야 큰 덕이라 이르는 것이니, 이것은 도가 강하며 이름이 크고 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예기》에, “지위와 명예와, 수(壽)를 얻는다.” 하였으니, 곧 교화라는 말이 이것이 아니겠는가.

동왜(東倭)의 준계(峻楷)는 그 일부분의 의의를 취하였을 뿐이요, 근거있는 것을 상고하여 본다면, 양(梁)의 동자학사(童子學士)가 지은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이르기를, “옛적에 오(吳)의 임금 손권(孫權)이 병이 위독했을 때 도사 갈현(葛玄)이 그를 가서 보았는데, 손권의 집안사람이 들으니 공중에서 말소리가 나기를, ‘이미 대덕도사(大德道士)가 있으니 보고하여 올리라.’ 하였으므로, 마침내 대덕(太德)의 명목을 내세웠다.” 고 기록하였다.

뒤에 불경을 번역하며 계송(偈頌)을 엮어서 대덕과 사리불(舍利弗)의 무리로서 두드러진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삼계대사(三界大師)가 나라의 임금과 대신에게 불법을 높일 것을 부탁한 것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로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풍속을 감화시키는 데에 필요한 것은 어진 이를 높임에 힘쓰는 것이다. 사나운 범을 길들이기란 용을 사랑하기보다 더 어렵다.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의 일은 불법을 전수하는 것보다 더 치열하며, 빛은 촛불을 든 것보다 더 밝도록 하려 한다.

마침내 깨끗한 이름을 높이며 빼어난 점을 드러낸다. 옛적에 우리 선덕여왕(善德女王)은 완연히 길상(吉祥)의 화신(化身)인 듯 하시어 동방의 임금으로 계시면서 서방의 불교를 크게 사모하였다.

이 때에 관광하다 온 비구(比丘)로는 지영(智穎)·승고(乘固)라는 이가 있었는데, 중국에 가서 배워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를 빛내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높은 도를 총애하시어 뽑아 올려서 대덕(大德)을 삼았다.

이 때부터 그 무리들이 늘어나서 오악(五岳)의 모든 수재들은 성공하려는 목표에 힘쓰고, 천하의 불교도들은 모두 바다에 들어갔다는 이름을 함께 하였다. 유가(瑜伽)·표하건나(驃詞健拏)·비나야(毗奈耶)·비바사(毗婆沙)가 있고, 또 채혼초금(彩混楚禽)과 호제주박(號齊周璞) 같은 이들도 있다.

이들은 송(誦)으로 추천하기도 하고, 총지(總持)로 채용하기도 하며, 화려한 무리로 등용하고, 고생한 절조에 보답하였다. 이들은 모두 임금에 의하여 선발되었는데, 무거운 금패(金牌)를 들었으며, 임금의 그물에 걸려 들어온 것과 같아서 빛은 옥찰(玉劔)에 융합된다.

이들을 등용함은 부싯돌에서 불을 얻은 것과 같으며 그를 쓰는 것은 산에서 나무를 고르는 것과 같았다. 몸을 희생할 것을 바라고 끝까지 연령의 규정을 범하는 일이 없었다.

드디어 위원(衛瑗)이 잘못을 깨달았다는 해를 넘고 공자가 주역을 배웠다는 나이가 된 사람이어야 비로써 이 자리에 앉히기를 허락하며, 마침내 7년으로 기한을 정했다.

그 공부가 독실하고 민첩하며, 덕이 노성(老成)하게 된 사람은, 뛰어난 사람을 특별히 대우하고 기이한 변화를 권장한다는 뜻에서 칭호를 붙여주어 후배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어려서 공부를 십분 성취하면 우담화(優曇華)가 한번 나타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방광(方廣)과 상응(相應)의 두가지의 종파(宗派)다. 고요히 있으면 순수한 산왕의 기세요, 움직이면 우람한 해회(海會)의 웅장함이라. 비유하면 하늘을 나는 봉이요, 땅으로 달아나는 기린이라. 절에서는 화신(化身)한 부처님을 반갑게 만난 것과 같으며, 학교 안은 엄하신 아버지를 경건히 받드는 것과 같다.

모든 사람이 이미 팔을 저어 쫓아오면 매사를 모두 턱으로 지시한다. 그러나 언제나 자기의 몸을 깨끗이 가지며 남에게 교만은 부리지 않는다. 이

것은 이른바, ‘높은데 있어도 위태롭지 아니하며 위엄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은 것’ 이 아니겠는가. 또한 공부한 것을 능히 강설할 수 있으면, 말하는 것을 반드시 스승으로 삼을 것이다.

절구 소리가 우레처럼 일어나며 화로 위에서 안개가 날리는 것을 보고, 삼존(三尊)을 우러러 보는 여유를 가지고 대중을 본다면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는다.

굴에서 코끼리가 나타나 뚜벅 뚜벅 코끼리의 걸음 떼어 놓으며, 좌석에 사자가 올라앉아 높이 사자의 소리를 외치면, 하늘 문에 구름이 가리고 바다 어귀에는 물결이 소리친다.

이미 신령한 송곳이 날카로움을 겨루는 것에 견주어 실상 거울을 보고 피로를 잇는 것과 같다. 물으면 반드시 대답하여 의문 나는 것을 풀어 주지 않음이 없다.

거만하던 자가 행복하니, 어찌 웃느라 턱이 빠지는 정도일 뿐이겠는가? 그를 방해하던 자는 체신을 잃고 빌붙어 보려던 자는 돌아볼 줄을 알게 된다. 언제나 자신을 가짐으로 두려움이 없으며 재능을 숨기려 하여도 할 수가 없다.

누가, “나를 학대하면 원수라.” 하였던가. “어진 일을 하는 데는 스승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 는 말과 합치되도다. 사람을 지도하는지라 풍속이 이로 인하여 깨우쳐지며, 나라를 보호하는지라 도가 이로 인하여 흥기되도다.

경에 이르기를, “만 가지의 게(偈)가 있는 경을 받아서 지나는 것이 한마디의 뜻만 못하다.” 하였으니, 오히려 믿을 만한 말이로다. “뒤에 떠나서 먼저 왔다.” 는 것은 곧 이 산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왜냐하면 조사(祖師)인 순응대덕(順應大德)은 신림(神琳) 대사에게 공부하였고 대력(大曆) 초년에 중국에 건너갔다. 마른 나무쪽에 의탁하여 몸을 잊고 고승이 거쳐하는 산을 찾아가서 도를 얻었다.

교리를 철저히 연구하고 선(禪)의 세계에 깊이 들어갔으며 나라로 돌아와서는 영광스럽게 나라의 선발을 받았다. 곧 탄식하여 말하기를, “사람은

학문을 닦아야 되며 세상은 재물을 간직함이 중하다.

이미 천지의 정기를 지녔고, 또한 산천의 수려함을 얻었으나, 새도 나뭇가지를 가려서 앉는데, 나는 어찌 터를 닦지 아니하랴.” 하고, 정원(貞元) 18년 10월 16일에 동지를 데리고 여기에 건물을 세웠다.

산신령도 묘덕(妙德)의 이름을 돕고 땅은 청량한 형세를 자리잡아 주었다. 오계(五鬢)를 나누어 꾸며서 다투어 일모(一毛)를 뽑았다. 이 때에 성목왕태후(聖穆王太后)께서 우리나라에 어머니로 군림하시어 불교도들을 아들처럼 육성하셨다. 소문을 듣고 공경하며 기뻐하시어 날짜를 정하여 부처님께 귀의하시고, 좋은 음식을 내리시고 예물까지 곁들여 주셨다.

이것은 하늘에서 도움을 받은 것이지만 사실은 땅에 의하여 인연을 얻은 것이다. 그러나 생도들이 안개처럼 돌문으로 모여드는데 스님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이정선백(利貞禪伯)이 뒤를 이어 공적을 세웠다.

중용(中庸)의 도리를 행하여 절을 잘 다스렸고, 주역 대장(大壯)의 방침을 취하여 건축을 새롭게 하였다. 구름처럼 우뚝하며 안개처럼 깔려져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달마다 달라졌다.

이로부터 가야산의 좋은 경치는 도를 성취하는 터전에 알맞게 되었으며, 해인(海印)의 귀한 보물은 지대한 가치를 갖게 하였다. 우거졌던 수목을 모두 베어내었으며, 이것은 진주의 언덕이 마르지 않음과 같다.

터를 닦은 것은 겨우 백 년밖에 안 되지만 몸을 나타낸 데는 사단칠정(四端七情)의 덕이 가득하다. 시를 읊기 위해 함께 오른 자가 다섯이요, 공연을 위하여 자리를 벌인 사람이 셋이다.

모두 말과 실천이 일치하며, 이름과 실체가 서로 부합되는 사람이다. 서경에 이르기를, “작은 일에 공경하지 않으면 마침내 큰 덕을 해친다.” 하였다. 이는 서로 교화를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니, 어찌 한계를 넘어서려 하겠는가. 높은 산은 작은 먼지라도 다 받아들여 그렇게 높이 설 수 있는 것이고 개천은 작은 물줄기도 마다하지 않아 마침내는 바다에 이르는 것이다.

염려되는 것은 물결이 솟구쳐 함께 가려 하다가는 스스로 물에 빠지는

것이다.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아무리 땅에서 나오는 물자에 의존하지만 마음을 수련하는 것은 다만 덕을 높여야 된다.

이미 불법에 뜻을 두었으니, 어찌 조종(鳥蹤)을 빛나게 하지 아니하리요. 드디어 화려한 장식을 베풀 것을 작정하고 푸른 산이 빛을 더하게 하였다. 행여 들어와서 공부하는 사람은 장소를 사용함에 법을 따르며, 벽을 향하여 앉은 사람은 참선을 안심하고 하게 되었다.

만일 민첩하게 하면 곧 효과가 있는 것이니, 죽어도 없어지지 않게 된다. 역사의 기록이 여기에 있으니, 뒤를 따르는 사람이 어찌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신라 효공왕4(900)년 천일태재(天一泰齋) 12월 그믐날 기(記)를 쓴다.

2) 사찰(寺刹)

杜楊編曰。梁武帝時造寺。蕭子雲飛帛大書蕭字。至今尚存。又清波雜誌曰。鹿院苑名。爲蕭帝寺。今蕭寺之稱。蓋出於此。海印寺。新羅哀莊王時所創。有八萬大藏經板。俗謂經板出汗則有邊患云。壬辰以後倭賊屯據嶺南。無一處不被焚燹。而至海印則雲霧輒晦冥。賊終不敢犯。三災不到之說。亦或然矣。義興獐角寺碑。卽王羲之書。榮川白月寺碑。卽金生書也。頃年朱梁天使及熊天使。皆擷取以去。中朝人博聞好古如此。其謂王羲之書者。蓋集字爲之者也。釋王寺。在安邊劍峯山。世傳僧無學居此山土窟中。我太祖龍潛時訪而問之曰。夢入破屋中。負三椽而出。此何祥也。無學賀曰。負三椽者王字也。又問夢花落鏡墜。此則何祥。無學卽曰。花飛終有實。鏡落豈無聲。太祖大喜。卽其地創是寺。仍以釋王名之。舊有太祖親筆而失於兵火。只刻板存焉。僧休靜作山水記。備載其事。寺出善梨。每年上貢。有梨花堂勝絕。有水碓三十餘所。余題詩云泉春水碓雷千杵。月照梨花雪一庭。乃記實也。儒生上寺肄業古也。前朝時崔冲。每夏率學徒。借僧房講學。而我朝之法。儒生上寺者有禁。至近世連有逆變。臺官請申明此禁。而人亦畏忌。自是招提方丈之間。無遊士之跡矣。

[芝峯類說 李晬光]

3) 계방일기(桂坊日記)

八月二十六日召對。朱書節要第七卷答程正思書所論皆正當。止答汪聖可書。入侍兼弼善李普行。兼司書林得浩。陳文義訖。令曰。凡異端之學。亦必明其所以然。然後可以排闢。不然。何以服其心乎。又曰。此所謂舊學禪宗。卽朱子自謂耶。對曰。然。令曰。自古高明者多染佛道。何也。臣曰。佛書論心造語奇警。令人易於省悟。以此賢者之過於內修者多入其說。令曰。如楞嚴經。其言甚好云。且聞士子多有讀之者云。信乎。李普行曰。故宰臣李德壽多讀佛書。其外無聞矣。令曰。桂坊亦見之乎。臣曰。楞嚴圓覺諸經。亦少時略覽。而但爲士者未聞有立算讀之者也。令曰。佛經亦有鄉板乎。臣曰。僧徒所用。皆是鄉板。有所謂八萬大藏經板本。尤緇徒之所稱重寶也。令曰。聞累次失火。終不延燒云。信乎。臣曰。板在慶尙海印寺。寺累被火。終不及於經閣。且聞烏雀不敢棲其屋。終年不掃除。遊塵不敢侵。雖係僧徒誇張而事頗神恠矣。令曰。其板本何如。臣曰。臣未之見而大抵佛書板本。大勝於儒書。僧徒之誠力。不可及也。令曰。聞僧徒尊護佛書。勝於士子之尊經。然乎。臣曰。其尊奉愛護。迥非儒家之可及。爲儒者甚可愧也。令曰。大藏經板。聞加漆制作精異云。然乎。臣曰。臣亦未之聞。令曰。道教不傳於我國乎。臣曰。道教雖稱三教。捏合仙佛緒餘。雜之以祈禳符呪之術。其學不足說。我國尤無傳焉。令曰。中國尚今盛傳乎。桂坊見中國矣。果何如。臣曰。中國亦不盛傳。如龍虎山張天師家爲道家宗主。關內外或有雲遊全真之類而皆無識無學。不足道也。令曰。龍虎山在何處。是何人之居。臣曰。張道陵所居之地。臣未記其在何方。而子孫世守爲天師。極多異蹟。堪輿家盛稱其吉地。齊于闕里。聞是張良之後也。令曰。宋孝宗是崇道教者乎。 [湛軒書內集 洪大容]

4) 서해인사전권후(書海印寺田券後)

右四十三幅。庚戌春。學祖和尚承懿旨。重創毗盧殿。都料匠朴仲石。得之樑楣結構中。乃本寺買田莊券也。按史乾符只六年。而此稱七年。廣明只一年。而此稱三年。中和只四年。而此稱五年。龍紀只一年。而此稱三年。景福只二年。而此稱三年者。新羅越在海外。改元頒朔。或踰年。或隔年。然後始到故

也。其稱藪者。卽叢林之謂也。乙巳以前。只稱北宮海印藪。庚戌以後。始稱惠成大王願堂者。蓋角干魏弘。死於戊申二月。實眞聖女主之二年也。主念弘私侍之寵。追封爲惠成大王。則此云惠成者。其爲魏弘無疑。而康和夫人者。亦必弘之妻也。後十一年丁巳六月。眞聖傳位於孝恭王。而十二月。薨於北宮。則竊意海印爲弘之願堂。故主去位釋權。惟嫪毒之是念。托身佛宇之中。竟殂於此。其欲同穴之志。亦皎然矣。券內文字。與今吏牘頓異。多所未解。獨愛其自乾符戊戌。至于今六百一十餘年。人世之興亡離合。幾許變遷。而獨此斷簡故紙。宛然尚存於兵火蟲蠹之餘。豈不爲可感耶。第恨當時文籍。散逸無徵。末學荒蕪。聞見不博。爲未盡辨云。弘治四年歲在辛亥秋七月十有一日梅溪曹大虛。書。

[梅溪先生文集 曹偉]

5) 답일종선사서(答一宗禪師書) 丁卯

孤坐荒館。節物凜冽。客懷良苦。每懷琉璃寶殿采色炫耀。吾師以石顛霜眉。偃仰日夕。何其豪歟。玄上人來傳手書。辭意高逸。又令人起衰懶。所索寶殿記文。屬意誠勤。而但不佞學聖人之道而患不深。禪家宗旨。乃所淺知。雖欲發揮。不足以稱師心。且有所疑者。庶民敬其身以養其父母。父母歿則墓而廬焉。廟而祭之。而尚患不能盡其誠。王者以天下之尊。用庶民之力。而宮室一踰度。亡其國。乃若佛氏絕民父子之恩。君臣之義。而不言而信。不動而威。不施而恩。雖竭天下之力而金其身珠其宮。民無怨言。竟何功哉。旣以四大喻其生。寂滅喻其歸。其爲道。固已托之空虛矣。旣自火其骨體。爲灰爲塵。隣虛入微。不宜更示光靈。寄形土木。而如師之徒。又憂其宮室之焚也。而改新之。何其勞歟。噫。佛之爲道。固未嘗無求於人。而自絕其父子君臣之倫。不可謂不忍矣。噫。凡天下寺刹。莫不托之物而傳其名。如泉石峰壑之勝。名賢古蹟。神設寶器。無一乎此。則佛亦無所以托其跡。如海印寺之顯於東方者。爲其有獻廟宸翰皇明諸公詩筆。無此則八萬大藏經板。希朗祖師之石像。左右金塔。鼙鼓香鼎。何賴而久傳也。吾師乃憂寶殿之焚。而不憂宸翰之剝落。諸公手畫之日就泯滅。豈不謬哉。願師深念報本酬恩之道。起樓於山中。藏聖祖

宸翰諸公書。以鎮山門。如華陽洞之煥章菴。則師之功。有大於琉璃寶殿鉅萬之費矣。樓成之日。不佞不辭操筆記師之功也。余又聞四溟大師惟政偉人也。雖托空門。而削髮而存其髯。蓋不爲法縛者也。壬辰之難。師糾義討賊。實與皇朝諸公相後先。其存心慈悲而篤於倫義。雖謂之賢於釋迦可也。今其浮屠畫像。在師山中。師宜尊奉而愛護之。勉寺之大衆以四溟之道。無徒以修寶殿爲功德。乞人記文爲也。承春和來訪客館。甚慰。惟冀慎愛衰軀。觀實理以慰區區之思。

[凌壺集 李麟祥]

6) 해인사정진연기(海印寺精進緣起)

丁酉五月十三日海印寺當到 仍以十五日 精進爲始 極盡禮拜于下板殿而西庭迺是童眞菩薩後面也 而七十日精進 七月二十五日畢拜 以印經發願 月夜上來 爾時兩腹行神將 來臥於拜臺中 吾惶恐欣喜 兩手又持印經事一一告之 而仍以此神將 巡匝于上下板殿四面後 又鎮停于吾拜禮臺中所告自上處 分賜送物種 青銅錦匣緞紅青白錦絲 筆墨等節 這這下送之意 祝手盡告 而仍以走筆板殿西面禮拜臺 不生茅草地方席 兩腹行神箇裡來 印經所願告心積 余居留於文殊殿小方丈也 自然而身安心怡 誦經思惟 得吉夢三番 多有異祥 故記錄第一夢 吾立於虛空之中 上上空中有着僧伽梨法師 滿金剛盆水 垂我頂上 驚語覺夢 心獨喜自負矣

[龍岳堂私藁集]

7) 입해인사시과차(入海印寺時過此)

過仁弘故居[伊淵書院創建會議事入]海印寺[時過此]

可惜仁弘宅林泉尚帶羞誰言虧一簣本自乏重裘忍與金墉慘曾煩壁帛求溪橋立馬久秋日照寒流余自癸亥以後未曾索言仁弘事者同鄉先後進之間尚有不出惡聲之意也然知其罪而不斥者固有故舊忠厚之義如不知其罪而有一毫愛惜之意不幾於汨喪其好惡之天理耶吾知其必無是人也仁弘獻議曰臣民有不共之義其與都堂書曰讎不同天臣子之大義也且其入閣而拜恩也只謝大殿而不謝西宮賴所親一二人紆餘曲譬日黑之後始拜於西宮其時耳目莫不吐舌實董養之罪人也余故曰不知其罪而有愛惜之心者必無是人也時仁穆王后閉處慶運宮目之以西宮云仁弘在先王

時猥當遺逸之遇職都憲長而殺先王之子廢先王之妃非徒無一言匡救又從而慙
之何其負哉第六曾煩之語甚痛恨之也此繫是非大閑故略誌之以詔於後

[學圃先生文集 鄭暄]

8) 해인사수선사방함인(海印寺修禪社芳啣引)

書芳啣所以然者 示後人也 示後人也者 以何意也 身隣泡漚 命危風燈 知策勤
者 是誰也 法性本空 慧日長明能悟入者 又是誰也 後之視今 猶今之視昔也
后之視后 又猶后之視今也指點得分明矣 嗚呼 居此社者 可以鑑戒也哉

[鏡虛集]

9) 신라가야산해인사결계장기(新羅伽倻山海印寺結界場記)

嘗聞大一山釋氏。援金言而警沙界云。戒如大地。生成住持。蓋發心業之謂也。故大經曰。世及出世諸善根。皆依最勝尸羅地。然則地名相協。天語可尋。國號尸羅。實波羅提興法之處。山稱伽倻。同釋迦文成道之所。而況境超二室。峯聳五臺。儼茲隆崛之奇。宛是清涼之秀。由是門標海印而雲蔚義龍。道倚山王而風嚴律虎。賃興三於勝壑。年僅百於和居。而顧結界嶽峯。權輿齷齪。議諧改作。律許開張。遂於乾寧四載之秋。宴坐九旬之杪。爰謀拓土。竚俟布金。莫不地媪齋心。天神悅目。矧在仙中仙境。眞爲海外福場。然金界易標。珠輪難瑩。如或有心不斂。其猶無翅欲飛。身同乎玉葉隨風。生何可保。戒異乎金波出海。虧必難圓。況今象法將衰。魔軍競起。觀日暮而途邈。慮烟深而火熾。道訓曰。其安易持。儒書云。不戒謂暴。制惟人道。可不勸歟。畫界四周。悉數如左。諒所謂起屋三層。昇樓四級。好是高山易仰。覬無反水難收。則斯地也。介如金剛。巋然玉刹。威鎮俗而庾塵斯絕。德勝妖而張霧莫侵。且洗心曰齋。防患曰戒。儒猶若此。釋豈徒然。欲避鬼遮。勉求神護。時有唐乾寧五祀之隄月也。[孤雲先生文集 崔致遠]

신라 가야산 해인사 결계장기

듣기로, 대일산(大一山) 석씨(釋氏)는 귀중한 말을 인용하여 불교도에게 경계하기를, “대지가 생성하고, 유지하는 것과 같이 경계하여라.” 하였으

니, 대개 마음과 업을 발하라는 뜻이다. 대경(大經)에 이르기를, “이 세상에 있을 때나 이 세상을 떠나서나 모든 선근(善根)을 지은 자들 모두 가장 좋은 것인 시라(尸羅)의 땅에 의지하라.” 하였다.

그런즉 땅의 이름이 서로 들어맞아야 하늘의 말씀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나라의 명칭을 시라라 한 것은 실로 바라제(波羅提)가 법을 일으킨 곳 이어서이며, 산을 가야(迦耶)라 한 것은 석가모니가 도를 이룬 곳과 같아서이다. 하물며 경내는 이실(二室)¹¹¹⁾보다 훌륭하며 산봉우리는 오대산보다 높이 솟았다.

엄연히 이곳은 높은 지역으로 기이하며 맑고 시원하면서도 수려한 곳이다. 문에 해인(海印)이라고 써 붙였으니, 구름은 정의를 보호하는 용처럼 뭉게뭉게 일어나고, 깊은 산신령을 기대었으니, 바람은 계율을 지키는 범처럼 무섭도다.

좋은 경지에서 불법을 일으키었으나 자리 잡은 것은 겨우 1백년에 불과하였다. 다만 절터가 워낙 험하기 때문에 창건한 것이 규모가 작았다. 다시 짓자는 여론에 따라 나라에서 확장할 것을 허락하였다.

드디어 신라 효공왕1(897)년 가을, 90일 동안 참선한 끝에 땅을 넓히고 사찰 건축하기를 기다렸다. 땅의 신이 마음으로 정성을 드리며 하늘의 신도 눈으로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하물며 산중에 있는 좋은 경지가 정말 해외(海外)의 복 받는 도장이 될 것임에랴. 그러나 부처님의 사원을 세우기는 쉬우나 도를 밝히기는 매우 어렵다. 만일 마음에는 있으나 거두어들이지 않는다면 날개가 없이 날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몸이란 잎이 바람에 날리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니 산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으며, 계(戒)를 지키는 것은 달빛이 바다에 비치는 것과는 달라서 이지러지면 반드시 동글어지기가 어려운 것이다. 하물며 지금 불법은 장차 쇠퇴하려 하며 마귀의 군대는 다투어 일어난다.

볼수록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먼데, 염려되는 것은 연기가 질다가 불이 타

111) 이실(二室) : 중국 송산(崇山)에 있는 태실(太室)과 소실(少室) 두 산을 가리킨다.

오르는 것이다. 도가(道家)의 교훈에 이르기를, “편안하여야 유지하기가 쉽다.” 하였고 유가(儒家)의 글에 이르기를, “조심하지 않는 것을 사나운 것이라 이른다.” 하였다.

제약(制約)하는 것이 오직 사람이 행할 도리이니, 노력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지역의 4면을 구획하여 모두 책정하기를 다음과 같이한다. 진실로 이른바 3층의 집을 짓고 4층의 누(樓)를 올리는 것이다.

좋을시고, 이야말로 산이 높아서 쳐다보기가 쉬운 곳이니, 바라건대 얽어진 물을 거두기 어려운 사정은 없으리로다. 곧 이 지역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며 우뚝히 솟은 옥 같은 사찰이로다. 위엄이 세속을 억누르니 유진(庾塵)¹¹²⁾이 곧 끊어질 것이요,

덕이 요물(妖物)을 이겨내니, 장각(張角)¹¹³⁾의 안개가 침노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마음을 깨끗이 한 것을 재(齋)라 하며, 걱정을 방지하는 것을 계(戒)라 한다.

유교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 불교에선들 어찌 쓸데없이 넘기리요. 잡귀가 방해함을 피하려 하면 노력하여 신(神)의 보호를 구하라.

때는 신라 효공왕2(898)년 정월이다.

112)유진(庾塵) : 유씨는 유량(庾亮)을 가리킨다. 유량은 권세가 대단하여 왕의 권력보다도 셀 정도여서 유진(庾塵)이라 하면 권세가 대단함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113)장각(張角) : 후한(後漢) 때 황건적의 우두머리이다.

5.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

5.1 잡지(雜誌)

1) 삼천리(三千里)

○제10권 제8호 1938년 8월 1일

海印寺의 風光/羅惠錫

나는 어느 親友의 권유로 봄에 와서 한여름을 海印寺에서 나게 되었다. 경부선을 타고 대구에서 내려 역전에 있는 자동차部에서 海印寺 행 자동차를 타면 高靈 冶爐 등지를 거쳐 약 3시간만에 紅流洞 洞口에서 나리게 된다. 紅流洞 입구 우편 석벽에는 우리 史上에 유명한 崔孤雲 선생의 紅流洞 시(詩)

狂奔疊名吼重巒 人語難分咫尺間 常恐是非聲到耳 故教流水盡聾山

이 색여 잇고 좌편 溪邊에는 孤雲 선생의 聾山亭이 잇고 그 앞에는 「孤雲先生 遯世地」라 刻調한 석비가 있으며 좌편 높이 孤雲 선생의 사당이 있다. 紅紅流洞은 실노 塵外에 仙境이다. 바위와 돌 돌과 바위에 사이와 사이로 유유히 흘러 내려 聾山亭 압 높은 석대 우에 떠러지는 웅장한 물소래 무성한 나무 흥금을 서늘케 하고 머리를 개법게 한다.

가지고 온 짐을 지우고 그 뒤를 따라 집행이를 동모 삼어 5리나 되는 계곡을 끼고 어칠녕 어칠녕 거러가니 연일 지리하게 나리든 비가 개이때 봄 하늘은 맑다 뿐이라 가지마다 푸릇푸릇 짝시 돛고 풀 냄새가 향긋이 뿔어 드러온다. 山回 水縈, 水縈 山回이다. 물 구비마다 水麗 아닌 곳이 업고 산 모롱이마다 山明 아닌 곳이 업다.

산이 盡하엿는가 하면 다시 산이오 水가 窮하엿는가 하면 다시 물이다. 물이 많을수록 실치 얹으며 산 모롱이가 거듭할수록 가고 싶으다. 어느덧 玉流亭에 이르렀다. 이亭은 幻鏡 법사가 건립한 거시란다.

亭閣 내외에는 내외국 명사들의 현판이 다수 걸녔다. 거기 올라 잠간 쉬인 다음에 다시 나와 사자문을 거쳐 삼림 사이로 드러서 꼬부랑 꼬부랑한

길을 따라 숨을 모라쉬어 언덕을 올라서니 산 중에 제일 보기 싫은 함석 집웅 하나 나타난다.

이거시 過印寺 지정 여관 紅濤여관이다. 방 하나를 청구하여 행장을 풀고 나서 여관 1, 2 층을 도라다니며 구경하니 도회지에서도 볼 수 없을만치 설비가 되어 있으며 만원될 때는 2,300식 수용하고 있다 한다. 飯饌이며 其外 待海가 놀나웠다. 피곤한 一夜를 지내고 아침 산책으로 海印寺를 찾아 갔다. 홍랑문을 드러서니 魁傑한 古梵宮이 樹林 간에 隱映하고 있다. 이거시 海印寺이다.

조선 불교계에 4대 名寺가 있스니 露鷲山 佚刹 通度寺 曹溪山 僧刹 松廣寺 金井山 禪刹 梵魚寺 伽倻山 法刹 海印寺가 是다. 其中 海印寺는 명찰일 뿐 아니라 法之宗家요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重寶인 고려 장경판 팔만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대장경閣이 있다.

海印寺 창건된 유래의 전설은 이러하다. 서역 인도 고승 提納博幸 尊者 指空선사께서 唐土에서 佛法을 선포하여 교화 중생하시었는데 이 指空선사가 일즉 조선 전국을 徧踏 강산하실 때 伽倻山 海印寺 址를 지내시다가 장차 이곳에 梵刹이 건립되리니 海印寺로 명명되어 법계에 大福 田地가 될 것이라 하시고 海印寺 창건시 사용키 위하여 鐵瓦 3,000개를 주조하여 못에다 埋置하여 두었다 한다.

其後 즉 신라 제 40대 哀莊王 당시 距今 1,200년 전에 신라 고승 華嚴 宗主 義湘祖師의 法會孫인 順應 利貞 양 대사가 唐土로 指空선사를 친견하기 위하여 수륙 수 만리를 도보로 入唐할 새 벌서 선사께서는 涅槃에 드신 지 오랜지라 그 유골을 탐 중에 뒤흔스니 선사께서 涅槃에 드실 임시 제자께 유언을 남기어 말삼하시기를 “吾 涅槃 후 조선서 順應 利貞 양 沙彌(沙彌라는 거슨 인도 말이니 漢譯하면 息慈이다. 즉 息惡慈行의 뜻이니 20세 미만 된 젊은 승려를 칭함)가 올 터이니 오거든 이 유서를 전하여라” 그 遺囑이 계시었는데 과연 그 遺囑과 如히 順應 利貞이 도착하매 제자는 선사의 유언을 말하고 유서를 전하니 이에 順應 利貞 양 師는 유서만으로서 足肯치 않고 “凡夫를 버셔나신 선사의 法身 境上에야 生死 去來에

따르지 않으시고 常住 不滅하시리니 우리의 지극한 정성으로서 탑 중에 계시는 선사 法身을 친견하리라 하고”, 드디어 양 師는 탑 전에 합장 跪坐하여 入定 7日 7夜間 不飲不食하고 용맹 정진하니, 7晝夜만에 탑 문이 스스로 열니여 不寒不熱한 般若藏中에 광명으로 장엄하시고 사자 坐상에 結草 跣坐하신 선사의 형체가 나타나 거수 招之하사 入來를 허하시니 양 師 환희 踴躍하여 入法 順禮하니 선사께서 「그대들의 정성이 이와 같이 장하냐」고 매오 칭찬하신 후 다시금 前者 유서를 更示하사 海印寺의 창건을 지시하시고 甘露茶를 양 師에게 施與하니 양 師 飲畢에 7晝 7夜간 不飲不食에 말났든 형체가 즉시에 회복되여서 선사께 拜謝하고 出庭하니 선사의 제자 등이 藥料를 준비하여 양 師는 선사께 주신 甘露茶로서 심신이 쾌활하여 원기 왕성한지라 藥料의 불필요를 말하니 그 제자 등이 더욱 더욱 敬仰함을 마지 않아야 칭송하였다.

그 길로 양 師는 유서의 지시를 종자 조선으로 나와서 伽倻山으로 드러와 토굴을 (방금 極樂殿 後邊에 양 師 토굴 基地가 현존함) 정하고 入定 유희로 시기 도래를 기대리니 양 師의 入定 중에는 이상한 광채가 양 師의 頭上으로부터 방사하여 허공에 빠치여서 만력의 儼然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때 마침 哀莊王 왕비께서 중환 중에게서 천하 명의를 초빙하여 진찰하되 그 효과를 볼 수 없이 궁중이 우울에 싸였더니 엇던 학자의 進言으로 이 중환은 도사의 힘을 假籍치 않으면 도저히 완쾌치 못하리니 도인을 차져서 왕비의 중환을 다사리소서 하매 왕께서 그 말을 從하야 8도에 금부도사를 명하여 도인을 찾게 하니 (직접 왕명으로 사람을 호출하는 직사) 금부도사 칙명을 받아들여 伽倻山 下 20리 許에 月光里 (이곳은 현재도 月光里이며 자동차로 海印寺로 드러오면 冷서 10리 쯤 되는 지점에 바로 月光樹라고 삭인 다리가 있고 그 다리에서 건너 便野田 中에 古塔이 있으니 이거시 옛날 月光 태자께서 月光寺를 지으시고 공부하시든 곳이다)에 이르매 난대없는 여호 한 마리가 나타나서 압 길을 인도하는지라 금부도사가 그 여호 뒤를 따라가서 伽倻山 麓 속으로 드러서니 紅流洞 9曲을 거쳐 山明 水麗의 신비

한 선경을 당도하니 여호는 간 곳 업구나.

금부도사만 홀노 남어 사면을 삶어 보았다. (이 여호 업서진 곳을 여호 바위 거리라 하여 아즉도 그 옛날의 자취가 남아 있다) 그래서 그래서 그때 금부도사가 생각하기를 아마 이 곳에 도인이 있음으로 神明이 지시함이라 하고 기뻐하여 사면을 삶이다가 어떠한 樵夫를 만나서 이 곳에 도인이 없느냐고 무르니 그 樵夫 대답하기를 「이 우에 도인이 둘이 앉아서 공부 합디다」 하는지라 금부도사는 반가워 그 장소를 가보니 順應 利貞 福 大師가 入定하여 공부하고 잇는데 祥瑞의 光明이 頭上으로부터 허공에 방사하니 儼然한 기품에 자연 위압을 늦기여 底頭 경례하고 왕명을 전달하여 왕궁까지 가서 왕비의 간병을 간청하니 양 대사는 왕궁까지 갈 것 업다 하고 前者 入唐 時에 指空선사께서 유서와 동시에 바다너은 五色糸를 (당사실) 내여주며 이 실의 한 끝으로는 왕비의 팔목에 매고 한 끝으로는 궁전 앞에 고목이 있을 터이니 그 고목에 매여 두면 왕비의 병환이 완쾌하리라 하거늘 금부도사가 왕궁에 돌아와서 그 말대로 왕께 주달하고 양 대사의 분부대로 시행하니 이상하게도 왕비의 병균이 그 五色糸를 타서 궁전 앞 큰 고목으로 옮기매 그 고목은 그 자리에서 말나 죽는 동시에 왕비의 중환은 즉시 완쾌 되섯다.

그리하여 哀莊王께서는 크게 기뻐하사 친히 伽椰山으로 行幸하시와 順應 利貞 양 대사의 소원을 무른즉 이 때 양 대사는 指空선사의 유서에 의하여 이 곳에 梵刹을 건립하여 법계에 無上 大福 田地가 되게 하소서 하니 왕이 大喜하사 許之하시고 梵刹을 세워 海印寺라 額을 달엇다.

海印 2字의 문구는 화엄경 중에 海印三昧에서 나온 문구이니 順應 利貞 선사가 신라 고승인 화엄 宗主의 義湘 祖師의 法孫인 까닭에 화엄 宗刹로 된 것이다. 초창 당시의 대중은 천여 명의 승려가 止住하였고 그 후 고려 王健 태조의 王師이신 希朗祖師가 이 海印寺에서 나섯스니 王健 태조가 신라의 뒤를 이어 고려 통일을 圖할 제 백제로 더부러 星州서 크게 싸우다가 王健이 패하여 海印寺로 드러와서 希朗祖師를 친근하고 법력으로서 고려 통일의 대업을 성취케 하여 달나고 간청하니 希朗祖師께서 응낙하시고 華

嚴神衆壇에 분향 告祝하매 華嚴神將 勇敵大神이 華嚴聖衆幀畫에서 목전에 몸을 나투어 허공에 火劍 휘둘너서 백제를 위협하니 백제군이 그 威光에 놀니여 물너갔다 한다.

이 인연으로 王健이 布朗祖師께 귀의하여 王師로 삼으시고 田 500 結只 (今 町步와 如함)를 海印寺에 헌납하는 동시에 인근 각 郡守에게 명하여 海印寺를 수호케 하였으며 李祖에 이르러 李太祖께서 고려 장경을 강화도로부터 海印寺에다 移安하고 法之宗家로 되었다.

일주문 왕문 해탈을 드러스니 梵鍾閣이 잇고 동서 冥迷한 전각 寮舍 즐비 하게 보인다. 庭中 3탑이 있으니 開山 당시 건립한 신라 미술품 중의 1로 탑 중 9존 金佛이 봉안하여 있다.

大寂光殿

정면으로 大寂光殿이 보이니 본전은 화엄종의 본존이요, 昆盧遮那佛을 봉안한 본당으로 開山 이래 600여 년간 昆盧殿이라고 칭하였으나 성종시 학조대사 중창후 大寂光殿이라고 개칭하였다.

당 내에 드러가 정숙히 3배를 하고 도라보니 放眉間 白毫相光 하사 照未方 만 팔천 세계 하사 靡不周遍하시는 昆盧遮那佛 釋迦牟尼佛 觀世音보살이며 고색 찬연한 泰畵 조석으로 목탁 소리를 들고 잇는 수 백개의 위패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 당 출입구로 나서면 신축한 爐殿이 보이고 그 옆으로는 높직이 장경각이 보인다.

이것은 매 동 30간으로 된 상하 2 대동의 巨廈이다. 상하 2동 60간에는 國刊 경판 右 양 동 4간에는 寺刊 경판을 봉안하여 있다. 소위 세계 30종 藏版 중 聲價가 가장 높은 거슨 고려 藏版이다.

그 체재의 宏實과 校正의 엄밀과 部秩의 완비는 세계 藏版 중 제 1위를 점한 無比의 보물이다. 國刊版과 寺刊版이 잇서 國刊版은 고려 제 33 主 高宗 24년 丁酉에 始役하여 李太祖 戊寅 7년에 본사로 이장하였다. 寺刊版은 고려 중엽에 雕造 法華楞嚴諸經과 조선시대 雕造한 4분률판 등이 있다.

國刊版 수 81,258枚, 寺刊版 수 4,745枚, 합 86,003枚

國刊 經部 수 1,512部, 寺刊 經部 수 59部, 합 1,571部

國刊 卷 수 6,791卷, 寺刊 卷 수 355卷, 합 7,146卷

貴重 古物

역사 깊은 海印寺라 귀중한 古物이 다수이었던 건 물론인데 누차 화재로 인하여 요행이 遺存한 거슬 大正 8년에 비로소 蒐集하여 藏置한 거신대 其中 象塔 香爐는 신라 開山 당시 遺物之 최고 역사를 말하고 그 미술적 가치는 전문 학자로 하여곰 놀나게 한다.

其外에 옥으로 만든 조화 金弘그道림 병풍 白福壽繡屏 花鳥繡屏 등은 수 만원 가격에 달한다고 장삼을 입은 중이 긴 막대기로 가라치며 엄숙히 설명을 하고 있다. 뜻는 사람들의 마음은 일시에 통일이 되어 감탄함을 마지 않는다.

하루에 몇 번씩 열고 닫는 器物藏이것마는 다시 아니 열을드시 큰 잠을 쇠로 덜컥 닫고 또 큰 문을 덜컥 닫을 때 엇편지 모르게 쓸쓸함을 느꼈다. 冥府殿 應眞殿 九先殿 尋劔堂 窮玄堂을 보니 거기에는 추레한 장삼을 입은 노장들이 힘업시 안저서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징을 울리고 북을 치고 있다.

四雲堂 즉 宗務所에는 책상을 압두고 의자에 걸터안진 직원들이 사무를 보고 있다. 씨레한 明月堂 즉 강습소에는 5, 60명 되는 아동이 와글와글 한다. 교사 1인이 複式 교수를 하고 있었다.

堆雪堂 즉 선방에는 마침 참선 시기이라 누렇게 뜬 중 말갸게 밝은 중 노라게 꽃이 핀 중 늙은 중 젊은 중 뚱뚱한 중 빼빼말은 중 무릅을 꿇고 벽을 향하여 눈을 말뚱말뚱 뜬 자 꾸벅꾸벅 졸고 있는 자 대체 선방이란 곳은 교주 釋迦牟尼의 正法 眼藏을 摩訶迦葉의게 전하여 대대로 繼繼 相承하여 서역의 제 28대조 達摩대사에게 이르러서 이 正法 眼莊을 唐土에서 전할 때 불법은 以心으로 直指人心하여 見性成佛이라 부르지졌고 그의 골수를 唐土 제 2대조인 惠可대사에게 전하였스며 僧璨 道信 弘忍으로 歷傳하여 唐土 제 6대조 惠能대사에 이르러서 문필의 무수 도인을 내인 거시 즉 禪家의 臨濟宗 曹洞宗 雪門宗 滙仰宗 法眼宗의 5宗 가풍이 버러지게

되었다.

現今 일본 내지에 불교계에는 이 선종 중에 5宗 가풍이 그대로 現傳하여 있는 것 같아야 방금 名寺 寸刹의 선방이라는 곳에서 이 釋迦牟尼의 正 계통인 정법 眼莊을 透得하기에 수행하고 있다. 이 정법 眼莊을 透得하는 날이면 범부에 형체로서 성현의 역에 드는 날이며 불법 妙理를 통달하여 人天 三界에 대 導師가 되난 거이다.

그러면 졸고 있어 있는 것만이 禪參함인가?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어는 것이 참선인가? 語인가? 默인가? 動인가? 靜인가? 靜도 아니며, 語도 아니며 默도 아니며 조는 것도 아니며 醒醒히 눈만 멀뚱멀뚱하고 앉은 것도 아니다.

非動非靜이면서 卽動卽靜이며 非語非默이면서 卽語卽默이라 하니 그러면 動이 아니면서 곳 動이며 靜이 아니면서 곳 靜이며 語도 아니면서 곳 語이며 默도 아니면서 곳 默일지니 과연 묘하며 불가사의한 거시다.

말노써 말할 수 업고 형용으로서 형상할 수 업는 이 경계를 假藉하여 禪이라고 하는 것이니 禪이란 心行處가 滅하고 言語道가 斷함이니 이 禪의 묘리를 透得하면 즉시 정법 眼莊이 以是別物일가. 寸步도 옮기지 않고 곳 그곳에서 체험해야 맛보는 거시다.

이 禪의 묘리를 透得하기 위하여 고인이 參究하는 길과라 방편을 베풀러 시니 祖庭門下에 소위 1,700公案이 잇서 禪의 묘리를 參究하여 일절 번뇌 망상 분별을 쉬이고 정신의 통일을 단련하여야가는 화두라는 것이다.

이 禪을 參究하는 參南이란 거슨 早晚이 없으며 남녀 노소 업서서 누구든지 대 信根과 대 疑團과 대 奮勇으로 정진한다면 瞬目之間에 이 묘리에 도달할 수 있으며 추호의 差違로서 혹은 무량겁을 지내여도 透得지 못하나니 <236> 승려에게 참선이 업섯든들 승려될 아모 흥미가 없었슬 거시다.

菴子 求景

아참밥 후에 근처 암자 구경을 나섯다. 極樂殿은 成宗 19년 戊申(서기 1488) 距今 448년 전 戒眞公의 重建 影閣이오 主壁에는 浮休대사의 영정을 봉안하고 殿南으로 石井이 有함은 신라 哀牟王의 御用水요 동방에 濃陰

川 衣襟을 綠染함은 鍾樓 奇峰也라 한다.

거기서 나와서 북으로 떨어진 좁은 길노 조금 내려가 또랑을 건너 한참을 나간다. 올라 가다가 숨을 쉬고 숨을 쉬어 올라가니 낭떠러지에 조고마한 개와집 암자가 있다. 이거시 希朗祖師가 기도하든 希朗臺이다.

臺 뒤에는 천년이나 된 보기 조흔 소나무가 있어 一見에 南畵의 격을 이루고 있다. 山神閣을 둘러보고 나와 다시 올라가 바위 우에 안저 一瞥하니 海印寺 전경이 보인다.

우리 일행 11인 중에는 쾌활하기로 유명한 여사와 법사가 있다. 뒤에서 누가 C 시님 시조 하나 하십소 하니 K가 시님 그거요 그거 말이야요. 일동은 와 우섯다. 그리고 모다 한마대식 시님 그거요 그거. 한즉 C 시님은 점잔이 「내가 할 줄 아오」하고 괴어히 아니하고 마렸다.

그럴 동안에 참선처로 유명한 白蓮菴에 다다렸다. 이 암자는 서산 문인 昭菴대사가 창건한 후 松雲대사 一軒, 功壽, 如贊, 雙暉 등이며 獲光 道峰 月波 諸氏가 有功하다 한다.

우리 일행은 祖堂 누각에서 診味에 불공밥을 먹고 좌담이 이르났다. 때마침 歐米에 갔다 온 사람이 3인이다. 들거니 놓거니 歐羅巴 풍속 이야기가 난다. 매우 흥미 있는 이야기였다.

잡담 중에는 海印寺 말사 중 어느 절에는 변소가 세 길이나 되다고 하여 어느 분이 그 변소에 갈 때는 萬一을 염려하여 허리에 색기를 매고 가야겠다고 한즉 일동은 「와」하고 우섯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우수한 이야기가 만하 자못 유쾌하였다. 흐르는 때는 우리에게 더 시간을 주지 못하고 황혼이 되어왔다. 우리 일동은 白蓮菴 監院에게 후의를 謝하고 내려오며 두어 군대 쉬이며 좌담을 잘 하시는 幻統 법사의 海印寺 민요에 대한 설명 이야기가 있었다.

가든 길을 돌쳐와 中路에서 散散이 논하진 후 여관에 도라와서 저녁을 먹으니 유쾌한 맛이 음식에까지 나타난다. 오날 드른 우수한 이야기를 혼자 두러누어 우수면서 하로를 지냈다.

이튿날은 큰 절 서북편에 있는 影子殿을 차갔다. 이 암자의 一名은 弘濟

菴이라고 하는데 350 전에 선조대왕께서 창건하셨는데 四溟대사가 강화전 권대사로 일본 내지를 다녀와서 일체 작위를 나라에 還上하고 海印寺에서 수도하다가 임종하겠다는 원에 의하여 선조께서 특히 四溟대사에게 弘濟尊者의 諡號를 나리시고 弘濟菴을 건설하신 것인데 其後 西山 四溟 奇虛 3 和尚의 影子를 뒀기 때문에 影子殿이라고 하는 거시다.

건물의 구조는 현재 조선 목공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 하여 각처에서 목공이 와서 도본을 그리어 가는 일이 많다고 한다. 유화의 재료로도 훌륭하다.

이 암자 주인공의 계신 幻鏡 시님의 재미있는 좌담을 듣고 나니 11시 절 점심때라 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못다 듣고 도라와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나서 여관 동북에 있는 國一菴을 찾자갔다.

건설 연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古 건물이다. 사람도 그리 없는 듯 하여 쓸쓸하였다. 정문 앞에는 고목의 괴목이 있어 역시 유화 재료로 훌륭하였다. 그 앞으로 조금 내려오면 5, 6戶의 토굴이 있고 조고마한 암자가 있으니 이것이 여승방 藥水菴이다.

藥水菴은 건설된 지 40여 년이오 정원에 약수가 있음으로 藥水菴이라고 한다. 여승이 30여 명 있어 공동 密所 모양으로다 각각 방 한 칸 부엌 한 칸씩 차지하고 자치 생활을 한다.

원래 가난한 살림들이라 그 절용 절식이란 말할 수 없으며 양식이 떠러지면 동양을 나가서 錢錢分分이 모아 가지고 드러와 겨오 연명을 하고 산다. 海印寺에는 여승방이 둘이 있으니 藥水菴 외에 三仙菴이 있다.

이 암자 건설은 45, 6년 되었다 하며 三仙이 내려와 암자 뜰에 있는 바위 위에서 바둑을 두었다고 하여 三仙菴이라고 한다. 계곡가에 있어 물소리 적어 한가하며 조고마름 식한 신중들이 이 방 저 방에서 들낙 날낙하는 것을 볼 때 한편으로 생각하면 신선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처량도 하였다.

大善菴을 찾자다. 이 암자는 2, 3년 된 새 건물 경색 좋은 높직한 곳에 청아하게 있는데 청소년 때에 화류계에서 놀든 부인이 크게 깨다른 바 있

어도 한적한 곳에서 수도하며 여생을 보내려고 사유 재산으로 死後 寺中 건물노 될 이 집을 가지고 있다.

부인의 능한 수완으로 어여쁘고 한 기술을 갖인 부인들을 끄으려 여름 한 철이면 海印寺에는 꽃이 피고 만다. 그 길노 올라가기 자못 숨이 찬 높직이 있는 願堂으로 올라갔다.

여기에는 인물 명물인 96세 된 林상궁 마마가 계시고 여기 監院 시님으로 계신 노장님은 有子 生女하고 오복이 具存한 분으로 자녀들이 눈물노 붓잡음에도 불구하고 떼치고 나와 수도하는 분이있다.

이 堂은 신라 제 4대 哀庄王이 海印寺를 창건하고 이어 3년간 여기 계서서 복을 비렸다 하여 哀庄王의 祈福地라 한다. 그 외에 보지 못한 곳이 淸涼菴이나 머러서 가지 못하였다.

명소로는 奉天臺, 會仙臺, 疊石臺, 霽月潭, 噴玉瀑, 完在岩, 光風瀨, 吟風瀨, 泚肇岩, 翠積峰, 七星臺, 武陵橋, 遂花川, 更覓源, 其外 여름 한 철 서늘한 그늘을 맨드러 주는 고목 느트나무 있는 學生臺 놀기 좋은 不二亭 수박 참의 물에 당겨 놓고 달뽕하고 되지 고기 굽고 가진 나물에 점심을 해다가 신선이 바둑을 두든 너른 바위 우에서 수십 인의 友人으로 더부러 발을 벗고 우통을 버서 제치고 젓가락 수가락을 치우고 물에 써서가며 손 구락으로 집어 먹는 일종의 원시 만찬회를 하고 斯界에 전문가들이 노래 가락 육자배기 시조 春香歌 「쫓타 쫓타」 소리에 슬슬 넘어가고 이어 덩 실덩실 춤을 춘다. 노세 젊어서 노라 늙고 병들면 못 노나니 쫓타 얼시구나 절시구 조선춤 洋춤 일동은 한데 어울너져 춤을 춘다. 여기가 놀기 좋은 紫霞洞이다.

伽倻山 上峯行

우리 일행 10인은 점심을 한 짐 해 지우고 아침 일찍이 나섰다. 풀이 옥어진 좁은 길노 가다가 길을 잃고 방향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한다. K여사의 떠들석하는 소리로 떠들석하다.

伽倻山은 옛적 伽羅 연방의 要部로서 伽羅를 轉音하여 불교적으로 變稱한 것이다. 혹은 牛頭山 衆王山 只恒山, 靈山이라고도 한다. 此山은 大德

山,의 기맥으로서 성주 고령 거창, 합천 4郡 사이에 盤峯하여 산고 해발 4,719척이오 면적이 3,328町步로 천연의 五葉松, 赤松, 단풍, 활엽수 등이 울창하고 기암 괴석이 용립하여 명쾌, 奇麗한 산이다.

전면으로는 남산 제일봉이 重重 포위하고 있다. 특히 上峰 牛鼻井과 白雲城下 관음 석상은 探勝客에 목적지가 되어 있다. 여름꺼다가 사이다 당 거 먹고 牛鼻井 물노 상치쌈을 싸서 먹으니 그 진미 말할 수 없으며 먹고 난 후 다 각기 바위에 걸터 앉아 목침도리 창가를 하니 개미허리가 되다십 히 우섯다.

여름 해도 얼마 안나 남아 도라오는 길에 풀이 옥어진 七佛菴 터를 찾었다. 이곳에는 1,900년 전에 金首露土의 8왕자 중 1왕자는 태자를 봉하고 7왕자가 여기 와서 見性 득도하고 其後 河東 赫溪寺에서 결과하셨다 하니 雙溪寺 七佛菴이 7왕자의 결과한 곳이라 한다.

친척들이 보러오면 다 큰절 즉 海印寺 앞에 影池가 있으니 7왕자가 이 影池에 비취어 보였다는 전설이 있다. 우리 일행은 七佛岩에 높이 올안진 자 옥어진 수풀을 헤치고 옛날 그들의 기거하든 자리를 차차 보기도 하고 혹 우물을 차차 물을 바다먹는 자 기부를 거두어 절을 짓자는 등 의논이 자자하다.

다리를 즐즐 끌고 오는 자 나는 선생에게 집행이 한 곳을 쥐이고 끌너오니 우수한 소리 잘 하는 Y가 「거기다 눈만 감엇스면 되었오」하야 일동은 우섯다. 여관에 도라오니 해는 저물엿고 왕복 40리 걸은 다리는 촌보를 움길 수 없다. 저녁도 먹을낙 말낙 두고 몸살을 하였다.

佛事

부처님 일을 佛事라 하나니 탄생 佛事(4월 8일) 7월 百種 佛事 (一目蓮尊者가 그 어머니를 지옥에서 극락 세계로 천도한 날) 成過 佛事 (12월 8일) 沮盤 佛事 (2월 12일)이니 其中 4월 8일 佛事를 성대히 거행한다.

海印寺에서는 3월 금음계 쯤 되면 海印寺에서 약 3마정 되는 대 땅을 몇 평식 사서 전방을 차리나니 이 노점은 한 20여 호 되어 각 처에서 가진 각 색 물건을 가져올 뿐 아니라 노점마다 시악씨의 노래 소리가 울녀 나오고

장구 소리가 울려 나온다.

큰 절 적은 절 중들 여관객들 저녁 후에 산책으로 적이 위안이 된다. 초하로 날부터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4월 7, 8일 간은 여관은 물론 만월이요 집집마다 방 마루 터져 나간다. 4월 8일 날은 수십 만명의 참배자가 오고 가고 인산인해를 이루는다. 한번 볼만한 慶節이다.

지금은 장경각 佛事가 있으니 조선 총독이 10,000원을 내서 팔만 대장경을 복사하여 만주국 황제에게 헌상하는 것이다. 伽倻山 海印寺라고 쓴 정문에 禁斷傍이라고 크게 써 부치고 장경각 안에는 23조로 난흐아 복사 검열이 있고 총독부에서 내려온 技手들과 都監은 이것을 감독하고 있다.

2개월 넘어 동안 하다 이 佛事는 그 규모가 클 뿐 아니라 日賃 1원 3원 식 받는 중 속인들은 큰 버리가 될 뿐 한가하든 중들도 매일 8시간 식의 노동으로 받부지 않을 소 없고 생산 능력이 없든 중들은 주머니 속에 돈 소리가 나게 되어 어느 방면으로 생각하든지 大事하고 아니볼 수 없다. 나도 몇 부인들과 동행하여 구경을 간 일이 있는데 한 번 볼만 하였다. 이 佛事が 끝나면 성대한 공양이 있고 염불이 있으리라고 한다.

土窟 生活

海印寺 경내에는 인가가 60여 호 있는데 이것을 토굴이라고 하여 중들은 크게 구별한다. 대개는 중들의 처가속들의 집이요 其外에는 속인의 집이다. 논마기나 있든지 宗務所에 사무원으로 월급이나 타든지 하면 근근이 생활을 유지하나 그러치 않으면 중들의 싹바질로 싹빨내로 그 생활 상태가 말이 아니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이 토굴을 정리시키라 한다.

鐘 소래

황혼의 종 소래 새벽 종 소래 육어진 숲 사이로 은은이 멀리 들녀올 때 자연 머리가 숙어지고 새벽잠이 깨인다. 무심하다. 저 종 소래 엇지 그리 처량한지 내 수심을 돕는도다.

부지불식 중에 밀레의 「晚鐘」 생각이 아니날 수 없다. 임시로 불공 있을 때는 예외거니와 정기로는 매일 3차 예불이 있으니 이 때마다 사방 큰 절 적은 절에서는 땡땡 종을 울린다.

즉 오전 4시 아침 예불 오전 11시 오정 예불 오후 6시 저녁 예불이 있어 부처님 앞에는 가사 장삼을 입은 부전 시님 監院 시님이 목탁을 치며 楞嚴呪 천수 다라니로 염불을 하고 이어 공양을 한다.

그 반찬이란 마늘도 안 는 김치의 푸른 채소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얼굴은 말근 빛이 도나 영양 부족으로 힘을 못 쓴다.

旅館 生活

나는 海印寺 지정 여관 紀濤여관에 一客이 되었다. 이 여관은 海印寺에 없지 못할 편리를 주는 유일 무이한 여관으로 도회지에서 보기 쉽지 못하게 설비가 구비해야 있다. 나는 일찌기 歐米 漫遊時 요세미데산 중 여관에서 1주일간 지내본 일이 있는지라 자연 연상치 않을 수 없다.

그 요세미데 여관은 전부 인도식 건물과 장치이었다. 집과 장식품만 보아도 산중 생활에 실증 아니랄 만치 된 데다 가진 오락 기관이며 탄스회 경마회가 있어 한시라도 심심한 때가 없나니 경마회란 것은 말을 조고만 나무로 맨든 것을 각색으로 모자를 쓴 客 중 미인들이 한 중년 부인이 번호를 부르면 말을 옮겨 놓는 것이다.

그러면 박수로 야단시오 익이는 말 편 사람들은 돈을 타너라고 야단들이다. 이 뿐 아니라 어여쁘고 젊은 미인들은 여기 저기서 불너내어 볼 만하다. 이러한 구경을 옛날에 한 나는 산중에 드러오니 더욱 회상이 되고 옛날이 그리워진다. 이런 여관은 언제나 그런 여관과 같이 되나 십다.

매일 3, 40명식은 떠날 새 없고 산중이라 물론 봄과 겨울은 세월 없을 것이오 여름 피서로 가을 단풍 구장으로 뗏 만명식 출입이 있다. 더욱이 10여 명의 月泊 손님이 있을 때는 보기에 눈살이 찌그러 질 만치 마루 끝에는 화로에 약탕관이 열을 지어 죽 느러노였고 客 중에는 아직 펄펄 펴만 한 청년의 얼굴이 노랑꽃이 피고 기운이 척 느러져 느른한 자로 자리를 펴고 늘 두러는 자 其中에는 혈기 왕성하야 단조로운 생활에 조바심을 치는 자 어떻게 놀면 잘 놀가 하야 산중 암자마다 계곡 골자기마다 매일 다니는 자 3일에 한번식은 2층 오락실에서 이 장난군들이 뭉여 정종을 마시고 뼈루를 마신 끝에 밥주발 뚝경을 늦 저가락으로 뚜디리며 장구를 치고

손벽을 치고 발을 굴러 춤을 추다가 맨발로 마당까지 내려가 징동징동 된다. 나 외 몇 여자는 구경꾼이다.

이럼으로 여관은 분잡함과 食價가 빗딴 관계상 종용이 수양하러 오는 사람들은 암자로 가고 더욱 묘령 여자들은 일부러 피하야 승방으로 간다. 실로 누구든지 새벽부터 떠드러 옆 방 사람까지 잠을 못 자게 한다. 여하간 紅濤여관은 海印寺로는 없지 못할 곳이오 여객의 피로한 다리를 쉬게 하고 곤한 몸을 잠들게 하는 천당이오 극락일다.

僧侶 생활

海印寺 재적 승려가 남 398인이오 여 100인이다. 승려 생활이란 것은 塵世를 버서난 소위 物外 생활이나 단합과 규율로써 그 주를 삼는 것이오 승려는 즉 僧伽이며, 僧伽는 곧 화합의 意다. 生不同 姓不同의 각 인 각 씨로서 세속 塵埃를 버서나서 割愛捨親하고 출가 爲僧하야 입산 수도하는 이들의 일상 생활이 즉 승려 생활이다.

차등 각인각씨가 입산 수도하야 革凡 成聖을 목표로 도량(사원)에 투신하는 날이면 塵世 애욕을 멀리하고 佛法 도량에서 길리는 청풍 衲子의 몸이 되나니 불타의 무상 도법을 위하야 그들의 생활이 지속됨에 以和爲主하야 不分是非하야 以法爲會하야 互相扶助하니 이것이 곧 청림 度生의 物外的 화합법인 동시에 승려 생활의 근본적 주간이 되는 것이다.

승려 생활의 대강은 이러하거니와 그 생활 질서를 유지하는 세칙의 청규법 내용에 있어서는 일반 사회 대중 단체 생활에 추위 혈신 초월할 뿐 그 발달된 규정은 전반적으로 사회 단체의 모범이 되는 점이 불소함이니 승려의 그날 그날의 생활 일과를 소개하라면 승려라면 총칭이 되려니와 승려 중에도 개인 개인의 위인의 자격에 따라 각 계단이 있다.

불교 전체에 있어서는 선종, 교종으로 分하야 있으니 선종이란 것은 소위 捨教 入禪이라 하야 불타의 교리를 문자상을 통해서 그 一覽 해석한 후에 다시금 실제에 드러가 진리를 체득하는 卽離文字 외에 실제 眞如之理를 체험하야 대오 철저를 목표하는 참선인을 말함이오 교종이란 것은 불타의 一代時教(경전) 중 어느 것이든지 다 경전이면 교종에 속하나니 강사 혹은

승려로서 어느 경전이든지 전문으로 持誦하는 이는 통칭 교종이라 한다. 사원에서는 선종과 교종인을 理判人 事判人이라 하니 즉 선종은 理判이요 교종은 事判이라 구별한다.

그리하여 이 禪教 양 종을 통하여 각자 위인의 자격 여하에 따라서 대선사, 대교사, 선사, 대덕, 중덕, 대선, 沙彌 등의 계단이 있으며 이러한 자격을 양성함에는 각기 세칙의 청규법에 의하여 교양하고 있다.

먼저 선종의 일상 생활을 들어 간략히 말하면 그들의 생활은 모 - 든 것이 규율적이다. 1년 12개월을 통하여 각찰 禪院에서는 결제 해제법이 있어 하안거 동안거 법이 있다. 舊 4월 15일부터 결제하여 7월 15일에 해제하니 其間 3개월 간은 전심 참선하니 이를 하안거라 하고 10월 15일부터 결제하여 1월 15일에 해제하니 其間 3개월을 동안거라 한다.

안거 중 일상 생활이란 매일 오전 3시면 필히 기침하여 일제히 노소 없이 법당에 모여 불전에 香火를 사르고 예식을 맞친 후 同 6시까지 면벽 관심하여 참선을 하고 아침 공양을 하고(조반) 8시부터 10시까지 오후도 역시 1시부터 3시까지 6시부터 9시까지 참선을 하여 이와 같이 대중 수 십명이 동일 규율 하에서 如一히 九旬 안거를 종료하는 날이 해제일이고 해제 후 다음 결제일까지 3개월 동안은 고행을 닦기 위하여 동거하던 禪客들이 각자 걸망(鉢囊)을 질머지고 타처로 옮기어 到處線을 딸아 고행을 닦고되 혹은 성읍 부락에도 지나며 혹은 명산 대찰과 이름난 성지를 찾아서 심신을 맑히기도 하여 고행 중에서도 항상 도 닦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화두를 參究하다가 결제일이 도래하면 실 여전히 각처의 禪院으로 입방 (즉 名目을 드리는 것)하여 다시금 참선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교종인의 생활은 보통 기침은 5시이고 기침 후 법당에 모여서 예식을 마친 다음에 각자 持誦하는 경전을 외우고 6시 30분 경이면 조반을 먹는다. 조반 후는 각자 임무를 쫓아서 종일 일과를 하게 되는데 其中 佛法중 대승 경전을 연구하는 학인들은 조반 후 약간 휴게한 후에 타종 집합하여 論講을 시작하니 論講이라는 것은 일종의 경전을 연구하는 것인데 학인이 3인이면 3인, 4인이면 4인이 1일간 연구하기 위팅하여 과정을 정하되 불경 책

장 수를 동일히 정하여 그 날 일과로서 종일 각자 견해를 좇아서 연구한 것을 其 익일 조반 후에 論講하게 되나니 각기 견해가 동일할 때에는 아모 異動이 없지만은 만일 각기 연구한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朝室 (선생) 和 尙許로 가서 판결을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一代 時教를 연구하는 가운데서 大諸師 대법사 포교사가 생겨나는 것이다. 三界 大聖인 釋迦牟尼의 법도량에서 청정한 몸으로 길드리는 승려 생활이란 참으로 신성한 가운데서 人天의 大法器를 이루는 곳으로서 가히 부러워 아니할 수 없다.

○제12권 제6호 1940-06-01

海印寺 紀行/李箕永

[1] 伽倻山은 朝鮮 10勝地 중의 하나로 치는 명산이다. 海印寺는 바로 이 伽倻山 牛頭峯 下에 있는데, 역시 法刹이 大本山인 南道 제일의 名刹이다. 현재 海印寺는 慶尙南道 陝川郡 伽倻面 緇仁里에 있으나, 옛날의 伽倻山은 伽羅연방의 要部였다 한다.

즉 伽倻는 伽羅의 轉音인데 후에 불교적으로 變稱된 것이라 한다. 이 밖에도 牛頭山, 象王山, 象向山, 只恒山, 雪山이라 칭한 바, 忠淸, 慶尙, 全羅 3도의 交界에 있는 大德山의 일맥이 東走하여, 慶尙道를 남북으로 分한 北은 星州, 高靈, 南은 居昌, 陝川 4郡간에 盤居하니, 높이는 해발 4,719척이다. 면적은 3,328町步다.

此葉의 天然 五間에 松, 赤松, 단풍, 활엽수 등이 查密하다. 그러면 이 산 속에 절은 언제부터 생겼는가. 海印寺의 開山 緣日은 新羅 제40대 哀莊王 3년(서기 802년) 壬午 10월 16일이라 하니 距今 1,139년 전이다.

古記에 按컨대 順應, 利貞 兩大德이 哀莊王의 귀의를 得하여 此寺를 開創하였다는 바 兩師는 이보다 먼저 唐나라에 들어가서 寶誌公和尚의 후에게 誌公의 「東國踏山記」를 얻어 가지고 귀국하였다 한다.

伽倻山에 到하여 草庵을 세우고 (지금의 堆雪堂 越便에 遺墟가 있다 한다) 禪定에 入하였는데, 그 때 哀莊王后가 등창이 나서 神僧을 사방으로 구하던 차, 使從이 왕명을 받들고 伽倻山 외 10里許에 到하였을 때 忽연

山上 공중에 紫氣 광명이 충천함을 보고 白狐의 인도로 (현재 黃山里 前 여호다리는 그 때 사신이 白狐를 처음 만나던 곳이라 한다) 길을 찾어서 산 안에 들어오니 지금 寺門의 數町許에 있는 자추바위(跡岩) 부근에서 여호는 온데 간데 없어지고, 兩師를 만나 보게 되었다.

사신은 來意를 말하고 동행키를 청한 즉, 2師는 불응하며 五色絲 數丈을 援하여 曰, 此線의 한 곳은 王후의 瘡口에 粘付하고 다른 한 곳은 궁정에 있는 樹枝에 걸쳐 두면, 등창이 곧 낫으리라고. -사신이 돌아가서 그대로 奉命한 즉 과연 그 나무는 말너 죽고, 王후의 등창은 즉 善하신 지라, 이에 王과 后가 모다 大喜하사 師를 위하여 海印寺를 창건하시고 王이 親幸하여 田 2,500結을 寺에 納하는 동시에 慶讚法會를 設하여 回向한 후에 귀국하였다 한다. (지금 極樂殿측에 御水井이 있다)

寺額을 海印寺라함은 開山이래로 便稱한 寺名이다. 혹은 伽椰岬寺, 伽椰山寺, 伽椰寺라고도 칭한 것은 山名과 寺名을 합한 약칭이었다 한다. 그런데 「海印」이라 함은 본시 佛說 華嚴經 중에 있는 『海印三昧』라는 大定の 名이라 한다. 이 大定중에는 3종 世間 - 즉 器世間, 중생 世間, 智正覺世間이 順現하는 것은 마치 비유컨대 천지의 森羅萬象이 海中에 印顯하는 것과 동일하다 하여, 華嚴經의 所依 三昧의 名을 海印이라 칭하였다는 것인데, 華嚴宗祖 義湘은 唐에 入하여 智儼公의 講下에 住하면서 華嚴經을 연구할 때에 海印三昧의 의미를 따서 『海印圖』를 만들어냈다.

이것을 儼公에게 進呈하였더니 儼公이 보고 大讚하였다 한다. 후에 義湘이 본국에 歸하여 海印圖로써 傳法의 寶를 삼으매, 上首 제자인 相源 大德에게 此를 전한 바, 源은 琳大德에게 전하고, 琳이 다시 順應 大德에게 전하였다. 이리하여 順應大德은 此를 受하고 伽椰山에 寺를 創하여 寺名을 海印이라 칭하였다 하며, 따라서 海印寺는 華嚴宗의 근본 道場이 되는 까닭이라 한다.

그러나 海印寺의 현존 堂宇는 板殿 상하 2棟을 제하고는 舉皆霽月聖岸 禪師의 重建에 속한다는 바 其間에 6회의 화재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 후 新羅 敬順王 원년(서기 927년) 丁亥에 希朗祖師가 高麗 太祖의 귀의로 海

印寺를 一新 증건한 바 왕은 田 500結를 納寺하였다 한다.

希朗祖師의 始는 朱씨다. 新羅 眞聖女王 3년 己酉에 지금 居昌郡 主上面 聖基村에서 生하고, 孝恭王 7년 癸亥에 伽倻山에 入하여 落髮하였다. 후에 僧統이 되어 此寺에 住지라고 華嚴三昧를 得하였다 한다.

그 때 高麗 太祖가 後百濟王 甄萱과 싸워 美崇山(今 度靈郡)에서 패전하고 海印寺에 入하여 希朗祖師를 師事하였다. 師가 勇敵大軍 祖叉王을 遣하여 神兵을 率하고 麗太祖를 도아서 萱을 破하매 太祖가 朗公을 敬重하여 師로 섬기었던 것이다. 이하 건물을 소개하면

[1] 大寂光殿

本殿은 開山 당시부터 毘盧殿이란 扁額을 揭하고 華嚴宗의 本尊인 毘盧遮那 佛像을 本尊으로 모시던 大德堂인 바 成宗時에 榮祖大師가 重創할 때, 大寂光殿으로 개편하였으며 누차 화재에 증건한 터임으로 舊制보다 규모가 적어졌다 한다. 그러나 現今 本殿은 距今 123년 전 戊寅에 化主 霽月 聖岸禪師, 都片手 釋德聖의 건축한 바인데 內7包 外5包 20間的 대건물이다.

[2] 板殿

本殿의 건물은 원래 소규모이던 것을 世祖大王 당시에 改構하였으나 未久에 傾頹되어 成宗 戊申에 仁粹, 仁惠 兩大妃께서 榮祖大師를 명하여 都料匠 朴仲石의 手로 재건할 새 普眼堂이라 扁하고 普眼門을 세웠었다. 其後 화재로 普眼門은 全燒되었으나<86> 오직 板殿만은 무사히 災를 면하여 金일에 至하였으니 當寺의 最古 건물이다. 상하 2棟 60間에는 國刊 藏經板本을 수장하였고 좌우 兩棟 4間에는 寺刊藏經板本을 쌓두었다.

[3] 堆雲堂

本堂은 大寂光殿과 同建한 것인데, 光武 3년에 梵雲 就堅公이 修禪社를 增剎하고 翌年에 本堂도 수선하였으나 大定 7년에 修禪社를 폐하여 祖師殿으로 개편하고 開山祖이하 역대 禪社의 영정을 봉안하였다. 小香閣, 凝香閣을 併하여 禪院으로 사용한다.

[4] 冥府殿

本殿은 高宗 10년, 距今 68년 전에 雲華普澤公이 金塔殿 舊基에다 刱建하고 越 5년 戊寅에 繡龍等 諸畫員의 手로 丹*하고 十王像을 態川 聖興寺로부터 移安하다.

[5] 應眞殿

本殿은 본래 解行堂으로서 成宗 19년에 親建한 건물이다. 역대 禪師의 영정을 봉안하였더니 大定 7년에 板殿 西齋에 안치하였던 16羅漢像을 옮겨 왔다.

[6] 獨聖閣

本閣은 본래 希朗祖師像을 봉안하였다가 大定 7년에 現今 祖師殿으로 옮겨 오고 獨聖像을 置하였다.

[7] 九光樓

本樓는 大寂光殿보다 6년 후에 건축한 것인데 그 때 本道巡相 金履載가 樓未成함을 와서 보고 도내 僧 40인의 각 10貫義 金과 居昌人 金龍述의 施金 300냥을 得하여 新建한 것이다. 그가 樓題를 手書하여 걸었다 한다.

[8] 觀音殿

本殿은 大寂光殿과 동시 증건한 僧堂이다. 初에는 尋劔堂의 扁을 揭하였더니 근 100년 전에 寺北에 있던 觀音殿이 被燒된 후에 소속 재산을 此處에 옮긴 고로, 觀音殿의 칭호를 받게 되었다. 隆熙 2년 戊申에 晦光師濬公이 尙宮 千一淸의 金施을 得하여 개축하니 寮舍와 아울러 3棟 86間の 대 건물이다.

[9] 窮玄堂

本堂 역시 大寂光殿과 동시 증건한 禪堂이다. 光武 7년 癸酉에 海鵬禪師가 증건하고 隆熙 2년 戊申에 晦光師濬公이 觀音殿과 동시 증건한 것인데 3棟 80間이다.

[10] 景洪殿

本殿은 高宗 29년 距今 49년 壬辰에 梵雲就賢公이 三殿爲祝所로 新建한 것인 바 좌우 翼廊을 합하여 3棟 33間이다.

[11] 四雲堂

本堂은 역시 大寂光殿과 동시, 片手釋宇定の 所建인데, 舊來로 僧政을 행하던 舍所라 한다.

[12] 明月堂

本堂도 大寂光殿과 동시에, 片手釋德性の 손으로 건축된 것이다.

[13] 鳳凰門

本門은 大寂光殿과 가치 중건되고, 距今 103년 전 戊戌에 淵月 長老가 化主가 되어 伽倻, 那提, 文殊, 普賢 4位幀을 봉안하였더니 昭和 8년 癸酉에 古鏡大師가 化主가 되어 松坡順公의 手로 四天王幀을 新成 봉안하였다.

[14] 解脫門

[15] 仁霞門

此 2門은 모다 大寂光殿과 가치 중건된 것으로 光武 3년 己亥에 化主 梵雲 就堅 禪師가 重修하였다.

[16] 局司壇

本壇은 1棟 3間의 소건물로 局師大神을 봉안하였다. 창건 연대는 미상이나 去 純祖時에 丁丑 화재를 요행히 면하고, 光武 3년 己亥에 梵雲公의 重修로 금일에至今 至한 것이다. 海印寺에는 보물이 많다 하나 그 중에도 無價의 寶로는 누구나 팔만대장경을 特設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大藏經은 宋 太祖 開寶 4년(서기 971년)에 始刊한 蜀本으로부터 支那, 朝鮮, 내지를 합하여 前後 수십회의 板刻이 있다 하지만 특히 高麗 板刻을 세계 無比의 걸작품이라 함은 그 체제의 훌륭함과 校正의 엄밀함과 部秩이 완비함이 세계 藏板중에 제1위이기 때문이다.

내용을 구별해 보면 寺刊과 國刊이 있고 國刊중에도 또한 舊本 續本이 있다. 續本은 李朝이후에 만든 것이고, 舊本은 國刊 藏板 移安(國刊은 李 太祖 7년 戊寅에 옮겨 왔다) 이전에 개간된 것으로서, 國刊보다도 연대가 훨씬 이전 것이라 하나, 그러나 國刊에 비하여 조금도 손색이 없다 한다.

國刊板은 高麗 高宗 23년 丙申(서기 1236년)에 本司를 江華에 分司를 晉州에 置하고, 38년 辛亥까지 大凡 16년간 조각한 것이라 한다. 이 經板을 海印寺에 두게된 데 대해서는 諸說이 있으나 大正 7년에 包光師의 발견

에 의한 華嚴教 分記 제10권 10장의 欄外에 「丁丑出陸時 此閣失與知識道
元同願開板入上 乙酉十月日首座冲玄」 운운이라 음각한 것으로 보아 李太
祖 7년 戊寅에 海印寺로 移置한 것이다.

經板을 間口 33間 奥行 5間半의 板殿 2棟에 收藏하여 設架 배열한 바
대저 縱 8寸內, 外橫 2尺 2,3寸, 厚 1寸 2,3分이요, 兩端에 마구리를 부치
고 네구통에 銅製장식을 한데다가, 전면에 칠을 薄塗하였는데, 用材는 白樺
이다. (朝鮮名으로 자작나무 일명은 巨濟木이라 한다) 한 개의 중량은 700
匁 내지 1貫되는 것도 있다.

板面은 보통 縱으로 7寸 4,5分 橫으로 1尺 5寸 6分이요, 상하에 界線이
있을 뿐, 罫線는 없다. 1행 16자 23행인데 1자 方 5, 6分. 양면에 각하고
其 一端에는 經名卷次丁數並千字文에 의하여 函函號를 示하고 그 外側도
간략히 표시를 刻하였다.

그러나 其 中에 板面의 寸法, 行數, 字數, 字의 大少등이 상이한 것도
있으며 輪廓 及 괘선이 있는 것과 一面만 刻한 것과 혹은 一面에 二葉을
刻한 것 등이 있으니, 자못 전부가 原板이었지만 中間의 손상으로 후에 刻
한 것이 다소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經板을 二座 藏經閣 五層 板架에 층마다 縱으로 2열 배치하고
중양의 板架 壁際에는 다시 전후 양변으로 배열하였으니 國刊 판본 수는
81,258枚에 經部秩數가 1,512部요 經卷數는 355권이라 하니 麗朝, 李朝
兩代에 걸친 이 위대한 사업에는 실로 敬탄을 不己할 뿐이겠다.

寺刊 藏版의 최초 개간된 유래에 대하여는 化主 李居仁의 불교적 전설이
또한 흥미 있으나 지면 관계로 그것은 割愛하겠다.

이상은 海印寺의 연혁을 약술함에 불과한 바 (주로 「海印寺 略誌」에
의하여) 畵를 달리하여 이제부터는 내가 본 伽倻山을 적어 보기로 한다.

伽倻山은 자고로 단풍이 유명하다 한다. 그러나 大凡 명산승지는 어느
때 보아도 독특한 풍경을 가지고 있나니, 마치 미인은 아무 때 보아도 미인
인 것과 같다. 盛裝을 했을 때는 화려한 美가 좋을 것이요, 수수하게 차렸
을 때는 또한 소박한 美가 좋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晩秋에 伽倻山을 가본 것이 조금도 섭섭할 게 없겠다. 그러나 몇일 전에만 갔더라도 滿山 紅濤의 盛裝한 伽倻山을 玩賞할 수 있는 것을 落木 空山에 陰風이 냉냉한 때 찾아간 것은 자못 一步遲의 恨이 없지 않다.

大邱에서 기차를 버리고 역전에서 高麗行의 乘換하면, 2시간여에 高靈邑에 도착한다. 거기서 다시 慶尙南北道의 道界를 넘기까지 平平凡凡한 산천은 어디 하나 명산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러나 嶺上을 넘어서 冶爐川을 낭떠러지기를 구버 보며, 멀리 雲表에 솟은 紫色 山容을 眺望할 때는 문득 저기로구나 하는 생각이 누구나 생길 것이다.

그러나 冶爐川을 지나서 紀流洞까지 또 30리는 역시 평범한 山谷間을 뚫고 나간 신작로다. 따라서 伽倻山의 승경은 紅流洞에서부터 전개되기 시작한다.

하긴 紅流洞門을 들어서기 전에 武陵橋등의 명소가 없지 않다 하나, 지금은 「花飛暮春日, 尋入武陵天 何處神仙會, 遠林生翠煙」이라한 西山大師시가 남아 있을 뿐, 武陵의 옛날 경치도 변모된 모양이니 더구나 신선의 자취는 말할 것도 없겠다.

그렇다니 말인데, 海印寺 앞까지 신작로를 내는 바람에 紅流洞도 俗化해서, 지금은 난잡하기 짝이 없다. 冶道軍과 목재 운반 인부 등의 등쌀로 주막과 점포가 느러간다. 밤이면 油頭紛面の 酒女가 출몰하고, 장구 소리와 노래 가락이 흘러 나온다.

紅流洞에서 자동차를 내리면, 계곡은 갑자기 좁아지고, 좌우의 靑山이 碧溪水를 둘러쌌다. 그리하여 綠水는 靑山을 끼고 돌고, 靑山은 綠水를 안고 돌아, 소위 紅流 九曲의 절승을 이루었는데, 만일 伽倻山을 小金剛에 비한다면, 紅流洞天의 일대는 마치 內金剛과 같고, 牛頭峯 一境은 外金剛과 같다 할까.

그래서 고산 지대에는 가지만 버러진 잡목림과 풍화작용에 무서린 峯岩이 솟아있고 분지인 계곡간에는 白蒼긴 절벽과 격류에 때를 베긴 옥석과

기암이 나열하였다.

紅流洞 상류에는 崔孤雲의 유적인 籠山亭이 또한 一景을 이루었거니와, 伽倻山은 도처에 孤雲의 유적이 많다 한다. 현재 海印寺의 위치인 緇仁里는 致遠里의 變稱이라는 바, 거기는 孤雲선생이 처자를 인솔하고 伽倻에 入來했던 당시의 주소였다 한다.

그래서 籠山亭 後麓에는 孤雲의 影堂이 있고 越便 大路傍에는 저 孤雲의 유명한

狂奔疊石吼重巒 人語難分咫尺間 常恐是非聲到耳 故教流水盡籠山
이라 한 題石詩가 있다. 紅流洞의 孤雲에 대한 1, 2 名詩를 소개해 보자.

開道孤雲入此巒 不知靈跡依何間 謾將間眼看尋處 動者流川靜者山
의 晦堅大師 詩가 其 1이오,

逝者流溪立者巒 一區仙境落人間 古岩不語當時事 何日孤雲入此山
의 仁波大師 詩가 其2이다. 석양 山路를 걸어 籠山亭을 돌아가면 산남 산북은 除陽이 분명한데 照耀하는 日光은 青山에 霧霞를 토함이 또한 장관이다. 吹笛峯 下엔 명소가 유명하니 泚筆岩, 吹風瀨, 光風瀨, 完在岩, 噴玉瀑, 霽日潭, 疊石臺, 會仙岩 등이다. 먼저 吹笛峯을 읊은 崔東植의 시을 보면

春山春雨梁青螺 石氣濛濛樹影多 玉笛數聲雲不倦 也知峯月浴銀河
가 지금도 그럴 듯 髣髴하나, 泚筆岩을 두고 지은 姜孟希 시의

鐵削千尋壯 雲生萬竇涼 頑冥終不語 屹屹但蒼蒼
은 찾아 볼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면, 泚筆岩은 신작로를 내는 바람에 지금은 길 밑에 무쳐서 보이지 않고 겨우 岩名을 刻字한 것이 路傍岩에 자취를 남겼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천연의 경치를 그대로 가지기는 아마도 落花潭이리라. 落花潭은 寺에 迺하는 최후의 절경이니 그 규모의 웅대함이 外金剛의 九龍淵만은 못 하나, 千仞 절벽下에 심연을 일우고, 백옥같은 반석위에서 떠러지는 一條 飛瀑은 그 위의 翠巒의 除影과 더부러 무시무시한 戰慄美를 갖게 한다.

前名을 藝妓潭이라 하였으나 너무 野하기 때문에 落花潭으로 고쳤다면
가. 옛날에 기생이 빠져 죽은 곳이라 한다. 그 위 山頂에는 老龜 昇天岩이
있다. 흡사히 금방 뛰어 올을 것 같은 龜形으로 된 바위가 보인다.

그러나 海印寺 부근의 유명한 폭포로는 말짱이로 가는, 路傍에 있는 龍
門瀑이다. 그것은 朴淵 같은 長山속이 아니라, 瀑長이 그리 길진 못하다.
수년전의 홍수로 瀑白도 伏沙로 미어져서 웅덩이가 넓지 못하다 하나, 터
전은 넓기 때문에, 만일 폭포밑을 인력으로 파내기만 한다면, 웅대한 폭포
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다.

나는 그런 공상을 해 보고, 이 산속에 다수한 자기 성명을 대서특서한
遊客중에 혹시 그런 施主는 없는가 염원해 보았다. 海印寺측에 있는 學士
臺도 孤雲선생의 置踐地라 한다. 선생의 手植인 老檜木이 두어 아름답게
꿨다. 전설에는 지팡이를 꼬진 것이 살았다는 것이다.

이 밖에 奉天臺는 牛頭山 제일봉 하에 있으니, 여기에 오르면, 멀리 智
異山 連峯이 구름 밖에 둘러섰는 輪廓이 南山넘어로 희미하게 내다보인다.
牛鼻井은 牛頭上峯 山頂에 있다. 푸른 이끼가 끼었는 天水바지의 웅달샘이
다.

따라서 우물로서는 아무 보잘 것이 없으나, 작년같은 大旱에도 이 샘물
이 여전하게 고여 있었다니 따는 이상하다. 그러나 물은 이 샘뿐 아니라 伽
倻山 계곡은 어디나 물이 흘러서 이 물로 농사를 짓는 부근 주민들은 免凶
을 하였다니, 未嘗不 伽倻山이 피난처로 유명한 승지인가 부다.

그런 공리적 생각은 그만 두더라도 牛頭山頂에 올라서 바라보면 동서남
북이 豁然히 특 터진 一望無險한 天空이 상쾌하다. 가깝게는 慶北 일대의
群少重巒이 眼下에 굴복하였는데, 그 가운데 洛東江이 白布를 펼친듯이 길
게 둘러있다. 急角度가 진 북편, 이 산 밑은 절벽틈에 잡목이 무성하다.

海印寺에 부속된 암자는 攀皆 큰 절 부근에 있으니 三仙庵과 藥水庵은
尼院으로 유명하고, 希朗臺는 希朗公의 修道地라 師名을 취하이라. 白蓮庵
은 本寺보다도 高處에 在하여 老松奇岩간에 景概 자못 絶勝하고, 정적하기
寺 중에 제일이니, 그래서 伽倻山中 제일 승지라는 稱譽를 듣는 福田靈倫

이라 한다. 고래로 수도 고승의 住錫한 자가 많았으니, 幻寂, 楓溪, 性峯, 仁坡, 潤海, 信海 등 諸師었다.

弘濟庵은 四溟大師가 거주하던 곳이다. 지금도 대사의 임종하던 방이 그대로 한 편으로 影堂이 있다. 내가 바로 이 弘濟庵에 있었는데, 거기서 飛鳳山의 一翼이 前溪를 막아 서고, 後峯下에 靑竹이 둘러있는 一壟 명당지다. 후원에 四溟堂의 浮屠가 있다.

이 앞산에 봄에는 철죽이 곱게 피고, 가을에는 단풍으로 유명하다는데, 나는 만추에 갔기 때문에 마른나무 가지에 「저으사리」가 시퍼렇게 붙은 잡목림을 또한 기이하게 보았다.(끝)

2) 조선(朝鮮)

○제217호 1933년 6월 1일

海印寺를 訪ふ/安倍能成(경성제대교수)

[本文省略]

3) 반도시론(半島詩論)

○제1권 제9호 1917-12-10

海印寺住持 李晦光和尚과 其演說/轟石生

[本文省略]

4) 신문계(新文界)

○제27호 1915-06

海印寺沿革概要

[本文省略]

○제35호 1916-02

海印寺探勝記/具滋興

[本文省略]

5.2 신 문(新聞)

1)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1906년 10월 2일

研究支部會陝川海印寺에 僧侶가 教育의
研究支部會陝川海印寺에 僧侶가 教育의 旨을 奉體하야 私立明立學校을 設
立하야 僧俗青年才子을 教育하느디 本郡守趙重翊氏와 居昌郡守李元鎬氏가
此學校을 贊成하야 補助하섯기로 廣告하옵니다.

本郡守趙重翊氏 紙貨 十元

居昌郡守李元鎬氏 紙貨 五元

主事鄭極源氏 韓貨 二元

晉州大源寺 紙貨 二十元

咸陽碧松靈源法華三庵 紙貨 二十元

鎭南安靜寺 韓貨 四元

陝川海印寺明立學校事務長 金景明 告白

2) 황성신문(皇城新聞)

○1903년 3월 27일

陝川海印寺/詞藻

沈沈古刹耶山前紅流(洞名)白石清涓涓大鐘橫撞序飯食神燈森動紛香烟藏經閣
在飛禽絕解行堂深饑虎眠三姓繁華舊物好寥寥佛眼看千年韋蒼評曰不拘拘於繩
尺而蒼健可誦其藏經閣俗云鳥雀無遺穢解行堂奉海東諸名釋眞中有馴虎者云故
第二聯必謂此

○1910년 4월 1일

[論說] 陝川海印寺에 八萬大藏經

陝川海印寺에 八萬大藏經은 距今一千五百年前에 釋迦牟尼의 大願船이
印度洋을 越하야 海東半島에 卓錫하느는 新紀元時代로부터 造成하야 萬億無

量劫에 光明이 不滅할 板本이라.

屋上에 鳥雀이 不下하는 異跡이 至今尙存하니 世界에 無等한 價値가 有한 古物이오 國土에 特著한 光輝가 有한 珍本이라 泗水의 九鼎은 沉淪하여도 此經은 無恙하였스며 洛陽의 鐘거는 遷移하여도 此經은 自若하였스며 寶玉大弓을 竊取하는 大盜와 玉魚金碗을 發掘하는 亂賊이라도 此經에 對하여는 敢히 着手한 者가 無하였스며, 最近歷史에 豐德玉塔과 慶州玉笛과 北關大捷碑는 移轉이되얏스되, 此經은 屹然自在하였는디 胡爲乎今日에 此經을 竊去코져 生意한 者 | 有하나 我大韓民族이 此에 對하여 何等驚愕이며 何等痛嘆이리오.

最是一般僧侶를 爲하여 警鐘을 叩호노니 今日禪家에서 如此奇變을 遭한 것이 何로 由함인가 其故를 思量하면 宜其覺悟할바 有할지로다. 元曉儀相이 今日에 在하여 禪宗의 公德을 發展하였스면 此等奇變이 無할지며 西山四溟이 今日에 在하여 祖國의 否運을 挽回하였스면 此等奇變이 有하릿는가 今日僧侶가 萬一此經을 保存치못하면 即是千層地獄에 墮落하여 阿鼻水劫에 超脫이 無期할 罪惡을 不免할지니 可不念哉며 可不奮哉아 此經을 保存하여 數千年傳來하는 禪宗의 手澤으로하여곰 墮地의 淚가 無코져하면 此祖國山川이 磐泰의 安을 得한 然後에 可할지니 必也曹溪禪宗의 心法으로 入世功德을 勉勵하여 八萬大藏經의 光明이 萬億無量劫에 無恙存在하기를 頂祝호노라

3) 매일신보(每日申報)

○1912년 12월 17일

海印寺山林火災, 해인사 산림에 화재

[本文省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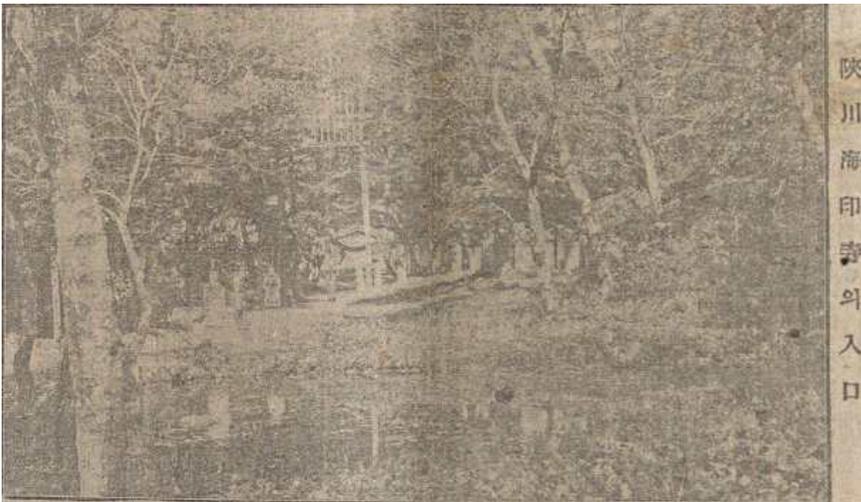
○1913년 5월 14일

[사진] 陝川 海印寺 입구의 大森林



○1913년 5월 15일

[사진] 陝川 海印寺의 入口



○1914년 4월 30일

東西南北: 海印寺 住職의 기자 초대

[本文省略]

○1915년 1월 8일

海印寺所藏 高麗版 一切: 經의 세계적 가치/總督府 囑 渡邊彰

慶尙南道 陝川郡 伽倻山の 巨刹 海印寺에 藏ᄃᆞᆫ 高麗版 一切經은 高麗朝 佛教隆盛時代에 特히 大藏都監이라 稱ᄃᆞᆫ 司廳을 設ᄃᆞᆫ 大成ᄃᆞᆫ 經板인 대 此經板은 다만 朝鮮에서 無比ᄃᆞᆫ 貴重品될뿐만안이라 世界列國을 通ᄃᆞ야 如是多大ᄃᆞᆫ 經板을 保有ᄃᆞᆫ 圖書館이나 博物館이 無ᄃᆞᆫ줄로 思ᄃᆞᆫ時는 實로 海印寺 所藏의 高麗版一切經의 版木은 世界的 價値가 有ᄃᆞᆫ 者라 ᄃᆞ리다.

予가 此經板에 對ᄃᆞ야 如是重大ᄃᆞᆫ 價値를 附코져ᄃᆞᆫ 事由는 左의 四點에 在ᄃᆞ니,

- 一. 字體가 嚴正ᄃᆞᆫ고 筆勢가 極히 雄麗ᄃᆞᆫ 事.
- 二. 木版을 調製ᄃᆞᆫ에 當ᄃᆞ야 材料의 選擇及製版後 永久保存에 適合ᄃᆞᆫ도록 周到ᄃᆞᆫ 注意를 ᄃᆞ 事.
- 三. 世界各國 圖書館 又는 博物館等에 此를 匹敵ᄃᆞᆫ 多大ᄃᆞᆫ 版을 保存ᄃᆞᆫ 者- 無ᄃᆞᆫ 事.
- 四. 版木作製의 時代比較上으로 考察ᄃᆞ야 此와 同一ᄃᆞᆫ 時代에 作製ᄃᆞᆫ 者가 今日 各國에 不傳ᄃᆞᆫ 事.

是也-라. 予는 以上 列舉ᄃᆞᆫ 四點에 就ᄃᆞ야 管見을 述ᄃᆞ야 아즉 該經板을 一見치 못ᄃᆞᆫ 士君子에게 此貴重ᄃᆞᆫ 經板의 實際를 紹介코져 ᄃᆞ노라.

一. 釋教八萬四千의 法門의 經論疏釋을 部門類別ᄃᆞ야 世에 傳ᄃᆞᆫ 者를 一讀ᄃᆞᆫ기도 容易ᄃᆞᆫ 事가 안 이거던 此大部의 經論疏釋을 嚴正히 淨寫ᄃᆞᆫ고 更히 木版에 刻ᄃᆞᆫ스되 其筆勢의 雄麗雄佳ᄃᆞᆫ은 宛然히 支那宋明時代의 遺物인대 今日 世上에서 稀見ᄃᆞᆫ바 經籍에 遜色이 無ᄃᆞᆫ 板本의 現存ᄃᆞᆫ은 實로 朝鮮이 世界에 向 ᄃᆞ야 誇耀ᄃᆞᆫ바-오.

加之而一字를 書 ᄃᆞ야 堅緻質 의 版木에 刻字ᄃᆞᆫ되 其字書並筆勢等を 少毫도 損傷ᄃᆞᆫ이 업시 成就코져 ᄃᆞ면 其勞苦가 多ᄃᆞᆫ고 時間을 費ᄃᆞᆫ이 亦不少ᄃᆞᆫ리니 此를 思ᄃᆞᆫ면 當時 大藏都監의 職에 在ᄃᆞ야 一切經 全部의 淨寫와 刻字를 掌理ᄃᆞᆫ 當局의 動勞에 對ᄃᆞ야 深厚ᄃᆞᆫ 謝意를 表ᄃᆞᆫ고 今日 以後

에 此를 永久히 保存하여야 世界的 價値를 益高케 안이치 못할지오.

二. 經版 調製에 際하여 第一 注意하였다 할 것은 其堅緻한 材質을 擇함에 在하고 次에 水浸하여 木質에 蝕은바 朽蝕元素를 去하고 次에 乾造하여 四隅를 鋼鐵調合의 金具로 釘裝하고 次에 版木의 兩面 卽 表裏에 經文을 彫刻되 順次는 千字의 天地玄黃으로 前後를 定하여 見者로 하여금 其作製에 十二分의 注意를 加하여 永久保存함에 少毫도 遺算이 無함을 感歎케 하는 同時에 保存의 場所를 海印寺로 選定하여 祝融의 災를 避하기에 留意함도 亦思慮의 深遠함을 歎服하겠고,

三. 世界에 文明의 先進者로 自任하는 各國의 圖書館又是 博物館等에서 古代의 遺物로 珍重히 保存하는 者- 多하다 할지라도 伽倻山 海印寺에 保存한 高麗版 一切經及其版木과 如히 大部가 完備整頓하여 存在한 者- 有함을 未聞하였스니 單히 此一點으로 할지라도 海印寺 所藏의 高麗版 一切經의 世界的 價値는 舉世가 其評價를 高하다한 者- 無한지오.

四. 佛敎는 印度에서 起하여 支那 朝鮮을 經하여 日本에 傳하는 者- 甚少하고 梵語를 譯하고 經籍의 版本은 支那나 日本에 皆有하나 其作製年代와 又其作製品의 壯麗雄偉한 點은 到底히 海印寺所藏 高麗版 一切經에 匹敵할 珍品을 支那나 日本에 現存치 안이도다.

以上の 四點에 海印寺所藏 高麗版 一切經은 歷史의 證徵으로 하던지 亦 美術工藝上의 模範으로 하던지 皆世界的 價値를 誇示하기 足한 貴重品이라 하리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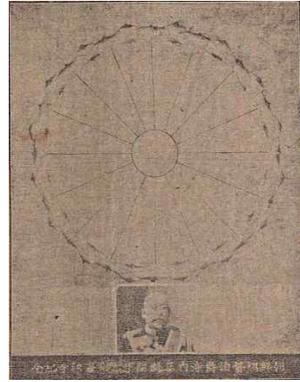
○1915년 6월 10일

伽倻山海印寺八萬大藏經光明圖

大義最中央一圓光相卽如來藏心名曰海印也此印上有無邊虛空及無邊風輪而普光摩尼香水海住其上種種光明藥香幢花於中特立無邊佛界之若刹若鍾橫豎上下錯落轟轟是日毘盧遮那所嚴淨之華藏莊嚴世界海也毘盧遮那之所演說修多羅藏是日八萬大藏經也然則海印本卽妙明之躰也藏經方廣明覺之光也其躰其光是佛是法也於戲帝國國旗之一圓光相無或躰此海印而製作歟旣象圓躰宜舒方光故今敢列書大藏目錄並補刹海蓮幢全國庶幾國躰日益重於秦國光日益耀於世界也

此國大正四年三月二十一日

總督伯爵寺內正毅閣下光臨于海印寺命印出大藏經全部三秩之紀念也按此大藏經寶板高麗國高宗時奉勅雕造二十四年丁酉經始三十八年辛亥竣工距今六百七十九年，高麗原板七萬八千五百十八枚，補遺板二千五百七十九枚，部帙一千五百〇六部，卷數六千五百四十七卷，題目字數一萬〇三百四十七字，大正四年三月二十五日，法刹大本山海印寺住持李晦光謹製 心齋居士吳在豐謹書 水觀居士尹泰興謹校



○1916년 8월 2일

陝川에서: 海印寺法階授與準備

[本文省略]

○1917년 4월 28일

海印寺投宿

[本文省略]

○1922년 12월 11일

南國七日紀行, 海印寺에 赴함(15)/木春

十一日午後에 安東을 떠나 大邱에서 一泊한 우리는 그 翌日에 陝川 伽倻山의 海印寺 名刹을 參觀하랴고 午前七時에 天色이 稀微한 가운데 五臺의 自動車mf 聯호야 唯家旅館을 出發하였다. 一行은 總督의 外에 松村田中丸山等 隨行員 諸氏와 騰川 慶北, 米田忠北의 兩知事와 富永警察部長, 松井 大邱府尹 等を 合하여 數十人의 大部隊가 되었다. 途中에 澤田慶南知事 一行이 出하였으므로 더욱 多人數가 되었다. 舊陝川邑을 지나 紅流洞入口에 이르니 阪路가 險峻하야 自動車가 通行치 못하는고로 이에서 下車하야 徒步로 山門에 上호게 되었다. 筆者는 高靈郡守 權重翼, 中樞院參議 李炳學 諸君과 함께 談話를 交換하면서 一步一休호고 約四十町이 되는 山路를 行하였다. 紅流洞이란 것은 新羅 文士 崔孤雲 先生이 命名한 것이라

는데 滿山楓樹가 林立하였고 中間으로 一道의 淸流가 怪岩白石사이로 奔流하는 것이 實로 그 名에 相副하겠다. 岩上에는 例에 依하여 題名한 것이 많다. 그리고 名不知의 俗子들이 名區勝景의 雅致를 減殺하여 到處에 名字를 濫刻한 것은 一不快의 材料가 된다. 筆者는 朝鮮先輩란 이들이 題名癖을 가진 것을 恒常 不快히 생각하는 한 사람이오. 그 中 에도 俗客의 濫刻癖을 가장 遺憾으로 생각하던 바인데 이제 伽倻山 靈境에에 드리오면서 그 濫刻에 嘔逆이 自生함을 禁치 못하였다. 그나마라도 名字만 刻한다 하면 오히려 怒한다 하려니와 觀察使의 某이니 前五衛將의 某 이니 甚함에 至하는 噴飯할 程度의 滑稽를 感하였다. 우리 사람의 傳染癖은 今에 痼疾을 成하여 近日에는 新聞紙廣告欄에까지 紳士何某이란 것을 特書大書하여 四海에 宣布하는 無識漢까지 有하게 되었다. 제발 하나님 마십시오.

山門이 각 기와진을 따라 景致는 더욱 幽佳하였다. 海拔四千呎의 巨山이 後에 鎖하고 奇禽怪鳥가 驚飛穿林하여 行人의 逸興을 자어낸다. 一行은 海印寺의 住持 李晦光和尚의 說明에 耳를 傾하면서 約 一時間 만에 山門에 當하였다. 私立海印普通學校의 生徒와 寺의 老少僧尼가 門前에 整列하여 合掌迎拜한다. 一行은 寺刹事務所에 入하여 休憩하면서 慧可禪師以來의 來歷과 寺의 開山以後 歷史의 概要를 드렸다. 海印寺는 今부터 一千二百二十一年前 新羅哀莊王時代에 創設된 古伽藍이오, 朝鮮國寶의 하나인 高麗八萬大藏經의 原板을 保存한 藏經閣이 잇슴으로 더욱 有名한 곳이다. 火災를 屢經하여 原狀을 可觀치 못하겠스나 그 規模가 宏傑하고 結構가 雄偉하여 質로 名區巨刹에 背馳되지 아니한다. 佛敎에 對하여 아모 智識도 업고 興味를 가지지 못한 筆者도 그 齊齊整整한 規模와 設備에는 頗히 感歎함을 禁치 못하였다. 寺의 內外는 淸潔히 掃除되야 一點의 塵이 업고 廚房의 淸潔한 것이 더욱 讚賞함에 足하겠다. 一行은 法堂으로부터 金山을 一巡하여 參觀를 始作하였다. 그리고 大雄殿의 前庭에서 記念攝影을 爲하고 海印普通學校를 觀覽하였다. 學校는 勿論 寺의 經營으로 約七十名의 兒童을 收容하여 普通智識을 授與하게 되었다. 教室의 萬般設備는 經費의 裕足치 못한 事情으로 整頓되지 못하였스나 生徒居室의 整齊淸楚한 것과

校舎内外에 不潔亂雜의 氣分이 少無한 것은 참으로 禪家의 遺風餘韻이 絶치 아니한 것을 讚揚치 아니치 못하였다.

○1915년 3월 14일

해인사 대장경의 인쇄, 세계유일의 판본

[本文省略]

○1915년 3월 24일

海印寺의 八萬大藏經

慶尙北道 陝川郡 海印寺에 藏호는 高麗大藏經版은 近年에 發見호는 世界의 至寶인대 當局에서는 今回에 其版으로써 大藏經 三部를 印刻호야 一部는 先帝陛下의 御冥福을 祈호기 爲호야 泉湧 寺에 納호고 一部는 朝鮮에 留호고 一部는 此를 世界的으로 保存호는 計劃이 有호다 傳호는대 淺見倫太郎氏를 訪호야 朝鮮書史學上에 依호는 見을 叩호는즉,

△距今十年前頃에 有名호는 東洋通의 英人 아네스트, 사도氏가 日本의 古書를 研究호는 餘에 朝鮮에까지 漸漸 手를 伸호야 某大藏經의 端本을 手에 入호고 是는 朝鮮의 高麗版이오, 鏤刻年代는 何宗의 何年이라는 考證을 發表호는대 其考證의 年代는 現今의 研究로 照合호는면 實際와는 二三百年의 相違가 有호는 것이라 彼를 그대로 當時 京城에 居호는 某宣教師가 受賣호야 發表호는 故로 余는 此를 見호고 此는 相違가 有호는 듯 호니 何에 確實호는 反證이 無호는가 호고 調査호는던中에 偶然히 其大藏經版을 鏤刻호는던 當時의 宰相이던 李奎報文集 卽 東國李相國集을 手에 入호야 見호는즉 刻版初年에 作호는 大藏刻版君臣祈告文을 載호는지라 然則要컨대 此版은 高麗가 元兵의 征伐을 被호야 開城의 都를 棄호고 南으로 逃호야 二十五年間을 江華嶋에 都를 建호고 在호는 時에 元兵遂退를 祈願호기 爲호야 造作호는 事는 一點의 疑를 容호는 餘地가 無호고 高麗史를 據호는즉 版의 全部 竣成호는에는 前後 十五年을 費호는다 호는고,

△海印寺의 緣起에 新羅哀莊王時에 造作호는다호는 寺額을 尊 키 爲호는 後人의 牽強附會호는 說노 見호는 外에 道가 無호고 史家 李德懋는 此版을 辛亥年作이라 호는대 高麗朝에는 辛亥年이 六度가 有호는에 初이에는 何辛

亥인지하는疑를抱하였으나 後에는 高宗二十三年이라고 正確한 年代를 悟하였으나 아-네스트, 사도氏가 悟하였는지 否인지 遂히 知할 由가 無하다. 高麗大藏經版은 海印寺 所藏外에 二部 或은 三部가 有한 듯 하니 海印寺 高麗大藏經版鏤刻以前에 確實히 一部는 印刻된 事가 有하니 此는 大覺國師의 文集를 見한즉 大藏經版을 刻한 事가 書中에 在하니 其時代에 一度刻版한 事는 充分히 信음 理由가 有하다 하여도 無妨하고 其他의 一回가 有하고 尙更一回가 有한 듯 하도다.

抑大藏經이라 함은 一에 三藏, 經藏, 律藏, 論藏에 分하여 釋迦의 沒後에 摩迦訶葉이 委員長이 되어 佛弟子間에 口傳으로 記臆하였던 經文을 照合結集하여 三藏法典을 作한 것이나 其時에도 經은 口傳을 뿐이니 一日에 九萬語를 暗誦함을 得한다는 當時의 印度人의 非凡한 記臆力을 一賴하고 文字로써 誌함은 無하였도다(以下次號)

○1915년 3월 25일

海印寺의 八萬大藏經

△差等의 經典을 貝多蘿葉에 誌게 됨은 蓋後代之事니 此訶葉의 第一次結集을 經하여 成한 法藏律藏의 經典에 後代 佛徒의 敷衍한 論藏을 併한 所謂三藏의 經典은 又는 大藏이라고 云하며, 海藏이라고 云하며, 一切經이라고도 稱하고, 現今 世界에 在한 大藏經에는 八種類가 有하니 其六種은 漢文을 用한 者라. 漢譯은 隋唐을 經하여 漸次 釋出된 것인데 此를 詮次하여 五千四十八卷으로 하고 千字文으로 函數를 定한 것은 唐代의 開元釋教目錄으로 爲始하였스니 此는 後世 印刻한 大藏經의 楷則이 된 것이오. 契丹, 高麗, 宋, 元, 明의 各朝에도 皆刊本이 有하여 所謂 六鍾의 大藏을 成한 것이니 蓋 大藏은 佛敎全書라고도 稱할만 한것이라.

時代의 遠近을 從하여 卷數의 多少를 免치 못하였스니 日本에서 行한 것은 僧鐵眼의 翻刻한 明藏 二千七百七十一卷本과 近年에 弘敎書院에서 刊出한 五號活字 版本의 二鍾이 多하고 芝의 增上寺에는 高麗藏, 宋藏, 元藏, 明藏의 印本이 有하니 此四藏의 印本을 藏한 것도 寔히 稀世의 珍寶이 온 况高麗藏의 版을 現在함에 至하여는 眞實로 斯學界의 無上한 慶事이로

다.

△朝鮮의 高麗藏經은 高麗王이 支那大藏의 屢屢 改刻을 經_ㄴ야 誤謬가 甚_ㄴ음을 慨歎_ㄴ야 宋朝의 官版과 及高麗傳來의 國前本, 國後本, 中本, 丹本, 東本, 北本, 舊宋本 等を 聚_ㄴ야 名僧 知識으로 _ㄴ야 此를 校正케 _ㄴ고 刻版_ㄴ 것이니 現存_ㄴ 大藏中에 最히 貴重_ㄴ 것이라 _ㄴ도 此 에 由_ㄴ함이라. 海印寺 所藏 經版의 彫刻은 前述과 如히 高宗의 江華嶋에 遷都_ㄴ 時代에 元兵攘斥을 祈願_ㄴ기 爲_ㄴ야 大藏都監을 設_ㄴ고 晉州에 分司大藏都監을 置_ㄴ야 十五個年의 歲月을 閱_ㄴ야 竣工_ㄴ 것시오. 此經版儲藏의 沿革에는 多少不明_ㄴ 点 이 有_ㄴ나 高麗末까지는 江華島 或은 開成附近에 保存_ㄴ앗던 것과 如_ㄴ니 李崇仁의 陶隱集에 驪興郡神勒寺六藏閣記라는 文이 有_ㄴ대 其師 李穡이 辛酉年에 經律論을 印出_ㄴ야 函을 作_ㄴ야 開成의 靈通寺로브터 丹에 載_ㄴ고 漢江을 遡_ㄴ야 神勒寺에 藏_ㄴ기까지 前後 三四年을 閱_ㄴ앗다는 事를 載在_ㄴ함이 有_ㄴ니 此는 高麗王 辛禹七八年之事오. 其後七十五年後 朝鮮世祖에 至_ㄴ야 海印寺에 謄傳_ㄴ 世祖朝榻印節目에는 天順元年及二年의 印經記事에 五十部를 印刷_ㄴ야 海印寺로브터 各道 寺院에 配布_ㄴ 記事가 有_ㄴ니 當時는 旣히 經版을 今의 海印寺로 移_ㄴ 事가 明白_ㄴ나 旣移轉의 理由는 不詳_ㄴ도다.(以下次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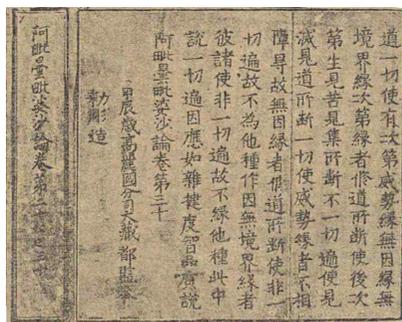
○1915년 3월 26일

海印寺의 八萬大藏經

△海印寺에 傳_ㄴ는 海印寺事蹟에 新羅時代의 彫板이라고 記在_ㄴ함과 如_ㄴ함은 荒唐無稽의 甚_ㄴ 者이라도 天順二年이라 _ㄴ면 朝鮮世祖의 三年이니 刻板_ㄴ 時로브터 旣히 二百年을 經_ㄴ앗고 朝鮮太祖 以後에도 士民의 好事者가 全部를 印刷_ㄴ 事도 有_ㄴ고 朝鮮에서 必此를 日本에 贈_ㄴ 事가 有_ㄴ함은 同年의 金守溫所作印成大藏經跋에 記在_ㄴ니 當時 印刷의 目的은 王이 先王及先王后와 祖考의 冥福을 祈_ㄴ함에 在_ㄴ 斯後로 經版은 今日에 至_ㄴ기까지 無事히 存在_ㄴ고 其印本은 海印寺에서 藏經匱와 共히 同時 無說殿에 藏_ㄴ 것이 一部가 有_ㄴ하얏스나 近代 正祖四年正月八日의 火災에 燒却되얏고 其他 全道寺院에 配付_ㄴ앗던 것은 一部도 寥然無聞_ㄴ고 李太王二年에 僧永

湖等이 二部를 印刷하고 光武二年에는 勅令으로써 四部를 印刷한 事가 有하고 明治四十二年間에 一私人이 十五鍾을 抄出 하여 印刷하였으나 此等의 印本은 散佚에 多歸 한 듯 하고 海印寺 所藏 大藏經版에 就하여는 曩者에 李王職村上龍佶氏의 視察한 報告書 가 有하니 今에 其經版儲藏의 模樣을 說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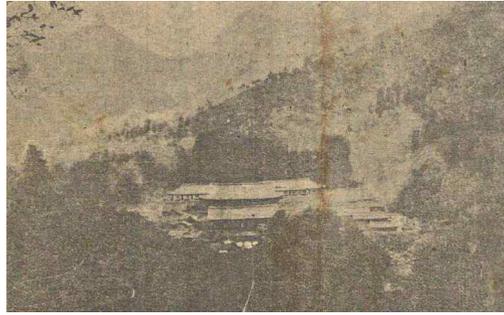
△藏經閣은 本堂 卽 大寂光殿의 背後에 在한대 二棟으로 成하였는데 墻垣을 繞하여 區域을 畫하고 其內에 大藏經版 八萬六千六百八十六枚를 藏하였스니 閣의 礎는 本堂의 礎보다 拔음이 約二十五尺이오, 伽儞의 高峰을 負하고 西南을 向한 二棟이 共히 約三十三間半의 木造瓦葺의 平家인데 天井을 張치 안이하고 床도 設치 안이 하였으며, 室의 左右에는 約八十六尺의 版架를 作하여 經版은 版架마다 每層에 縱二列로 配列하여 通風이 잘 되게 하였고 版木은 梓로 作하였는데 材質이 頗히 堅緻하고 其寸法은 縱이 約八九尺이오, 橫이 약 二尺二三寸이오, 厚가 八九分이오, 重量이 約五百匁이오, 文字는 大概 其兩面에 彫刻하고 木의 左右兩端에는 拑木을 付하여 罅裂屈曲을 防하며, 且四隅에 眞鍮 又は 鐵의 折金을 釘裝하여 剝離脫落을 防하고 且兩端의 小口에는 經名, 卷數, 枚數 及 版木의 番號를 彫刻하여 搜索抽出에 便토록 用意가 周到하였고 寺僧等의 經版에 對한 注意도 亦周到하여 閣內에 一塵을 留치 안이하고 蜘蛛網等의 跡이 無하며, 日夜數回로 巡還警戒하여 萬一의 災가 無함에 努力하니 誠히 此는 世界의 珍貴오. 今回 總督이 巨貲를 投하여 此를 印刷하는 舉가 有함을 聞함은 勤學○教의 美舉이오, 斯界를 爲하여 慶賀를 不勝하는 바라.云云(完)



高麗版 大藏經 阿毗曇毗婆沙論卷 第廿七之三十 [鮎貝房太郎氏所藏]

○1915년 3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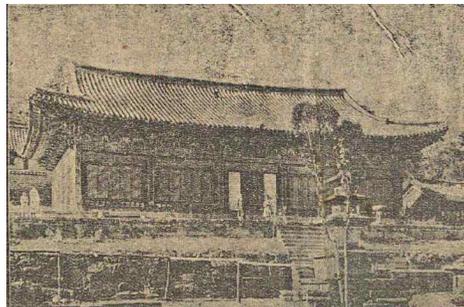
大藏經을 藏收한 陝川 海印寺



○1915년 3월 31일

陝川海印寺大寂光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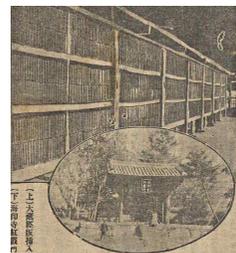
殿宇는 屢次 回錄에 遭_ㄴ야 重建_ㄴ얏스나 左邊으로 二坐 石塔은 創建當時에 建造物



○1915년 4월 1일

海印寺와 天下至寶高麗大藏經版, (上)大藏經版插入庫, (下)海印寺 紅霞門

大藏經版팔만일천이백오십팔매는 高麗 高宗時代의 成刻으로 距今六百六十四년年前 所作이오. 海印寺는 一千百九年前 新羅 哀莊王第二年壬午에 名僧 順應의 創立한 바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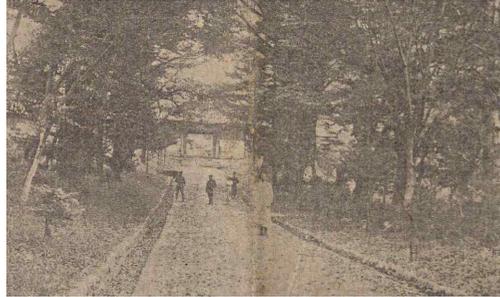


○1920년 12월 22일

陝川 海印寺 포교본부건설, 해인사의 불교진흥사업 이십오일에 봉불식 거행, 永成門大闕 舊跡에 [本文省略]

○1913년 5월 16일

陝川 海印寺 正門



○1913년 5월 17일

陝川 海印寺 紅霞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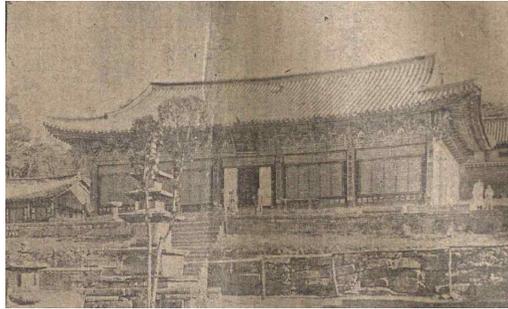
○1913년 5월 18일

陝川 海印寺의 全景



○1913년 5월 20일

陝川 海印寺 中央大寂光殿



○1933년 7월 21일

陝川海印寺 住持滿期改選 李古鏡氏被選

[本文省略]

○1920년 12월 26일

海印寺布教所의 불교강연, 명사들의 강연개최

[本文省略]

○1920년 12월 27일

海印寺中央布教所의 성대한 奉佛式, 참배자가 천여에 달하여 인산인해를 이룬 중에 거행해

[本文省略]

○1930년 2월 14일

海印寺에 郵便所新設

[本文省略]

○1934년 2월 2일

海印寺前住持 巨金を 消費 돌연히 행방불명이 되며 목하 간 곳을 수사중

[本文省略]

○1922년 4월 28일

文苑: 晚秋遊海印寺

[本文省略]

○1937년 4월 15일

海印寺의 봄①

[本文省略]

○1937년 4월 16일

海印寺의 봄②

[本文省略]

○1937년 4월 20일

海印寺의봄③

[本文省略]

○1937년 4월 22일

海印寺의 봄 ④

[本文省略]

○1937년 9월 17일

海印寺의 八萬大藏經 滿洲國皇室에서 寫本二部를 御請求 二部印寫費三萬圓巨額 『至重文獻의』 光榮

[本文省略]

○1937년 10월 4일

陝川海印寺서 國威宣揚祈願

[本文省略]

○1938년 3월 10일

海印寺住持로 卞雪翹氏當選

[本文省略]

○1938년 10월 19일

一部分의 團員은 다시 海印寺探勝

[本文省略]

○1938년 10월 20일

海印寺探勝한 本社廻遊團歸還

[本文省略]

4) 동아일보(東亞日報)

○1921년 12월 14일

佛敎三十本山聯合事務所에서 經營하는 東光高普認可問題, 海印寺住持 李晦光氏와 普賢寺住持朴普光氏가 加入을 承諾하여 불원간 락착될듯

[本文省略]

○1923년 3월 28일

海印寺地主의 璿포에 분개, 합천가야면에서

[本文省略]

○1923년 5월 12일

海印寺小作紛糾, 원만히 해결될듯

[本文省略]

○1923년 10월 14일

海印寺僧侶, 住持辭免嘆願, 부정행위가 있다고

[本文省略]

○1924년 7월 7일

해인주지선거(합천)

[本文省略]

○1925년 2월 27일

海印寺前後住持爭訴 ; 現住持 金馬應外數名, 李晦光氏에게 삼천여원을 청구

[本文省略]

○1926년 7월 20일

盧子永(春城) 伽倻山の 晚鍾, 陝川 海印寺에서

[本文省略]

○1927년 7월 28일

避暑地寫眞巡覽(四) 陝川海印寺

[本文省略]

○1927년 9월 2일

海印寺[陝川]

新羅 哀莊王二年에 名僧 順興 利貞 兩大法師가 創立한 寺刹로써 朝鮮에 著名한 巨刹이다. 萬物所歸者海요, 萬事所快者印으로 海印寺라 稱하였다 한다. 四面峯◇이 圍繞하고 碧玉溪가 前面抱流하는데 四方一里의 中央에 金壁燦爛히 雄壯하고도 華麗한 殿堂이야말노 眞是靈界의 第一道場이다. 總伽藍이 九十三棟에 一千餘間의 大建物이다.

南僧이 百七十四人이며, 女尼六十四人 合二百三十八人이 居住하면서 極樂世界 涅槃을 思慕한다. 그런데 數年前에 前任持 李晦光의 失態로 幾多의 財産을 徒費게 한 후로 三十本末寺 僧侶들이 大會를 열고 革淸問題가 起하였는데 至今에 와서 佛教青年들이 革淸하야 整頓中이라 한다.

그러나 年賦金支拂노 伽倻山密密한 大財木을 作伐하야 裸體山으로 化해 가는 것만은 遺憾이라 아니할 수 업다.

○1931년 3월 6일

世界唯一의 海印寺 大藏經 一部分의 印刷에 着手, 위선 백부만 일본대로 박히어 한부에 백원씩 받고 분배키로, 中國과 日本學界 熱望으로

[本文省略]

○1931년 8월 25일

七百年前의 古藏經「一切經音意」出版 陝川 海印寺貯藏 大藏經의 一部, 學界의 奇寶! 藏經刊行의 祖型![寫]

[本文省略]

○1933년 7월 14일

海印寺의 住持 李古鏡氏 當選(陝川)

[本文省略]

○1933년 11월 8일

海印寺에서 金斗榮逮捕, 全北 教員共產黨事件에 관련

[本文省略]

○1936년 7월 3일

李無影 海印寺點描[그리운 綠鄉]

[本文省略]

○1937년 6월 20일

海印寺 龍門瀑, 陝川所見[寫]

[本文省略]

○1937년 9월 2일

海印寺의 內訌, 總辭職說 擡頭

[本文省略]

○1937년 9월 3일

陝川海印寺에서 「八萬藏經」印刷 九月一日부터 五十日間

[本文省略]

○1938년 5월 28일

海印寺住持 晉山式舉行(陝川)

[本文省略]

○1938년 7월 17일

海印寺 三職就任(陝川)

[本文省略]

○1938년 11월 8일

李仁星個人展에서 小品(海印寺 八萬大藏經)[畫]

[本文省略]

○1939년 12월 3일

紙上修學旅行 京釜線編 ; 海印寺[全8回]

[本文省略]

○1940년 5월 19일

海印寺境內 僧侶等 六十六戶가 移轉 移轉費의 補助를 要望(陝川)

[本文省略]

○1952년 7월 18일

共匪 「海印寺」 放火 學生等 卅餘名拉致 八萬大藏經燒失與否 未詳

[本文省略]

○1954년 11월 14일

八萬大藏經危機 海印寺建物 破損으로

[本文省略]

○1955년 9월 19일

海印寺引受 比丘僧側서

[陝川]지난 九월 十二일 하오 九시경 당지에 도착한 수백명의 비구승 및 신도들은 익十三일 상오 七시반부터 무장경관 六十여명의 입회하에 당지 海印寺 사찰을 대처승측으로부터 인계받았다.

그리고 동일 하오 二시반부터 동사찰 대법당에서 초대 海印寺 주지 진산식(晉山式)이 거행되었다.

○1956년 2월 26일

銅瓦는 雜板庫에 海印寺藏經閣 翻瓦問題

[本文省略]

○1956년 9월 1일

石造佛像을 盜難 海印寺所藏의 國寶(釜山)

[本文省略]

○1959년 10월 8일

名勝古刹 仲秋巡禮 (六) 海印寺와 法住寺(李鍾益)

[本文省略]

○1960년 6월 4일

이번엔 比丘僧團內에 紛糾 松林의 濫伐등 財産管理에 亂脈 海印寺서 강
패까지 動員 [寫] (陝川)

[本文省略]

6. 조정실록(朝廷實錄)

6.1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정종1(1399)년 1월 9일(경진)

경상도 감사에게 명하여 불경을 인쇄하는 승도(僧徒)에게 해인사(海印寺)에서 공궤(供饋)하게 하였다. 태상왕(太上王)이 사재(私財)로 대장경(大藏經)을 인쇄하여 만들고자 하니, 동북면(東北面)에 저축한 콩과 조 5백 40석을 단주(端州)·길주(吉州) 두 고을 창고에 납입하게 하고, 해인사(海印寺) 근방 여러 고을의 미두(米豆)와 그 수량대로 바꾸게 하였다.

태종13(1413)년 3월 11일(경인)

대장경(大藏經)을 해인사(海印寺)에서 이행(印行)하게 하였다. 풍해·경기·충청도 관찰사에게 전지하여, 그 도에서 만든 경지(經紙) 2백 60속(束)을 경상도에 체수(遞輸)하게 하고, 또 경상도 관찰사에게 전지하기를, “지금 체수한 경지(經紙)를 해인사로 전수(輔輸)하여 대장경을 이행함이 옳으나, 그 인출(印出)할 때에 제연(諸緣)과 중[僧] 2백 명에게도 식료(朔料)를 모두 지급토록 하라.” 하니, 임금이 태조가 부처를 좋아하여 일찍이 개경사(開慶寺)를 세웠다 하여 또 대장경을 인출하여 여기에 안치하기 위함이었다.

태종13(1413)년 5월 28일(병오)

대장경(大藏經)을 개경사(開慶寺)에 수송하였다. 이 앞서 승도(僧徒) 2백 명을 모아 자량(資糧)을 주어 합주(陝州) 해인사(海印寺) 대장경을 인출(印出)하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수송하여 개경사에 가져다 간직하니, 태조(太祖)의 명복(冥福)을 베풀기 위함이었다.

세종6(1424)년 4월 5일(경술)

예조에서 계하기를, “석씨(釋氏)의 도는 선(禪)·교(教) 양종(兩宗)뿐이었는데, 그 뒤에 정통과 방계가 각기 소업(所業)으로써 7종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잘못 전하고 거짓을 이어받아, 근원이 멀어짐에 따라 말단(末端)이 더욱 갈라지니 실상 그 스승의 도에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또 서울과 지방에 사사(寺社)를 세워, 각 종(宗)에 분속(分屬)시켰는데, 그 수요가 엄청나게 많으나, 중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절을 비워두고 거처하는 자가 없으며, 계속하여 수증(修葺)하지 않으므로 점점 무너지고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조계(曹溪)·천태(天台)·총남(攄南) 3종을 합쳐서 선종(禪宗)으로, 화엄(華嚴)·자은(慈恩)·중신(中神)·시흥(始興) 4종을 합쳐서 교종(敎宗)으로 하며, 서울과 지방에 중들이 우거할 만한 곳을 가려서 36개소의 절만을 두어, 양종에 분속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전지를 넉넉하게 급여하고 우거하는 중의 인원을 작성하며 무리지어 사는 규칙을 작성하여, 불도(佛道)를 정하게 닦도록 할 것입니다. 이어 승록사(僧錄司)를 혁파하고, 서울에 있는 흥천사(興天寺)를 선종 도회소(禪宗都會所)로, 흥덕사(興德寺)를 교종 도회소(敎宗都會所)로 하며, 나이와 행동이 아울러 높은 자를 가려 뽑아 양종의 행수 장무(行首掌務)를 삼아서 중들의 일을 살피게 하기를 청합니다.

이제 분속하려는 서울과 지방의 사사(寺社)와 우거하는 중의 정원과 급여할 전지의 결수(結數)를 가지고 낱낱이 아웁니다. 선종에 예속된 것으로는 절이 18개소, 전지(田地)가 4천 2백 50결입니다. 서울 흥천사는 원속전(元屬田)은 1백 60결인데, 이번에 90결을 더 주고, 항거승(恒居僧)은 1백 20명입니다.

유후사(留後司) 숭효사(崇孝寺)는 원속전이 1백 결인데, 이번에 1백결을 더 주고, 항거승은 1백명이며, 연복사(演福寺)는 원속전이 1백결인데, 이번에 1백결을 더 주고, 항거승은 1백명이며, 개성관음굴(觀音窟)은 원속전이 45결인데, 경기 이번에 1백 5결과 수륙위전(水陸位田) 1백결을 더 주고, 항거승은 70명이며, 경기양주(楊州)승가사(僧伽寺)는 원속전이 60결인데, 이번에 90결을 더 주고, 항거승은 70명입니다.

개경사(開慶寺)는 원속전이 4백결이고, 항거승이 2백명이며, 회암사(檜巖寺)는 원속전이 5백결이고, 항거승이 2백 50명이며, 진관사(津寬寺)는 원속전이 60결인데, 이번에 90결과 수륙위전 1백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이

며, 고양(高陽)대자암(大慈菴)은 원속전이 1백 52결 96복(卜)인데, 이번에 97결 4복을 더 주고, 거승은 1백 20명입니다.

충청도공주(公州)계룡사(鷄龍寺)는 원속전이 1백 결인데, 이번에 5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 입니다. 경상도진주(晉州)단속사(斷俗寺)는 원속전이 1백결인데, 이번에 1백결을 더 주고, 거승은 1백명이며, 경주(慶州)지림사(祗林寺)는 원속전이 1백결인데, 이번에 5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입니다. 전라도구례(求禮) 화엄사(華嚴寺)는 원속전이 1백결인데, 이번에 5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이며, 태인(泰仁)흥룡사(興龍寺)는 원속전이 80결인데, 이번에 7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입니다.

강원도고성(高城)유점사(楡岾寺)는 원속전이 2백 5결인데, 이번에 95결을 더 주고, 거승은 1백 50명이며, 원주(原州)각림사(覺林寺)는 원속전이 3백 결이고, 거승은 1백 50명입니다.

황해도은율(殷栗)정곡사(亭谷寺)는 원속전이 60결인데, 이번에 9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입니다. 함길도안변(安邊)석왕사(釋王寺)는 원속전이 2백 결인데, 이번에 50결을 더 주고, 거승은 1백 20명입니다.

교종(敎宗)에 소속된 것으로는 절이 18개소, 전지가 3천 7백 결입니다. 서울 흥덕사는 원속전이 2백 50결이고, 거승은 1백 20명이며, 유후사 광명사(廣明寺)는 원속전이 1백결인데, 이번에 1백결을 더 주고, 거승은 1백명이며, 신암사(神巖寺)는 원속전이 60결인데, 이번에 9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이며, 개성(開城)감로사(甘露寺)는 원속전이 40결인데, 이번에 1백 60결을 더 주고, 거승은 1백명이며, 경기해풍(海豊)연경사(衍慶寺)는 원속전이 3백결인데, 이번에 1백결을 더주고, 거승은 2백명이며, 송림(松林)영통사(靈通寺)는 원속전이 2백결이고, 거승은 1백명이며, 양주(楊州)장의사(藏義寺)는 원속전이 2백 결인데, 이번에 50결을 더 주고, 거승은 1백 20명이며, 소요사(逍遙寺)는 이번에 속전이 1백 50결이고, 거승은 70명입니다. 충청도보은(報恩)속리사(俗離寺)는 원속전이 60결인데, 이번에 1백 40결을 더 주고, 거승은 1백명이며, 충주(忠州)보련사(寶蓮寺)는 원속전이 80결인데, 이번에 7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입니다.

경상도거제(巨濟)견암사(見巖寺)는 원속전이 50결인데, 이번에 1백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이며, 합천(陝川)해인사(海印寺)는 원속전이 80결인데, 이번에 1백 20결을 더 주고, 거승은 1백명입니다. 전라도창평(昌平)서봉사(瑞峯寺)는 원속전이 60결인데, 이번에 9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이며, 전주(全州)경복사(景福寺)는 원속전이 1백결인데, 이번에 5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입니다. 강원도회양(淮陽)표훈사(表訓寺)는 원속전이 2백 10결인데, 이번에 90결을 더 주고, 거승은 1백 50명입니다.

황해도문화현(文化縣)월정사(月精寺)는 원속전이 1백결인데, 이번에 1백결을 더 주고, 거승은 1백명이며, 해주(海州)신광사(神光寺)는 원속전이 2백결인데, 이번에 50결을 더 주고, 거승은 1백 20명입니다. 평안도평양(平壤)영명사(永明寺)는 원속전이 1백결인데, 이번에 50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22(1440)년 2월 16일(기축)

경상도 관찰사에게 전지하기를, “합천군(陝川郡)해인사(海印寺)는 태조께서 지으신 것이라, 본군(本郡)의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훼손된 곳이 있으면 즉시 수축(修葺)하도록 일찍이 공문으로 보냈는데, 이제 모두 다 무너졌는데도 조금도 수리하지 않았다 하니, 추핵(推劾)하여 아뢰도록 하고, 그 무너진 곳은 그 간사승(幹事僧) 해회(海會)의 말을 들어서 폐단 없이 수리하게 하라.” 하였다.

지리지 충청도 충주목(忠州牧)

읍 석성(邑石城) 【둘레가 6백 80보(步)요, 안에 우물 3이 있는데 겨울이나 여름에도 늘 마르지 않는다. 】 사고(史庫)가 객사(客舍) 서쪽에 있다. 【수호관(守護官) 5인, 별색(別色) · 호장(戶長) · 기관(記官) · 고지기[庫直] 각 1인씩 있다. 사고는 본래 합천(陝川)가야산(伽倻山)의 해인사(海印寺)에 있어서, 홍건적(紅巾賊)의 난리에도 잃지 아니하였는데, 본조(本朝) 초기에 그 땅이 바다에 가까우므로 이곳에 옮겨 두었다. 】

지리지 경상도 상주목 합천군(陝川郡)

해인사(海印寺)는 가야산(伽倻山) 남쪽에 있다. 【교종(教宗)에 속하며,

발 2백 결을 주었다. 옛 기록에 이르기를, “산형(山形)은 천하에 뛰어났고, 지덕(地德)은 해동(海東)에 짝이 없으니, 참으로 정수(精修)할 땅이다.” 하였다. 절에 최치원(崔致遠)의 서암(書岩)·기각(碁閣)이 있는데, 《삼국사(三國史)》에 이르기를, “최치원이 가족을 데리고 해인사에 숨어 자유롭게 노닐면서 늙어 죽었다.” 고 하였다.】

세조3(1457)년 6월 26일(무오)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이극배(李克培)에게 유시(諭示)하기를, “대장경(大藏經) 50벌을 오는 봄철 2월부터 시작하여 해인사(海印寺)에서 모인(摹印) 하여 6월 전에 일을 마치게 하라. 지금 경차관(敬差官) 윤찬(尹贊)·정은(鄭垠)을 보내어 포치(布置)하게 하니, 경(卿)이 뜻을 기울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충청도·전라도·경상도·강원도·황해도 관찰사(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대장경(大藏經) 50벌을 찍어 내는 데 들어갈 물자는, 충청도에서 종이가 5만 1천 1백 26권이고, 먹[墨]이 8백 75정(丁)이고 황랍(黃蠟)이 60근(筋)이요, 전라도에서 종이가 9만 9천 4권이고, 먹이 1천 7백 50정(丁)이고 황랍(黃蠟)이 1백 25근이요, 경상도에서 종이가 9만 9천 4권이고 먹이 1천 7백 50정(丁)이고 황랍이 70근이고 호마유(胡麻油)가 1백 두(斗)이요, 강원도에서 종이가 4만 5천 1백 26권이고 먹이 8백 75정(丁)이고 황랍(黃蠟)이 1백 25근이요, 황해도에서 종이가 만1천 1백 26권이고 먹이 8백 75정(丁)이고 황랍(黃蠟)이 60근인데, 모두 관(官)에서 스스로 준비하여 해인사(海印寺)에 보내라. 만약 백성들의 닳나무[楮]를 거둔 것이 비록 1냥(兩)이라 하더라도 경들은 마땅히 큰 죄를 받을 것이다.” 하였다.

세조3(1457)년 9월 23일(갑신)

경상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도내(道內) 해인사(海印寺)의 인경(印經)하는 여러 가지 일은 본래 간편한 방법을 써서 폐단없이 공역을 성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의 번간(煩簡)과 공역의 지속(遲速)은 일을 맡은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이제 사우(舍宇)의 조성(造成)과 조지(造紙)·조묵(造墨), 그리고 승도

(僧徒)를 부리고, 인민을 부리는 모든 일의 큰 것과, 채소(菜蔬)·염장(鹽醬)·기명(器皿)과 같은 공급(供給)에 쓰이는 물건에 이르기까지 징수하는 과정에서 혹시 백성을 괴롭히지 않을까 염려되며, 더구나 구황(救荒)이 긴급한 때를 당하여, 일을 맡은 자가 혹 이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폐단을 장차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卿)은 경차관(敬差官)과 더불어 나의 극진한 마음을 몸받아서, 편의한 방안을 침작(斟酌)하여 폐해가 백성에게 미치지 않게 하여, 내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세조4(1458)년 윤2월 22일(경진)

모우(暮雨)라는 중[僧]이 어압(御押)과 대보(大寶)를 위조하여 왕패(王牌)를 만들어, 공주 사람 임보림(林寶林)의 집에 이르러 평민을 거짓으로 꾀어 면포(綿布) 1백 필을 얻고, 강제로 제읍(諸邑)으로 하여금 해인사(海印寺)로 전수(轉輸)하게 하였다.

임보림이 도적인가 의심하여 중 계정(戒鼎)으로 하여금 이를 찾게 하였더니 즉시 도망하였다. 임보림이 아뢰니, 예조 좌랑 양순석(梁順石)을 보내어 추포(追捕)하게 하고, 이어서 팔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이와 같이 간활(姦猾)한 중[僧俗]이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아니하니, 모름지기 제읍에 선유(宣諭)하여 만일 고하는 자가 있으면 그 즉시 계달(啓達)하라. 내가 특별히 상을 가하겠다.” 하였다.

세조4(1458)년 7월 27일(임자)

해인사(海印寺)의 인경 경차관(印經敬差官) 정은(鄭垠)이 대장경(大藏經) 3벌을 바치니, 명하여 흥천사(興天寺)에 두게 하였다.

세조4(1458)년 7월 28일(계축)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양정(楊汀)과 강원도 도관찰사(江原道都觀察使) 이윤손(李允孫)과 해인사 행향사(海印寺行香使) 도승지(都承旨) 조석문(曹錫文) 등이 하직하였다. 영천 부원군(鈴川府院君) 윤사로(尹師路)와 조석문 등을 해인사(海印寺)에 보내어 불사(佛事)를 하려고 하였으나, 사헌부(司憲府)에서 흉년이 들었으므로 보내는 것이 불가(不可)하다고 하였

기 때문에 다만 조석문만을 보냈으며, 우부승지(右副承旨) 김질(金磧)에게 명하여 보제원(普濟院)에서 양정을 전송하게 하였다.

세조4(1458)년 8월 21일(병자)

도승지(都承旨) 조석문(曹錫文)·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전균(田鈞)이 해인사(海印寺)로부터 와서 복명(復命)하니, 임금이 후원(後苑)에 나아가서 술 자리를 베풀어 위로하였다. 승지(承旨) 윤자운(尹子雲)·한계미(韓繼美)·권지(權摯)·김질(金磧)·정식(鄭弼) 등이 모시었다. 임금이 조석문 등에게 이르기를, “내가 항상 경(卿) 등이 오는 것이 반드시 금명일(今明日) 간에 있으리라 여겼더니, 지금 과연 짐작한 바와 같았다.” 하고, 조석문에게 단의(段衣) 1령(領)을 내려 주었다.

세조10(1464)년 7월 5일(병진)

승정원(承政院)에서 교지(教旨)를 받들어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에게 치서(馳書)하기를, “지금 온 왜인(倭人) 진성행(秦盛幸)에게 해인사(海印寺)대장경(大藏經) 가운데 대반야경(大般若經)을 주고, 즉시 그 숫자를 채우라.” 하였다.

성종9(1478)년 11월 16일(계유)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정은(鄭垠)의 일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상고하건대, 다만 정은이 해인사(海印寺)에 가서 불경(佛經)을 인쇄(印刷)한 것만 기록되었고, 꿈 이야기를 한 일은 없었습니다. 만일 부득이하다면 마땅히 실록(實錄)을 상고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전교(傳教)하기를, “실록을 상고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종9(1478)년 11월 21일(무인)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박건(朴楗)에게 하서(下書)하기를, 도내(道內) 합천군(陝川郡)해인사(海印寺)에 소장(所藏)된 대장경(大藏經)과 판자(板子)는 모두 선왕조(先王朝) 때에 마련한 것이고, 또 객인(客人)이 구하는 바이며, 국용(國用)에도 없을 수 없으니, 만약 신중하게 지키지 못하여 혹 비가 새어서 썩거나 손실이 된다면 매우 불가(不可)한 일이니, 경(卿)은 숫자와 물목을 자세히 살펴서 아뢰라.” 하였다.

성종10(1479)년 10월 18일(경자)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박안성(朴安性) 등이 차자(筭子)가 올리기를, “정은(鄭垠)은 세조조(世祖朝)에 간경 낭청(刊經郎廳)이 되어 해인사(海印寺)에 가서 여러 경서(經書)를 감인(監印)하였습니다.

하루는 절의 중 축헌(竺軒)에게 이르기를, ‘꿈에 한 늙은이가 나와 인연을 맺는다고 하며 절 북쪽에서 인장(印章)을 주었는데, 새벽에 가서 땅을 파 보니, 과연 인장이 있었다.’ 라고 하며, 중으로 하여금 전사(傳寫)하여 아뢰게 하였는데, 그 인장에 글자가 없으므로 세조께서 취하여 보고는 그대로 두고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정은이 마음을 쓰는 것은 반드시 기괴(奇怪)한 일을 가지고 은혜를 사고자 하는 것이니, 심지(心志)의 비루(卑陋)함은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비부(鄙夫)와 더불어 임금을 섬길수 있겠는가? 벼슬을 얻지 못해서는 얻기를 근심하고, 벼슬을 얻으면 잃을 것을 근심한다. 만약 잃을 것을 근심하면, 하지 못할 바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로부터 간사한 사람은 처음에는 작은 일로써 임금을 시험하고, 임금이 받아들이면 혹은 참서(讖書)의 괴상한 말과 교묘한 말, 아첨하는 일까지 이르지 아니하는 바가 없으며, 마침내는 스스로 비기(秘記)를 만들어서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자가 많습니다.

임금이 사람을 쓰는 데에는 군자(君子)와 소인(小人)을 분별해야 마땅한데, 바야흐로 정은이 꿈이야기를 올렸을 적에 벼슬이 낮고 사람이 미천하기 때문에 대관(臺官)이 탄핵하지 아니하였고, 간관(諫官)이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사관(史官)도 사서[策]에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니, 한스러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하는 바를 살펴보면 간사하여 아첨하는 것이 가장 심한 자인데, 어떻게 육부(六部)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정은을 감사(監司)와 간원(諫員)으로 삼으니, 대간이 논박(論駁)하여 벼슬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형조(刑曹)는 옛 사구(司寇)의 벼슬로서 직무가 지극히 중한데, 정

은을 머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빨리 성명(成命)을 거두어서 여정(輿情)을 쾌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18(1487)년 11월 8일(계묘)

중[僧] 학조(學祖)¹¹⁴가 해인사 대장경 판당(海印寺大藏經板堂)의 수보감역(修補監役)을 면(免)해 주기를 청하였다. 전교하기를, “정원(政院)에서 그를 불러 물어 보라.” 하니,

학조가 승정원(承政院)에 나아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정희 왕후(貞熹王后)의 의지(懿旨)를 받고 해인사 대장경 판당(海印寺大藏經板堂)을 중창(重創)하려고 하였으나, 일은 크고 힘은 미약하여 세월(歲月)을 미루어오다가, 바람이 치고 비가 새어 거의 다 무너졌으니, 청컨대 다시 연소(年少)한 중[僧]을 택하여 맡기소서.” 하자,

전교하기를, “이 당(堂)을 수창(修創)하는 것은 부처[佛]를 위함이 아니라, 이웃 나라의 구청(求請)을 위함이다. 네가 만약 중수(重修)할 수 없다면, 마땅히 일찍 와서 고(告)할 것이지, 어찌 이제야 와서 사면(辭免)하느냐?” 하니, 학조가 아뢰기를, “국가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중수할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와서 아뢰 뿐입니다.” 하였는데,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학조는 선왕(先王) 때에 중(重)히 여기던 중이고, 나도 또한 정희 왕후의 의지(懿旨)를 친히 들었으니, 다른 중으로 대신하지 말고 그대로 학조로 하여금 맡게 하라.

올해에는 경상도의 농사가 조금 풍년이 들었으니, 예조(禮曹)로 하여금 감사(監司)에게 유시(諭示)하여 수창(修創)하는 자금(資金)을 보조하게 하고, 만약에 부족할 것 같으면 내수사(內需司)에서도 마땅히 보충하되, 다만 판당(板堂)만을 수보(修補)하고, 이 절은 중수(重修)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19(1488)년 2월 12일(병오)

도승지(都承旨) 송영(宋瑛) 등이 아뢰기를, “귀후서 면포(歸厚署綿布) 3

114) 학조(學祖) : 세조 때 여러 고승들과 함께 불경을 국어로 번역하여 간행(刊行)하였고, 성종 19(1488)년에는 인수 대비(仁粹大妃)의 명으로 해인사(海印寺)를 중수하였으며, 연산군6(1500)년에는 왕비 신씨(愼氏)의 명으로 해인사의 고려 대장경 3부를 인쇄하였다.

천 필(匹)을 명하여 해인사(海印寺)에 주어 판당(板堂)을 수증(修葺)하게 하시니, 이 면포(綿布)는 본래 관곽(棺槨)을 사서 상사(喪事)가 있는 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우(佛宇)를 수증하는 데에 쓰는 것은 심히 미편(未便)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선후(先后)의 뜻을 받들 뿐이니, 그 5백 필(匹)을 감(減)하라.” 하였다.

성종19(1488)년 2월 18일(임자)

대사간(大司諫) 권정(權從)·장령(掌令) 봉원효(奉元孝)가 아뢰기를, “귀후서(歸厚署)의 면포(綿布)를 해인사(海印寺)에 내려 주어 판당(板堂)을 보증(補葺)하게 하시니, 이 면포(綿布)는 본시 선왕(先王)께서 신종 추원(愼終追遠)을 중히 여기시어 관곽(棺槨)을 화매(和賣)하는 법령(法令)을 제정하심이거늘, 전하께서는 내수사(內需司)에서 청대(請貸)함을 빙자하여 무익(無益)한 데에 쓰시니, 심히 미편(未便)합니다.

또 여러 번 하교하시기를, ‘불교(佛敎)를 숭상하지 않는다’ 고 하시면서 감히 이 거사를 하시니, 신 등은 그 옳음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좌의정(左議政) 홍응(洪應)은 말하기를, “대간(臺諫)의 말이 옳습니다.

대저 승인(僧人)은 비록 심히 가난하고 미천하더라도 어리석은 백성을 권유(勸誘)하여 대찰(大刹)을 영건할 수 있거늘, 하물며 학조(學祖)는 재화(財貨)가 남아돌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비록 조력(助力)하지 않더라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후(先后)의 유의(遺意)이니 차마 수증(修葺)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객인(客人)이 구(求)하는 경판(經板)을 오멸(朽滅)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짐작(斟酌)하여서 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이집(李緝)·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성세명(成世明)이 와서 아뢰기를, “해인사(海印寺)에 면포(綿布)를 줌은 미편(未便)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19(1488)년 2월 19일(계축)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봉원효(奉元孝) 등이 와서 아뢰기를, “어제 조계(朝啓)에 해인사(海印寺) 판당(板堂)의 수증(修葺)은 옳지 못하다고 논

(論)하였으며, 대신(大臣)도 또한 불가(不可)하다고 하니, 하교하시기를, ‘마땅히 짐작(斟酌)하여 하겠다.’ 고 하시었습니다.

신 등이 물러나와서 대명(待命)하였더니, 곧 전교하시기를, ‘이 절[寺]은 정희 왕후(貞熹王后)께서 주의(注意)하던 곳이니, 수증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하시니, 신 등은 결망(缺望)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시기를, “이미 내 뜻을 유시(諭示)하였다.” 하였다.

봉원효 등이 다시 아뢰기를, “전교(傳敎)에 바로 이르시기를, ‘대장경(大藏經)판(板)은 이 절[寺]에 간직하였으며, 이것은 바로 이웃 나라에서 찾는 것이다.’ 하시고, 또 이르시기를, ‘선왕(先王)·선후(先后)께서 영건(營建)하신 것은 폐기(廢棄)할 수 없다.’ 고 하시었습니다마는, 신 등은 그렇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대장경(大藏經)은 비록 폐결(廢缺)하더라도 신 등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웃 나라 사신(使臣)이 와서 혹 대장경을 구하고 혹 거찰(巨刹)을 구경하는 자는 그 뜻이 반드시 우리 나라에서 부도(浮屠)를 숭신(崇信)한다고 여김에서이니, 만약에 와서 구하여 찾으면 대답하시기를, ‘우리 나라는 불교(佛敎)를 숭신(崇信)하지 않아, 경판(經板)이 잔결(殘缺)하여 거의 다 없어졌다.’ 고 하면, 도리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비록 조종(祖宗)께서 영건하신 바라 이르시더라도 이것은 후대의 사왕(嗣王)이 마땅히 준수할 것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불도(佛道)를 숭신하지 않으시고 사찰(寺刹)을 훼철(毀撤)하지 않으시는 것은 바로 선왕(先王)께서 영건하신 것 때문이나, 어찌 반드시 다시 수증(修葺)해야 하겠습니까? 저 궁항(窮巷)의 어리석은 백성이 어찌 전하께서 숭신하지 않음을 알며, 만세(萬世)의 뒤에 누가 전하께서 불도(佛道)를 숭신하지 않았다고 여기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권정(權挺) 등이 상소(上疏)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삼가 보건대, 전하께서 천조(踐祚)하신 이래로 정도(正道)를 부식(扶植)하시고 이단(異端)을 배척(排斥)하시어, 새로 사찰(寺刹)을 세우는 것을 금지하고, 도첩(度牒) 없이 출가(出家)하는 자는 쇠출(刷出)하시었

는데, 어찌 오늘날 사찰(寺刹)을 수증(修葺)하실 줄을 뜻하였겠습니까? 귀후서(歸厚署)는 관곽(棺槨)의 화매(和賣)를 관장하여 위로는 사대부(士大夫)로부터 아래로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힘입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은 조종(祖宗)께서 죽은 이를 신중히 장사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후덕(厚德)한 데 돌아가게 하신 뜻입니다.

해인사(海印寺)는 전조(前朝)에서부터 창건(創建)하였으며, 만약 이것이 조종(祖宗)께서 영건하신 것이더라도 승도(僧徒)가 넉넉히 공가(公家)를 번거롭히지 않고도 헐어지는 데 따라서 수증할 수 있거늘, 하물며 조종께서 건립한 것이 아님이겠습니까?

지금 바로 귀후서(歸厚署)에 저장된 것을 다 실어보내면, 이는 조종께서 죽은 이를 신중하게 장사지내는 바탕을 철폐하고, 불가(佛家)를 위하여 무익(無益)한 데 쓰심이니, 이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더구나 수천 필(數千匹)의 면포(綿布)가 어찌 수십 가(數十家)의 자산[産]에 그치겠습니까?

예전의 한(漢)나라 문제(文帝)는 10가(家)의 자산을 아끼어서 노대(露臺)의 역(役)을 폐지하였는데, 지금 전하께서는 수십가의 자산을 무익(無益)한 곳에 희사하시니, 그욕이 전하를 위하여 애석하게 여깁니다.

옛적에 진(晉)나라 무제(武帝)는 오(吳)를 평정하고서는 태만하였고, 당(唐)나라 헌종(獻宗)은 회서(淮西)채주(蔡州)를 평정하고서는 사치하여졌으니, 이것이 곧 이른바 ‘처음은 있지 않음이 없으나 능히 끝이 있는 자가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삼가 보건대, 전하께서는 즉위(卽位)하신 처음에 있어서는 이물(異物)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무익(無益)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겨우 태평하게 다스린 지 수십년 남짓한데 일찍이 원각사(圓覺寺)를 중수하려고 하셨으니, 비록 머지않아 원상태로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능히 끝이 있지 못하게 되는 조짐이 되는 것인데, 이제 또 해인사(海印寺)를 수증(修葺)하시면서 선왕(先王)·선후(先后)를 계술(繼述)한다고 지칭하시니, 이것 또한 능히 끝이 있지 못하게 되는 조짐입니다.

그욕이 전하를 위하여 애석하게 여깁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성

명(成命)을 뒤쫓아 거두시어, 죽은 이를 신중하게 장사지내기를 처음과 같이 하게 하소서.” 하니,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그대들은 내가 호불(好佛)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와 같으니, 내가 어찌 집집마다 효유하고 문전마다 설득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대간(臺諫)이 합사(合辭)하여 반복(反覆)해서 논계(論啓)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19(1488)년 2월 20일(갑인)

지평(持平) 이녹송(李祿崇)·정언(正言) 유인유(柳仁濡)가 아뢰기를, “해인사(海印寺)를 수증(修葺)함은 미편(未便)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19(1488)년 2월 21일(을묘)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김미(金湄)·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이집(李緝)이 해인사(海印寺)를 수증(修葺)함은 옳지 못하다고 논(論)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시강관(侍講官) 이창신(李昌臣)이 아뢰기를, “대간(臺諫)은 전하께서 호불(好佛)하시어 이 절[寺]을 수증한다고 함이 아닙니다.

대저 사(邪)·정(正)은 양립(兩立)할 수 없으니, 우리 유도(儒道)가 바야흐로 밝아져서 해가 중천(中天)에 뜬 것과 같으면 이단(異端)은 장차 스스로 소멸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즉위(卽位)하신 이래로 정도(正道)를 숭상하고 이단(異端)을 물리치시어, 승인(僧人)이 귀속(歸俗)한 자가 많은데, 이제 바로 국재(國財)를 소비하여 불우(佛宇)를 수증하게 되면 중[僧]이 되는 자가 많아져서 폐단을 장차 구(救)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승도(僧徒)는 농사짓지 않으며 먹고 살고 누에치지 않으며 옷입으니, 정사를 해치고 백성을 좀먹는 까닭으로 이미 여러 도(道)로 하여금 도첩(度牒)이 없는 자는 추쇄(推刷)하여 환역(還役)하게 하였다.” 하였다.

대간(臺諫) 등이 합사(合司)하여 와서 아뢰기를, “해인사(海印寺)를 수보(修補)하는 일을 하교(下教)하시기를, ‘선왕(先王)·선후(先后)의 뜻을 받

았으니 감히 폐(廢)하지 못한다.’ 고 하시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선왕(先王)의 뜻을 받으셨다고 하면 태종(太宗)께서 사사(寺社)를 혁파하였는데, 장획(臧獲)만은 본받을 수 없단 말입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선후(先后)의 유교(遺教)가 있는 것을 내 감히 잊겠느냐?” 하였다. 대간(臺諫)이 아뢰기를, “원각(圓覺)·해인(海印) 등의 사(寺)는 선왕(先王)·선후(先后)께서 중건하였으되, 원각사의 수증은 신 등의 청(請)으로써 정파하였습니다. 해인사는 여러 번 번독(煩瀆)하였으되 윤택하지 않으시니, 전하께서는 어찌 그 사이에 경중(輕重)이 있으십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원각사(圓覺寺)는 그대들이 중[僧] 스스로가 실화(失火)하였다고 하였으니, 국재(國財)를 소비하여 수증(修葺)함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 까닭으로 내가 특히 따랐거니와, 이 절[寺]은 선후(先后)의 유교(遺教)가 있는 까닭으로 부득이한 것이다.” 하였다.

대간(臺諫)이 반복(反覆)하여 극론(極論)하니, 전교하기를, “선후(先后)께서 내가 호불(好佛)하지 않음을 아시고, 일찍이 하교하시기를, ‘해인대사(海印大寺)는 경판(經板)이 있는 곳이니, 수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고 하시었다.

유교(遺教)가 이와 같으니, 어찌 감히 차마 여기겠느냐?” 하였다. 대간(臺諫)이 다시 아뢰기를, “한(漢)나라명제(明帝)는 영주(令主)입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불법(佛法)을 구(求)하여 만세(萬世)의 화(禍)에 기초가 되었으니, 전하의 이 거사는 이런 유(類)가 아닌가 염려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너희들은 한(漢)나라명제(明帝)로써 나를 비유하느냐? 명제는 사람을 보내어 불법을 구하고, 사찰을 창건하여 경판을 간직하였으니, 이 어찌 오늘의 일과 같겠느냐?” 하였다. 대간 등이 반복하여 논청(論請)하기를 두세 차례에 이르고 사직(辭職)까지 하였으나, 끝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19(1488)년 2월 22일(병진)

권정 등이 아뢰기를, “전교하시기를, ‘선후(先后)의 유교(遺教)가 있으

니, 차마 수증(修葺)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하였으니, 신 등은 그옥이 미혹됩니다.” 하고,

검토관(檢討官) 김준손(金駿孫)은 아뢰기를, “신(臣)이 보건대, 근년 이래로 환속(還俗)하여 역농(力農)하는 자도 있고, 혹은 중[僧]이 되기를 즐겨하지 않기도 하니, 이는 진실로 전하께서 이단(異端)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제 만약 비용을 주어, 불우(佛宇)를 수선(修繕)하게 하면 사람들이 장차 광혹(誑惑)하여 다투어 사모하고 본받기를, ‘국가(國家)도 오히려 호불(好佛)한다.’ 고 할 것입니다.” 하고,

정랑(正郎) 김응기(金應箕)는 아뢰기를, “신이 오래도록 향려(鄉閭)에 있으며 향속(鄉俗)을 자세히 살펴 알아보았더니, 근래(近來)에는 상사(喪事)를 만난 자가 불사(佛事)를 행하지 아니하고, 중이 되었던 자도 혹 환속(還俗)해서 농사에 종사하는 이가 있으니, 이것은 진실로 전하께서 호불(好佛)하지 않으시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찌 우리 도[吾道]의 한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40세 이하의 승인(僧人)은 중이 되는 것을 불허(不許)하면 치류(縋流)는 장차 다 농사일로 돌아갈 것이니, 대간(臺諫)의 말한 바를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승도(僧徒)는 하는 일 없이 놀고 먹고, 생민(生民)을 좀먹어 그 국가(國家)에 크게 불리(不利)함이 된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다 제거할 수 없는 것이며, 도승(度僧)의 법(法)이 이미 《대전(大典)》에 실렸으니, 다시 신법(新法)을 세울 수도 없다.

하지만 도첩(度牒)이 없는 승인(僧人)은 이미 환속(還俗)하게 해서 당차(當差)하였는데도 수령(守令)으로 능히 봉행(奉行)하는 자가 없으니, 만약에 능히 직무 수행을 다하였다면 반드시 이 폐단은 없을 것이다. 또 사찰(寺刹)의 신창(新創)도 또한 금령(禁令)이 있다.

이제 해인사(海印寺)의 판당(板堂)은 국가에서 신창(新創)함이 아니고 단지 수증(修葺)할 뿐이다.” 하고, 이어서 좌우(左右)에 물으니,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대답하기를, “무릇 한 둘의 승도(僧徒)가 동심(同心)하여 권유(勸誘)하여도 오히려 대찰(大刹)을 영건할 수 있거늘, 하물며 학조(學祖)

와 같은 부자[富]이겠습니까? 국가에서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또 판당(板堂)은 조성(造成)한 지가 이제 겨우 30년인데, 어찌 갑자기 퇴비(頽圯)함에 이르렀겠습니까?” 하고, 지사(知事) 이극증(李克增)은 아뢰기를, “판당(板堂)은 점차로 수습함이 마땅하고, 일시(一時)에 다 수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단지 재와(材瓦)만을 주어라.”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신준(申浚)·신주(辛鑄)가 아뢰기를, “대간(臺諫)의 말이 옳으니, 청컨대, 청허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마땅히 그대로 따르겠다.” 하였다.

성종19(1488)년 2월 22일(병진)

전교하기를, “귀후서(歸厚署)의 면포(綿布) 2천 5백 필(匹)을 해인사(海印寺)에 주지 말라.” 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임금이 본디부터 이단(異端)에 불혹(不惑)하시어, 원각사(圓覺寺)의 재와(材瓦)와 해인사(海印寺)의 면포(綿布) 같은 것을 그 처음에 주게 한 것은 특히 선후(先后)의 뜻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론(正論)을 듣고 고치는 데 인색하지 않으시니, 모두가 그 종간(從諫)하는 아름다움에 탄복하였다.]

성종19(1488)년 3월 2일(병인)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성숙(成俔)에게 하서(下書)하기를, “도내(道內)의 해인사(海印寺) 판당(板堂)의 중창(重創)은 나의 평소 마음이 아니고, 선왕(先王)·선후(先后)의 유의(遺意)를 받들어 부득이 하였다. 그러나 그 옳지 못하다는 말이 많으므로 내수사(內需司)에서 차대(借貸)한 귀후서(歸厚署) 면포(綿布)는 이미 도로 거두어 들이도록 하였으니, 일은 크고 힘은 적어 공사를 마치기가 어려울 것이다. 경(卿)은 그 중[僧] 학조(學祖)의 말하는 바를 들어, 그 긴요치 않은 물건은 적당한 데 따라 갖추어 주고 백성에게 폐단을 끼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19(1488)년 7월 3일(갑자)

권경희가 아뢰기를, “민가를 수리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한재가 심하게

겹쳤는데 사찰을 수리하는 것이 어찌 적당한 시기라고 하겠습니까? 전일에 원각사 서상실(西上室)과 해인사(海印寺)를 창건하려고 할 때 신 등이 논계(論啓)하여 그쳤는데,

전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처를 좋아하지 아니한 지가 오래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일을 하시면 처음과 끝이 어긋나서 성덕(盛德)에 대단한 누(累)가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만약 소나무와 전나무를 베고 민력(民力)을 동원하여 큰 사찰을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내가 부처를 좋아하지 아니한다.’ 고 한다면, 이는 그물을 가지고 가면서 말하기를, ‘나는 물고기를 구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다. 지금 이 절에 기와를 고치는 것은 선왕을 위하는 것이지 절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권경희가 다시 논하여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20(1489)년 6월 25일(임자)

홍문관 직제학(弘文館直提學) 이세광(李世匡) 등이 상소하기를, “주상 전하께서는 도학(道學)이 고명(高明)하시어 정일(精一)한 <도(道)를> 살피고 지키시면서 훌륭한 말이 이르도록 하고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며 수(壽)를 비는 재(齋)를 파하고 승니(僧尼)의 집을 철거하시었으니, 사도(邪道)를 물리치고 정도(正道)를 붙들며 교화를 숭상하고 풍속을 가다듬는 일은 비록 옛날 성제(聖帝)나 명왕(明王)이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년 이래로는 곧은 말을 다 쓰지 아니하시고 이단(異端)을 다 물리치지 아니하시어 안암사(安巖寺)를 짓고, 해인사(海印寺)를 수리하며, 흥덕사(興德寺)의 길을 막게 하고 치도(緇徒)의 흥판(興販)을 허락하시니, 온 나라 신민(臣民)이 진실로 전하께서 오히려 불교를 좋아하시는 마음이 있음을 의심하였습니다.

이제 또 선공감(繕工監)에 명하여 원각사(圓覺寺)를 수리하게 하시니 대간(臺諫)과 시종(侍從)이 여러 번 간하는 글을 올리고 꺾하(闕下)에 앞드려 명령을 기다린 것이 여러 날이 되었는데, 전하께서 말은 적용할 만하고 역

사(役事)는 당연히 파하여야 한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닌데도 마침내 들어주지 아니하시니 신 등은 의혹스럽습니다.

옛말에 있기를, ‘알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하기가 어렵다.’ 고 하였는데, 전하께서 이미 불교를 믿지 아니한다고 하셨으니, 이것은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히 의연(毅然)하게 끊지 못하시어 시행하는 데에 드러나고 행하는 일에 나타나니, 이는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무엇이 귀하겠습니까? 신 등은 그욕이 의심스럽습니다. 전하께서 이치를 살피심이 정밀하지 못하시고 도(道)를 믿으심이 독실하지 못하시어, 말씀은 비록 미혹되지 아니한다고 하시지만 마음은 진실로 믿는 것입니다.

신 등은 엿드려 생각하건대 태조 강헌 대왕(太祖康獻大王)께서 전조(前朝)의 묵은 폐단을 이어받아서 절을 건립하셨는데, 태종 공정 대왕(太宗恭定大王)께서는 장원(長遠)한 계책을 후세에 끼쳐서 먼저 사사(寺社)의 노비를 혁파하고 모든 배척하는 일을 쾌하게 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이는 우리나라 만세의 복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이르시기를, ‘선왕(先王)의 세운 바이고 선후(先后)의 유교(遺教)가 있어서 감히 어길 수 없다.’ 고 하시니, 신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성헌(成憲)을 본보기로 삼고 구장(舊章)을 받들어 준수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하께서는 마땅히 태종 대왕의 장원한 계책을 준수하여 정도(正道)를 복돋우고 백성을 속이는 해(害)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 반드시 선왕의 일시의 잘못된 일과 선후의 유교가 있음을 본받아 사민(士民)의 교훈을 삼고 후사(後嗣)의 본보기가 되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로부터 영특한 임금이 처음에는 비록 힘써 행하는 데 단단히 뜻을 두고서 스스로 총명하고 어질며 지혜롭다고 여기며 사설(邪說)과 이교(異教)가 어찌 해(害)가 될 수 있겠느냐고 하지만, 한 번이라도 조금 게으름이 있으면 거기에 빠져 들어감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 세종대왕(世宗大王)께서는 사리를 통찰하심이 넓고 깊었으며 덕(德)은 백왕(百王)에 뛰어났

었는데도 말년(末年)에 한 절을 창건하여 드디어 성덕(聖德)에 하자(瑕疵)가 되었으니, 이는 처음에는 잘하셨으나 마무리를 잘못 하신 것입니다.

하물며 이제 전하께서 바야흐로 정신을 가다듬어 정치를 하시는 때에 연달아 사찰(寺刹)을 수리하여 이미 숭신(崇信)하는 뜻을 두시어, 다른 날 이단이 성해질 것을 어찌 반드시 없다고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정도(正道)로 고하는 말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랴? 고치는 것이 옳다.’ 고 하였으니, 옆드려 원하건대 다시 세 번 생각하소서.” 하였는데,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20(1489)년 6월 27일(갑인)

직제학(直提學) 이세광(李世瓘)은 아뢰기를, “전하께서 일찍이 신 등의 말을 옳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옳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채용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자, 말을 아직 마치지도 아니하였는데,

임금이 노(怒)한 음성으로 말하기를, “여러 말이 가리키는 바를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옛사람이 주(紂)를 논하기를, ‘말은 그릇된 것을 꾸미기에 충분하고 지혜는 간(諫)하는 말을 거절하기에 충분하다.’ 고 하였으니, 내가 이제 경 등과 더불어 서로 변명하는 것은 미덕(美德)이 아닐 듯하다.

그러나 바야흐로 말하려고 하는데 어찌 갑자기 그칠 수 있겠는가? 지금 흥문관(弘文館)의 상소에 이르기를, ‘이제 흥덕사 뒷길을 막고 흥판(興販)하는 중을 금하지 말게 하고, 해인사(海印寺)를 수리하고 안암사(安巖寺)를 짓는다.’ 고 하였으니, 나는 이 말이 어떤 일을 근거로 하여 말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겠다.

그리고 흥판하는 중은 금할 수 없다. 임금은 하민(下民)의 주인이 되었는데 무릇 백성으로서 부모가 있는 자는 모두 길러서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데 중만은 우리 백성이 아닌가? 부모 있는 자가 가난하여 기를 수 없으면 흥판이 아니고 무엇에 의뢰하겠는가?

만약 엄하게 금하고 막으면 저들이 장차 그 곤궁함을 견디지 못하여 일어나서 도둑이 될 것이니 그 해가 됨이 어찌 크지 아니하겠는가? 만약 사리(事理)를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 실정(實情)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일체로

금단하면 사세(事勢)에 방해되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요(騷擾)하는 폐단이 있을 것이다.

흥덕사 뒷길은 궁궐을 범함이 있어서 이 때문에 막은 것인데, 마침 유생(儒生)을 가두고 국문하는 때를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하였을 뿐이며, 불교를 숭상하고 믿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다.

해인사를 중창(重創)한 것은 부득이한 것이다. 이 절은 세조(世祖) 때 대장경판(大藏經板)을 간직하고 정희왕후(貞熹王后)께서 학조(學祖)에게 위임하셨는데, 전일에 학조가 와서 아뢰기를, ‘세조께서 대장경판을 이 절에 간직하셨는데 정희 왕후께서 「대장경판은 선왕(先王)께서 판각(板刻)하신 바이고 왜사(倭使)가 구하는 바이므로 잘못 간직하여 파손되도록 할 수 없다。」고 하시며 노승(老僧)에게 명하여 이 절을 감수(監守)하게 하셨는데, 이제 장차 허물어지려고 하니 노승의 힘으로는 수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생각하기를, 대장경은 왜인이 요구하는 것인데 만약 판본(板本)이 없으면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여겨 특별히 수리하도록 명한 것이니, 경판을 위해서이다. 이것이 어찌 그만둘 수 있는 일인가?

안암사(安巖寺)를 짓는 것은 내가 본디 알지 못하였는데 그대들이 무슨 근거로 이를 말하는가? 《대전(大典)》에 이르기를, ‘옛터가 있는 것은 중수(重修)하는 것을 허락한다.’ 고 하였는데, 사람들이 이 법에 의거하여 중수함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어느 때에 일을 시작해서 어느 때에 일을 마쳤는가를 알지 못하는 데 내가 하지 아니한 일을 가지고 경 등은 불교를 숭상해 믿는다고 하니, 내가 비록 이런 마음이 없더라도 숭상하며 믿는 자취가 경 등의 귀와 눈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였다.

이세광(李世匡)이 아뢰기를, “관에서 재목과 기와를 주어서 이미 안암사(安巖寺)를 지었고, 해인사(海印寺)를 일찍이 판당(板堂)만 수리한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온 절을 수리하며, 또 승인의 흥판(興販)을 금하지 아니하여 그 무리들로 하여금 민간에 두루 돌아다니게 하였으니, 유(儒)와 불(佛)이

성하고 쇠하는 기틀[機]이 오늘에 있으므로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승인의 흥판(興販)을 금함이 예전에도 있었는가? 중만이 홀로 우리 백성이 아니어서 그 흥판을 금하려고 하는가?” 하였다.

성종20(1489)년 6월 29일(병진)

김종직이 또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성학(聖學)이 고명(高明)하시어 정도(正道)를 보호하고 이단(異端)을 물리쳤습니다. 다만 근래에 유생(儒生)이 흥덕사(興德寺)에 왕래한다 하여 의금부(義禁府)에 내려 추국(推鞠)하게 하였고, 지난날에 경상도 감사(監司)가 아뢰기를, ‘중[僧] 육청(六淸)이 민간에 폐단을 일으키니 유사(有司)로 하여금 추핵(推覈)하게 하라.’ 고 하였으나, 마침내 죄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근래에 또 학조(學祖)가 해인사(海印寺)를 수리하면서 본도(本道)에 폐단을 끼쳤는데도 추핵하지 아니하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그리고 평안도 감사(平安道監司) 이극돈(李克墩)이 아뢰기를, ‘승도(僧徒)로 소와 말을 몰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자를 모두 금하기를 청한다.’ 고 하였는데, 전하께서, ‘중도 그 아버지를 봉양해야 하므로 금지함은 마땅하지 못하다.’ 고 하였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전하께서 비록 불교를 숭신(崇信)하는 마음은 없다고 하시더라도 그 숭신하는 조짐이 이미 여기에서 시작되었으니 신은 그욕이 마음이 아픕니다. 승인(僧人)은 부역(賦役)을 도피하고 나라와 아버지를 버리면서 소와 말을 몰고 다니며 장사하여 처자(妻子)를 기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이 되기를 즐겨하므로 군액(軍額)이 날마다 줄어들고, 평안도(平安道)에서는 <이것이> 더욱 심하니 금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육청(六淸)의 일은 국가에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관리의 잘못이다. 만약 죄가 있음을 알았으면 저들이 국가에 무슨 도움이 있기에 아끼겠는가? 학조(學祖)가 폐단을 일으키는 일은 그 도(道)의 감사에게 물을 것이다. 승인(僧人)에게 상판(商販)을 금하는 것은 행할 수 없다. 중도 우리 백성인데 어찌 금하여 그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겠는가? 또 어찌 그들로 하여금 굶어 죽게 할 수 있겠는가?

만약 이 법을 세우면 사체(事體)에 방해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소요(騷擾)할 것이다. 중으로서 도첩(度牒)이 없는 자는 쇠환하여 충군(充軍)하게 하였고, 불의(不義)하게 함부로 돌아다니는 자는 서울에서는 사헌부에서, 외방(外方)에서는 수령(守令)이 규찰(糾察)하여 죄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받들어 행하는 자가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할 것을 근심할 뿐이다.

대저 법제(法制)를 마련하는 데에는 마땅히 여러 사람의 의논을 널리 물어서 천만세를 통하여 행할 만한 것인 뒤에야 만드는 것인데, 어찌 한 사람의 소견으로써 새로운 법을 가볍게 세울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종20(1489)년 7월 14일(경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이수공(李守恭)이 와서 아뢰기를, “신(臣)들이 듣건대, 해인사(海印寺)의 중이 상교를 받았다고 핑계하고 군졸을 함부로 써서 그 절을 수리하였고, 감사(監司)와 수령(守令)도 함부로 주었다 하니, 모두 추문(推問)하소서.

야인(野人)이 변방을 침범한 것은 죄가 변장(邊將)에게 있고, 하숙부(河叔溥)는 막지 못하였으므로 중한 죄를 처치하여야 마땅한데 특별히 놓아 주어 형벌이 알맞지 않으니, 어떻게 뒷사람을 징계하겠습니까?

율문(律文)대로 시행하소서. 송흠(宋欽)·김흥수(金興守)는 의술(醫術)로 특별히 중추부(中樞府)에 제수(除授)되었으니, 개정하소서. 상피(相避)가 있는 수령은 다른 도의 수령과 서로 바꾸는 것이 전례인데 이조(吏曹)에서 경상(慶祥)에게만은 경직(京職)에 차출하였으므로, 권세를 농락하는 조짐이 여기에서 일어났으니, 추국(推鞠)하여 죄주소서.” 하니,

전교(傳教)하기를, “해인사의 역군(役軍)에 대하여는 이미 하서(下書)하여 물었으니, 우선 기다리라. 하숙부의 일은 과연 말한 바와 같으나, 사정을 짐작하면 아마도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의인(醫人)에게 이 벼슬을 주는 것은 오늘 비롯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뒷사람을 권장하겠는가? 이조의 당상(堂上)은 한 사람이 아닌데, 어찌 사사로운 마음을 품고 권세를 농락하는 일이 있겠는가?” 하였다.

성종20(1489)년 8월 7일(임진)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김여석(金礪石)이 아뢰기를, “해인사(海印寺)를 수창(修創)할 때, 전(前) 감사(監司) 성숙(成俶)이 여러 고을의 정부(丁夫) 총(總) 2천 6백여 명을 징발하여, 그 역사(役事)에 제공하였습니다.” 하니, 사헌부(司憲府)에 명하여 추국(推鞠)하게 하였다.

성종20(1489)년 8월 27일(임자)

조구가 아뢰기를, “해인사(海印寺)를 중창(重創)할 때 군현(郡縣)의 정부(丁夫)를 많이 징발(徵發)하여, 사헌부(司憲府)에서 지금 추핵(推覈)하는데, 신이 듣자니, 정부들이 기와를 나르다가 기와가 만약에 부서지면 면포(綿布)를 징수(徵收)하여 작폐(作弊)가 많다고 하니, 청컨대 조관(朝官)을 보내어 추국(推鞠)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부서진 기와에 대하여 면포를 징수하였다면, 폐단도 또한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관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이녹승이 아뢰기를, “승도(僧徒)들이 불우(佛宇)를 많이 창건(創建)하며 이것을 인연하여 폐단을 일으키는데, 지금 학조(學祖)의 작폐(作弊)가 이와 같으니, 먼저 학조를 추문(推問)하여 엄히 징계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군현의 정부를 징발한 것이 어찌 학조가 마음대로 한 것이었겠는가? 반드시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의 소위(所爲)일 것이다. 헌부(憲府)에서 근원(根源)을 조사하여 찾아 낸 연후에 마땅히 죄를 줄 것이다.” 하였다.

성종20(1489)년 9월 9일(갑자)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 성숙(成俶)과 예조 참판(禮曹參判) 이세좌(李世佐)가 전에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있었을 때 해인사(海印寺)의 중수(重修)로 인하여 함부로 민정(民丁)을 징발하여 재목과 기와[材瓦]를 운반한 죄를, 청컨대 성상께서 재단(裁斷)하소서.” 하니, 명하여 용서하게 하였다.

성종20(1489)년 9월 11일(병인)

안윤손이 아뢰기를, “신 등이 처음에 해인사(海印寺)를 수습하는 까닭을

알지 못하여 예조(禮曹)에 이문(移文)하여 물었더니, 전지(傳旨)하신 말씀이 ‘민력(民力)을 쓰지 말고 소소(小小)한 잡물(雜物)을 갖추어 주라.’ 고 하신 데 불과하였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봉행해야 하고 털끝만치라도 그 사이에 보태어서는 아니 되는데, 요승(妖僧)의 사설(邪說)에 혹(惑)하여 성숙은 농삿달이 되었는데도 백성들을 징발해 기와를 운반하고, 이세좌는 백성들을 시켜서 잡물을 수송해 들여보냈습니다.

이런데도 죄를 주지 않으면, 뒷사람을 어떻게 징계(懲戒)하겠습니까?” 하니,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하유(下諭)한 것을 잘못 생각한 데 불과할 뿐이다. 어찌 나의 시대에 불교를 숭신하고 요승을 믿음이 있겠는가?” 하였다.

성종20(1489)년 9월 14일(기사)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윤공(尹兢)이 와서 아뢰기를, “성숙(成俶)이 마음대로 민정(民丁)을 징발하여 해인사(海印寺)를 수리(修理)하였으니, 죄를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일이 사전(赦前)에 있었으므로 죄를 줄 수 없다.” 하였다

성종20(1489)년 10월 4일(무자)

대사헌(大司憲) 이세좌(李世佐)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해인사(海印寺)의 일로 사헌부(司憲府)의 탄핵(彈劾)을 받았었습니다. 그 때의 집의(執義) 이종윤(李從允)과 지평(持平) 민이(閔頤)가 그대로 있는데 신이 지금 같은 관원이 되는 것은 마음에 진실로 미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종윤 등을 모두 바꾸어 임명하라.하였다.

성종21(1490)년 4월 13일(을미)

앞서 합천군(陝川郡) 임내(任內) 야로현(冶廬縣)의 월광사(月光寺)는 오랫동안 그 터를 묵혀 두었고 절에 속했던 토전(土田)은 향교(鄕校)의 학전(學田)에 귀속된지 오래 되었다.

중[僧] 학조(學祖)가 해인사(海印寺)의 판당(板堂)을 중수(重修)하는 일로 인하여 월광사(月光寺)에 왔다가 그 터와 토전(土田)이 비옥한 것을 보

고 욕심이 나서 동군(同郡)에 사는 중 도인(道仁)을 사주(使嗾)하여 본사(本寺)에 살면서 그 땅에 농사짓도록 하였다. 교생(敎生)들이 금지시키자 또 해인사의 중으로 하여금 관찰사(觀察使)에게 장고(狀告)하게 하여 말하기를, ‘훈도(訓導)가 유생(儒生)들을 거느리고 몽둥이를 들고서 큰소리로 떠들며 본사(本寺)에 들어와 침해하니, 청컨대 국문(鞫問)하여 죄주소서.’ 하였으므로, 관찰사가 그 고장(告狀)을 초계(草溪)에 회부하여 국문하였다.

훈도(訓導) 남계명(南季明)이 사헌부(司憲府)에 가서 호소하니, 본부(本府)에서 이문(移文)하여 중을 국문하게 하였다. 그런데 초계 군수(草溪郡守)가 학조(學祖)는 국문하지 않고 단지 도인(道仁)만 국문하였으며, 또한 경지를 빼앗은 정상을 끝까지 추국(推鞠)하지도 않았었다.

이때에 이르러 지평(持平) 최호(崔浩)가, 학조(學祖)가 학전(學田)을 억눌러 빼앗은 연유를 국문하도록 청하였으나, 국문하지 말고 그 땅을 월광사(月光寺)에 도로 귀속시키도록 명하였다.”

성종21(1490)년 4월 23일(을사)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유순(柳洵) 등이 차자(筭子)를 올려 말하기를, “신 등이 누차 경연(經筵)에서 월광사(月光寺)의 전지를 환속시키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일을 힘써 진술하였으나, 윤희를 받지 못하였으니, 신 등은 그욕이 의혹됩니다.

전지가 많지 않으니, 불승(佛僧)에게 주나 유생(儒生)에게 주나 큰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학전(學田)을 빼앗아서 중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오도(吾道)와 이단(異端)이 성(盛)하고 쇠퇴하는 연유가 되므로, 분변(分辨)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끝내 입다물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개 학전은 유생(儒生)의 사사로운 소유가 아니고 공전(公田)인데, 중들이 어찌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믿는 바가 있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전지가 합천(陝川)의 속현(屬縣)인 야로현(冶廬縣)에 있어, 야로현의 현리(縣吏)가 중들이 전지를 빼앗은 연유를 갖추어 군(郡)에 치보(馳報)하였으니, 군수(郡守)가 된 자는 중들이 전지를 빼앗은 죄를 다스려서

향교에 전지를 돌려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군수(郡守) 김영추(金永錘)는 바로 학조(學祖)의 아우이기 때문에 고의로 두고 묻지 않았습니다. 해인사(海印寺)의 권주승(權住僧)과 와요승(瓦窑僧)이 그 전지를 나누어 점거하였으니, 비록 도인(道仁)의 이름을 빌렸으나 실상은 학조(學祖)의 소행입니다.

학조가 터무니 없는 말로 남을 속여서 빼앗아 점거한 죄는 마땅히 다스려야 할 바인데, 이제 가뭄을 근심하여 죄수를 풀어주는 때라고 하여 석방하였습니다.

그 학전(學田)을 절에 주는 일 같은 것은 오도(吾道)의 성하고 쇠퇴함에 관계됨이 있는데, 주고 빼앗음이 방법에 어그러진 것이 이보다 큰 일이 없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성명(成命)을 속히 거두시어 그 학전(學田)에 환속(還屬)시켜서 오도(吾道)를 굳건하게 하신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이미 감사(監司)로 하여금 그 전자의 근본 원인을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으니, 시행함에 마땅하게 처리하겠다.” 하였다.

성종22(1491)년 3월 5일(신사)

박한주가 또 아뢰기를, “중 학조(學祖)가 해인사(海印寺) 중창(重創)하는 일 때문에 합천군(陝川郡)에 머물고 있으면서 학전(學田)을 빼앗으려고 도모하여 훈도(訓導) 남수명(南秀明)과 소송을 하는데, 그가 감사(監司)에게 보고한 글에 이르기를, ‘해인(海印)·삼강(三剛)은 추고(推考)하는 일이 되고……’ 하였으니 거만하게 법을 멸시하는 것이 여기에 이르렀으며, 지금 군수(郡守) 영추(永錘)는 바로 학조의 동모(同母) 아우입니다.

그래서 빈객(賓客)이 군(郡)에 들어오면 학조가 나와서 대답하고 군수를 부르며, ‘저 아이가 마땅히 나와서 볼 것이다.’ 고 한다 하니, 청컨대 영추를 체임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학조 때문에 수령(守令)을 체임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종22(1491)년 3월 13일(기축)

박한주가 또 아뢰기를, “성상(聖上)께서 날마다 경연(經筵)에 나아가시

어 성리(性理)의 학문을 강론(講論)하며 밝히시고, 이단(異端)을 배척(排斥)하십니다. 그리고 또 세자(世子)의 학문이 한창 진보되고 있으므로, 전하께서 하시는 것은 모두 보고서 법으로 삼을 것이니, 이것은 바로 계교를 물려주고 법을 전하는 때입니다.

학조(學祖)는 간사한 중으로 이 앞서 합천(陝川)의 학전(學田)을 빼앗고 감사(監司)에게 이문(移文)하여 그 훈도(訓導)를 가두게 하였으며, 지금은 해인사(海印寺)의 중창(重創)을 인하여 합천에 있는데, 그의 동생이 군수(郡守)가 되어 법에 어긋나는 일을 많이 행하니, 청컨대 그의 동생이 다스리는 지역 안에 살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종조(祖宗朝)에 창건한 절을 그 무리로 하여금 스스로 수리하게 하여 허물어지는 데 이르지 않게 하려 하니, 백성의 힘을 부리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중의 무리를 형세로 보아 모두 도태시키는 것이 불가하다면 이 중에게만 해인사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슨 이로움이 있겠는가? 내가 이단을 숭상하지 않는 것은 나라 사람들이 아는 바이다.

저 중이 <법을> 범하는 것이 있으면 관찰사(觀察使)가 규찰(糾察)할 수 있을 터인데, 제가 어떻게 법에 어긋나는 짓을 방자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종23(1492)년 6월 13일(임자)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민이(閔頤)가 아뢰기를, “전하(殿下)께서 일찍이 불도(佛道)를 숭상하여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인사(海印寺)를 중창(重創)하느라고 공역(工役)이 매우 막중(莫重)하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흥천사(興天寺)를 수리하느라고 관원(官員)으로 하여금 역사(役使)를 감독하게 하기에 이르니, 신 등은 전하께서 불도를 숭상하지 않는 사실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신 등이 근일(近日)에 서연(書筵)에 입참(入參)하여 세자(世子)의 학업(學業)을 보니, 전일(前日) 읽었던 책을 익숙하게 읽지 못할 뿐만 아니

라 또 착오된 곳이 많았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근일에 주강(晝講)과 석강(夕講)을 중지하여서 비록 이해하지 못하는 곳이 있어도 때때로 강구(講究)하여 질정(質正)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조강(朝講)에서 비록 질정하기는 합니다만, 어찌 항상 요속(僚屬)을 상대하면서 의심나면 곧바로 묻는 것만이야 하겠습니까? 전일(前日) 시강원(侍講院)에서 주강과 석강을 다시 시작할 것을 청하였으나 성상(聖上)께서 흑심한 더위에 병이 날까 염려된다고 하셨습니다.

신의 생각으로서는 만약 예복(禮服)을 갖추어 입고 빈객(賓客)과 사부(師傅)를 만나 본다면 과연 성상의 하교(下教)와 같겠지만, 의심이 나는 곳을 편복(便服) 차림으로 요속을 대한다면 비록 하루 종일 함께 거처하며 담론(談論)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여깁니다.

세자께서 춘추(春秋)가 어리지 않으시니, 마땅히 촌음(寸陰)을 아끼면서 학문을 부지런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고원위(高原尉) 신항(申沆)의 집은 이미 높고 웅장한데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겨서 또다시 바깥 행랑(行廊)을 짓는데, 더욱 굉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사(家舍)의 칸수와 규모는 이미 정해진 제도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아랫사람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제군(諸君)들의 제택(第宅)은 높고 웅장하게 하기를 힘써서 참람함이 궁궐(宮闕)에 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강원도(江原道)의 물가에 있는 재목(材木)은 다 베어 오고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만약 궁궐을 수리하게 된다면 장차 어떻게 가져다 쓰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해인사의 일은 그대들이 어찌 들은 바가 없겠는가? 이는 내가 하라고 한 것이 아닌데, 나에게 불도를 숭상하고 믿는다고 하니, 이는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다.

흥천사는 우리 조종조(祖宗朝)에서 창건한 것인데, 태종(太宗)께서 사사(寺社)를 혁파(革罷)하면서도 양종(兩宗)은 그대로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수리하는 것은 진실로 유익함이 없는 것이니, 마땅히 중지시켜야 하겠다. 세자가 주강(晝講)과 석강(夕講)을 중지한 것은 더위가 두려워서이다.

그대의 말이 편복으로도 요속(僚屬)을 접견(接見)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말은 매우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다. 비록 내가 소신(小臣)을 만나볼 때라도 오히려 예복(禮服)을 갖추는 것은 감히 태만한 태도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인데, 더구나 세자가 어떻게 편복 차림으로 서연관(書筵官)을 대할 수 있던 말인가?

고원위(高原尉)의 집은 내가 마땅히 사람을 시켜서 가보게 하고, 과연 제도에 지나쳤다면 즉시 헐어버리도록 하겠다. 제군(諸君)의 집이 웅장하고 화려한 데 대해서는 내가 이미 자세히 유시(諭示)하였다. 아들을 위해 집을 짓는 데 대해서는 그 일도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즐겨 토실(土室)을 지어서 아들을 살게 하고 싶겠는가? 이번에 짓는 휘숙 옹주(徽淑翁主)와 안양군(安陽君)의 집은 모두 내수사(內需司)의 면포(綿布)로써 재목(材木)을 사다가 한 것인데, 어찌 백성에게 폐단을 끼친 것이겠는가?

그대들이 강원도(江原道)의 재목이 두 집을 짓느라고 다 없어졌다고 하는데, 무릇 백성의 집을 지을 때에 쓰는 재목은 어디에서 가져오기에 그렇게 말하는가?” 하므로,

민이가 아뢰기를, “제군(諸君)의 집이 상당히 높고 큰데, 그렇게 하기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반드시 재목이 바닥이 날 것이므로, 이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의 말은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고원위의 집이 과연 제도에서 벗어났다면 반드시 헐어버리도록 명하겠다. 고원위는 나이 어리고 어리석으므로, 반드시 그 집의 노복(奴僕)들의 소행일 것이다.” 하였다.

연산4(1498)년 7월 12일(병오)

김일손의 공초한 것을 홍사호 등이 서계하기를, “이극돈이 나를 원망한다는 사실은 동복형(同腹兄) 김준손(金駿孫)의 사위 고 진사(進士) 이공권(李公權)이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 손주(孫澍)에게 듣고서 신에게 말을

전한 것이고, 사초에 ‘중 학조(學祖)가 능히 술법으로 궁액(宮掖)을 움직인다.’ 한 것은, 대개 해인사(海印寺)는 본시 차정(差定)된 주지(住持)인데 학조가 내지(內旨)를 칭탁하고 그 권속으로써 노상 지음(持音)을 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또 ‘대가(大家)와 상통한다.’ 한 것은, 학조가 광평 대군(廣平大君)·영응 대군(永膺大君)의 전민(田民)을 많이 얻었기 때문이고, 또 이른바, ‘영응 대군 부인 송씨가 군장사(窶長寺)에 올라가 법(法)을 듣다가 시비(侍婢)가 잠이 깊이 들면 학조와 사통을 했다.’ 는 것은 박경(朴耕)에게 들었다.’ 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선조27(1594)년 2월 20일(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난날 각진(各陣)에서 얻은 조총(鳥銃)은 모두 원수에게 보내어 태반이 중국군의 요구에 응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진(戰陣)에서 얻은 조총은 함부로 허비하지 말고 낱낱이 거둬들여 각진의 군사가 날마다 배워 익힘으로써 점차 재능을 이루어 한 사람이 열 사람을 가르치고 열 사람이 백 사람을 가르치게 하되, 그 가운데 특이한 자는 이름을 적어 계문(啓聞)하여 금군(禁軍)에 제수하기도 하고 혹은 면천(免賤)도 함으로써 전습(傳習)하는 길을 넓히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듣건대 항복한 왜인(倭人)이 항상 말하기를, ‘우리 나라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 싶으나 뒷날 죽임을 당할까 두렵다.’ 고 한답니다. 이 왜인에게 귀순한 공으로 특별히 사맹(司猛)의 고신(告身)을 주어 그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데에 힘쓰게 한다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승장(僧將) 유정(惟政)은 바야흐로 의령(宜寧)에 주둔해 있으면서 이미 그 근처에 대략이나마 보리를 파종하여 군량에 대비하였으며, 또 경상우도 총섭승(總攝僧) 신열(信悅)은 각 사찰의 위전(位田)에 보리 종자를 파종하였고, 가야산(伽倻山)해인사(海印寺)에서 궁전(弓箭)을 만든다 합니다.

또 듣건대 신열이 이끄는 승군(僧軍)은 모두 장정(壯丁)으로 경종(耕種)한 여가에 화포(火砲)를 교습(教習)한다 합니다. 각처의 제장들은 이에 생

각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 승군들만은 이러하니 매우 가상합니다.

다만 화약과 화포를 갑자기 마련하지는 못할 듯싶습니다. 경상 좌·우도와 전쟁을 치룬 호남에서 조총과 승자 총통(勝字銃筒)을 거두어 각진의 여러 군사에게 나누어 가르침으로써 재능을 이루도록 기약하고, 곳곳마다 염초(焰硝)를 많이 구워 부족하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의 급선무입니다.

이러한 사연을 도원수(都元帥)와 경상 좌·우도의 병사(兵使)·수사(水使)·방어사(防禦使)·조방장(助防將) 등에게 행이(行移)하여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28(1595)년 11월 1일(기사)

접반사 김수(金睟)가 치계하기를, “본월 19일에 중국 사신이 해인사(海印寺)에 당도하였는데 이원익(李元翼)도 가서 문후하였습니다. 신이 사은(謝恩)하는 것의 합당 여부에 대해 비변사에서 말한 두 조목의 의사로써 이원익과 같은 사연으로 품고(稟告)하였더니, 처음에는 ‘이반(二班)이 이미 떠나간 의사로 먼저 사은하고 청정(淸正)이 떠나간 뒤에 큰 사은을 하는 것이 해롭지 않다.’ 하였습니다.

다시 ‘청정이 떠나간 뒤에 우선 사은하고 노야(老翁)가 바다를 건너간 뒤에 크게 사은하겠다.’ 는 의사로 완곡한 말로 넉지시 물어보았더니, 중국 사신이 ‘역시 것처럼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선조31(1598)년 5월 2일(병술)

상이 이르기를, “모두가 직무상의 본분인데 무슨 공로가 있다 하겠소이까. 그러나 대인께서 명하시니 마땅히 참작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소이다.” 하고, 상이 승지에게 묻기를, “총병의 접반사(接伴使)에 대해서도 시상하는 법규가 있는가? 전례를 상고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총병이 말하기를, “현재 일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니 지금이 바로 인재를 등용할 시기입니다. 제가 해인사(海印寺) 등지에 머물러 방어하고 있었으므로 왜적이 범접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하지 않았더라면 군량은 반드시 대부분 산실(散失)되었을 것입니다.

군사를 거느린 총병의 접반사는 모두 상전(賞典)을 받았는데, 저는 원임 총병(原任總兵)이란 이유 때문에 배신이 아직까지 상전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행하시지 않는다면 잘못되는 점이 많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참작하여 명한 대로 따르도록 하겠다고 답하였다.

효종10(1659)년 3월 28일(기미)

경상도합천군(陝川郡)해인사(海印寺)의 불상과 석탑(石塔) 및 대장경 판본(大藏經板本)이 3일 동안 땀을 흘렸다. 대구부(大丘府)공산(公山)에 있는 모든 절의 불상도 땀을 흘렸는데, 관찰사가 계속해서 알렸다.

영조38(1762)년 4월 23일(병술)

인평군(仁平君)이보혁(李普赫)이 졸(卒)하였다. 이보혁의 자(字)는 성원(聲遠)이니 용인(龍仁) 사람이다. 젊어서 음사(蔭仕)로 진출하여 무신년에 성주 목사(星州牧使)로서 조성좌(曹聖佐)가 합천군(陝川郡)을 함락시킬 때를 당해 감사 황선(黃璿)이 우방장(右防將)으로 차출하여 고령(高靈)·지례(知禮)·거창(居昌) 세 고을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토벌하게 하였는데, 해인사(海印寺)에 적을 따르는 두 종이 있어, 철묵(哲墨)은 적승(賊僧)의 대장(大將)이 되어 승군(僧軍)을 수습해 장차 그 후원이 되려 했으며, 해림(海琳)은 적 조성좌와 친밀해서 군장(軍裝)을 모아 거창의 적에게 바친 자라는 정보(情報)를 들었다.

이런 것을 상세히 염탐하고 10여 리를 행군하였는데, 두 종이 와서 보기를 청하였다. 그래서 진중(陣中)에 두었더니, 두 종이 공을 세워 속죄하기를 애걸하였다.

이보혁이 해림을 적진으로 보내어 전령(傳令)을 주어 적(賊)에 빠진 장교(將校)들에게 두루 보여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였다. 마침내 금양역(金陽驛)으로 진군하여 적과 강을 사이에 두고 대진(對陣)하였는데, 밤에 여러 장교들이 적괴(賊魁) 조성좌 등을 사로잡으니, 합천이 평정되었다.

책훈(策勳)하기에 이르러 인평군에 봉해졌는데, 그때 이준휘(李儁徽)란 자가 그 아버를 위해 공(功)을 호소했으나 조정에서 그대로 두고 묻지 않았다.

광주 부윤(廣州府尹)·양도(兩道) 관찰사(觀察使)를 거쳤고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발탁되어 관위가 1품(品) 판서(判書)에 이르러 병으로 졸하니, 이때 나이 79세였으며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전교하기를, “이보혁은 대려(帶礪)의 훈신(勳臣)으로 충근(忠謹)한 마음을 내가 평소에 알고 있었다. 복록(福祿)을 후세에 전해야 하니, 두 아들과 두 손자를 임용하라.

또 시반(侍班)에 있었고 팔순(八旬)이 명년인데 비록 보단(報單)은 없었지만 문득 그 아들이 부(符)를 바친 것을 들었다. 아! 중신은 관대하고 온화했으며 이제 임종(臨終)하였는데 정말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니 아픈 마음을 어찌 다 유지하겠는가?

제문(祭文)을 마땅히 지어 내려 4일째 날에 예관(禮官)을 보내 특별히 치제(致祭)하고, 관재(棺材)는 해조로 하여금 가려 보내게 하며, 무릇 제반 범절은 한결같이 영성군(靈城君)의 예에 의해 거행하라.” 하였다.

6.2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효종10(1659)년 3월 29일(경신)

慶尙監司書目, 陝川呈, 以海印寺佛像石榻大藏經板子, 自今月初六日巳時, 汗流如水, 變異緣由事。

현종원(1660)년 3월 14일(기사)

慶尙監司書目, 陝川呈。以海印寺五百四十三間燒燼事。

영조5(1729)년 1월 21일(병인)

從事幕府進兵討賊, 何時往于賊陣, 而至於海印寺說哲默之名, 道臣亦以此按問狀聞, 則言之無狀益著矣。

영조5(1729)년 2월 5일(경진)

又以左邊捕盜廳言啓曰, 卽接嶺南別遣按覈使吳光運密關, 則今此大丘獄事, 陝川海印寺僧哲默處, 有急時推問事, 而聞哲默上去京寺, 掩捕押送云。故別定軍官, 多般譏察, 今已捉來, 莫重罪人, 不可遲滯, 急急下送, 而此僧年老肥大, 難於行步, 本廳軍官領去時, 令各邑出給刷馬定軍人, 次次押送之意, 敢

啓。傳曰，知道。

영조5(1729)년 3월 6일(경술)

其人嫌於此，乃敢做出兇言曰，監司爲御史時，二月晦·三月初，往參海印寺十二守令之會。又做出兇言曰，往往居昌·素沙之賊陣，乃自唱自和，恍惚閃翻，使不知出於那處，而必欲人聞之，必欲人傳之，欲日久事遠後，嫁禍之計，巧亦慘矣，何幸其兇言卽泄，而其陷人之計，亦已露矣。儻不然，日久事遠後，此言出則臣豈不危哉？臣於戊申正月之晦，到安東府，至二月初七日，修書啓馳聞，自初七日，至十四日，巡經禮安·奉化·榮川·順興·豐基等郡，十五日踰竹嶺，治丹陽·延豐有罪之吏民。仍暗行于竹山·龍仁等地，三月初九日，到國之新門外，陳章承批後肅謝，而其後過數日，爲問事郎，留闕中三夜，以從事，從都巡撫軍。四月初三日，至金山郡，則嶺南之賊，聞已破矣。以此言之，二月晦，三月初，設有海印寺十二守令之會，非臣在嶺南時，則人雖欲誣臣，其可得乎？況於按覈之後，十二守令聚會等說，都歸虛地，則臣之如是發明，亦近多事，至於在賊陣之說，尤萬萬駭憤。

영조5(1729)년 9월 25일(병신)

上曰，不然矣。荒唐船出來，則銃放矢射，自康熙時，已有定式，而我國土兵甚弱，方其船來也，二三人持旗而出，則彼皆大笑云，然而聚僧則不可，近聞北道言，則居僧甚多，彼國之人，來相混雜，故至有還俗之議，且海印寺亦然，甚可悶也，不必募入，使之多聚矣。

영조17(1741)년 4월 20일(갑인)

領議政金在魯曰，休靜祠，旣在密陽，則陝川海印寺之新建，係是無朝令疊設。而今因本道狀啓，考見禮曹文書，則其時依備局題辭，自禮曹有行關之舉，本道則認以朝令無怪。草溪郡守，以兼官現告，而似無可罪矣。寅明曰，頃年僧人南鵬，以休靜祠，曾在密陽，請得給復之意，來呈備局，故筵稟許之矣。其後又以南鵬名，呈所志，以爲密陽休靜祠，移建陝川，朝家所給復戶，以陝川移給云。故以果如移建，則依施之意，題給禮曹，依備局題辭行關云矣。其後聞之，則以南鵬名呈所志者，初非南鵬之事，密陽旣有休靜祠，而陝川又復設立，朝家所給復戶，互相爭奪云。勿論曲折之如何，陝川便係疊設，宜其禁

斷矣。上曰，備局既已見欺，則守令之見欺，無足怪矣。現告論罪一款，置之，只毀其疊設之祠，可也。

영조20(1744)년 2월 11일(기미)

上曰，嶺南海印寺，有八萬大藏經板本，而吾道則多虛疎，豈不寒心哉？尚魯曰，八萬大藏經，臣雖不得見，而聞其板本，皆加漆，且有異事，烏屎無之云矣。

영조20(1744)년 2월 12일(경신)

上曰，訓義小學，以人人刊去之意，昨已下教於左承旨，而海印寺所存八萬大藏經，高麗能印出，至今留在。此一卷冊刊行，豈難事耶？象漢曰，聞判府事俞拓基之言，八萬大藏經，其時有刊布文蹟云矣。

영조21(1745)년 4월 5일(정미)

左副承旨趙明履曰，自兵曹，出火於五部，使之分送於漢城府矣。上曰，持火去時知委好矣。明履曰，舊火埋之，新火則使出之矣。伽倻山海印寺，尚有新羅時舊火云。上曰，然乎？

영조21(1745)년 10월 10일(무신)

又使所帶哨官河必海，給傳令於海印寺僧將及住持，使之募出僧軍。又逢三嘉軍兵之父母傳餐於其子者，臣父涕泣招諭曰，三嘉軍兵，本屬於陝川，是我軍也。今若示我傳令，勉以忠義，則必感回其心，汝等須面給於傳餐時，俾即轉示把摠。仍書給諺文傳令，蓋三嘉軍兵，爲賊所脅，方在陝川故也。

영조24(1748)년 9월 30일(신사)

上曰，英廟朝，亦有所製，今則無有矣。海印寺，有八萬大藏經尚在云，此雖異端之道，而予則貴之矣。彼亦然矣，而此不如是，亦可歎矣。

영조27(1751)년 7월 17일(신사)

兵曹判書洪啓禧曰，金剛山色，擅名八路，而亦莫如今日之光景矣。上曰，海印寺，何如？左承旨吳彥儒曰，海印亦勝處，而論其泉石，則下於此數層矣。

영조30(1754)년 1월 24일(갑술)

上曰，僧軍能用之，則爲強兵，不然，反爲害。戊申年，海印寺僧，亦動搖云矣。釐正使閔百祥曰，僧軍爲國役甚勤，實大勝於俗漢矣。均役廳堂上洪鳳漢

曰，釐正使義僧之弊，搃戎·守禦，甚厭聞，而於緇徒，則極善政矣。

영조31(1755)년 10월 2일(임인)

御史尹東星曰，販糶四百餘石，留布四同，貿皮楮萬餘斤，浮紙於海印寺矣。上曰，楮結割出事，亦是復祥之所爲乎？東星曰，此則非復祥之所創也。上曰，海印寺在於陝川郡乎？左副承旨蔡濟恭曰，在於其郡，而乃嶺南大刹也。上曰，聞八萬大藏經，在於其寺，而所藏之閣，烏鵲不敢越云，御史見之否？尹東星曰，數次往見，則藏經於七層閣矣。

영조34(1758)년 12월 17일(기사)

上曰，卿等見嶺南海印寺乎？副提調尹東度曰，臣見之矣。上曰，都提調亦見之乎？都提調金尚魯對曰，臣亦見之。上曰，其寺多藏經板云何如？金尚魯曰，板閣六十餘間皆充經板矣。上曰，其上不棲塵埃云，信乎？金尚魯曰，僧言如是，而近於浮誕矣。

영조45(1769)년 5월 17일(무술)

上曰，藏經是海印寺乎？右副承旨徐命善曰，臣待罪陝川時見之，蓋藏經之閣，塵埃不浮，烏鳥不下矣。上曰，異哉。

정조3(1779)년 12월 12일(갑자[임술])

又是啓下公事，則其在奉行之道，尤不容一毫泛忽，而觸事昏憤，不能審察，致此許多冊板之見漏，至承問備之命，惶恐隕越，措躬無地，後錄中通鑑纂要，以歷代通鑑容入，紙地八十八束，入錄於前報，成冊中青泉集板本，年前自營下，移置於陝川郡海印寺，故入錄於該郡書冊秩。

정조8(1784)년 8월 20일(계묘)

柳誼，以刑曹言啓曰，昨日還宮時，慶尚道陝川居僧聖演，擊錚於衛外，故取考其原情，則以爲海印寺之享祀休靜·惟政·靈圭三師，自萬曆庚戌，惟政入寂後爲始，而壬辰休靜，首唱大義，激勸群弟破賊，惟政·靈圭，皆休靜之弟子，惟政糾合義旅，所向無敵，靈圭與故忠臣趙憲，同日起義，錦山之戰，三師盡忠，故宣廟朝特加崇獎之典，賜休靜號曰普濟尊者，惟政號曰弘濟尊者。佛家以入寂之地爲重，故建碑樹塔，英廟戊午，命立祠海印，本道僧南鵬，外飾尊師之名，內懷利己之私，別摹影子，私自立祠，憑此建祠之功，欲專禪統，以

惟政胎生之密陽，爲重立祠，則休靜可享於安州，靈圭可享於公山乎？惟政，以弟子配享於師父，於禮或然，而休靜，以師父，配食於弟子，有悖於義。南鵬暗地設計，海印之表忠，謂以疊設，白地誣訴，終至毀撤，三靈失所，一寺震驚，屢經火劫，髡衲散亡，乞令三師祠宇，移安海印云矣。密陽表忠祠，既是朝家賜額之處，其所創建，已近五十年，到今海印僧徒，或呈巡營，或呈備局，終至於今番擊錚之舉，究厥用意，固已痛駭，事之無嚴，莫此爲甚。原情勿施，自臣曹考律勘處，何如？傳曰，允。

정조8(1784)년 10월 1일(계미)

慶尙道陝川海印寺僧聖演叔鄭基祥代現上言，以爲本縣海印寺·表忠祠，卽休靜·惟政·靈圭，享祀之所，而創祀於萬曆庚戌，賜額於康熙十三年。逮至戊午，立祠海印，賜號表忠，又給復戶五結，以爲香火之資，而本道僧南鵬，煽言密陽是惟政胎生之地，私建影堂於密陽而享之。辛酉因院祠疊設處撤毀之朝令，以海印·表忠，後於密陽，仍爲撤毀，海印創祠，自庚戌至辛酉，爲一百四十餘年，密陽創祠，在於己未，而至辛酉，不過爲三年之間，則海印之以疊設而撤毀，不勝冤迫，亟命有司，還奉三師祠宇於海印本寺云云。陝川·密陽祠院之訟，卽是僧徒之一大戰，京外號訴，不啻屢次，而迄未歸一。取考今年春間禮曹嶺營往復文移，則時道臣，論列前後事實甚詳，多主海印移建之論，而以其密陽建祠之既係年久，且經筵稟，非本道所可擅許爲言，其不可輕易變通之狀，亦可推知，毋論陝川與密陽，自朝家，許以建[建]祠，永示表獎則一般，不必較挈於地之彼此，置之。

순조원(1801)년 12월 26일(무진)

及到潤協家酬酢時，適因言端，吐陳本情是乎祿，今年春間，雖有海印寺玩景之行，而不往萬水洞，由居昌路，直爲回還是乎祿。故吾亦有隨入之計，姑留弟於正學家，先爲出來是如是加尼，追聞姜膺一，挾營妓留連海印寺，重被兵營罪責云，故因其來訪。

순조8(1808)년 2월 7일(계유)

前慶尙監司尹光顏曰，密陽表忠祠，卽壬辰義僧休靜·惟政·靈圭享祀之所，而肅廟朝賜額給復者也。當初休靜·惟政所居之寺，卽陝川之海印寺，而剃髮

超骨，俱在是寺，浮屠影閣，亦在是寺。故海印曾爲建祠，而妖僧南鵬，乃以密陽爲惟政父母墓鄉之故，請建於密陽，先蒙給復賜額之典，而海印所建之祠，反以疊設見撤，一道僧俗，皆歎其建祠之失所。故判書鄭益河按道時，至陳疏請設於海印，而以疊設之禁方嚴，未得施行矣。昨年密陽表忠祠，忽遭妖火之變，一年內被燒，至近百次，至於影像燒燼之境。今則三僧祠板，勢難仍享於其處，遠近緇徒，一辭呈訴，皆請移設本祠於海印。蓋本寺[祠]之宜建於海印久矣，而特因密陽祠之先蒙賜額，未得更設於海印，到今事勢，旣不得不移建，則自與疊設有異，朝家亦不必靳持，密陽表忠祠，特許移設於陝川之意，分付本道恐好，故敢此仰達矣。上曰，移設事重，令廟堂稟處之，可也。

순조8(1808)년 2월 30일(병신)

左議政李時秀曰，卽見前慶尙監司尹光顏舉條則以爲，密陽表忠祠，卽壬辰義僧休靜·惟政·靈圭享祠之所，而肅廟朝賜額給復者也。當初休靜·惟政之所居，卽陝川海印寺，故僧爲建祠，而其後因僧南鵬，乃以密陽，爲惟政父母之墓鄉，請建於密陽，海印建祠，反以疊設見撤矣。昨年表忠祠，忽遭火災，一年內被燒，至近百次，至於影像燒燼之境，則三僧祠板，勢難因享，故遠近緇徒，皆請移設密陽表忠祠，特許移設於陝川爲辭，而批旨內，移設事重，令廟堂稟旨處之，可也事，命下矣。數百年基址，亦難遽變，移設當否，令新道臣，廉探爛商，論理報來後，更爲稟處，何如？上曰，依爲之。

순조8(1808)년 11월 12일(계유)

自前賜額之祠，每有給復之例，令該曹照例施行。其一，表忠祠移設於海印寺事也。

6.3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영조17(1741)년 4월 21일(음)

또 아뢰기를 “휴정사(休靜祠)가 이미 밀양(密陽)에 있는데 합천(陝川) 해인사(海印寺)에 새로이 지음은 조정의 명령 없이 이중으로 설치한 일입니다. 지금 본도의 장계로 인하여 예조 문서를 상고해 보면 그때 비변사의 제사(題辭)에 의하여 예조에서 관문을 보낸 일이 있고 본도에서는 이를 조

정의 명령으로 보았으니 괴이쩍을 것이 없습니다.

초계(草溪)군수는 검임관으로서 현고하였으나 죄를 줄만 한 일이 없을 듯 싶습니다.” 하매, 좌의정 송인명이 아뢰기를 “근년에 중 남봉(南鵬)이 휴정사(休靜祠)가 밀양에 있어 복호(復戶)를 받고 싶다며 비변사에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연석(筵席)에서 여쭙고 허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또 남봉의 명의로 소지(所志)를 내어 이르기를 ‘밀양의 휴정사를 합천으로 옮겨지었으니 조정에서 지급한 복호를 합천으로 옮겨 지급해 달라’ 고 하였으므로 과연 옮겨지었다면 그리 시행하라고 제급(題給)하였고 예조에서도 비변사의 제사에 의하여 관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 들으니 남봉의 명의로 소지를 낸 자는 애초에 남봉이 아니었습니다. 밀양에 휴정사가 있고 합천에 또 설립하였으니 조정에서 지급한 복호를 서로 빼앗으려 하였다고 합니다. 곡절이 어떠한은 말할 것도 없고 합천의 경우 이중으로 설치한 일이므로 금지시키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비변사에서 속임을 당하였으니 수령이 속임을 당한 것은 괴이할 것이 없다. 현고에 죄를 논하는 문제는 내버려두되 이중으로 설치한 사원만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영조23(1747)년 4월 16일(음)

형조참판 정익하는 말하기를, “이것은 명칭은 외수¹¹⁵⁾ 일지라도 실지는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쓰는 종이는 모두 영남에서 나오기 때문에 공인들은 매년 쌍계사(雙溪寺)와 해인사(海印寺) 등 여러 절의 지승(紙僧)과 약정을 하고 사들이는데, 서울에서 값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어찌 운반해 가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아람을 들으니 외수에 가까운데, 이는 대동의 예로 행한 지 오래라 하니 허용하되, 기타 외수는 모두 금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정조8(1784)년 10월 1일(음)

115)외수 : 지방에서 공물을 바치고 선혜청에서 대동(大同)으로 공가를 받는 것.

경상도 합천(陝川) 해인사(海印寺)의 승(僧) 성연(聖演)의 아저씨 정기상(鄭基祥)이 대신해서 상언(上言)하기를 “본헌 해인사의 표충사(表忠祠)는 곧 휴정(休靜)·유정(惟政)·영규(靈圭)를 향사(享祀)하는 곳으로 사당이 창설된 것은 광해2(1610)년이고 현종15(1674)년에 사액(賜額)되고 숙종4(1678)년에 사당을 해인사에 세우고 사호(賜号)하기를 표충(表忠)이라 했습니다.

또 복호(復戶) 5결(結)을 급부하여 향화(香火)를 받드는 바탕으로 삼았는데 본도의 승(僧) 남봉(南鵬)이 밀양(密陽)은 유정이 태어난 곳이라 선동하고 사적으로 밀양에 영당(影堂)을 세우고 제사지냈습니다.

영조 17(1741)년에 서원(書院)이나 사당(祠堂)이 첩설된 곳은 훼철(毀撤)하라는 조정의 명령으로 해인사의 표충사가 밀양보다 뒤졌다고 해서 이 어 훼철됐습니다.

해인사에 사당이 창설된 것이 1610년에서 1741년까지 1백 40여 년이고 밀양에 사당이 처음 세워진 것은 영조15(1739)년인데 신유년까지 3년간에 불과하니 해인사의 표충사를 첩설이라 하여 훼철하는 것은 원통하고 박절함을 견딜 수 없으니 속히 유사(有司)로 3사(三師)의 사우(祠宇)를 해인사로 환봉 운운하였습니다.

합천과 밀양의 사원송사는 곧 승도들의 하나의 큰 싸움으로 경외(京外)에 호소하는 것이 여러 차례 뿐만이 아닌데 아직도 한 곳으로 귀착되지 못했습니다. 금년 봄에 예조와 경상감영 간에 오고간 공문을 취해 고찰하면 그 때 도백이 전후사실을 논열한 것이 매우 상세하고 해인사로 옮겨 세우자는 주장이 많았는데 밀양에 사당을 세운 지 오래됐고 또 연품(筵稟)을 거친 것이라 본도에서 마음대로 허락할 수 없다고 말하니 가볍게 변통할 상황이 못 된다는 점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합천이건 밀양이건을 물론하고 나라에서 사당 세우기를 허락해서 길이 표장(表獎)의 뜻을 보이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지역이 이쪽이나 저쪽이나를 교계(交契)할 필요는 없으니 덮어 두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詩：191) 해인사일주문차임석천운(海印寺一柱門次林石川韻)

倦步隨流水 沈吟到夕曛 山門秋興足 紅葉落紛紛

[圭南文集 河百源]

編者略歷

法雲 柳基松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農工學科卒(學訓團1期)

建國大學校 大學院 農工學科卒(碩士)

大韓佛教曹溪宗디지털大學 信徒專門教育過程卒

前)農漁村振興公社 研究委員(技術士)

安養文化院 郷土文化研究所 研究員[2011~2013]

現)韓國農村研究院 顧問

全州柳氏季允公派宗親會 理事

編著 土質調查試驗 基礎常識[1995년]

實務者를 위한 土質工學[2004년]

불교의 첫걸음[2009]

禪宗首刹 奉恩寺 古文獻集[2012년]

教宗首刹 奉先寺 古文獻集[2012년] 等 多數

古文으로 보는
海印寺의 足跡

編輯日：2017. 11. 29.

編者：法雲 柳基松

編輯處：傳統寺刹研究會

住所：京畿道 安養市 東安區 冠岳大路 121

108-903 [飛山三星來美安]

電話：010-6303-3125

非賣品